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3

검 단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 단

발간사



신성하고 비옥한 땅 인천 서구 검단은 김포평야와 인접하고 서해와 한강 유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풍부한 생태환경 덕택으로 검단에는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대곡동의 100여 기가 넘는 고인돌을 비롯하여 최근 검단 신도시 조성을 위한 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이 그 증거일 것입니다. 또한 집성촌을 중심으로 한 자연마을들이 현재까지 남아있어 근현대사의 여러 이야기를 간직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인천 서구의 마을들은 대규모 간척사업과 도시개발 등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옛 모습을 점차 잃어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민중들이 거주하고 생업을 영위하는 생활공간이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활 문화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생활공간이라 할 수 있는 마을의 형성과 변천을 조사하고 그 안의 사람들과 생활문화를 조명함으로써 과거와 현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미래를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인천서구문화원은 서구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기록하고 알리기 위해 향토지 발간 및 조사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시리즈 역시 그 정신을 이어가는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 하였습니다. 서구 관내의 여러 마을을 발굴 조사하여 도시개발로 변해온 내 고장 서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현재 마을을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함께 옛 마을 모습, 지역 어르신만이 알 수 있는 마을 이야기를 구술·채록하여 교육 및 연구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마지막 편인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검단』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마을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과정을 소개하고 근현대 도시화를 통해 변화된 생활문화를 에세이 형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이어서 각 마을의 문화유산과 인물을 소개하고, 마을과 사람들의 이야기 들을 나누며 검단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검단의 연표를 통해 역사문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를 통하여 사라져가는 인천 서구 마을의 옛 모습을 기억하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역공동체의 복원과 인문·사회 환경을 고려한 지역 재생의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저희 인천 서구문화원은 향토문화유산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 사업을 기획하여 ‘문화로 사람이 아름다운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장 **정군섭**

목 차

프롤로그

7

I. 검단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7

- 1. 자연과 지리 18
-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22
 - 1) 탄생과 변천
 - 2) 행정동의 연혁
 - 3) 지명유래

II. 검단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49

- 1. 문화와 풍습 50
 - 1) 검단지역의 언어-검단방언
 - 2) 동제
 - 3) 여가생활-금강산 기행
- 2. 사회와 환경 72
 - 1) 여래마을 모내기
 - 2) 독정마을 풍경
 - 3) 안동포 고기잡이
 - 4) 대촌마을 대홍염전

3. 교육과 행정	90
1) 검단초등학교	
2) 창신초등학교	
3) 단봉초등학교	
4) 검단면사무소	
4. 산업	99
1) 수도권매립지	
2) 경인아라뱃길	
3) 검단산업단지	
4) 검단신도시	

Ⅲ. 검단의 문화유산 113

1. 시 지정문화재	116
1) 기념물	
2. 비지정문화재	126
1) 유물산포지	
2) 묘지	
3) 기타	

Ⅳ. 검단의 인물 149

1. 전주 성씨들	150
2. 전근대 인물	154
3. 근현대 인물	169

1. 옛이야기 182

- 1) 두밀마을 은행나무
- 2) 하룻밤 사이 부화된 달걀
- 3) 불로장생의 약초를 캔 만수산
- 4) 폭풍을 이긴 안동포의 도사공
- 5) 좌동 호수와 상무지 포구
- 6) 천하장사 이백산, 복산 형제
- 7) 계양산에 왕좌를 빼앗긴 분틀메
- 8) 오류동 회화나무

2. 우리 동네 이야기 193

- 1) 마전동 여래마을 87년의 역사, 검단초등학교
- 2) 금곡동 우리 시대의 기억저장소
- 3) 오류동 서해 문화의 새로운 디딤돌
- 4) 왕길동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
- 5) 당하동 반가운 소식이 오가는 동네
- 6) 원당동 향토자산의 보고
- 7) 불로동 차향^{차향}을 품다
- 8) 대곡동 사람이 나고 자라 다시 돌아가는 곳

3. 직접 듣는 이야기 281

- 1) 쇓골마을 토박이, 이균홍
- 2)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20년, 당하초등학교 하송화 선생님
- 3) 대곡동 고인돌 이야기, 인하대 박물관 박성우 선임연구원



Prologue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프롤로그

프롤로그^{prologue}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는 공공기관 중심의 실적 통계나 도시 발전의 성과 등을 나열해 도시의 역사를 기술하려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전통마을들이 도시 확장에 따라 피동적으로 도시에 편입되어 옛 마을의 정취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리고 도시 개발로 인해 도시 속에 섬처럼 남은 마을들이 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리 조상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해 마을이나 지역의 ‘전통, 개성, 정신적 가치, 가치관, 우주관 등 유무형 유산의 총체인 문화’를 탐구해 지역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오늘을 사는 우리가 삶의 지혜를 얻는 동시에 사회 재생산에 기여할 방안을 찾기 위함이다. 또한 인간의 물질적·정신적 성과를 종합하는 서술이나 사실·사건·존재의 전말을 밝히는 서술과는 다른 출발선에 있으며 지향점 역시 달라야 할 것이다.

문화와 언어

그렇다면 ‘문화’란 무엇인가? 인간에 관해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가 ‘인류학’이며, 인류학의 핵심 개념이 바로 ‘문화’인 바, 문화는 인간과 다른 종의 동물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인간은 문화를 가진 유일한 동물’이며 ‘문화란 한 인간집단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인간이 태어나 어떤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 집단의 언어규범, 주택의 건축 양식, 주거의 환경 구성, 음식의 종류와 조리 방법, 계절별 의복의 제조와 착용, 친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규범과 조상에 대

한 태도, 전통적으로 섬겨온 신(神)에 대한 제의 방법, 전통음악, 세시풍속, 전통놀이 등의 생활양식을 지키고 즐기며 살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생득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태어난 집단 속에서 성장하면서 경험적으로 체득한 것이다. 이러한 생활양식들은 생존에 필수적이고 거부감 없이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소속된 집단의 전통, 규범에 따라 행동하고 성장하며, 그 결과를 언어로 후대에 전수하는 바, 이러한 생활양식을 곧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인류학자들은 오직 인간만이 어떤 대상을 추상화 곧 상징화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며, 이것이 문화의 기초라고 말한다. 인간 이외의 동물의 언어체계로는 사물을 추상화하거나, 수학 개념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곧 대상을 인간의 언어로 상징화하는 능력이 인간 문화의 기초인 동시에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즉 문화는 집단이 공유하며 집단 속에서 학습·축적되고 물질적·정신적인 유산이 융합해 전체를 이루면서 정제되지 않고 구성원이 계속 창조해가는 생동하는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사피어(Sapir)·워프(Whorf)는 “언어가 인간의 사고를 주조(鑄造)한다”고 했다. 이 명제는 인간이 아무리 광대하고 탁월한 상상을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할 언어가 없으면 그것은 한낱 공상일 뿐, 인간의 모든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행동은 언어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다. 인류는 그가 소유한 추상적인 언어로 사물을 분별, 인식하고 무한한 대상들의 기원-본질-범주에 이르는 기제(機制)에 상상력을 동원해 언어로 가설-증명-실현의 과정을 통해 그 답을 궁구해냄으로써 찬란한 문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언어 없이 문명의 발달, 인류가 축적해온 찬란한 문화의 창조·축적·전수는 불가능하다. 집단지역의 문화 역시 집단지역어로 창조·축적·전수되어왔다. 따라서 집단지역어를 배제한 집단문화는 성립할 수 없다.

검단지역 문화의 시작과 발달

2019년 9월 20일 모 일간지에 4만 년 전 시베리아, 우랄 알타이 산맥 부근에 살다 멸종한 ‘데니소바인(人)’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DNA 정보로만 추정한 얼굴 모습이 한민족, 몽골인, 시베리아인,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유사해 친근하게 느껴진다.

예전 우리의 광활한 강역 안에 조상들이 살아온 기원은 현재의 학문 수준으로는 확정하기 어렵다. 평양, 단양 등지의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적어도 70만 년 전의 것으로 알려졌고, 연천 전곡리 유적은 10수만 년 전, 1982년 청주에서 발굴된 ‘홍수아이’는 적어도 4만년 이상 된 어린이 유골의 일부로 밝혀졌다. 한편 알타이어를 사용하면서 알타이산맥 부근에 살던 알타이족의 일부가 동진(東進)해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조상이 된 것은 약 2만 년 전이라고 하므로 수만 년에 걸친 이동으로 이 강역에 집결해 우리의 선조들이 된 것이다.

검단지역 주택개발지구인 원당동, 불로동에서 발굴된 8만 년 전의 구석기, 또한 신석기에서 철기시대에 이르는 유물과 주거유적지, 대곡동 100여 기, 원당동 2기, 불로동에 2기의 지석묘가 분포해 있어 김포지역 중에서도 검단지역에는 이른 시기에 내륙으로 진출한 정착민들이 주거·경작을 시작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위의 사진은 2017년 11월 김포시문화원 주최 학술대회에서 공개된 김포시 운양동에서 출토된 유물들이다. 운양동은 대곡동과 직선

거리 3km 이내에 있다. 강력한 군사력의 상징인 장단 철검과 창, 철부 등과 중부지방에서 거의 발굴된 바 없는 금귀고리의 출토로 대곡동을 포함한 이 일대에 큰 세력집단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대곡동 바로 서편 마을인 쇠골에는 1950년대 후반까지 철광석 등을 캐던 동은(銅銀)터, 가현마을에는 옥광산, 북편 고개 너머 마을인 양촌면 마리미[마산]에는 ‘산골’을 캐던 동(銅)광산이 있었다.

특히 100여 기의 지석묘가 남아있는 대곡동은 아직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않지만 추정컨대 선사시대 유물도 출토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대곡동 일대가 선사시대에 걸쳐 이 일대를 호령하던 세력집단의 중심지가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김포군지』(1993)에 따르면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출토 탄화미(炭化米)는 분석 결과 $4,010 \pm 25B.P$ 의 절대 연도, 즉 기원전 2,000년경의 벼로 밝혀졌다. 따라서 거의 후기 신석기시대부터 김포지역에서 벼농사를 지어온 것이 확인된 바, 검단지역도 이와 유사한 농경역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은 검단지역의 다음과 같은 천혜의 조건 때문이다.

검단에는 전통적으로 ‘높다’는 뜻의 ‘가린산’이라 불려온 가현산(215m)에서 발원한 검단천이 마전, 금곡, 대곡, 불로동의 곡창지대에 용수를 공급해왔고, 계양산에서 발원해 북동류하는 원당천은 당하, 원당동의 수원이 되었다.

일제가 김포방면에 한강제방을 조성(1926년 착공)하고 수리시설을 만들기 전까지는 검단지역이 김포에서 가장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선사시대의 큰 세력집단이 검단지역에 터를 잡고, 좋은 주거환경과 튼튼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김포지역의 맹주 노릇을 해왔을 것으로 추정되거나와 이러한 유물, 유적들과 자연·인문환경들이 융합, 순기능을 하여 검단지역 문화의 큰 축으로 작용해 왔다.

지명 ‘검단(黔丹)’

지명은 한 언어의 어휘체계 안에 속하기 때문에 지명이 작명될 때에는 그 지역의 언어인 지역 방언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지역 특성과 사회성이 반영되는 특수성과 일반 언어의 음운규칙에 맞게 변화하는 언어의 보편성도 갖게 된다. ‘검단’이란 지명을 통해 검단지역의 언어, 사회·문화적 특성 또한 살필 수 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는 경덕왕 때 검포현(黔浦縣)을 김포현(金浦縣)으로 바꾼 기록이 있다. 검포에서 ‘검’은 고유어이며 ‘신’의 뜻이다. 우리의 일상어와 지명에는 ‘검’ 이외에 음성적 유사성으로 ‘감, 곶, 금(검), 고마’ 등으로 파생된 형태와 그 이형들이 다양하게 분화되어 사용되어왔다.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검(儉)’도 천군(天君), 곧 신왕(神王)이며, 천신제 등에서 강신을 기원하며 주문으로 외울 때의 ‘대감’의 ‘감’, 터주신을 의미하는 ‘터줏대감’의 ‘감’, 일본어의 ‘카미[神]도 동의어이다. 한자 표기 ‘黔’은 고유어 ‘검(紺)’을 음차한 것이므로 음이 같거나 유사한 어떤 고유어, 한자로 표기해도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한편, 고대 지명에서 ‘단(丹)’은 단(旦), 탄(呑) 등과 같이 곡(谷)을 의미하는 고유어 표기지만 ‘땅’을 뜻하는 지명으로 보아 무방하다.

위의 논거에 비추어 검단은 신왕(神王) 또는 제사장을 겸한 통치자의 고을(땅)이란 의미이다. 어쩌면 검포란 행정명이 검단에서 유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추정과 함께 ‘검포>김포’의 개정도 ‘신’의 의미장(意味場)에 속하는 지명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김포지역 면의 명칭이 완전하게 기록된 『호구총수』(1789)에 현재의 검단지역에는 검단면(黔丹面: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마산면(馬山面: 대곡동, 불로동), 노장면(蘆長面: 원당동, 당하동)이 편제되어 있었다. 옛 세 개 면의 명칭은 각각 고유어로서 ‘검’

은 ‘신’, ‘말[馬]은 ‘높다, 크다’, ‘갈[蘆]은 ‘머리, 높다’의 뜻이므로 모두 ‘신’과 같은 의미장에 속하는 지명들이다.

위의 여러 근거에 비추어 볼 때 검단지역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시대에 걸쳐 다수의 거주민, 풍부한 수자원으로 식량의 자급자족이 가능하며 강력한 통치조직과 막강한 군사력으로 인근지역을 호령하던 한강유역의 라티움(Latium; 정치, 문화의 중심지)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전통과 미래

검단지역 마을들은 대부분 한두 개 성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으로 구성되었다. 집성촌은 마을이 모두 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이므로 제의, 경조사, 농사 등에 상호부조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전통을 유지해왔다.

세시풍속을 철저히 지켜 설에는 종가에 모여 차례 지내고, 향렬 순서에 따라 친척 집을 돌며 세배하고 음식을 나누며, 초하루부터 보름까지 간지(干支)에 따라 오곡밥, 윷놀이,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액막이 짚 인형인 제웅의 뱃속에 돈 넣어 사람의 왕래가 빈번한 길에 내어놓기 등의 전통 풍습을 지켜왔다.

또한 마을의 안녕, 풍농, 벽사진경(僻邪進慶)을 위해 거의 매년 ‘도당굿’이라 불려온 동제(洞祭)를 지내 마을의 축제를 열었고, 집집마다 가신(家神)을 숭상해온 풍습이 있어 집 뒤뜰에 ‘터줏가리’를 모시고 기원하는 연중행사를 거르지 않았다.

이웃마을과의 결속과 친선을 위한 일들도 빼놓을 수 없다. 농사철 두레패가 이웃마을 두레패를 만나면 서로 ‘농자천하지대본’ 깃발에 머리를 숙여 존경을 표하고 어울려 농악과 춤판을 벌이는 아름다운 모습, 겨울 농한기에는 이웃마을과 논바닥 축구시합, 또는 단봉학교 지역민들과 축구, 배구경기를 통해 소통하며 친선을 다져왔다.

검단지역에 검단학교밖에 없던 1950년대 초까지는 모두 검단학교 동문이었다. 검단, 창신, 단봉으로 나뉜 후에도 세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자연스럽게 김포중·고교로 진학하게 되어 모두 동문이 된다. 그리하여 검단은 우리네 풍토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인 혈연·지연·학연으로 뭉친 까닭에 검단지역민들끼리는 생면부지라도 통성명만하면 한 다리도 건너기 전에 관계가 밝혀질 정도로 한 가족으로 지내왔다.

앞서 기술한 여러 가지 현상과 역사, 생활양식, 전통들이 검단의 문화의 핵심이며, 그러한 문화를 가꾸어온 이면에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생활신조, 곧 이웃과 마을 나아가 전체 지역주민이 서로 융합해 조화롭게 살면서도[和] 각 마을의 정체성[不同]을 지켜온 생활 철학이 든든한 기둥이 되어 검단지역을 지탱해왔다고 할 수 있다.

검단지역이 위와 같은 전통과 문화 특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안주해서는 시대를 앞서갈 문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없다. 과거 지향적 사고를 극복하고 검단의 생활양식과 전통을 상호작용시켜 변화하는 시대와 호흡할 수 있는 로드맵을 구안해야 한다.

검단지역은 1995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어 김포군 검단면이 서구 검단동으로 편제되어 인천, 특히 이웃한 서구와 문화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했으나, 실제로는 1960년대 전반부터 인천 시내버스가 검단지역까지 연장 운행되면서부터 인천지역과 간접적인 문화접촉이 시작되었다.

타 문화권과 문화접촉이 발생하면 일방, 쌍방향으로의 문화전파가 일어나 기존 문화에 창조적 변화를 가져오는 순기능과 어느 한쪽의 문화를 해체하는 역기능 또는 두 문화의 융합현상이 유발된다. 서구와 행정구역 통합 후 한 세대가 다가오는 지금 검단지역과 인천·서구의 문화접촉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탐색해 검단지역 발전에 참고자료로 삼는 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다.

본고는 대략 다음의 담론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I 장 ‘검단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장에서는 자연과 지리, 지명 등을 기술한다. 행정구역의 변천사나 행정동의 연혁보다는 검단의 언어로 작명된 마을의 지명들이 검단지역의 특성이 가장 직접적으로 상징화된 것이라 보아 무방하다. 따라서 검단의 지명은 검단 지역 정체성인 동시에 검단의 문화 그 자체인 것이다.

II 장 ‘검단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는 문화, 사회·환경, 교육·행정, 산업 등을 추적한다. 그중에서 검단방언과 동제(洞祭)는 검단 지역문화의 백미로 한국어가 한민족의 정체성이라면 검단방언은 검단의 정체성이며, 동제는 검단지역의 생존철학이었다.

III 장 ‘검단의 문화유산’은 검단지역 조상들의 험격한 발자취인 바고도(古都)를 품은 지역 이외에서 검단지역에 필적할 유산을 간직한 지역은 찾기 어렵다고 단언할 수 있다.

IV 장 ‘검단의 인물’은 집성촌들로 구성된 검단지역 마을의 성씨들과 그 속에서 가문과 검단을 빛낸 명현거유(名賢巨儒)와 효자(孝子), 열녀(烈女)들의 발자취이다.

V 장 ‘검단 이야기’는 주옥같은 화소(motif)와 유물들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펼쳐 우리의 정서를 정화해준다.

김병욱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Chapter 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자연과 지리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I. 검단의 형성과 역사적 변천

1. 자연과 지리

인천광역시 서구는 한반도 서북부의 해안에 위치한다. 행정구역상으로 북쪽은 김포시, 동쪽으로는 계양구와 부평구, 남쪽은 동구 및 남구 그리고 서쪽은 서해로서 옹진군과 경계하고 있다. 서구는 극동의 원당동(동경 126°43'), 극서의 원창동(동경 126°33'), 극남의 가좌 3동(북위 37°28'), 극북의 대곡동(북위 37°38')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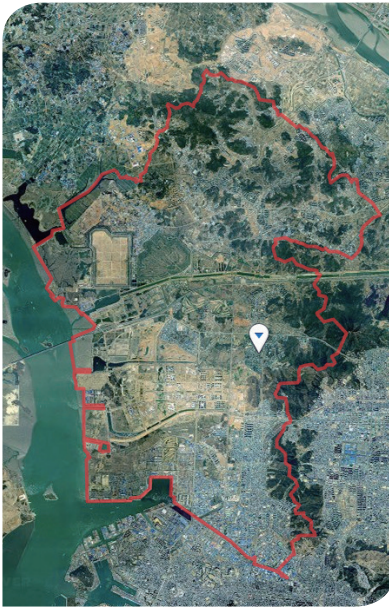
특징은 지역의 형태가 남북으로 길게 되어 있고, 동쪽에는 남북 방향으로 산줄기가 이어지며, 서쪽에는 해안 간석지가 넓게 발달해 있는 점이다.

대체로 서구지역은 산줄기가 남북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어, 서쪽 사면에는 강수량이 많으나 동쪽사면은 편현상으로 강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또한 서해안에 위치해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동시에 받기 때문에 겨울에는 한랭하고, 여름에는 다습한 특성을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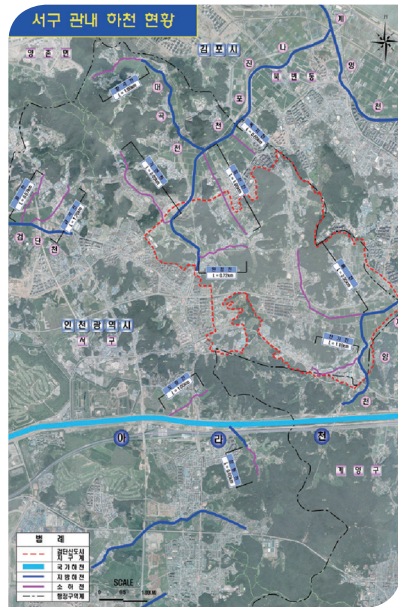
검단지역이 속해있는 인천 북서부 지역은 인근 김포평야와 인접해 서해와 한강유역이 자리하고 있는 입지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는데 검단 지역은 한강 하류가 서해로 유입되는 지점에 위치해 반도에 가까운 지형을 띠고 있으며, 반도의 서북쪽에는 문수산(文殊山, 376m)과 가현산(歌鉉山, 215m)이 있고, 동쪽으로 장릉산(章陵山, 150m), 검단의 가장 남쪽에는 할미산(105.9m)이 자리하고 있다. 대체로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으며,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완만한 사면구릉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같은 서구라 하더라도 검단과 기존 서구지역은 경인 아라뱃길이 생기면서 두 지역을 정확하게 갈라버렸다.

검단지역 산지의 근간은 광주(廣州)의 오봉산(五峰山)에서 비롯된다. 오봉산의 일맥이 북서쪽으로 뻗어 수리산(修理山)과 시흥의 오정산(吾丁山)을 이루었으며, 서쪽으로는 소래산(蘇萊山), 주안산(朱安山), 원적산(元績山)과 계양산(桂陽山, 395m)으로 뻗어 내려왔다.

검단의 산은 계양산에서 북으로 뻗은 줄기는 김포시 장릉산으로 이어졌고, 또 한 줄기는 북서쪽으로 검단동의 가현산과 대곶(大串)의 수안산(守安山, 147m) 및 약산(藥山), 그리고 월곶(月串)의 문수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검단동의 산들은 문수산과 가현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00m 안팎의 저산성 구릉과 평야지대로 이루어져있다. 이같이 주거와 생활에 적합한 지형적인 조건으로 인해 선사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서구의 지형



| 인천광역시 서구의 하천 현황

검단지역의 하천은 냇물이 직접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독립된 하천과 다른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지류로 구분되는데, 독립된 하천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검단천(黔丹川), 한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굴포천(掘浦川), 계양천(桂陽川), 독실동에서 발원해 마전동 가현산 북쪽으로 해서 굴포천으로 흘러들어가는 나진포천(羅津浦川)이 있다. 검단지역을 경유하는 하천으로는 굴포천, 계양천이 있다. 검단지역 일대의 방조제 축조로 인해 검단천과 여타 하천의 유로 및 유역면적이 변동하고 있다.

서구 검단동(금곡동, 좌동, 오류동)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간척사업이 이루어졌다. 이곳은 조수가 드나드는 입구에 좁고 오목한 만의 형태로 발달되어 밀물과 썰물의 시간차를 이용해 드넓은 갯벌에서 게와 조개와 맛조개를 잡았으며, 썰물을 따라서 섬까지 걸어가 한두 시간 일을 보고 밀물에 앞서 해안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또한 넓은 갯벌과 많은 섬·곶·만이 발달한 복잡한 리아스 해안으로 간척을 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했다. 바다 수심이 얕고 연안 일대에 섬들이 많아 인접한 섬들을 연결함으로써 방조제 축조가 용이했다. 특히 많은 섬들이 바람을 막아 주어 파도를 낮게 해주므로 태풍이나 해일에 의해 해면이 상승하는 기상조(氣象潮)도 낮아 방조제 높이를 낮추어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지반이 대부분 사질이토(沙質泥土)로서 방조제 축조에 적절하고 시공이 용이해 간척사업비가 월등히 적게 소요되는 천혜의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었다.

황포에서 반월촌을 잇는 황포방죽은 길이 400m로 비교적 큰 제방이 축조되어 있는데, 동쪽은 검단사거리 방향으로 간척이 이루어졌다. 소규모의 간척에서는 한 번의 제방축조로 넓은 경지가 개척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계속 독을 쌓아 경지를 확장시키는 방식

을 취했다. 방조제를 축조한 초기에는 방조제 안쪽의 토지를 염전이나 농경지로 이용했다. 처음에 둑이 만들어지면 그 후면에 다시 토사가 퇴적되면서 갯벌이 형성되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곳도 염생습지가 형성되어 간척의 대상이 되었다.

갯벌과 갯골로 연결되는 하구에 방조제를 쌓아 만든 간척지가 넓게 분포되어 가면서 섬들은 거의 육지화 되었다. 안동포 앞에 서서 보면 바로 드넓은 갯벌 건너 많은 섬들이 이어져 있었는데 모두 사라져 버렸다. 검단지역에 있던 섬들은 울도(栗島), 소울도(小栗島), 육도(陸島), 유도(柳島), 승도(升島), 명도(明島), 길무도(吉舞島), 거침도(巨瞻島), 복숭아섬, 토도(兎島) 등이다. 계속된 간척 사업으로 간석지나 갯골이 분포한 긴 해안선과 섬들이 사라지고 해안선이 직선화되는 이유가 되었다.

2. 역사적 변천과 지명유래

1) 탄생과 변천

검단지역은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에 속하며 인천광역시의 북서부 해안쪽에 위치한다. 1995년 인천광역시 서구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김포군(金浦郡) 검단면(黔丹面)이었다. 검단지역에 처음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때는 신석기시대부터이다. 이 지역의 저산성 구릉지와 한강하류에 넓게 형성된 퇴적평원은 신석기인들이 생활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다. 실제로 김포군 통진면 일대의 니탄층(泥炭層)에서는 범씨·조와 같은 탄화곡물과 함께 원반형 돌도구, 곡물을 파쇄하는 데 사용하던 돌도구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대곡동 황골마을과 인근 불로동에서도 지석묘 발굴이 이루어졌고, 원당동에서도 청동기 유적지에 주거지와 수혈 등 각종 유적·유물 천여 점이 발굴되어 오래 전부터 큰 규모의 부족집단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검단지역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헌상에 검단 지역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은 475년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해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매소홀현, 주부토군, 검포현을 설치한 것에서 유래한다. 고구려의 지배는 대략 70년으로, 남진(南進) 이전까지는 백제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 후 백제 성왕 29년(551)에 나제동맹군에 의해 다시 백제로 편입되었다가 2년 뒤 신라가 한강유역으로 진출하게 된 것을 계기로 다시 지배국이 신라로 바뀌었다.

『삼국사기(三國史記)』에 따르면 고대의 서구는 주부토군(主夫吐郡; 부평)과 검포현(黔浦縣; 김포)으로 불리었다. 고대의 부평은 동북쪽으로 한강을 끼고 있고 서쪽으로는 황해를 끼고 있으며, 고대의 김포 역시 임진강, 예성강, 한강 등으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과 더불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출구로서의 역할을 하던 곳으로 고대

서구는 한강유역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역사를 발전시켜왔다고 볼 수 있다. 바다로 향하고, 교통의 요지로 조세선의 길목이며 군사적 기능도 겸비하고 있던 중요한 곳이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757년(경덕왕 16)에 경덕왕의 한화정책의 일환으로 주부토군은 장제군(長堤郡)으로 읍호가 변경되었으며, 김포현은 김포현(金浦縣)으로 읍호가 바뀌어 장제군의 영현(領縣)이 되었다.

조선왕조 건국 후 1402년(태종 2)에 김포지역은 경기좌우도 소속이었다가 1413년(태종 13)에는 양주부(楊州府) 소속으로 원년 후 1414년(태종 14)에 경기좌우도를 경기도로 개편하면서 김포일대는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고, 같은 해 8월 김포현이 양천현을 흡수, 통합해 금양현(金陽縣)으로 개편되었다. 같은 해 10월, 양천현은 금천(衿川; 시흥)으로, 김포현은 부평부(富平府)로 편입되어 속현으로 강등된다. 그 2년 후인 1416년(태종 16)에 원래대로 환원해 김포현과 양천현으로 승격되어 현령(縣令)을 두었다.

1487년(성종 18)의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경기좌도 수원진(水原鎭) 소속의 7개 현이 있고 김포지역에는 김포현, 통진현, 양천현이 편제되어 큰 변동 없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걸쳐 유지되었다. 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김포현(金浦縣)편에 “토산(土產) 황옥(黃玉)이 현(縣)의 서쪽 검단리(黔丹里) 애갈산에서 난다(出縣西黔丹里艾葛山).”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5세기 전반에는 검단지역에 아직 면(面)의 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632년(인조 10) 흥경원(興慶園)을 장릉(章陵)으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김포현은 김포군(金浦郡)으로 승격되어 군내면(郡內面), 석한면(石閑面), 고현내면(高縣內面), 검단면(黔丹面), 노장면(盧長面), 마산면(馬山面), 고란태면(高蘭台面), 임촌면(林村面)의 8개 면을 관할했다.

1760년(영조 36)에 편찬된 지리지인 『여지도서(與地圖書)』에 따르면 조선 후기 김포는 총 8개 면, 48리로 구성되어 있었고, 1,566호에 총 8,11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었다. 또 김포지역의 전답은 총 1,565결이었고 토산으로는 황옥, 청옥 등의 보석류와 송어, 민어, 굴, 게 등의 해산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선 후기 김포의 이러한 모습은 『대동지지(大東地志)』와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

1789년(정조 13)에 간행한 『호구총수(戶口總數)』의 기록에 의하면 마산면, 검단면, 노장면으로 각각 승격됐다. 『호구총수』는 왕명(王命)으로 전국의 가호(家戶)와 인구를 조사해 집대성한 정조 때의 기록 자료이다. 이때 마산면(馬山面)은 서원리(鋤院里), 대곡리(大谷里), 불로리(不老里), 목지리(木枝里) 등 4개 리를 관장하고 검단면(黔丹面)은 마전리(麻田里), 여래리(如來里), 신리(新里), 금곡리(金谷里), 좌동리(佐洞里), 고잔리(高蠡里), 왕길리(王吉里), 속사곶리(束沙串里), 안동포리(安東浦里) 등 9개 리, 노장면(蘆長面)은 마전리(麻田里), 고산후리(高山後里), 능동리(陵洞里), 원당리(元堂里), 당하리(堂下里)의 5개 리를 각각 소속 리(里)로 했다.

그리고 이러한 면(面)의 편제는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각각 간행된 『김포군읍지(金浦郡邑誌)』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다만 검단면의 경우 좌동리(佐洞里)가 없어지고 노장면에 당하리(堂下里)가 없어지는 대신 오류동리(梧柳洞里)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1895년(고종 32)에 통진부가 통진군으로 개편되면서 김포군과 양천군은 인천부(仁川府)에 소속되었다가 이듬해에 김포 일원의 군들은 경기도에 속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김포, 통진, 양천의 3개 군을 병합해 김포군으로 조정했는데 이때의 김포군이 현재의 김포시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읍지(京畿邑誌)』 1871년(고종 8)에 기록된 인천 검단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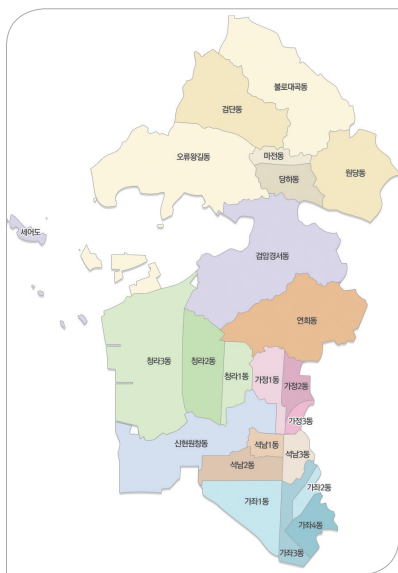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이들 3개 면을 가장 규모가 큰 검단면 하나로 통합했고, 통진군과 양천군을 통합한 김포군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편제는 광복 후까지 계속되어 오다가 1981년 7월 인천시가 직할시로 승격되고 1988년 북구에서 서구가 분구되어 신설되며, 1995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면서 김포군 검단면 전역은 서구로 편입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서구지역에 발달해 있던 이러한 전통 촌락들은 근대 이후에도 그 원래의 지명을 유지하고 있다. 검단면에 있던 마전리는 마전동으로, 금곡리는 금곡동으로, 왕길리는 왕길동으로 되었고, 노장면에 있던 당하리는 당하동으로, 원당리는 원당동으로, 마산면에 있던 불로리는 불로동으로, 대곡리는 대곡동으로 이들 역시 뒤의 형태만 바뀌었을 뿐 앞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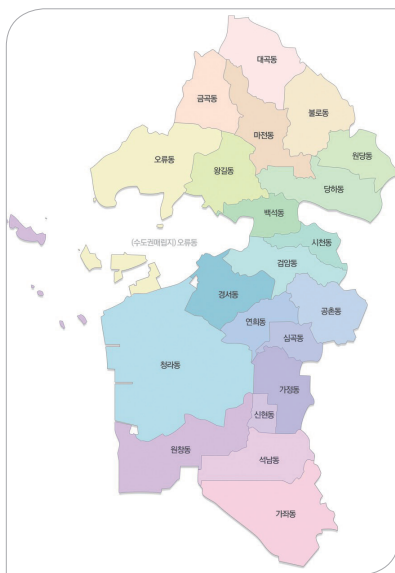
2) 행정동의 연혁

행정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신설, 통합, 폐지될 수 있고 경계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조례만으로도 얼마든지 명칭변경, 경계조정, 통폐합, 분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리고 행정동의 명칭은 지명과 상관없이 편의를 위해 임의로 명명되기도 한다. 반면 법정동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지고 대대적인 지번 교체나 행정구역 변동이 아닌 이상 그 틀을 지속한다. 특히 법정동은 전통적으로 내려져 오던 마을이나 길 이름을 따서 명명된 것이 대부분이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은 1914년 일제에 의한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 통합과 1995년 인천광역시 서구 편입 이후 몇 차례 분동되는 과정에서 명칭 변화가 다소 있었다. 따라서 행정동 연혁과 법정동 지명유래로 분리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동



인천광역시 서구 법정동

(1) 검단동(黔丹洞)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黔丹面), 노장면(蘆長面), 마산면(馬山面)을 통합해 검단면이 되었다. 검단면은 마전리(麻田里), 당하리(堂下里), 원당리(元堂里), 불로리(不老里), 대곡리(大谷里), 금곡리(金谷里), 왕길리(旺吉里), 오류리(梧柳里)의 8개 법정리에 41개 행정리를 관할하고 있으며 면사무소 소재지는 마전리 원현(院峴)이었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검단 2, 3, 4, 5동으로 분동해 검단1동이 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 검단동으로 변경되어 행정구역상 마전동, 금곡동의 2개의 법정동으로 이뤄졌다.

(2) 마전동(麻田洞)

마전동은 마전리(麻田)와 여래리(如來) 두 개의 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789년(정조 13) 간행 『호구총수』 및 19세기 후반 간행한 『김포군읍지』를 보면 두 취락을 각각 독립된 법정리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인 1914년 마전리, 여래리를 통합해 마전리로 명명했으며 이를 확대 개편한 검단면에 소속시켰다. 이때 통합 마전리는 소규모 취락에 따라 11개의 행정리로 나뉘었다. 1리는 여래 부락, 2리는 가현 부락, 3리는 원현 부락, 4리는 능내 부락, 5리는 완정 부락, 6리는 청마 부락이었다. 이 체계는 8·15 광복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1992년 다시 7리 문현, 8리 방현, 9리 묵화, 10리 중동, 11리 장미 등 5개의 행정리가 추가되었다.

1995년 3월 1일 김포군 검단면이 광역시로 확대 개편되는 인천시에 통합되면서 행정동은 서구 검단동 하나로 통합되었다. 2002년 1월 1일 이래 행정동인 검단동은 다시 1, 2, 3, 4동으로 분리하면서 마전동은 검단1동으로 지정되었다. 2013년 7월 5일부로 검단1동이 검단1동(여래, 가현, 원현, 방현, 문현)과 검단5동(오류동, 왕길동)으

로, 2018년 7월 1일 검단1동은 다시 검단동으로 변경했다. 그리하여 이 지역은 마전동이라는 법정동으로, 검단동이라는 행정동으로 소속되어 있다. 1리, 2리, 3리 등 행정리는 도시 지명의 기준에 따라 통(統)으로 불리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11월 4일 행정동 당하동의 일부 구역이 분동되면서, 마전동이라는 행정동명을 얻게 되었다.

(3) 오류왕길동(梧柳旺吉洞)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黔丹面), 노장면(蘆長面), 마산면(馬山面)을 통합해 검단면이 된 이후 검단면에 속했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검단 2, 3, 4, 5동으로 분동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 왕길동은 2013년 7월 1일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 검단5동을 오류왕길동으로 변경했다.

(4) 당하동(堂下洞)

1914년 당시 조선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노장면 당하리 일부와 죽저리, 독정리를 병합해 확대 개편된 검단면 소속의 당하리로 재편했고, 1리 독정, 2리 신기, 3리 광명, 4리 죽저의 행정리로 구분했다. 1995년 3월 1일 이후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 소속,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1동의 법정 당하동이 되었고, 2005년 9월 1일부터 종전 검단1동 소속의 완정, 청마와 검단3동 소속의 독정을 할양받아 검단4동으로 편제되었다. 2018년 7월 1일 검단4동이 당하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후 동년 11월 4일 당하동 일부 지역이 마전동이라는 이름으로 분동되었다.

(5) 원당동(元堂洞)

조선 정조 13년(1789) 간행한 『호구총수』를 보면 김포군 노장

면 원당리(元堂里)라는 법정리로 기록되어 있다. 현종 8년(1842),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출간한 『김포군읍지』에도 같은 기록이 있다. 그리고 1911년 간행 『조선지지자료』를 보면 한자 지명 발산리(鉢山里), 우리말 지명 ‘바리미’로 표기한 지명이 있다. 일제가 1914년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노장면의 북쪽지역인 원당리와 고산리, 고산하리, 발산리를 원당리라는 법정동으로 통합하고, 마산면과 노장면과 검단면이 통합된 새로운 검단면에 소속시켰다.

1995년 3월 1일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의 법정 원당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2동의 법정 원당동, 2005년 9월 1일부터는 종전 검단1동 소속의 당하동 일부와 원당동 전체를 통합해 검단3동으로 편제할 때 종전의 원당동은 모두 검단3동이 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 검단3동을 원당동으로 변경했다.

(6) 불로대곡동(不老大谷洞)

1914년 4월 1일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黔丹面), 노장면(蘆長面), 마산면(馬山面)을 통합해 검단면이 된 후 검단면에 속했다. 1995년 3월 1일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면서 검단출장소가 편제되고 검단동이 되었다. 2002년 1월 1일부로 행정동으로 검단1동(법정: 마전, 금곡, 오류, 왕길, 당하), 검단2동(법정: 불로, 원당, 대곡)으로 분동되었다. 이후 2013년까지 검단 1, 2, 3, 4, 5동으로 분동해 검단2동이 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 불로대곡동이 되었다.

3) 지명유래

검단(黔丹)은 16세기 전반의 문헌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검단리의 ‘검’ 자가 ‘검소할 검(儉)’으로 표기되어 있고, 19세기 후반의 『김포군읍지』에 ‘검을 검(黔)’으로, 1842년(헌종 8)의 『김포군읍지』의 지도에 ‘소매 금(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문자표기가 일정하지 않은 것은 이 글자를 훈(訓)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음차(音借)한 때문이다. ‘검-금’은 모두 고어에서 ‘굼’계(系)의 어휘로 예로부터 거의 현대에 까지 사용되어왔다. ‘굼’은 ‘감, 검, 금’으로 인명, 지명 등에 나타나는 바, 그것은 신(神) 또는 왕(王)에 해당하는 의미였으니 단군왕검(檀君王儉)의 검(儉), 웅녀의 ‘굼’은 모두 신화의 주인공으로 신적 존재들이다.

예전의 검단면 판도 안에 있던 현재의 금곡동 ‘씻골마을’ 뒷산 사자봉 남쪽 기슭에 ‘검데이’란 곳이 있다. 이 마을의 뒷산을 당재라 부르고 그 왼편(서편)을 ‘검데이’라 부르는데 검단 > 검데이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되거나와 ‘검단’은 신(神) 또는 존장(尊長)을 의미하는 ‘검’과 ‘곡’(谷)을 의미하는 지명소(地名素)의 결합이다. ‘단’은 고대의 지명표기에서 ‘단(旦), 둔(地), 탄(吞)’ 등의 글자로 표기되었으니 ‘곡(谷)’의 뜻이지만 단순히 지명을 만들기 위한 접미사의 기능도 해 ‘마을’로 해석해도 무난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쓰이던 ‘단(旦)’ 계의 지명소가 후대에는 의미가 좋은 글자로 바뀌어 ‘붉을 단(丹)’으로 써서 기원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결국 검데이는 고대어의 ‘검’ 즉 신(神)의 의미와 단(旦), 곧 곡(谷)의 뜻이 결합한 단어로 ‘신 또는 존장의 마을’이나 ‘신에게 제사하는 마을’이란 뜻이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은 무당이며 왕에 버금가는 신분의 소유자이므로 검데이에서 제사를 집전하던 신분의 소유자가 이 마을에서 생산되던 금, 동, 철을 가지고 상당한 권력 기반을 누리며 살았으므로 그러한 지명이 남아 있고, 또 그것이 검단의 명칭으로도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1) 마전동(麻田洞)

① 마전(麻田)

‘삼바지’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며 ‘삼바지’는 ‘삼밭이’에서 변천한 것이다. ‘삼밭이’는 이 마을에서 예전부터 삼(어저귀)을 많이 심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그러나 옛 김포 관련 문헌에 마(麻)가 생산된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다. 고어에 큰 것을 ‘말(馬)’이라 했으니 마전은 큰 밭 즉 넓은 밭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다.

② 여래(如來)

전래의 명칭은 ‘여리’였으나 옛날 이 마을을 지나던 풍수가 ‘여래’로 고치면 마을이 흥하여 잘살게 될 것이라 해서 고쳤다고 한다. 또한 예전에 이 마을에 살면서 적선을 많이 한 ‘여래’라는 승려를 기리는 뜻에서 그 승려의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쓰게 되었다고도 전해온다. 그러나 ‘여래, 여리’는 모두 대(大), 주(主)의 뜻이다. 그러므로 ‘여래’ 또는 ‘여리’가 모두 ‘큰 마을’의 뜻인 것은 이 마을이 예전부터 이 일대에 있던 법정리로 으뜸되는 마을이었기 때문이다.

③ 가현(歌鉉)

옛 문헌에 ‘가현’이란 마을 이름은 보이지 않으나 가현산이란 산 이름이 오래 전부터 각종 지리서에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유구한 역사를 가진 마을임을 알 수 있다. 예전부터 ‘간약골’로 불려왔는데 마을 뒷산인 가현산을 따라 ‘가현’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 마을은 가현산 남쪽 큰 골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현산의 옛 이름 ‘가린산’을 좇아 ‘가린골’이라 했으나 이것이 후대에 변이되어 ‘가련골’로 되었고 다시 음운변화에 의해 ‘가낙골’이 되었다. 우리의 고어에서 ‘갈’은 ‘크다’의 뜻이므로 ‘가린골’은 ‘큰 골’이란 의미가 되므로 ‘큰 골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1530년(중종 25)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이후 옛 김포관계 역사, 지리에 거문고 현(絃)자를 쓴 가현산(歌絃山)으로 일관되어 왔다. 수정이 필요한 대목이다.

④ 원현(院峴)

역원(驛院)이 있는 마을의 고개라는 의미이다. 역원은 조선 세조 때부터 역로에 세워 국가가 경영하던 일종의 여관으로 역제와 같이 각 도(道)로 통하는 길목이나 인가가 드문 곳에 세워 행려에 편하도록 배려한 시설이었다. 봉화촌의 북쪽 끝은 ‘검단개’라 불리는데 예전 제방이 없던 시절 김포, 강화 간의 나루였기 때문에 그곳에 하선하러 가던 길손들이 이 마을을 거쳐 김포읍 방면으로 통행했다고 한다. 또한 원터라고 구전되어온 것이 있고 그곳에서 옛 기와편 등의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하므로 역원이 있었다는 방증이 된다.

⑤ 능내(陵內)

약 450여 년 전 남양홍씨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전래의 지명은 ‘능안’인데 이 마을에서 완정(完井)으로 통하는 길을 따라 완정과 마을 경계에 가까운 오른편 산골짜기를 능안이라 한 데서 유래한 것이다. 능안 골짜기 안에는 고분 2기가 있고 그중 하나가 강릉이라고 하기도 하고 만수산 서편에 능이 있다고 전해오기도 해서 확실하지는 않다.

(2) 금곡동(金谷洞)

1789년(정조 13)에 작성된 『호구총수』에 지금의 금곡동 지역은 검단면 소속으로 신리(新里), 금곡리(金谷里), 좌동리(佐東里)가 기록되었다. 그러다가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고종 35)에 걸쳐 간행된 김포의 군지, 읍지들에는 좌동리가 빠져 있다. 1911년 간행된 『조선지리지』는 금곡리의 우리말 지명 ‘쇠골’을 올리고 좌동도 올려놓았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 전국의 행정구역을 재편할 때 금곡리 일부가 양촌면으로 통합되었으며, 금곡리 남은 부분과 좌동, 신리를 합해 새로운 법정리인 금곡리로 명명해 검단면에 포함시켰다. 이때 검단면은 지난날의 마산면, 노장면을 합병해 커졌다. 금곡리는 1리가 원래의 금곡, 2리가 좌동, 3리가 신리로 지정되었다. 이것은 8·15 광복 후에도 지속되었으며 1989년 새롭게 원미 마을을 4리로 지정했다.

1995년 검단지구가 인천광역시에 들어갈 때 검단동의 일부가 되고, 2002년 검단1동의 일부가 되어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① 금곡(金谷)

약 400여 년 전 장수이씨가 입향해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금곡리 산 400번지 일대를 동은터(銅銀)라 불렀다. 철(鐵)이 생산되어 ‘쇠골’이라 했고 한자로 금곡(金谷)이라 표기한 것이다. 특산물인 지명으로 정착한 사례이다. 철이 생산되던 가현산 남쪽 골짜기에 위치해 쇠골이라 불리던 곳으로 여러 문헌에 검단면 금곡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② 좌동(佐洞)

약 350여 년 전 평산신씨가 입향해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일설로는 예전의 마을 이름은 ‘자하동’이라 했는

데 이 지명이 ‘좌동’으로 변한 뒤, 마을의 형국이 왼손을 편 것과 같다는 것을 안 망해사 주지가 ‘왼 좌(左)’ 자에 ‘사람 인(人)’을 붙여야 마을이 번성할 것이라 해서 그의 말대로 ‘도울 좌(佐)’로 고쳐 좌동이라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고대 국어에서 성(城)을 ‘자’라고 했다. 이 마을에 ‘성틀마루데기, 둔전틀’이란 지명이 있으므로 ‘자동(성이 있는 마을)’이 ‘좌동’으로 변천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한 『호구총수』를 보면 김포군 검단면의 한 법정리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후 문헌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신동(新洞)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에 살던 전주이씨가 이 마을에 이주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이주해 와서 새로 마을을 개척했으므로 새말이라 불러왔는데 이를 한자지명 신동으로 고쳤다고 한다. 정조 13년(1789)에 간행한 『호구총수』를 보면 김포군 검단면의 한 법정리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지속되다가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금곡리에 속하며 금곡3리가 되었다.

(3) 오류동(梧柳洞)

1789년(정조 13)의 『호구총수』로부터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에 김포군에서 집필한 『김포군읍지』 어디에도 법정리로서 오류리는 지명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옛 검단면의 반월촌, 오류동, 봉화촌, 대촌을 합해 오류리로 하고 마산면·노장면·검단면을 통합해 새로 확대 편제된 검단면의 8개 리 중 하나로 설치했다. 당시 행정리는 1리 봉화촌, 2리 대촌, 3리 오류동, 4리 반월촌을 두었다. 1957년에 5리 금호동이 신설되었다. 1995년 3월 1일부터 인천시 서구 검단동의 법정 오류동, 2002년 1월 1일부터 검단1동의 법정 오류동으로 되었다. 검단1동 소속이었던 오류동은 2013년 7월 5일부로 서구조례 제1192호에 의거 검단5동으로 편제되었다가 2018년 7월 1일 오류 왕길동에 속하게 되었다.

① 오류동(梧柳洞)

한자 그대로 오동나무와 수양버들이 많은 마을이어서 이들 단어의 한자를 합해 오류리라 했다는 설과 북편 마을이 갯벌이어서 넓은 벌에 오리가 많이 앉으므로 오리골이라 했다는 설이 전해온다. 고대 지명에서 ‘오리, 여리, 여래, 어러’ 등은 모두 크다, 주(主)되다의 의미를 가졌다. 존장(尊長)이 사는 마을이란 의미도 있다. 300여 년 전 배천조씨(白川趙氏) 문빈(文彬)이 입향해 입향조가 되었으며 현재 후손들이 세거해 살고 있다. 경주이씨, 결성장씨 등은 약간 후대에 입향해 여러 대를 세거해 오고 있다.

② 봉화촌(烽火村)

백석산 봉수는 현의 서북 20리에 있고, 북으로는 통진 약산(『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수안산), 남으로는 부평 축곡산에서 전달되

며 김포의 냉정산봉수에 전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 마을의 명칭도 봉수제와 역사를 같이한 마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김포군 관계 문헌들에 봉화촌이 법정리로 기록에 오른 것은 없다. 백석산 줄기를 서편으로 두르고 북쪽 드넓은 곳에 자리하고 있다. 달성서씨, 반남박씨, 고성이씨 등이 여러 대에 걸쳐 세거하고 있다.

③ 대촌(大村)

백석산 남쪽 골에 있는 이 마을 인근에서 으뜸되는 마을이어서 큰 말이라 했고 이를 한자 지명으로 대촌이라 했다. 광주이씨가 세거하고 있고 현재 후손들이 거주하고 있다.

④ 반월촌(半月村)

마을 서편에 있는 섬이 반월도여서 그 섬의 이름을 좇아 반월촌이라 했다고 한다. 다른 설로는 이 마을을 안고 있는 산의 형국이 반월형이어서 반월촌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1914년 일제에 의해 이곳의 자연취락인 반월촌, 봉화촌, 대촌을 합해서 오류리라 지정했다. 600여 년 전 청주한씨와 경주이씨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⑤ 금호동(金湖洞)

6·25 전쟁 후 월남한 실향민들이 간석지를 개간해 형성한 마을이다.

(4) 왕길동(旺吉洞)

1789년(정조 13) 간행 『호구총수』에 검단면 소속으로 임금 ‘왕(王)’자를 쓰는 왕길리로 기록되어 있다. 1871년(고종 8) 간행된 『김포군읍지』에는 왕성할 ‘왕(旺)’자로 바뀌어 기록되었다. 1911년 간행 『조선지리지자료』도 같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왕길리 지명을 마산면, 노장면, 검단면을 통합한 새 검단면의 법정리로 지정했다. 이때 왕길리는 소왕길리, 안동포리, 속사곶리를 포괄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왕부락을 왕길1리로, 사월부락을 왕길2리로, 안동포를 왕길3리로, 소왕부락을 왕길4리로 지정했다. 이 체제는 8·15 광복 후에도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1985년에는 약수동이, 1992년에는 종현이 분리되었다.

1995년 검단 전체가 인천시 서구에 통합될 때 검단동의 일부가 되었으며, 1995년 3월 행정동 검단1동으로서 법정동 왕길동을 유지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검단1동에서 분리되어 검단5동으로 분동되고 2018년 7월 1일 오류왕길동에 속하게 되었다.

① 왕길동(旺吉洞), 대왕(大旺), 소왕(小旺)

‘왕성할 왕(旺)’, ‘길할 길(吉)’자를 써서 지으면 부유한 마을이 될 것이라는 어느 대사의 말을 듣고 왕길리로 했다고 한다. 예전부터 ‘큰외리’로 불려왔는데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무렵 이 인근에 7개 마을이 있고 봉화촌에 면사무소가 있었으므로 그 주변 마을을 외리라고 부르던 것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대왕, 소왕은 잘 되라는 기원의 의미를 담아 ‘왕성할 왕(旺)’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이 마을의 선주민은 고씨였으나 내력은 알 수 없다. 광주이씨는 연산군 시대에 국변을 피해 대촌으로 낙향해 살기 시작했고 현재 후손들이 세거해 오고 있다. 하동정씨는 마전동 완정에서 이주했고, 300여 년을 세거해 와 현재 후손이 살고 있다.

② 사월(沙月)

옛날부터 속사곶리라는 법정리가 있었다. 1911년 간행 『조선지리지』는 속사곶리(束沙串里)라는 한자 지명과 ‘속새꼬지’라는 우리말 지명을 실었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속사곶 명칭을 폐지하고 속사곶(束沙串)과 거월(巨月)을 합해 사월(沙月)이라 하여 왕길리에 포함시켰으며 왕길2리로 지정했다.

③ 속사곶(束沙串)

전래의 명칭은 ‘속새우지’인데 이것은 속사곶이가 변천한 것이다. 마을이 형성될 때 이곳은 바닷가였으므로 모래를 가마니에 담고 제방을 쌓아 농토를 만들었는데 그 내용을 한자로 표기해 속사, 즉 ‘모래를 묶어 쌓다’란 의미의 지명을 짓고 ‘곶이’에 마을이 있으므로 ‘속사곶’이라 했다는 것이다. 약 400여 년 전 안동권씨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었고 현재 후손이 거주하고 있으며, 광주이씨, 경주김씨, 남원 양씨들도 거주하고 있다.

④ 거월(巨月)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큰 달’이며 그것은 속새우지에 있는 소지명 ‘달본동산’이란 산과 관련해서 생긴 지명으로 추정된다. ‘달’이 산이므로 ‘큰산마을’의 뜻이 있다.

⑤ 안동포(安東浦)

예전에 부성개로 불렀는데 부자로 성실하게 사는 갯마을의 뜻이라 한다. 예전에는 검단면 어업의 본거지로 일찍부터 동력선인 중선으로 고기잡이를 하던 포구였다. 안동권씨가 입향해 살게 되면서 안동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밖에 안동개, 안동포리로 부르기도 했다.

⑥ 약수산(藥水山)

1970년대 후반 목탄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취락이 형성되었다. 원현 사이에 있는 산에 약수가 있으므로 거기서 취한 것이다.

(5) 당하동(堂下洞)

① 독정(獨亭)

이 마을에 500년 이상 된 왕소나무가 있었는데 그곳에 독정이라는 정자가 있어 생겨난 명칭이라 하기도 하고, 현재의 쓰레기매립지 도로 부근 까치사리 위쪽에 기와, 독을 굽던 가마가 거의 최근까지 있었으나 산업화에 밀려 사라졌는데, 독을 굽던 곳이라 ‘독정’이→‘독정’이라 불렀다 한다. 소나무는 광복 후 고사되었다 한다. 1914년의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이 마을의 지명을 독정리(獨井里)라고 기재하고 있다. 약 400년 전 광산김씨 달도(達道)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② 족저(足儲)

‘돈에 발이 묻힐 정도로 부자 마을’이었기 때문에 저축할 저(儲)를 써서 족저리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고어에 ‘족(足)’은 그 훈이 ‘발’이므로 본래의 뜻인 인간의 다리 또는 만족, 풍족과는 관계가 없고 천신제를 지내 온 마을임을 나타내는 지명표기 중의 하나이다. ‘저(儲)’는 원래의 뜻 저축과는 관계없이 또 다른 의미 ‘담, 동산’의 뜻으로도 사용했다. ‘저’는 제단의 뜻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므로 전체의 의미는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이 있는 마을’ 또는 줄여서 ‘천신제를 지내는 마을’의 뜻이다. 약 400여 년 전 전주이씨 희령군파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③ 완정(完井)

우물과 연관된 듯하나 마을 이름 유래에 대해 알 수 없다. 청송심씨 연보에는 완정리(完丁里)로 나타나고 있어 우물과의 연관성도 없는 듯하다. 옛 지명에서 ‘정(井)’은 단순히 마을의 이름을 짓기 위해 쓰는 접미사의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다. 소규모 취락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법정동으로 기록된 바는 없다.

④ 청마(靑麻)

마전(麻田)이란 명칭이 바로 이 마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약 500년 전 성주이씨가 용인에서 이주해 형성된 마을이라 전한다. 옛날부터 검단면 마전리라는 법정동이었으며 마전리 지명도 여기서 유래되었다 한다. 1995년 인천광역시에 들어갈 때 검단동의 일부, 2002년 검단1동의 일부가 되어 1개 통(統)으로 지정되었다.

⑤ 신기(新基)

새로 터를 마련해 살기 시작했다 하여 예로부터 새터말이라 불러오다가 일제가 마을 이름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신기라고 했다. 신기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전주이씨는 희령군파로 11대조인 향영이 당하리 전주이씨의 입향조이다. 원래 족저리에 정착했다가 9대조 때 이 마을에 새로 터를 잡아 이주했고, 현재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⑥ 광명(光明)

비가 갠 뒤에 제림산 쪽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 광명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대곶면 약암리에서 거주하던 청송심씨가 300여 년 전에 이 마을에 이주해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한다.

⑦ 매밭

매밭 앞산은 꿩이 기어가는 형국이어서 풍수설에서 말하기를 꿩을 이기는 것은 매이므로 매와 관련되는 지명이라야 마을이 평안하다 하여 매밭이라 하게 되었다고 전해온다. 산을 ‘뫼’, 들[野]을 ‘매’라고 했다. 밭은 지명에서 반드시 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이름을 짓기 위해 고유명사 뒤에 붙이는 접미사로 단순히 마을의 뜻으로 쓰일 때가 많다. 매밭이란 ‘뫼밭’이라 했던 것으로 추정하면 ‘뫼밭 > 메밭 > 매밭’으로 변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동권씨의 집성촌으로 누대를 세거해 왔다고 한다.

(6) 원당동(元堂洞)

① 원당(元堂)

원당이란 당이 있는 마을, ‘으뜸되는 당이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당’은 산정에 쌓은 단이 ‘단 > 당’으로 변천해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당’이 반드시 건축물이 축조된 곳만을 의미하지 않고 산정에 낮게 쌓은 돌단, 신수 밑의 평토, 입석 등을 모두 지칭하기 때문이다.

원당리 즉 ‘으뜸되는 당이 있는 마을’의 ‘당산’은 현재 ‘옥계봉’으로 추정된다. 옥계는 ‘대궐의 계단’이므로 이것도 ‘신이 하늘에서 하강하는 계단’으로서의 단 곧 당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당은 ‘으뜸되는 당이 있는 마을’, ‘망산, 야미산, 옥계봉’은 모두 그곳에 ‘당’이 있음을 의미하는 지명들이다. ‘원데이’라고도 부르며, 고산의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고산아래’라고도 불러왔다.

고려조 풍산백(豊山伯) 김문적(金文迪)의 5대손 안정(安鼎)이 벼슬에서 물러나 원당동의 가마논들이 비옥하므로 그곳에 정착해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② 발산(鉢山)

이 마을의 형국이 남쪽만 트이고 동, 서, 북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것이 마치 바리때와 같다 하여 예로부터 ‘바리뎬’로 불려오다가 ‘바리뎬 > 바리미’로 변천한 것을 일제강점기 초에 지명을 한자식으로 고칠 때 ‘바리 발(鉢)’ 자를 써서 발산(鉢山)이라고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조선조 명종 무렵 양천허씨가 김포시 고촌면 풍곡리에서 이거해 입향조가 되었고 현재 발산마을에 세거해 오고 있다. 능굴에는 의령 남씨가 누대를 세거해 왔고 풍산김씨도 이웃 마을 원당에서 이주해 여러 대를 살아왔다.

③ 고산(高山)

옥계봉에서 송우산에 이르는 산줄기가 고산이다. 고성이씨 27대 손 광업이 입향조이며 현재 고성이씨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④ 능곡(陵谷)

장릉이 조성된 다음 그 능의 골에 있는 마을이라 해 ‘능골, 능굴’로 불려왔다고 한다. 장릉을 쓰기 이전부터 이 마을을 능굴이라 불려왔다고 하므로 누구의 태릉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에 연유해 능굴이라 불려왔던 것이 분명하다. 풍수상 옥계봉, 송우산, 장구산 쪽의 긴 줄기가 학의 형국이라 하며, 이 마을은 그중 학의 가슴과 머리에 해당하는 형국이라 예로부터 명당이라 전해오고 있다.

(7) 불로동(不老洞)

1789년(정조 13) 간행 『호구총수』, 1842년(헌종 8), 1871년(고종 8), 1899년(광무 3)의 『김포군읍지』 등에 따르면 현 불로동 지역은 마산리, 불로리가 나타나고 있고, 인근 마산리가 면 단위로 승격되면서 마산면 불로리로 존치되었다. 1914년 일제가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인접한 목지리(木枝里)를 불로리와 통합하고 지명을 불로리로 지정했으며, 불로리를 불로1리로, 목지리를 불로2리로, 갈산을 불로3리로 지정했다.

이것은 8·15 광복 후에도 이어졌으며, 1985년에는 불로에서 다시 마산을 분리해 불로3리로 지정했다. 1995년 3월 1일 검단동으로, 2002년 1월 1일 검단2동으로, 2018년 7월 1일 불로대곡동에 소속되었다.

① 불로(不老)

늙지 않는다는 뜻으로, 불로동의 지명에 사용된 한자표기는 이곳에서 예전부터 천신제(天神祭)를 지내왔음을 암시하고 있다. ‘불(不), 백(白, 百), 발(鉢), 팔(八), 벽(碧)’ 등과 함께 ‘불’은 천신제를 지내온 마을의 명칭으로 남아있는데, 불로동에는 목지(木枝)와 사이에 제향산(祭享山)이란 해발 128.3m의 산이 있다. 물론 요즈음에는 천신제를 이 산에서 지내지 않지만 산의 이름이 ‘제(祭)’와 관계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마산(馬山)

이 마을들은 남평문씨의 집성촌으로 지금부터 약 450년 전, 문이길이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고,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고 한다. ‘마’는 ‘큰 것, 우두머리’ 등을 일컫는 말로 마산은 ‘큰 산’이라는 뜻이다.

③ 목지(木枝)

마을의 선주민은 남원윤씨였다고 한다. 남원윤씨 거주 초기에 심었다고 하는 600여 년 된 향나무가 있었던 것을 감안할 때 상당히 오래 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약 150여 년 전 원당동에서 풍산김씨가 입향해 세거해 오고 있다고 한다.

옛날 이 마을에 ‘당(堂)’이 있었는데 당 뒤에 있던 나뭇가지가 당을 덮었다 하여, 또는 이 마을이 지형적으로 ‘중요한 길목’이라서 목지라 했다고 한다. 목지의 ‘가지 지(枝)’는 ‘산제(山祭)이름 기(枝)’의 음훈(音訓)으로도 쓴다. 분명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마을에 당이 있었다는 구전과 불로와 이 마을 사이에 있는 제향산은 그 이름이 말하듯 산신제를 지내던 산이므로 목지란 명칭은 산신제와 관련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목지’는 ‘산신제를 지내던 나무’, 즉 ‘당목의 뜻’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당목이 있는 마을’의 뜻으로 추정된다.

④ 갈산(葛山; 갈매)

이 마을은 약 400여 년 전 평택임씨 지간이 입향해 형성되었고 평택임씨가 세거하고 있다. 마을의 주산인 ‘만수산’에 예로부터 유난히 칙이 많아 ‘칙 갈(葛)’자를 써서 ‘갈산’이라 해왔다. 이 마을의 전래 명칭은 ‘갈메울’이거니와 그 의미를 ‘갈산곡’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갈’은 고어에서 ‘크다, 높다’ 등의 의미를 가졌으니 ‘갈메울’은 단순히 ‘칙이 많은 마을’에서 ‘높은 산이 있는 마을’ 또는 ‘존장(尊長)이 사는 마을’의 뜻이 된다.

(8) 대곡동(大谷洞)

1789년(정조 13)에 간행된 『호구총수』에 김포군 마산면 대곡리와 서원리 기록이 있다. 1871년(고종 8)에 집필된 『김포군읍지』에는 두 개 리(里)를 합해 대곡리로 했고, 1914년 간행된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일람』에는 1914년 3월 1일 ‘대곡리와 두곡리’를 합해 ‘대곡리’를 설치했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때 태정은 대곡1리로, 두밀은 대곡2리로, 황곡은 대곡3리로, 설원은 대곡4리로 지정했다. 1995년 3월 1일 이후 서구 검단동의 법정 대곡동, 2002년 1월 1일부터는 검단 2동의 법정 대곡동, 2018년 7월 1일 불로대곡동에 소속되었다.

① 대곡(大谷)

대곡(大谷)이란 ‘큰 골’의 뜻이니, 대곡동에 속해 있는 마을들이 가현산의 동남편 큰 골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을 쓴 것이다.

② 태정(台亭; 태제이)

하동정씨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정인지의 사당으로 알려진 사당이 있으므로 조선 초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틀림없을 듯하다. 거창신씨는 연산군의 화를 모면하기 위해 이 마을로 낙향해 세거해 왔다고 한다.

‘태정(台亭)’이란 선조의 옹주로 상촌(象村) 신흠(申欽)의 자부인 정숙옹주가 황곡에 살면서 출산했을 때 ‘태를 이 마을 뒷산에 묻었다’ 하여 ‘태정(胎亭)’이라 써오다가 태정(台亭)이 되었다고 전해오지만 이 사실의 증거가 될 만한 어떤 자료도 확인할 수 없다.

③ 두밀(斗密)

반남박씨는 550여 년 전 병문이 이 마을에 정착해 입향조가 된 이후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풍산김씨는 김포시 원당동이 세거지였

으나 약 250년 전 이 마을에 입향했다.

첩첩산중을 ‘두메산골’이라고 할 때의 ‘두메’가 현재까지 남아있는 ‘둠’의 변형이다. ‘둠’은 ‘원 또는 사방이 둘러 막혔다’는 사위(四圍)의 뜻으로 예전의 지명에서부터 사용해온 말로 오늘날도 ‘산간마을’ 중에는 둠과 유사한 어형의 지명이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④ 황곡(黃谷)

황곡에는 본래 단양우씨가 세거했었는데 1500년대 초에 단양우씨의 외손인 평산신씨 이간이 입향조가 된 이후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옛 문헌에 황곡이란 법정리는 없었으나,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검단면 대곡3리가 되었다. 한적한 마을이어서, 또는 산이 높고 골이 깊은 마을이라 매년 풍년이 들어 논 전체가 ‘황금 물결’로 출렁거리려 ‘황곡’이라고 했다고 한다.

‘큰 골’을 중세국어로 표기하면 ‘한골’이 되고 이것이 역행동화되어 ‘항골’로, 또 이것이 다시 동화되어 ‘황골’이 된다. ‘황골’이 ‘누런골’이 아니라 ‘큰골’이며 이것을 한자식 지명으로 바꾼 것이 ‘대곡’이다. ‘큰골’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실지로 골이 큰 마을’의 뜻도 되지만 이 마을에 전해 오는 지석묘의 주인공은 부족장이었으므로 ‘존장이 사는 마을’의 뜻이 더 강하다.

⑤ 설원(設院)

약 350여 년 전 하동정씨의 13세 조(祖)가 입향해 마을이 형성되었다. 임금의 행차나 관원이 출장여행 중 숙박하던 원이 있던 마을이기 때문에 설원(設院)이라 했다고 전해온다. 또 다른 문헌기록에 보면 설원이 아닌 서원(鋤院)으로 되어 있다. 이로써 유추해보면 원의 이름이 서원이고 동시에 마을 이름이던 것이 역원을 설치한 곳이라는 뜻으로 설원이 된 것이라 추정된다.

검단 마을 이름 변천사

『호구총수』 (1789)	『김포군읍지』 (1842)	『김포군읍지』 (1871)	1914 개편	1995 3.1	2002 1.1	2013 12.31	2018 7.1	2018 11.4
검단면(黔丹面)	검단면(黔丹面)	검단면(黔丹面)	검단면(黔丹面)	검단동	검단출장소 설치 검단1동			
마전리(麻田里)	마전리(麻田里)	마전리(麻田里)	<div> <div>마전리(麻田里)</div> <div>금곡리(金谷里)</div> <div>오류리(梧柳里)</div> <div>왕길리(旺吉里)</div> <div>속사곶리(束沙串里)</div> <div>안동포리(安東浦里)</div> </div>	(법 정)	(법 정)	검단1동	검단동	검단동
여래리(如來里)	여래리(如來里)	여래리(如來里)		마전동	마전동			
신리(新里)	신리(新里)	신리(新里)						
금곡리(金谷里)	금곡리(金谷里)	금곡리(金谷里)		금곡동	금곡동			
좌동리(佐洞里)	-----	-----						
고잔리(高叢里)	고잔리(高叢里)	고잔리(高叢里)		오류동	오류동	검단5동	오류 왕길동	오류 왕길동
왕길리(王吉里)	왕길리(王吉里)	왕길리(旺吉里)		왕길동	왕길동			
속사곶리(束沙串里)	속사곶리(束沙串里)	속사곶리(束沙串里)						
안동포리(安東浦里)	안동포리(安東浦里)	안동포리(安東浦里)						
노장면(蘆長面)	노장면(蘆長面)	노장면(蘆長面)						
당하리(堂下里)	-----	당하리(堂下里)	<div> <div>당하리(堂下里)</div> <div>족저리(足儲里)</div> <div>-----</div> <div>고산후리(高山後里)</div> <div>원당리(元堂里)</div> <div>마산면(馬山面)</div> </div>			검단3동	원당동	원당동
	오류동리(梧柳洞里)			당하동	당하동			
마전리(麻田里)	마전리(麻田里)	-----				검단2동		마전동
고산후리(高山後里)	고산후리(高山後里)	고산후리(高山後里)		원당동	원당동	검단4동	당하동	당하동
능동리(陵洞里)	능동리(陵洞里)							
원당리(元堂里)	원당리(元堂里)	원당리(元堂里)						
마산면(馬山面)	마산면(馬山面)	마산면(馬山面)						
불로리(不老里)	불로리(不老里)	불로리(不老里)		불로동	불로동			
목지리(木枝里)	목지리(木枝里)	목지리(木枝里)				검단2동	불로 대곡동	불로 대곡동
서원리(鎭院里)	서원리(鎭院里)							
대곡리(大谷里)	대곡리(大谷里)	대곡리(大谷里)		대곡동	대곡동			

강덕우 사)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Chapter 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1. 문화와 풍습
2. 사회와 환경
3. 교육과 행정
4. 산업

Ⅱ. 검단의 근현대 도시화와 생활문화

1. 문화와 풍습

1) 검단지역의 언어 - 검단방언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정의했다. 세상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이지만, 인간들 편에서 볼 때는 사물들에게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생명력과 존재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해왔다.

이렇게 명명된 언어의 조각들이 점차 내포와 외연이 확대되어 비유적 표현은 물론 인간 사고의 면까지 가시화할 수 있는 추상적 기호인 수학방정식, 과학적 법칙을 간단히 규칙화할 수 있는 수량사(數量詞)들, 인간 최고급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음표(악보)를 구안하는 등의 문자언어로 발전한 바, 언어는 다른 동물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만의 자산이다.

방언학계에서는 우리나라 방언을 동북(함경도), 서북(평안도, 황해도 북부), 중부(경기도 황해도 일원), 충청(충청도), 동남(경상도), 서남(전라도), 제주(제주도)방언으로 구분한다.

중부방언에 속하는 김포방언권 중에서 면단위 하위방언인 검단방언은 북동쪽으로 김포시 양촌면, 운양동, 장기동, 동남쪽은 김포읍과 고촌면, 남쪽은 계양구와 서구지역방언과 전이지대(轉移地帶)를 이루고 있으므로 방언의 혼효(混淆)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어려서 주로 할머니로부터 언어를 배우고 익혀왔다. 여름이면 마당에 멍석 펴고 누워 모깃불 냄새 속에서 “가자가자 감나무 오자오자 옷나무, 갓난아기 자작나무 낮에도 밤나무, 사시사철 사철

나무 십리절반 오리나무...”를 할머니 따라 외우고, 수수께끼, 말놀이를 통해 유머를 익히며, 무수히 쏟아지는 별뿔별을 보며 꿈을 키우는 언어교육을 받았고, 대대로 이어온 이러한 언어생활이 검단지역 방언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가 조성되면서 타지역 방언권에서 모여든 새로운 구성원들이 늘어나 장차 검단방언과의 혼효는 더욱 급속히 진행될 것이므로, 검단 본토박이 중에서도 60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검단방언을 사용하는 주민을 점점 찾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된다.

검단방언이 면단위의 하위방언이므로 인접한 지역 방언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검단지역 주민들은 이 방언으로 상상하고 꿈을 이루고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축적해왔으므로 단지 검단방언을 구분해 기술하는 것 이상의 큰 상징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 이상의 답론에 근거해 검단지역에서 아득한 선사시대로부터 누대에 걸쳐 발붙이고 살면서 검단의 문화를 창출·영위해온 도구인 검단의 소중한 언어유산인 검단방언을 기록·보전하는 일은 검단의 자존심인 동시에 정체성인 것이다.

제보해주시고 기술한 내용에 대한 자문을 해주신 분들은 모두 검단에서 출생해 고교졸업 때까지 검단에서 사신 분들로 연령 70세 이상이다.

성명 (나이)	출생·성장지	현 거주지
이규명 (75)	불로동	서울
이순학 (75)	당하동	인천
전광식 (75)	마전동	인천
김병하 (71)	대곡동	마전동

(1) 모음 규칙

검단방언의 단모음은 표준어와 같이 ‘ㅣ,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의 10개이며 조음위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ㅓ’는 장음과 단음이 구별되어 ‘서울’, ‘어머니’, ‘벌레’ 등의 그것은 단음, ‘거드름’, ‘거지’, ‘어른’ 등의 그것은 장음으로 발음되어 거의 ‘ㅓ’와 유사하게 발음한다. 그리하여 ‘없-다’가 연령층에 따라 ‘업따 ~ 읊:따’로 달리 실현되지만, 음운변동과 장단이 의미 차이를 나타내는 변별적 자질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젊은 층의 언어에서는 ‘ㅓ, ㅕ’가 일부 환경에서 중화해 합류되어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모음조화는 거의 소실의 마지막 단계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모음조화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활용어미 ‘-아/어’의 대립이 중화되어 ‘-어’로 실현되지만 어간 모음이 ‘ㅓ’인 경우는 +모음조화이다. (→: 음운변동 기호)

‘깎-아→깎-어’, ‘뒹-아→뒹-어’, ‘잡-아→잡-어’

‘뽐-아’, ‘숫-아’, ‘좁-아’

다른 양상이지만, 검단방언에서 물고기류를 뜻하는 한자어 ‘어(魚)’가 ‘아’로 실현되는 현상이 있다. 예를 들면, 겨울철 별미인 ‘언새끼송어’를 ‘동어(凍魚)’라 하지 않고 ‘동아’라 하며, 마찬가지로 ‘붕어→붕아’, ‘뱀장어→뱀장아’, ‘송어→송아’ 등으로 말한다.

① ‘ㅣ’모음 역행동화현상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등의 모음이 후행하는 ‘ㅣ’계 모음의 영향으로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 ㅗ, ㅓ, ㅕ’로 역행동화되는 현상으로 조음 위치가 ‘ㅣ’와 같은 전설모음으로 변동해 발음하기 쉽게 되는 규칙이다. 이들 중에서 ‘ㅓ’는 이차로 ‘ㅓ→ㅣ’로 대립이 상실되는 일종의 중화규칙이다.

정강이 → 정갱이 **잡방이** → 잠뱅이 / 두꺼비 → 두께비 **구덩이** → 구덩이
 고기 → 괴기 **속이다** → 쇠이다 / **구기다** → 귀기다
 누비다 → 뉘비다
 드린다 → 디린다 / **듣기싫다** → 디끼싫다

그러나 원래부터 순수한 ‘ㅣ’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변천해온 것이거나 앞의 다섯 개 전설모음들과 ‘ㅣ’ 사이에 혀끝으로 발음하는 설정적(舌頂的) 자음인 ‘ㄷ, ㅌ, ㄴ, ㄹ, ㅅ, ㅆ, ㅈ, ㅊ, ㅊ’ 등이 개재하면 역행동화규칙은 듣지 않는다. 그리하여 어디(←어디), 거기(←거기) 등과 ‘고리, 아니, 어디, 같이, 가시, 아씨, 가지, 고치’ 등은 전설모음화하는 음운변동이 없는 바, ‘어디→에디’, ‘거기→게기’ 등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언어는 말하기 쉽고 예외를 없애는 방향으로 변천하는 대원칙을 좇아 점차 ‘마되>마되>마디’로 변천해온 ‘마디’가 ‘매디’, ‘아리다’가 ‘애리다’로 변동하는 예외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예외를 없애고 문법을 간단화하는 방향으로 변해가고 있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검단방언에서 이 규칙은 원래 ‘뱀+이→뱀이’처럼 형태소 경계를 넘어서는 적용되지 않았지만 ‘뱀+이’는 ‘그런 뱀이 있나’에서처럼 형태소 경계를 넘어 규칙이 듣는 현상, 곧 음운환경만 주어지면 예외 없이 적용을 확장해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② 전설모음화와 모음의 중화현상

전설모음화 현상은 주로 설정적 자음 뒤에 오는 후설모음이 설정적 자음에 위치동화가 되어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남부방언에서는 빈번한 현상이지만 검단방언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이 규칙도 결과적으로는 모음의 중화현상이다.

비슷하다 → 비시커다 보습 → 보십

이슬 → 이실 깎두기 → 깎디기 춤춘다 → 춤친다

한편 모음체계에서 전설 중·저모음들이 전설고모음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바, 현대국어의 10개 단모음체계에서 모음 수를 줄여가는 모음추이(母音推移)가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구데기 → 구디기, 베다 → 비다, 번데기 → 번디기, 구덩이 → 구딩이’ 등이 그 예로 동남방언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어 이미 ‘개~네’, ‘네~ㅣ’, ‘ㅡ~ㅏ’의 대립이 중화되었다.

③ 장단음 대립의 소실

젊은 층의 언어에서는 모음의 장단이 비변별적이어서 ‘굴(패류)-굴:[窟], 눈[眼]-눈:[雪], 말[馬]-말:[言], 밤[夜]-밤:[栗], 벌[野]-벌:[蜂], 솔[松]-솔:[刷] 등의 대립이 소실되었고, 60세 이상 연령층 언어에서도 모음의 장단 대립이 점차 사라져가며, 중부방언 전체에 나타난다.

(2) 자음 규칙

검단방언에서 기저 자음의 목록은 표준어와 다르지 않아 양순음 ‘ㅂ-ㅍ-ㅃ, ㅁ’, 치조음 ‘ㄷ-ㅌ-ㅊ, ㄴ-ㄹ, ㅅ-ㅆ’, 경구개음 ‘ㅈ, ㅊ, ㅉ’, 연구개음 ‘ㄱ-ㅋ-ㆁ, ㅇ’, 후음 ‘ㅇ’이 자질대립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한편 6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평자음을 된소리로 말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지만 이 현상은 검단방언만의 특징은 아니다.

① 유기음 종성의 평음화

국어의 규칙상 음절 말 종성으로 유기음인 ‘ㅍ, ㅌ, ㅊ, ㅋ’들과 모음으로 된 조사,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원음대로 실현되어야 하지만 유기음과 평음의 중화 현상이 나타난다.

앞-이 → 이비 무릎-이 → 무르비 높-이 → 노피

술-이 → 소시 술-을 → 소술 팔-이 → 파시 팔-을 → 파슬

낮-이 → 나시 낮-을 → 나슬, 빛-이 → 비시 빛-을 → 비슬

부엌-이 → 부어기 부엌-을 → 부어글

위의 예에서 ‘ㅍ-ㅂ’, ‘ㅊ-ㅅ’, ‘ㅋ-ㄱ’는 중화될 수 없는 음운환경이지만 발음의 편의를 위해 평음화 규칙이 적용된 것으로 이해된다. ‘술-이’, ‘팔-이’의 연결에는 전통적으로 구개음화규칙이 적용되어 표면형이 ‘소치, 파치’가 되어야 하지만 규칙의 적용 순서가 바뀌어 마찰음화규칙을 먼저 적용한 것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장차 ‘부엌>부억’, ‘술>숯’으로 변천할 가능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② 구개음화(口蓋音化) 규칙

구개음화란 윗니 뒤쪽에서 발음하는 치조음이 ‘ㅣ’, 과도음 ‘l(y)’에 역행 동화되어 경구개음으로 변동하는 것이다. 중부방언에서는 17세기 후반부터 나타나 고유어, 한자어 모두 적용되어 ‘텨(天)>천’, ‘가디 못 한다’에서 어미의 ‘디>지’로 변천해 ‘가지 못 한다’가 된 것이다. 남부방언에서는 연구개음인 ‘ㄱ, ㅋ, ㆁ’과 후음 ‘ㅎ’까지 전면적으로 확대 적용되어온 까닭에 그 영향이 중부방언까지 미쳐 점차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그리하여 일차적으로 ‘ㄷ, ㅌ, ㄴ, ㄹ, ㅅ, ㅆ, ㅎ’가 ‘ㅣ’나 과도음 ‘ㅣ (y)’ 앞에서 각각 경구개음 ‘ㅅ, ㅆ, ㄴ[n], ㄹ[ɺ], ㅅ[ʃ], ㅆ[ʃ]의 경음), ㅎ[ʃ]’으로 변동해 이런 환경에서 원래의 음과 중화되는 현상으로 형태소 내부, 경계에 적용되며 예는 다음과 같다.

곧-이 → 고지 발-이 → 바치 / 아니 → 아니[n] 돌리다 → ㄹ[ɺ]

가시 → ㅅ[s → ʃ] 씨름 → [s → ʃ] / 힘 → 심 헛바닥 → 세빠닥

그러나 문제의 ‘ㅣ’가 역사적으로 순수한 것인가, 아니면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변천한 것인가에 따라 규칙적용의 양상이 다르다. 예를 들면, ‘말-이→마지’로 되지만 ‘마디>마디>마디’의 변천을 겪은 ‘마디’는 ‘첫째’를 뜻하는 ‘말이’와 표면상 같아 보이지만 규칙이 듣지 않는 바, 이 제약은 모든 구개음화규칙에 적용되며, 검단방언도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리하여 ‘견디다, 터디다, 디디다, 어디, 잔디’ 등과 ‘느티나무’의 ‘ㄷ, ㅌ’는 역사적으로 모음이 ‘ㅣ>ㅣ’가 된 연유로 구개음화되지 않는다.

한편 조음위치가 경구개음과 유사하게 높은 연구개음은 경구개음화하지 않아도 발음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남부방언에서 시작된 개신파(改新波)가 중부방언, 검단방언에까지 영향을 끼쳐 ‘기

름→지름, 긴등→진등, 겨울→저울, 키→치’ 등으로 확대되어가고 있지만 아직 전반적 경향은 아니다.

검단방언에도 근대국어 시기 이래로 ‘짐승’이던 어휘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김생’, ‘점심→점심’처럼 구개음화의 역으로 변한 예를 들을 수 있다.

(3) 형태소 경계의 음운현상

① 종성의 자음군 단순화

15세기를 정점으로 한 중세국어 시기에는 어두에는 3자음, 모음 사이에는 최대 6개의 자음이 표기되었지만 표기된 모든 자음을 발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뿔>쭈>꿀, 뻥>씩>때’로 어두 자음은 하나만 오게 되었고, 음절말 자음군과 어두 자음군이 ‘뽕+뻥(닭때-酉時)’와 같이 합성어가 되면 6개의 자음이 표기되었다.

검단방언에서 종성 중자음 체언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는 모음 사이에서 두 개의 자음을 발음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특이한 경우 자음군 간단화의 규칙이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동사류에 기저의 자음을 모두 발음한다.

명사+조사 : 값-이→가비 값-을→가블 / 닭-이→다기 닭-을→다글

동사류+어미 : 없-어→업서 뵈-아→발바 읽-어→일거

(4) 기타 특징적 표현

① 결말 사용상의 특징

연결어미나 유사 접속어 형태의 관용어들이 검단방언에 있었다. 예컨대 ‘그러니깐드루, 거시기 뭐드라, 앓어 설라무네’ 같은 어르신 네들의 언어습관은 검단방언의 신기한 일면이다.

② ‘좋다 / 나쁘다, 망한다’

색채어들은 ‘까맣→까매, 노랑→노래, 빨강→빨개, 하얗→하얘’로 활용할 때 ‘ㅎ→ㅇ’으로 되는 규칙이 중부방언이지만 ‘좋-’은 ‘좋아’로 활용한다. 검단방언에서는 ‘좋다’의 반의어로 ‘나쁘다’를 쓰지 않고 흔히 ‘망항다’를 써왔다. 그리하여 ‘망해, 망한, 망할, 망해요, 망항지요’ 등의 검단방언 고유의 활용형이 있었으나 적어도 60세 이하 연령층은 이런 표현을 모른다.

③ 활용형의 ‘ㄹ’ 첨가

다음의 예들에서 짝지어진 단어의 앞의 항이 표준말인 바, 검단방언에서는 어간에 ‘ㄹ’을 첨가한다. 그리하여 ‘가르다→갈르다’, ‘거르다→걸르다’, ‘고르다→골르다’, ‘다르다→달르다’, ‘마르다→말르다’, ‘자르다→잘르다’ 등과 같은 활용형을 가진다. 그러나 ‘이르-[췌]나 푸르-’는 ‘ㄹ’ 첨가 현상은 없다.

④ ‘-’의 삽입

‘갈다’의 표준말 활용형은 어간 ‘갈-’에 ‘-으니, -으니까, -으시니/-는’ 등의 활용어미가 오면 ‘ㄹ’과 ‘으’가 차례로 탈락해 ‘가니, 가니까, 가시면/가는’이 표준말의 활용형이다. 그러나 검단방언에서는 ‘ㄹ’과 ‘으’가 탈락하지 않고 ‘갈으니, 갈으니까, 갈으시면/갈으는’이 되는 특징이 있다. 수년 전 어린이 영상물 ‘날으는 원더우먼’에서 ‘날으는’은

표준말 활용법으로는 ‘나는’이 되어야 하지만 이때는 ‘나는/너는’의 의미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배려인 듯하다.

표준말 활용에 어긋나는 예로 ‘같다→같으다, 깎다→깎으다, 깊다→깊으다’에서 보면, 까닭 없이 ‘으’를 삽입하지만 ‘좁다→*좁으다’(*는 비문 표시)라 하지는 않아 모든 동사류에 적용을 일반화할 수 없고, 60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이런 표현을 듣기 어렵다.

⑤ 어말 ‘ㅇ’탈락과 모음의 변이

인명, 지명처럼 전통적으로 사용해온 어휘들의 마지막 음절 종성이 ‘ㅇ’인 경우 특이하게 ‘ㅇ’이 탈락하면서 2차적으로 모음의 변이가 일어난다. 전 항목은 인명, 후 항목은 지명의 예로 ‘기영→기예이, 덕양→덕애이, 신양→신애이 / 성황당→서낭대이, 완정→완제이, 태정→태제이’ 등이 그 예이며 일상에서 “우리 완제이(완정) 가자.”처럼 표현한다. 그러나 ‘석양, 석낭, 동낭’ 등은 음운변동이 없어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지는 않는다.

위의 ‘ㅇ’탈락은 기존의 음운규칙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만약 발음의 편의를 위해 자음이 탈락했다고 설명하면 오히려 매우 강력한 국어의 규칙 중 하나인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규칙에 위배되는 표면형을 도출해내기 때문이다. 구어(口語)에서 ‘문제이다→문제다, 어제이다→어제다, 어제인가→어젠가’ / ‘남자이다→남자다, 개이다→개다’와 같이 ‘ㄱ’, ‘ㄴ’과 ‘ㅣ’가 충돌하면 ‘ㅣ’는 탈락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음운 현상임에도 앞의 어휘들에서는 역으로 ‘ㅇ’이 탈락해 ‘ㄱ’, ‘ㄴ’과 ‘ㅣ’가 충돌하는 표면형을 만드는 것은 검단방언의 기이한 현상이다.

언어는 생명이 있는 체계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음운, 어휘, 문법체계가 변천, 사멸, 생성되는 특징이 있는 바, 이 도도한 물결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 조상들이 까마득한 옛날부터 비옥한 땅 검단에 자리 잡고 살면서 우리말 곧, 검단방언을 쓰며 살아왔다. 하지만 외연과 내포를 키우며 살뜰하게 지켜온 검단방언은 ‘정체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세상 먼지를 뒤집어쓰라’는 문명 발달의 강요에 저항할 힘이 소진되어가고 있다.

이제 경건히 검단문화의 정수인 검단방언이 영원하기를 기원할 뿐이다.

2) 동제

(1) 천신(天神)숭배의 배경

우리민족 고유 신앙인 ‘천신숭배’ 담론의 정수(精髓)는 태곳적부터 원초적·생득적·보편적인 무의식의 심연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표출되어온 집단무의식의 표상 중 하나인 ‘벽사진경(辟邪進慶)’, 곧 초월자인 천신에 의지해야만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인 자연적 현상에 대한 외경(畏敬), 사악한 여러 현상·존재, 귀신들을 물리치고 복락을 맞이할 수 있다는 우주관의 표출이다.

고대 역사서에는 우리 조상들이 어떤 의식(ritual)을 통해 우리민족에게 신앙의 유산을 유전했는가를 기록했다. 우선 『삼국유사』 소재 단군신화는 환인이 세상에 뜻을 둔 환웅에게 천부인(天符印) 세 개를 천왕(天王)의 상징으로 전하고, 천왕의 자격으로 신시(神市)를 열고, 풍(風), 운(雲), 우(雨)를 통제할 조력자를 동반해 자연을 순치(馴致)할 수 있는 조건과 360여 인간사(人間事)인 문화시혜의 요건들을 단군에게 전승해 그로 하여금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기틀을 완성했다.

환웅은 마침 동굴이라고 하는 유펜처에서 기도하는 통과의를 거쳐 지모신(地母神)이 된 웅녀와 결혼해 단군을 낳고, 그 단군은 주술군장(呪術君長)인 천손(天孫)으로서 광명이세(光明理世)와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위민(爲民)철학으로 전승함으로써 그의 선조로부터 3대를 ‘천신’으로 신앙해야 할 원형(archetype)의 형태로 후세 우리민족의 집단무의식 속에 영존(永存)하게 했다.

민속학계에서는 ‘단군’을 무속의 ‘단골~당골’로 동일시하고 알타이어계에서도 천신을 ‘텅그리(tengri)’라 하므로 ‘단군~단골~당골’이 ‘텅그리’와 동계의 어휘임을 알 수 있다. ‘당골’이란 무녀(巫女)와 당골집이라 부르는 씨족이나 일정지역(마을)의 신무자(信巫者) 간에

특약에 의해 ‘당골무’가 전적으로 그들 집단의 제의(祭儀)를 집전하는 사제(司祭)가 되고, 당골집은 당골무를 부양하는 종교사회·집단이다.

단군왕검(檀君王儉)이란 어휘는 단군이 천군, 곧 제정권(祭政權)을 가진 신[군·儉]인 동시에 왕이란 뜻으로, 단군은 자신이 건국한 조선과 도읍 평양성의 당골무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옛 사서에 기록된 삼한의 소도,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에 실려 있는 부여의 영고, 예의 무천, 고구려의 동맹, 삼국의 건국신화, 가락국의 영신군가(迎神君歌), 『제왕운기』 소재의 영웅서사시 동명왕편 등은 모두 영웅의 탄생을 통해 천신을 탄생시켜 그를 신앙의 원형으로 정립했다.

‘신’이라 통칭되는 이러한 초월적·절대적 존재들, 천신·창조신, 그 하위신이라 할 수 있는 농사나 수렵, 어로, 산신, 해신, 토지신 등과 같이 특정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들을 신앙하는 신관(信觀)은 원초적으로 인간의 DNA 속에 변함없이 전승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상신, 귀신 등에 대한 종교관은 시대, 가치관에 따라 그 대상이 생성, 변화, 소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원래 국가적 제의였던 천신제가 마을 단위, 씨족 단위로 규모가 축소되기도 하고, 천신을 신앙의 기본으로 하면서도 신앙의 대상이 자연, 인간사와 관련된 모든 만물에 정령을 부여하고 그들을 신앙하는 애니미즘의 세계관으로 변형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천신신앙의 화소(motif)의 다양화, 또는 축소형이라 할 수 있는 일신(日神), 월신(月神), 성신(星神), 지신(地神), 산신(山神), 농신(農神), 수신(樹神), 수신(水神), 가정의 요처나 대상을 신격화한 성주, 조왕, 터주, 업신, 문신, 축신(廁神)과 이들을 융합한 형태의 고사(告祀) 등의 가신신앙(家神信仰)과 도깨비를 신봉하는 사귀(邪鬼) 또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스토리텔링을 지닌 인간을 신앙하는 인신

(人神)까지 모시는 다양한 형태로 신앙의 대상이 확대·변형되어 일상의 삶이 곧 신앙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마을의 축제 - 동제(洞祭)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인 1995년 이전 예전의 김포군 검단면 지역에는 선사시대의 지석묘 수십 기와 주거 유적은 물론, 거주역사를 고려 말까지 소급할 수 있는 마을들이 있다. 편제는 마전리, 당하리, 원당리, 불로리, 대곡리, 금곡리, 오류리, 왕길리의 8개 리(里)로, 이들이 모두 1~4개의 집성촌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을의 역사만큼 다양한 유형의 동제들이 마을신앙으로 전승되어 온 특징이 있다.

필자가 김포군의 의뢰로 1995년 초 집필한 김포군 『지명유래집』에는 검단 모든 지역이 마을에 따라 ‘천신제, 소도, 동제, 서낭당(성황당)’ 등의 제의 관련 지명이 다양하게 소재하고 있는 것을 현지 조사해 기록한 자료가 있다. 검단지역의 원당리, 당하리 등 ‘당’을 마을 이름으로 갖거나, 원당동의 ‘술터구석, 소댕이’ 왕길동의 ‘종현’ 등의 지명이 오랜 역사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집성촌은 물론 4개까지의 각성바지 마을일지라도 오랜 역사 속에서 동제를 통해 화합하며 의좋은 이웃으로 지내왔다는 자랑스러운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별 동제와 집성촌별 전통신앙계의 지명은 『인천 서구의 민속 신앙-동제편』 44~47쪽, 마을별 동제 명칭은 44~45쪽 참조)

동제란 마을의 안녕과 풍농 즉 벽사진경, 제액초복(除厄招福)을 기원하기 위해 마을이 정한 시기에 천신 등 제신(諸神)에게 드리는 의식이다. 마을의 전통, 지역적 특성에 따라서 천신제, 동제, 도당제, 산고사, 산치성, 당제, 서낭제, 풍어제, 용신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행해온 마을 단위의 세시풍속이며 ‘축제’였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극히 일부 마을에서 약식으로 수행될 뿐 대부분의 제의들은 전설이 되고 말았다.

동제의 유형은 크게 무속의례와 유교식 의례로 구분된다. 무속의

례는 당골무가 천신 등 제신(諸神)에게 제의를 드리는 형식으로 마을의 안녕과 풍년 농사를 기원하되 정형의 의식에 마을주민이 동참하는 연희(演戲)를 가미해 정월 농사 시작 전, 또는 추수 후 10월경 마을의 축제로 제의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유교식 의례는 전통 천신제에 유교를 접목한 형태로 당골무를 초청하지 않고 마을 회의를 통해 제관을 선출해 그가 의례 준비와 진행을 보조 제관들과 협의해 마을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의를 집전하는 형태를 이룬다. 유교식 제의 형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마을에 따라서는 전통적으로 정형화된 순서와 전해오는 축문이 있다.

그다음으로는 대개 두 형식의 절충형으로 도당제 준비와 제의 첫째 날 강신(降神)의례까지는 마을에서 선출된 제관이 집행하고 그 이후는 당골무가 ‘박수’[무격(巫覡): 남자무당-‘박수’는 알타이 공통어로 몽골어는 ‘paksi’, 퉁구스 ‘baksi’, 만주 ‘facsi’ 등] 무당을 비롯한 수 명의 무인들을 동반하고 제의를 집전하는 형태로 검단지역 도당국은 절충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검단지역은 적어도 1970년대 후반까지는 마을 단위로 당골무를 정하고 여러 신을 신앙해왔다. 무속의례를 수행해온 지역은 안동포, 대왕, 소왕, 사월, 봉화촌, 대촌, 오류동, 반월촌 등(『인천 서구의 민속신앙-동제편』 202쪽) 해안지역이다.

그중에서 안동포는 검단지역 유일한 어촌이었으므로 풍어제와 용신굿의 전통을 가졌던 바, 위의 책 157~162쪽에는 안동포 마을의 풍어제 등 도당굿 전승의 내용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거니와 이 제의도 검단지역의 전통적 축제의 하나였다.

다음 사진은 인천문화재단 발행 『인천의 전통놀이』 197쪽에서 가져온 서해안 ‘배연신굿’의 한 장면으로 안동포 풍어제 관련 사진이 없어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배연신굿

배연신굿이란 어촌마을의 제의인 풍어제와 달리 개인 선주가 어로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의례이다. 사진 속에는 제물 뒤의 그림에 제의의 대상 신이 매우 다양해 일반적 동제와는 크게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대개는 임경업 장군과 같이 고기잡이 관련 스토리텔링을 가진 인물, 신을 그림으로 모시고 풍어와 어로의 무사를 기원하는 제의를 드린다.

다음으로 절충형 도당굿의 명맥을 유지해 온 지역은 대곡동의 두밀, 황골, 불로동의 불로, 당하동의 독정 정도였다. 이들 일부 지역에서는 완정마을의 ‘당골만신’(무당을 높여 부르는 명칭)이 제의를 집전했던 바, 그가 도당굿 이외에도 개별 가정의 안택(安宅)굿, 자리건이 등을 전담하며 당골 사제의 기능을 담당했다.

두밀마을 도당굿의 경우 절충형의 전형을 볼 수 있다. 먼저 여러 금기사항에 제척 사유가 없는 ‘당주’를 뽑는다. 그리고 당주들(남자 1명, 여자 2명, 부당주 약간 명)은 제의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정하고 진행한다.

첫째 날 ‘큰 당’인 가현산의 ‘삼형제바위’에서 강신(降神) 의례를 수행한 다음 ‘신’을 모시고 마을로 내려와 예전부터 ‘작은 당’으로 정한 ‘아랫말 은행나무(수령 500년 보호수)’에 새 벚짚으로 터줏가리를 세우고 제의를 수행함으로 신을 마을로 모시는 제의는 끝난다. 그 이후는 완정마을의 ‘당골만신’이 4~5명의 무속인을 동반해 마을에 와서 제의를 진행하되 마을주민 모두가 제의에 참가해 전체 3주야(晝夜) 동안 가무와 웃음과 유머와 해학이 있는 흥겨운 축제의 장을 벌인다.

서구지역에서도 검단지역이 서곶지역에 비해 배 이상의 수효로 동제-도당굿이 더 성행했던 것은 이 지역이 전통적인 씨족마을이며, 농업이 생업이었으므로 전통적으로 ‘벽사진경(辟邪進慶)’ 곧 마을의 안녕과 풍농을 천신에 의뢰하고 기원해온 태곳적 조상의 신앙을 계승했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제나 도당굿의 형태는 어쩌면 단군신화의 여러 원형과 화소들을 계승한 ‘소도’의 전승을 마을에 따라 얼마간 변형해 수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측면이 있다. 단군신화의 세 천군, 특히 단군왕검과 소도의 천군은 동제에서 천신을 주신으로 모시고, 제의를 집전하는 당주와 무속인 사제가 이에 대비되며, 신시-별읍과 동제에서 금줄을 띤 당주집 또한 신단수-장대에 비견되는 당목, 천부인 세 개-북, 방울과 무속인의 방울과 의구(儀具) 등이 어긋남이 없이 대비됨으로써 ‘단군신화-소도-동제’가 단군신화의 원형을 면면히 전승한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을 듯하다. 단군신화는 우리민족의 DNA에 천신신앙을 집단무의식으로 선물했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민족의 정체성의 한 축이며 민족문화의 정수였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명제에 또 하나로 방증이 될 수 있는 자료로, 옛 문헌들에 기록되어 있는 제천의례, 곧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예의 무천이란 국가적 축제가 있었다. 이들 행사에는 공통으로 “백성들이 모여 춤추고 노래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바, 이 가무음곡은 동제 끝에 온

마을주민들이 함께 축제를 벌이는 것을 방불하게 한다.

“신화가 없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명제는 참일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갖추고 있다. 우리 조상들은 역사적으로 왕조의 변혁과 국정철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천신신앙을 멀리한 때가 없었다. 단군 이래 각 나라는 오악(五嶽)을 정하고 왕이 친히 산에 올라 천신제와 기우제를 집전하면서 국태민안(國泰民安)과 풍농을 기원했던 기록이 있다. 또한 도성 안의 사직단(社稷壇)에서 사(社-토지신)와 직(稷-곡신)에 제사하는 것이 왕의 주요 임무의 하나였다. 비록 원시형태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제의들이 민족을 결속시켜 동족애를 각인시키며 국란을 극복할 긍정적 가치관을 갖게 하고 미래를 꿈꾸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민족 정체성의 큰 버리 중 하나가 된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하늘이 열린 날부터 우리민족이 지켜온 천신신앙 또 그 전승인 동제·도당굿이 일제강점기에는 민족정기 말살의 일환으로 압살되었으며, 또 어느 시대에는 새마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폄훼되어 검단지역 대부분 마을에서 그 빛을 잃고 역사로만 남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단지역의 <동제·도당굿>은 마을의 축제로 그 속에 사람 냄새가 있고, 웃음이 있고, 유머가 있고, 질펀한 해학이 넘쳐나는 검단의 정체성이며 검단문화의 기반이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여러 외국에서는 작은 소재[motif]에 그럴듯한 스토리텔링을 입혀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흥내를 내어서는 우리 고유의 멋이 깃든 축제가 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다. 민족정기의 정수인 동제·도당굿의 원형을 현대인의 정서에 맞게 여러 장르의 축제로 승화시킬 혜안이 필요하다.

3) 여가생활-금강산 기행

(1) 역사 속의 금강산

금강산(金剛山; 1,638m)은 예로부터 지리산[方丈-智異山], 한라산[瀛州-漢拏山]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 중의 하나라 했다. 봄에는 아름다운 금강산, 여름에는 신령스런 봉래산(蓬萊山), 가을에는 단풍으로 물든 풍악산(楓嶽山), 겨울에는 준봉들이 혈벗은 개골산(皆骨山)으로 계절에 따른 풍광의 변화를 이미지화한 이칭을 갖고 있다. 위치에 따라 내금강, 외금강, 동해안의 해금강으로 구분하며, 해발 1,500m 이상의 봉우리 10개 이상을 거느리고 있다.

산의 형세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서쪽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동쪽은 급하다. 바위의 형태는 ‘옥류동’ 계곡 쪽 봉우리는 대부분 가로로 갈라진 판상절리, 만물상 일대는 우뚝 솟은 주상절리이면서 바닥은 틈이 없는 대형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금강산은 신라의 오악(五嶽) 중 하나로 신라시대의 화랑들이 명산 대천을 순례하며 수련한 장소였다. 술랑(述郎), 남석(南石), 안상(安詳), 영랑(永郎) 등 사선(四仙)이 3일 머물렀다는 ‘삼일포(三日浦)’, 영랑의 이름을 좇은 ‘영랑호(永郎湖)’ 등은 현재 동해안 속초 인근의 명소이다.

조선시대에도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 금강산의 절경을 명문장과 황홀한 미술작품으로 묘사했다. “강호에 병이 기퍼 독립의 누엇 더니 관동팔각니에 방면을 맞디시니 어화 성은이야 가디록 망극하·다...”로 서두를 쓴 송강 정철의 「관동별곡」, “소나무와 소나무, 잣나무와 잣나무, 바위와 바위를 도니 물과 물, 산과 산이 곳곳마다 기묘하다(松松栢栢岩岩廻 水水山山處處奇)”로 한껏 기지를 발휘한 김삿갓, 겸재 정선의 「금강산도」와 강세황, 김홍도, 김윤겸 등 여러 명의 옛 화가들이 진경산수(眞景山水)로 금강산을 화폭에 담았다.

개화기에는 한영 수교 후 영국영사 부인이 당시 교통 사정이 좋지 못해 30일 정도 걸려 여행했고, 일제강점기에 들어서는 왜인들의 필수 여행지가 될 정도였다. 일제는 금강산 부근 창도의 유화철을 캐내어 일본으로 빼내어 갈 목적으로 1914년 9월에 이미 완공된 경원선 철원역에서 금강산선 김화역까지는 1924년 개통, 1931년에는 금성-창도-내금강을 잇는 116km의 전체 구간을 전기철도로 개설한 바, 인근에 소수력발전소를 지어 이른 시기에 공해 없는 전철을 설치했다.

1926년에는 스웨덴의 구스타프(Gustaf)VI가 왕자시절 일본 방문차 온 길에 남의 나라 왕릉인 경주 서봉총(瑞鳳塚)을 무단 발굴한 뒤 금강산을 탐방하고 그 절경에 감탄했다고 한다.

전기철도가 완공되어 철원에서 내금강까지 4시간 거리가 되자 국내 학생들의 수학여행, 일본 학생들의 단골 수학여행지가 되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많은 조선인들, 특히 춘원, 육당, 노산 등의 당대 문인들이 탐방하고 각각 「금강산유기」, 「금강예찬」, 「금강귀로」 등을 남긴 바, 노산은 119수의 시조를 지어 소회를 남겼다.

금강이 어디더뇨 동해의 가일러라

갈 적엔 거닐러니 올 제는 가슴에 있네

라라라 이대로 지녀 함께 늙고자 하노라

경술국치를 당한 뒤 혼란과 궁핍했던 1910년대에 한가로이 여행을 다닌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1884년 출생해 장릉 참봉과 제2대 검단면장을 지낸 김봉흠(金鳳欽) 어른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크게 복 받은 분이다. 또한 그 어르신인 손자 되는 김병학님은 그 시절 사진을 모두 간직해 오늘날 검단지역, 나아가 서구에서 사신 분들의 생활 모습의 일면을 볼 수 있게 해준 것에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기증해주신 귀한 사진들은 인천서구문화원에서 발행한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에 실렸다.



| 금강산 만물상을 배경으로 기념촬영



| 금강산에 도착해 유람을 시작 전 기념사진



| 금강산 유람 중 내금강역에서 기념촬영

왼편 사진은 금강산 경승 중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만물상이다. 중절모를 쓰고 정장에 넥타이를 매고 산행, 관광하는 당시의 복장이 이채롭다. 이 시대까지만 해도 남녀가 한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어색한 시대였을 터인데 여성 유람객도 두어 분 있는 듯하다.

오른편 사진은 금강산에 도착해 유람을 시작하기 전 기념사진이다. 마지막 사진은 내금강역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이다. 사진 설명 글에는 1910년대로 되어있으나 내금강까지 전철을 개통한 시기가 1931년이란 기록이 있으므로 개통 후에 유람한 사진일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이 흐려 확실히 구별하기는 어렵지만 외국인과 여러 명의 여성도 있는 듯하다.

(2) 평화통일을 염원하며

광복, 6·25전쟁, 남북분단 이후 50년 이상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어 오다가 1998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방북해 북한과 금강산 관광협정을 체결, 11월 금강호가 첫 출항하며 금강산 관광의 문이 열렸다.

2003년 육로 관광을 시작했고, 2008년에는 자가용을 이용한 방북 관광이 허용되어 2009년까지 150만 명 이상이 금강산을 다녀왔다.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변을 산책하던 박 모 여인의 피살 사건으로 중단된 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아~! 그리운 금강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 금강산 관광 기념사진 (이순학님 제공)

위 원편 사진은 남북합의로 금강산 관광이 가능했을 때, 금강산에 도착한 일행이 기념 촬영한 것으로 배경 원편의 건물을 제외하면 앞면 흑백사진 중 원편 첫 번째 단체 사진과 뒷산 원경이 유사하다. 오른쪽은 사진들을 제공한 이순학님 삼부자가 눈 쌓인 개골산 만물상을 배경으로 나란히 섰다. 등반객들의 옷차림과 얼굴 모습이 격변한 세월을 웅변하고 있다.

2. 사회와 환경

1) 여래마을 모내기

우리나라는 수천 년 동안 전통적으로 곡물 특히 주식량인 쌀농사는 국민의 생명선이었으므로 전통 농촌의 일 년 중요과업은 쌀농사와의 연관 속에서 이루어졌다. 『김포군지』 (1993) 1,300쪽에 따르면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 출토 이탄(泥炭)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분석 결과 $4,010 \pm 25 \text{B.P.}$ 의 절대연도, 즉 기원전 2,000년 경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아득한 옛날부터 김포지역 한강 하구에 발달한 퇴적층에서 쌀농사를 지어온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김포의 수변, 내륙 전체의 면들에 고루 지석묘가 분포해 있어 김포지역에서는 이른 시기부터 정착민들이 농경을 해온 것으로 추정된다.

선사시대의 조상들은 손쉽게 음식을 얻을 수 있는 해안가에서 구조개를 채취하며 살다가 점진적으로 음용과 농사용 수자원이 풍부한 내륙으로 이동해 벼 경작의 기술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단 인근지역에는 한강 하류 김포시 운양동 감바위와 하성면 시암리, 두 지역 모두 선사시대 유적인 지석묘가 여러 기 있다.

또한 검단동 중에서 비교적 내륙지역이라 할 수 있는 불로동에는 두어 기, 대곡동에는 100여 기(인하대 조사)의 지석묘가 있거니와 황골에는 강화 부근리 지석묘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북방식 지석묘가 있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당시 검단 대곡동에는 큰 세력 집단이 있었고 가용 인력도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를 지나서 철기를 사용하는 시대에 들어서는 더 발달된 농기구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철의 생산이 필수 품목이었을 것이다. 마침 검단지역에는 이름 그대로 철이 나는 ‘쇠골’ 마을에서 파낸 철광석을 제련해 철의 수요를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철로 만든 농기구들, 곧, 도

끼, 팥이, 낫, 삽, 가래 등을 만들어 썼을 것인 즉, 이러한 시대는 철기가 조상들의 농경, 무기의 발달에 혁명을 가져왔을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농기구는 먼 옛날부터 20세기까지 사용되어왔다.

검단지역은 가현산이 북서부에 솟아 있고 그 주위를 금곡동, 마전동, 대곡동이 에워싸고 있다. 가현산 남록 가현마을에서 발원한 시내와 완정 쪽의 시내가 마전동 여래마을 서편에서 합류해 마전동, 불로동의 경계를 지나 동류한다. 가현산 동록 황골마을에서 발원한 대곡천은 두밀, 장구메를 지나 불로동 별판 북쪽 쇠저[牛渚; 세 갈래 물가(길)이란 뜻]에서 합류해 큰 하천인 검단천이 된다. 이 명칭은 ‘세>쇠>소’의 변천을 거친 결과로 ‘세 뿔(귀) 산’ 아래에 있는 마을을 ‘우이동(牛耳洞)’이라 바꾼 것과 같은 변천을 겪은 결과로 우저서원(牛渚書院)은 이 부근 주민들이 ‘쇠제이’라 부르는 이 하천에서 유래한 명칭이란 사실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그 하천을 중심으로 전개된 논들은 수량이 풍부해 비옥한 곡창지대가 되었다. 1950~60년대 검단학교를 다니던 시절, 추수가 끝난 늦가을 마전리 여래마을과 불로리의 경계에 있는 여래교 교각 사이를 널판으로 쌓아올려 물길을 막으면 학교 앞 너른 들이 큰 저수지로 변해 겨울에는 얼음판이 되어 썰매 타고, 공차는 운동장이 된다. 봄 모내기철이 되면 제일 위에 막은 널판부터 하나씩 빼내어 수문 하류의 논에 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의 기능을 훌륭히 해내어 갈수기에 도 물 걱정이 없었다.



| 저수지가 조성되던 검단학교 앞들, 정리된 마전천, 새 여래교

앞의 사진은 예전 임시 저수지를 조성하던 다리가 있던 곳이지만 좌측(남) 산 쪽에는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천을 정리해 깊어졌고 다리도 새로 놓아 예전 모습은 간 곳 없다. 예전 다리는 일본인들이 놓은 것이었지만 2차 대전 말기에 군수물자가 부족하게 되자 다리 난간을 깨고 그 속에 들어있던 철근을 잘라가 난간이 없어 위험하고 불품없이 좁은 다리였다. 이 하천에서 미역 감고 고기 잡던 추억이 아련하다. 그 많던 붕어, 메기는 다 어디로 갔나?

일제가 미국 수탈을 위해 한강하류 김포 쪽에 제방을 막기 시작한 1926년 이전에는 김포에서는 검단지역과 문수산 인근 통진이 곡창지대였고, 김포읍 홍도평, 감정리 앞 벌판은 조수가 드나들고 메말라 겨우 메밀 농사나 짓던 황무지였던 바, 수리조합 수로가 생긴 후지만 『김포군지』 763쪽 이하의 논 면적과 미국 생산량 대비(1971년)에서 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논 면적(ha)/비율	미국 생산량(M/T)/비율
김포면 1,727/100	1,338/100
검단면 1,520/77.7	1,040/81.5

위의 표에서 보면, 검단의 논 면적은 김포의 77.7%이지만 미국 생산량은 김포면의 81.5%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검단이 월등히 높은 것은 검단지역 논의 매우 비옥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검단지역에는 선사시대부터 상당한 규모의 씨족마을들이 형성되어 정착해왔고, 넉넉한 수원과 비옥한 땅에서 궁핍하지 않은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인해 우리민족은 모멸감과 함께 일제의 강제징용, 전쟁물자 공출 등으로 미증유의 수난과 궁핍한 시대를 맞게 된다. 일본인들이 자국의 쌀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 인천에 세웠던 미두취인소(米豆取引所)는 투자에 어두운 당시 조선인의 쌀을 갈취해 인천항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하기 위한 야바위 짓이었다. 이 무렵 일제는 자신들의 전쟁물자 비축을 위해 조선 전국에 걸쳐 쌀 증산을 독려한 바, 아래의 사진은 당시에 모내기에 동원된 어린 학생들의 모습이다. (인천서구문화원, 2011,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



검단공립보통학교 모내기 시범 모습



검단면 주민들이 모내기 시범을 보이는 모습

1930년대 검단공립보통학교 학생들이 어른들 틈에서 모내기 시범이란 미명하에 전쟁물자 비축을 위해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학교 앞·뒷산은 변한 것 없이 여전히 그 산이다. 오른쪽 사진은 주변 산세로 미루어 앞에서 사진으로 제시한 여래교의 서쪽 학교 앞 들판이 틀림없다. 어른들과 어린 학생들이 동원되어 넓은 논에서 줄을 띠어가며 모를 내는 시범을 보이는 듯하다. 모든 것이 일제의 수탈 계획의 일환이었다.

소가 논밭을 갈던 때, 모내기부터 추수까지 대략 다음과 같은 순

서로 일 년 농사가 진행되어 왔다. 모내기 시작 전 3~40일 전에 항상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논배미 한편에 못자리를 만든다. 바닥을 잘 고른 다음, 폭 1m 정도, 길이는 논의 구조에 따라 조정하되 모내야 할 전체 논에 알맞게 여러 판쟁이를 만든 다음, 미리 물에 담가 눈이 튼 범씨를 모판에 뿌리고, 조류가 먹는 것을 방지하고 보온을 위해 대오리나 비닐 막대 등으로 중간이 뜨도록 해 비닐을 씌운다. 모가 20cm 정도 자라면 물댄 논을 갈고 썩레질을 해 부드럽고 평탄하게 고른다.

날짜를 정해 모내는 날이면 논 면적에 따라 품앗이로 적정 수의 이웃들을 불러 우선 모판의 모를 찌 묶어서 논 전체에 소요될 만큼 던져놓는다. 그다음 약간 굵은 노끈에 모널 간격에 맞게 붉고 3cm 정도 되는 줄을 꿰어 모눈을 표시한다. 그리고 양쪽 끝에서 줄이 감긴 막대를 잡고 모를 꽃기를 기다렸다가 끝날 즈음에 ‘오라이’ 하고 소리를 치면, 간격을 맞춰 줄을 넘긴다. 모내기는 적어도 새참을 내놓을 때까지 2~3시간 계속해야 하는 까닭에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면 동작 느린 사람은 넘기는 못줄에 얼굴을 맞아 눈이 아리고 흙 범벅이 되는 수난을 당하지만 그런대로 모내기의 정감 어린 정경이었다.

그 이후는 조금은 여유롭게 두레패가 농악을 울리며 논에 당도하면 선창자에 따라 춤추며 흥겨운 ‘방아타령’ 부르며 김매고, 이삭이 패면 허수아비 세우고 새 쫓기 하며, 벼가 누릇누릇 영글기 시작하면 물고 낮추기, 때맞춰 벼 베기, 집으로 실어 나르기, 원통형 타작 기계를 두 사람이 발로 밟아 낱알을 털어내는 타작의 순서로 일 년 농사는 마무리된다. 논이 많은 집은 앞마당에 ‘노적거리’를 만들어 쥐 등의 피해를 줄이는 저장법을 썼다.

그러나 1980년대 무렵부터 소 대신 경운기, 콤바인이 논을 가는 일부터 추수까지 다 해치우는 기계화 영농이 도입되었다. 기계를 장

만한 소수의 전문 영농인이 전체 농사 과정을 맡아 대신해주는 기업 농이 탄생하게 되어 농사의 고단함을 잊기 위해 두레패가 농약을 두드리고 전승 민요를 부르며 춤추던 예전의 농촌 축제 풍속도가 완전히 사라졌다.

우리나라 경제가 개발도상국의 단계를 넘게 되어 국제적 위상이 향상되자 세계무역협정(WTO)에 가입해 해마다 일정량의 외국산 쌀 수입이 의무화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자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쌀농사를 포기하는 전통 농가가 사라져 가는 것이 검단의 현실이 되었다. 이즈음 한국 농촌은 황폐화의 길에 들어서 검단지역에도 누천 년 면면히 땀으로 가꾸어 오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던 예전의 논밭은 점차 매립되며 마을의 원형은 훼손되고 아파트와 공장이 난립해 정감 어린 농촌 풍광은 간데없고 하루가 다르게 처연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다.

2) 독정마을 풍경



1950년대 독정 안말 모습

추수가 끝난 늦가을 논두렁과 한가한 초가집 마당에 날가리, 마차가 보인다.

독정마을은 400여 년 전 좌랑(佐郎)을 지낸 퇴촌(退村)이란 분의 자(子) 광산김씨 달도(達道)가 입향조로 17대를 세거해 왔다고 한다. 1995년 이전에는 김포군 검단면 당하1리였으나 동년 검단지역이 인천광역시에 편입되어 서구 당하동이 되었다.

쓰레기 도로가 마을 북쪽을 가로지르고 동쪽 산 너머에는 공동묘지가 생겨 마을 형태가 예전의 모습을 잃었다. 도시화되기 전에는 이웃이 모두 광산김씨 친척이므로 평화롭게 농사짓고 의종계 지낸 전통 농가 마을이었지만 옛 정취는 사라지고 도시 속에 묻혀버렸다.

독정마을은 안말에서 서편 응달말로 건너가는 진입로 겸 농사용 독을 이용해 위(남쪽)에 물을 가두었다가 그 물을 이용해 못자리, 모내기 등 농업용수로 사용해 농사를 지어왔다. 다행히 마을 남쪽으로 흘러내린 표고 100m 정도의 계양산 줄기가 마을 뒷산을 이루고 있어서 그런대로 물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기계농사가 보편화되기 이전 가을 추수기가 되면 우선 논 전체를 빙둘러 물고를 내어 논바닥이 마르기를 기다려 이웃과 품앗이로 집집이 돌아가며 벼 베기를 한다. 우순풍조(雨順風調)해 풍년이 들면,

추수꾼들은 탐스럽게 달린 벼 이삭을 대충 가늠해보고 ‘양식(마지기 당 4가마니의 수확량)났네’ 하면 논 주인의 입은 함박만큼 벌어진다.

민요가락도 흥겹게 줄 맞춰 낫질해 벼를 베어 우선 논바닥에 크게 한 움큼씩 줄지어 놓아 며칠 말린 다음 단으로 묶어 논두렁에 죽 세워워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 여러 가지 운반수단을 통해 집 마당에 운반한 다음에는 숙달된 일꾼이 난가리를 쌓아 올린다. 솜씨 없는 일꾼은 한쪽으로 기울게 쌓아 웃음거리가 되기도 한다.

마당 한 편에 쌓아 올린 난가리 덩치의 크기가 그 집의 부의 정도를 가늠하게 한다. 이제 남은 절차는 탈곡하는 일이다. 대농(大農)은 새벽부터 일꾼들을 모아 온종일 발로 밟아 회전통을 돌려 벼를 툰 다음, 수동식 바람개비로 쭈정리와 검불을 날려 보내고 알곡만을 모아 집 안마당에 노적가리를 만든다. 마땅한 창고가 없는 농가는 쥐의 극성, 비의 피해를 막는 데 노적가리가 안성맞춤이다.

양식이 필요할 때마다 노적가리의 위쪽에서 벼를 퍼내어 정미소에서 방아를 찧어온다. 쌀겨도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므로 먼지를 한껏 뒤집어 쓸 수밖에 없지만, 등겨와 쌀눈이 섞인 고운 겨를 구별해 가져온다.

10월 상달 중에 손 없는 날 또는 그 집의 전통에 따라 길일을 택해 정성껏 팔시루떡을 만들어 장독대, 부뚜막, 대청 등 섬기는 집안 신에게 고사를 지내고 이웃에게 돌려 나누는 아름다운 전통인 세시풍속을 지킨다.

할머니는 가마솥에 하나 가득 밥을 해 엿기름 넣어 삭인 후 계속 달여 조청을 만드신다. 일차로 떡을 찌어 먹고 튀긴 쌀을 버무려 산자를 만들 만큼 적당량 조청을 떠낸다. 그다음 밤새워 졸여 여명쯤 되면 갱엿을 만들어 일년살이를 마감하고 ‘설’을 기다린다.

다음 사진은 지난 8월 28일 촬영한 독정마을의 모습이다. 마을 서편 검단으로 향하는 대로 동편에는 아파트가 꼭 들어찼다. 동편마을

이 있던 곳에서는 지금 중장비 굉음만 요란하고, 마을의 원형은 물론 전통을 지키며 누대를 살아온 조선시대 명문가 광산김씨들도 만날 수 없다.



| 2019년 8월 28일 독정마을 모습

3) 안동포 고기잡이

1977년 발행 『김포군지』 424쪽에 1969년 검단면의 어선 보유 수는 14척이고, 1993년의 『김포군지』 902쪽에는 보유 어선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1980년 ‘동아건설’이 김포로부터 검단, 경서동에 이르는 해안지역을 농업용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했기 때문이다. 1992년 공사가 완료되자 검단면 어업의 전부였던 안동포 포구가 사라져 어업은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안동포 앞 넓은 갯벌에는 예전 맛과 조개, 낙지 등 해산물이 풍부해 80대 이상의 검단 주민은 대부분 안동포 앞 먼 복숭아 섬 부근까지 가서 맛 잡고 조개 캐던 추억이 서려 있다.

어업이 번창했던 때에는 배의 길이가 어른 키로 8발 이상 되며, 10톤 정도 되어 동력을 장치하고 중선망(안강망)으로 무장한 중선(中船)들이 안동포에 기지를 두고 4월부터 승어를 잡기 시작한다. 그리고 조기철이 되면 멀리 칠산 앞바다까지 원정어업을 시작해 조기 떼를 따라 북상하며 조업했다. 당시에는 어군탐지기가 없던 시절이라 경험 많은 선장이 대나무 장대를 바닷물 속에 깊이 담그고, 마치 크게 우는 ‘개구리울음’ 소리 유사한 조기들의 사랑노래로 조기 떼의 규모를 파악했다. 그리고는 길이 100m가 넘는 원추형 자루 모양의 안강망 그물을 내리고 조기 떼가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그렇게 두어 달 계속되는 조업이 연평도 앞바다에서 대장정의 막을 내린다. 그리하여 척당 100동(10만 마리)으로 만선이 되어 안동포 포구로 귀환하면 파시가 열렸다고 한다. 필자가 현지 조사를 통해 집필한 1995년 김포군 발행 『지명유래집』의 195쪽에 당시 안동포마을 동쪽 포구 주변 산자락에 ‘조구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 있다. 이는 ‘조기널이>조구내리’로 변천한 지명으로 중선들이 잡아온 조기를 해풍에 반건조시켜 굴비를 생산하던 곳이라 한다.

아래 사진은 안동포 포구의 사진이 없어 연평도의 조기파시 사진을 가져온 것이다. 포구에 닻을 내리고 빼곡히 정박한 배 앞에는 매매를 위해 길게 펼쳐놓은 조기 더미가 보인다.



| 연평도 조기 파시 전경 (웅진군 제공)

11살의 어린 시절, 조부를 모시고 20여 리 길을 걸어 안동포에서 중선을 부리고 있는 유학성 선장 댁을 방문했었다. 그 선장님은 조부와 친분이 도타우셨던 분으로 조기, 민어 철이 되면 해마다 짐꾼 편에 조기 한 짐, 또는 당시 거의 내 키만큼이나 큰 민어, 민어를 펴서 말린 암치 서너 장을 보내시곤 했던 분이다. 당시 청년이던 유 선장님의 아드님과 두 어른을 뒤희고 밥상머리에서 식사하며, 사지를 탈출한 유 선장님의 무용담을 들었다.

유 선장 말씀에 따르면 1955년 5월 10일, 당시 연평도 근해에서 신명나게 조기잡이 하던 수백 척의 우리 어선들을 향해 북괴의 해안포들이 집중 포격을 가해와 6명 사망, 12명 실종, 9명 중상, 어선 1척 침몰, 4척이 실종된 참사를 겪었다(정확한 피해 숫자는 역사 기록에서 확인함). 유 선장의 배는 동력선이었기 때문에 고막을 찢으며 쏟아지

는 포탄 속에서 그물 등 어구는 모두 버리고 비교적 신속히 탈출해 피격을 면했지만, 그날의 공포에 질려 두어 달 지나도록 출어하지 못했다고 했다. 조부께서 그때 안동포를 가신 이유가 바로 그런 소식을 접하시고 유 선장의 근황을 아실 겸, 위로차 방문을 하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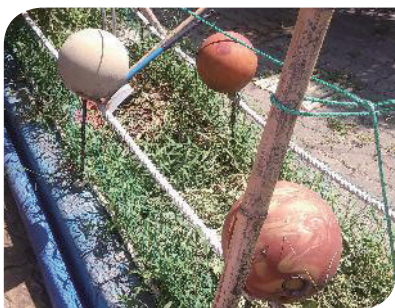
그 이후 연평도 연안의 조기잡이는 쇠퇴해 오던 중, 1968년 제15 공진호가 연평도 부근에서 납치되어 북으로 끌려간 사건도 있었고, 2002년 참수리호 피격 침몰, 2010년 11월 북괴의 연평도 포격 등 어민들의 꿈의 무대로 조기와 꽃게가 넘쳐나던 연평도와 그 근해는 눈물과 원한의 피가 서린 곳이 되고 말았다.

1980년 11년의 역사 끝에 조성된 넓은 땅에 수도권매립지가 들어서서 더이상 포구의 기능을 상실한 안동포에는 분진과 함께 생활 터전을 빼앗긴 주민들이 변변한 생업도 없이 어렵사리 살아가고 있고, 마을 뒷산에서 지내던 풍어제와 뱃노래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오랫동안 안동포에 크게 관심 없이 지내오다 자료 수집 차, 광복절 직전 날 안동포를 찾아 마을 뒷산 언덕에 있는 여노인정에서 수소문해 작고하신 유학성 선장의 아드님 유중근 아저씨를 실로 65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이라 할 만큼 뜨거운 해후를 했다. 몸이 매우 불편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아저씨를 만나니, 이 마을 안동포가 매립지 쓰레기 산에 시야가 막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이 된 마을의 운명처럼 삶의 끝자락을 힘겹게 움켜잡고 먼지와 악취 속에서 숨을 몰아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더없이 애잔한 심사를 금할 수 없었다.

유 선장이 남기신 사진이나 어업 관련 소품이라도 있나 물었지만, 수년 전 집을 새로 짓느라 옛것을 챙기지 못했노라 했다. 눈을 돌리니 마당 한편에 작은 화단이 있고 그 화단에 무슨 의미로 그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전 어망 한 조각과 어망이 해수면에 뜨도록 버리에 달았던 찌들고 빛바랜 동그란 부표 세 개가 짧은 지지대에 꽃혀 물 위에 뜬 양 거꾸로 서 있었다.

어촌 안동포의 한 가닥 마지막 유물이란 생각으로 사진을 올린다.



| 유학성 선장의 마지막 표상과 아들 유중근님

4) 대촌마을 대홍염전

인간이 염분을 섭취한 역사는 인간의 탄생 역사와 같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혈액, 세포에는 0.71%의 염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 정도의 염분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과불급(過不及)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 곧 여러 가지 질병은 물론 더 심각하게는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초기 문명시대에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물에 함유된 염분으로 조미(助味)와 신체 대사에 필요한 염분량을 어느 정도 충당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착생활 시기에 접어들면서 경작한 다량의 음식물을 가공·저장하려면 방부제가 필요함에 착안했을 것이다. 암염(巖鹽)을 갖지 못한 지역에 뿌리내린 조상들은 과거 해안생활의 경험을 살려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 염분을 추출하는 기술을 터득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 이하이므로, 소량의 소금을 얻으려 해도 다량의 바닷물을 오랜 시간(8시간 이상) 증류하는 극한작업에 시달려야 했다. 아마도 폭발하는 인구의 수요를 충당할 대형 가마솥을 주조할 기술은 없었으므로 물이 새지 않는 대형 흙가마를 발명해 이 사업으로 재벌이 된 수완가도 출현했을 것이다.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의 ‘할슈타트’처럼 태고적 용기한 바다의 염분이 굳어서 된 암염광산을 가진 고대의 민족·국가들은 떼어낸 암염 덩어리를 정제해 식품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그 암염이 식용과 동시에 매력적인 관광자원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북 없는 민족·국가들은 예로부터 바닷물 증류가 소금 획득의 유일한 방법이었다.

우리나라 역사서에 소금에 대한 기사는 『삼국사기』 권45 의찬(宜撰) 열전 제5:8에 “석우로(昔于老) 내해니사금 7년(253) 왜국사신 갈나고(葛那古)가 숙소에 머물 때 ‘우로’가 그를 관장했는데 그를 희

룽해 말하기를 ‘조만간 너의 왕을 소금노예로 만들고 왕비는 부뚜막 여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해왕’이 왜인 사신을 희롱했다가 왜왕이 보낸 군사가 왕을 불태워 죽였고 후에 왕비가 왜의 사신을 불태워 죽여 원수를 갚은 기사的一部分이다.

위의 기사에서 ‘소금노예[鹽奴]’로 만든다는 의미는 당시에 소금을 생산하려면 장시간 불 곁의 뜨거운 가마에서 작업해야 하는 고된 노역이므로 침략, 약탈을 자행해온 왜왕을 그렇게 학대하겠다는 것이었다.

예전 불순물을 걸러낸 바닷물을 8시간 이상 강한 불꽃이 나는 솔가지를 태워 달여서 만드는 소금을 자염(煮鹽), 화염(火鹽), 전오염(煎熬鹽), 육염(陸鹽)이라 불렀다.

이러한 제염방법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용비어천가』 8:24에 “태조의 8마리 준마 중에 강화의 매음도(煤音島) 산(産) ‘사자황’(獅子黃)”의 세주(細註)에 매음도를 당시 훈민정음 표기로 ‘그슴섬’이라한 바, 이 고어의 의미는 ‘그을음섬’이란 뜻이다. 매음도, 현재의 매음리는 삼산도 동남쪽 끝으로 그 남쪽에는 염전을 조성했다가 연륙되어 최근 골프장을 조성한 어유정도가 있다. 바닷가 산기슭이 넓고 바로 뒷산인 매음산(308m)에서 소나무를 다량 벌채할 수 있어 자염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었다. 명칭도 ‘매음도-그슴섬-그을음섬’이므로 틀림없이 자염의 생산지였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예전의 제염방식이 고대-고려-조선으로 면면히 계승된 듯하다.

근·현대에 접어들어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소금의 수요가 늘자 1885년부터 1890년대 말까지 일본에서 소금까지 수입했지만 조선인의 식성에 맞지 않았다. 그래서 1898년부터는 청나라 천일염이 수입되어 염가로 크게 보급되었고 국내 제염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다.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의 후유증으로 재정 압박을 받게 되자 소금을 전매제도로 해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고 대만의 천일염 제조

기술을 조선에 도입해 염전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07년 우리나라 최초로 인천 주안 십정리(현 십정동) 갯벌에 천일염전을 조성해 생산을 시작했다. 1914년까지 현 인천교에서 동암역 사이의 철길 북편 넓은 갯벌(99정보)에 1차 천일염전을 개설한 이후 1945년에 이르기까지 남동, 군자, 소래로 확장해 나갔다. 생산량이 최고조에 달한 1933년 무렵 인천산 천일염은 15만 톤에 달해 전국 소금생산의 반을 차지하기도 했다. 인천교 동북편의 옛 염전 저수지는 인천의 개구쟁이들이 모여 수영을 배우고 놀던 수영장 이었고 주안역사 서편 구릉에는 염부(鹽夫)들의 오두막이 1960년대 중반까지도 남아있었다.

일제강점기 말에 일제는 소금을 독점사업으로 정하고, 1942년 ‘조선염전매령’을 공표해 전시 야욕을 키워가다 패망을 맞게 되었다. 광복 후에 소금의 전매제를 폐지하고 1970년대에 들어 민영화된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주안염전 등을 인수해 소금생산에 힘써왔다. 2008년부터 겨우 천일염이 식품으로 인정받아 법적으로 식용판매가 가능해졌다.

중서부 해안의 염전들은 산업화에 밀려 염전부지가 ‘공단’으로 전용되면서 인천 일대의 염업은 사양길로 접어들게 되었고, 대신 전라도의 섬들에 새로 많은 염전이 조성되었다.

현대에 세계적으로 천일염을 생산하는 국가는 프랑스, 포르투갈, 호주, 멕시코, 일본, 대만, 중국, 한국 등이다. 최대생산국은 중국, 소금을 가공해 부가가치를 높인 나라는 프랑스, 미네랄 성분을 다량 함유한 최고 품질의 소금은 한국산이라고 한다.

『김포군지』(1993년) 902쪽 이하의 내용에 의하면, 검단지역의 서해안은 천혜의 넓은 간석지를 갖고 있어서 이미 1890년대부터 옛 오류리, 왕길리 연안에서 자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갯벌에 막을 짓고 그 안에 굴각지와 백회(白灰)를 섞어 반죽해 큰 가마를 만들고 그 안에 간수를 부어넣은 다음 장작불을 때서 자염을 만들었다고 한다. 간수를 만드는 방법은 갯벌에 여러 개의 웅덩이를 파고 웅덩이 안 뿔에 소금의 농도가 높아지도록 뒤집고 말려 뿔이 소금기를 잔뜩 머금게 되면 바닷물을 담아 녹인 다음 그 물(간수)을 가마에 담고 불을 때서 만든다”라고 했다.

이 과정에도 여러 가지 경험과 기술이 요구된다. 먼저 콩알과 밥풀을 넣어 뜨고 가라앉는 것에 따라 간수의 농도를 맞췄다고 한다. 밥풀이 뜨는 경우 염도가 적당해 2일간 불을 지피면 자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에는 흙가마가 철판가마로 바뀌었을 뿐 예전과 같이 자염을 생산했다고 한다. 그 시대 검단지역에는 15개의 소금생산 가마가 있었고, 가마당 1회 소금 생산량은 15가마니였다고 한다. 인천 주안의 천일염전이 1907년 시작되었으나 검단지역에서는 광복 후인 195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 천일염전이 조성되기 시작해 1955년부터 1958년까지 검단 오류리에 142ha, 왕길리에 10ha의 염전이 만들어졌다. 『김포군지』 1977:423에 검단지역 염전의 1975년 당시 염전별 현황이 실려 있다(생산량 80,000여 가마니).

천일염은 저수지에 담아놓은 해수를 다락논처럼 층계 형태로 조성한 염전에 경사를 이용해 물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높은 곳으로 수차, 용두레를 이용해 바닷물을 퍼 올리기도 했다. 1, 2차 증발시킨 후, 3차 염판에서 마지막으로 증발시켜 고무래로 소금을 긁어모아 담아내기까지 대개 10일 정도 걸린다. 초기인 1955년 무렵까지는 개흙을 다진 토판, 그다음에는 사금파리를 촘촘히 깔아 좀 더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었다. 그 후 1980년 무렵부터는 오지[도기]타일로 바닥을 깔아 깨끗한 천일염을 얻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PVC로 만든 판을 깔아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한다.

초기에는 생산한 소금을 큰 대바구니에 담아 한 개씩 막대 양 끝에 달고 어깨에 메어 좁은 염전 독길로 창고까지 날랐다. 그 이후로는 외바퀴에 손잡이 두 개인 손수레가 있었으나 이 손수레는 밀고 가다가 걸핏하면 균형을 잃고 나동그라지는 촌극을 연출했다. 더 발전한 운반법은 소규모 레일을 깔고 사각의 작은 운반차로 소금창고까지 밀고 가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전처럼 어깨에 메거나 손수레를 밀고 가다가 휘청 중심을 잃고 소금 바구니를 내동댕이치는 염전의 코미디는 사라졌다.

염전 전체 면적과 생산량은 오류리 142ha, 67,000가마니, 왕길리 10ha, 6,000가마니였다. 그중에서 다음 사진의 대흥염전은 오류리에 1958년 설립, 18ha 면적에 연산 10,000가마니 정도의 규모였고, 왕길리 안동포의 사유 염전은 1958년 설립, 10ha에 6,000가마니를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김포군지』 1977:423).

오늘날 이들 옛 염전은 모두 사라지고 검단산업단지, 또 한편은 난립한 공장지대로 바뀌어 광활했던 염전과 비지땀을 흘리며 밭로 밟아 힘겹게 돌리던 수차는 전설 속에 묻히고 말았다.

다음 사진은 1960년대 초 대촌 마을 앞 드넓은 대흥염전 사진이다. 넓은 염전 풍경과 중앙 독의 소금창고 등 추억의 옛 염전 모습이 아련히 떠오른다.



1960년대 초 대촌마을 앞 드넓은 대흥염전 (이성수님 제공)

3. 교육과 행정

1) 검단초등학교



| 검단공립보통학교 개교기념사진

개화기에 이르러 인천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현대식 교육기관은 당시 인천 내리교회에 온 선교사들이 1892년 설립한 ‘영화학당’이며, 이 학당이 우리나라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이었다.

예전 검단면이 속했던 김포군의 김포초등학교는 1907년 9월 1일 개교했으므로 당시 김포군에 속했던 김포면, 고촌면, 검단면의 취학 희망생들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김포초등학교를 다녔다.

검단지역에는 1932년 7월에 이르러 ‘검단공립보통학교’란 이름으로 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설립 이래의 약사(略史)는 다음과 같다.

1932. 07. 20 검단공립보통학교 개교
 1935. 03. 24 제1회 졸업식
 1996. 03. 01 인천검단초등학교로 교명 변경
 2004. 10. 16 신관 준공(17개 교실)
 2012. 09. 14 도서관 리모델링 개관
 2014. 12. 22 다목적 강당 개관
 2019. 02. 01 제84회 졸업식(총 졸업생 8,283)
 2019. 03. 01 38학급 편성

앞의 사진은 검단학교 창립기념 사진으로 당시는 일제강점 치하였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일장기가 걸려 있다. 80년 넘는 역사적 기념물이므로 사진을 올리지만, 오늘날까지 식민통치 시기에 저지른 만행을 사죄하지 않는 저들을 인류가 단죄할 것이다.

그 당시 지역의 어르신네들이 기념식에 갓 쓰고, 두루마기 입은 양반의 정장 차림의 축하객으로 오신 모습이 이채롭다. 뒤의 학교 건물 사진은 어렵던 시절인 1960년대까지 검단학교를 다닌 졸업생들에게는 추억의 한 장면이다. 이 건물의 동서편에 잇대어 증축해 6학급 수용 규모가 된 건물의 양쪽 끝과 중앙에 출입문이 있었고, 중앙 출입문은 바로 교무실을 드나드는 문이었다. 왜식 목조 건물의 중앙 뽕죽지붕 밑 현관 기둥에는 동종(銅鐘)이 달려있어 공부시간 시작과 끝에 주로 아저씨가 “땡땡~, 땡땡땡~” 울리곤 했다.



검단공립보통학교
제4회 졸업 기념사진(1938년)



검단공립심상소학교
제5회 졸업 기념사진(1939년)



검단공립국민학교
제13회 졸업 기념사진(1948년)



검단공립국민학교
제16회 졸업 기념사진(1951년)

상단 왼편 사진은 1938년 검단공립보통학교 제4회 졸업기념 사진이다. 그 오른편 사진의 캡션은 ‘검단공립심상소학교 제5회 졸업 기념사진’이라 되어 있다. ‘심상(尋常)’이란 ‘보통’의 뜻으로 ‘보통학교’를 ‘심상소학교’로 변경한 듯하며, ‘소학교’란 명칭이 등장하였다.

하단 왼편 사진에는 광복 직후인 1948년 6월 검단공립국민학교 제13회 졸업기념, 그 오른편 사진은 6·25전쟁 중인 1951년 7월 16회 졸업기념 사진이다(검단초교 제공). 당시 여우재고개에는 UN군이 주둔했었고, 밤사이 학교 운동장에 장갑차가 도열하기도 하고, 등하 곳곳에 북진하는 국군 아저씨를 만나기도 했었다. 새로 참전한 싹새기(제트기)가 고막을 찢는 굉음을 내며 북으로 북으로 향하던 전쟁통이었지만 학교는 문을 닫지 않았다.



| 검단초등학교 인근 전경

| 가을 운동회의 ‘과자 따먹고 뛰기’
(23회 졸업 이규명님 제공)

1950년대에 검단학교를 다닌 졸업생들은 당시 학교 동남편 행길 쪽에서 찍은 왼편의 사진에 대한 기억이 새로울 것이다. 학교 앞에 보이는 초가집은 문방구 겸 잡화 가게였다. 가게는 두 집이 있었는데 평소에는 필요한 학용품이나 샀지만, 소풍날이면 전교생이 바글바글해 가게는 터져나갈 정도였다. 기껏해야 사탕 몇 개 사는 게 전부였지만, 옛 추억이 새롭다.

오른편은 전란 중인 1952년 검단학교에 입학해 1958년 23회로 졸업한 이규명 동문이 제공한 사진으로 3학년 시절, 추석 다음날 열렸던 ‘가을 운동회’의 ‘과자 따먹고 뛰기’ 스냅이다. 매년 추석에 고향 찾은 졸업생, 학부형, 주민 모두가 벌이는 한바탕 잔치였다. 힘들고 어렵던 시절이었지만 표정만은 진지하다. 입상품으로는 연필, 공책을 등수에 따라 달리 받았다.

전란 중 엄혹한 시절 검단학교를 다닌 졸업생들의 무한한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던 이득형 선생님께서는 1·4 후퇴 때 공산학정을 피해 월남하신 개성사범 출신 교사셨다. 검단학교에서 5·6학년 담임을 맡으셨던 선생님의 서거 소식을 「김포마루」에 실린 따님의 글을 통해 접하고 선생님에 대한 회상과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검단학교를 떠나신 뒤에는 당시 양서면 신정학교로 옮기셔서 서울시의 교사가 되신 후에 “누가 누가 잘하나”의 심사위원을 수년 맡으심으로 당시 음악계에서도 크게 인정받으셨던 것을 알 수 있다. 불편한 몸이셨지만, 망백(望百)의 수를 누리시고 타계하신 선생님께 무한한 존경과 함께 명복을 빈다.

다음 사진은 크게 개축한 2019년 검단학교의 전면, 그 아래 왼쪽 사진은 1970년대 검단학교 운동회의 꽃인 고학년 남학생들의 탐 쌓기, 가운데 사진은 조개탄을 때던 1960년대 교무실의 모습, 오른쪽 사진은 검정교무신을 신은 고학년 학생들이 놀이터도 없어 흙장난하고 있는 사진이다(사진 제공: 검단초등학교).



| 검단초등학교



| 1970년대 운동회 탐 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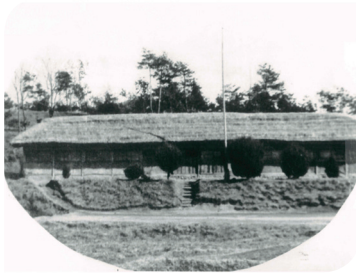


| 1960년대 교무실 풍경



| 흙장난하는 학생들

2) 창신초등학교



| 1937년 설립 창신학술강습회



| 1939년 강습회 우등생 표창식

검단면에 초등학교가 검단학교 하나뿐이던 시절에는 원당, 당하리에서도 검단학교를 다녀야 했다. 1937년 당하리 죽저마을에 이상진님 부친 이철옥 용이 자신의 부지에 건물을 지어 ‘창신학술강습회’라 명명해 회사하고 남녀 교사 각 1명을 초빙해 강습소를 운영하다가 1942년 원당리 고산후 마을에 검단학교 당하분교가 개설되자 강습소는 폐쇄되었다. 창신학교의 연혁은 대략 다음과 같다.

- 1938. 06. 25 창신학술강습소 개강
- 1946. 05. 16 검단국교당하분교장 인가
- 1949. 08. 18 창신초등학교 인가
- 1949. 09. 01 창신초등학교 6학급 개교
- 2006. 03. 01 새 학교 신축 이전
- 2010. 03. 01 33학급 편성
- 2019. 02. 12 제70회 졸업식(124명)



| 창신초등학교

3) 단봉초등학교

단봉초등학교는 서구 오류동에 있는 공립학교이다. 이 학교 대략의 연혁을 소개한다.

1951. 12. 01 검단초등학교 오왕분교 인가

1955. 11. 03 단봉초등학교로 승격

1956. 03. 14 제1회 졸업식(남26, 여9)

1996. 03. 01 인천단봉초등학교 교명 변경

2010. 11. 30 개축건물로 이전

2019. 03. 01 39학급 편성

예전 김포군 검단면에 검단학교 하나뿐이었다가 원당, 당하리를 학구로 한 창신분교가 1946년 독립했고, 6·25전쟁 중인 1951년에는 오류, 왕길리를 학구로 해 오왕분교가 설립되었다. 1955년에는 단봉초등학교로 승격하였고, 점차 학교 규모가 커오다가 이 지역의 폭발적 인구 증가로 2019학년도부터는 39학급을 수용한 큰 학교가 되었다.

아래 사진 밑에 달린 영문 캡션에 「O-Wang Branch School, taken 1951」이라 쓴 것을 보면 외국인(UN군?)이 당시 오왕분교의 모습을 즉석카메라로 찍어 기증한 듯하다. 교실의 창문마저 다 깨졌고, 겨울 복장을 한 학생들이 정리되지 않은 운동장에서 조화를 하는 듯하다. 전란의 참상을 증언하는 가슴 아픈 장면이다.



1951년 오왕분교 「O-Wang Branch School, taken 1951」



단봉초등학교

4) 검단면사무소



| 검단면사무소 직원 기념사진



| 검단면사무소 방문 기념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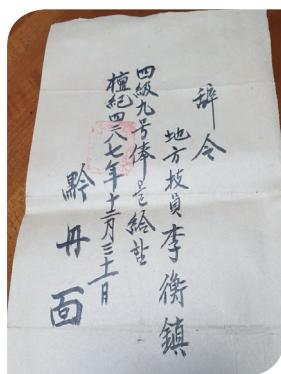
검단지역의 방리(坊里)에 대한 기록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 가장 오래된 것은 1573년(선조 6) 현재의 대곡동 황곡마을에 김포 마산리(馬山里)로 새겨진 신영(申瑛)의 비문이다. 1789년(정조 13) 발행의 『호구총수』에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이 현재의 검단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정조 이전에 면 편제를 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호구총수』에 등재된 위의 세 개의 면은 일제강점기인 1914년 일본인들이 조선 전국의 행정구역을 개편할 때 검단면으로 통합되었다.

옛 검단면 사무소는 1960년대에 검단사거리 북동쪽 산록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예전 마전리 여래마을 검단학교 앞 동남쪽 행길 가에 있던 작은 왜식 목조 건물 한 채가 전부였다.

위의 원판 사진은 1930년대에 당시 면장이셨던 김봉흠씨와 사무소 직원들, 오른편 사진은 여학생들과 소수 면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하고 면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찍은 기념사진인 것으로 추정된다. 80년 넘게 소중히 간직해온 후손 김병학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다음의 사진은 6·25전쟁 직후 이형진님이 검단면사무소 직원으로 발령받은 사령장인 바, 직급과 호봉, 발령 날짜와 직인의 날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선친의 사령장을 65년 동안 정성스레 간수해 옛 공무원 직급과 당시 행정 사항의 일부나마 실물을 보게 해준 당하동 출신 이순학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검단면 근무를 명한 사령장
(이순학님 제공)

김병욱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4. 산업

1) 수도권매립지



| 수도권 매립지

‘수도권매립지란 서구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경서동 및 검암동과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에 있는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흔히 말하는 바다를 매립해 육지화하는 의미의 ‘매립’과는 의미가 다른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뜻의 쓰레기 매립지를 말한다.

최초 조성 당시에는 검단지역이 인천에 편입되기 전으로 전 지역이 김포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김포 매립지라고 불렸는데, 현재는 매립지의 대부분이 인천광역시 관할, 서구 지역에 편입되어 있다.

애초 쓰레기 매립장은 1992년 서울특별시의 쓰레기 처리장이었던 난지도가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에서 경기도 김포군 서부의 간척지 일부를 대체 매립 예정지로 지정하였고, 이 부지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당시 인천직할시), 그리고 경기도가 공동으로 사용토

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광역 쓰레기 매립지의 주된 조성 목적은 애초 서울시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시작된 것이지만, 결국은 인천과 경기도의 쓰레기도 함께 처리할 목적으로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권매립지를 관리 운영하는 주체는 환경부가 운영에 개입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는 공공기관이다. 앞서 지적한 대로 1992년 김포지역의 간척지에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이후 운영관리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3개 시·도와 환경관리공단 간의 이해 상충으로 정상적이고 안정적인 매립지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한 데다가 주변 환경의 오염 등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혹은 지원 요구 및 매립지 운영 관리 참여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한 상태에서 수도권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해 정부는 환경부 산하에 국가 공사를 설립했던 것이다.

아무튼 수도권 매립지는 2016년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조성 당시 예측으로는 2016년이면 매립지가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치며 분리수거 및 쓰레기 재활용, 종량제 시행, 소각 처리 증가로 인한 직매립 쓰레기의 감소 등으로 매립 쓰레기의 양이 크게 감소하는 바람에 매립지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매립 기한 연장이 추진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인천시는 매립지 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서울 및 경기도에 대해 적극 반대하면서 마찰이 일어났다. 1992년 애초 매립지 조성 당시 대부분의 주변 지역이 농촌이었으나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부근 일대가 인구 100만여 명이 몰려 사는 대도시가 되었기 때문에 매립지 소재지인 인천시와 김포시가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지역 주민들은 당초 2016년에는 매립이 끝날 것으로 믿고 그동안 파리 등 해충과 악취 피해를 감내해 온 까닭에 매립지 연장 논의에 극도로 반발했다.

더구나 수도권 매립지로 인해 인천광역시는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은 쓰레기 매립지로 인해 도시 개발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드는 데다가 부정적인 도시 이미지와 함께 주변 일대의 부동산 가치, 주거 환경 악화와 부동산 가치 하락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차라리 서울시와 경기도가 님비 행태를 부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접경 지역에 소각해 매립하는 등 대체 매립지 조성을 요구하면서 김포시와 함께 연장에 반대했고, 김포시를 제외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환경부는 매립 연장에 찬성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갈등과 마찰 끝에 2015년 6월 29일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는 수도권 매립지를 3-1 매립장 매립 완료까지 연장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 기간은 2016년부터 대략 10년으로 2025년이 완료 시점이다. 물론 3개 지자체는 이 같은 3-1 매립장 매립 완료 시점 이전에 자체적인 대체 쓰레기 처리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은 첫째, 서울특별시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갖고 있던 매립지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의 인천광역시 이관, 둘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인천시 산하 지방공기업 전환, 셋째 인천 도시철도 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의 연장 조기 착공 및 테마파크 조성, 검단일반산업단지 환경산업 활성화, 체육시설 이용 프로그램 개발과 교통 확충을 위한 4자협의체의 적극 협력 약속이었다.

특히 2016년 1월부터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해 매립지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사용하기로 한 점은 그동안 인천광역시가 감당해온 쓰레기 매립지로서 불이익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지역 주민은 당초 2016년 매립지 폐쇄

약속 불이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만을 여전히 내연하고 있으며 더구나 2025년 폐쇄 결정에 대해서도 의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서구 주민단체도 자체 매립지를 찾기 위한 서구주민대책위를 구성키로 했다.

현재 쓰레기 반입 추세라면 3-1공구는 2024년 8월 포화 예정인데, 4자(인천, 경기, 서울, 환경부) 합의 대체 매립지 조성은 진척이 없어 3공구 잔여 부지를 사용하게 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자체매립지주민대책위를 구성해 적극 대응키로 하는 등 대체매립지 확보가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의 핵심 뇌관이 될 것이다.

2) 경인아라뱃길



| 경인아라뱃길

경인아라뱃길은 서울시 강서구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와 서구를 거쳐 서해로 연결되는 운하이다. 길이 18km, 너비 80m, 수심 6.3m이며 2009년 3월 착공되어 2012년 5월 25일 개통되었다.

아라뱃길의 ‘아라’는 우리 민요 ‘아리랑’의 후렴구 ‘아라리오’에서 따온 말이자 바다를 뜻하는 옛말입니다.

아라뱃길은 서해와 한강을 잇는 우리 민족의 멋과 열, 정서와 문화가 흐르는 뱃길로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명품 뱃길’의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아라뱃길은 서울시, 김포시, 인천시에 걸쳐 흘러갑니다.

행주대교 인근 아라한강갑문에서부터 시작하는 물줄기는 김포시를 지나 인천시 계양구를 거쳐 서구를 통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위의 인용문은 ‘아라뱃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개 글이다. 오늘날 이렇게 경인아라뱃길이라는 인천과 서울을 잇는 수로가 탄생해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지만, 우리 조상들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인천 바다에서 서울 한강을 잇는 수로(水路) 개설을 위해 크게 노력을 해왔다. 그 기록이 『인천시사』에 보인다.

김포굴포는 손돌목을 회피하려는 운하 계획이다. 김포굴포도 고려시대부터 시도되었는데 여기에 처음으로 착안한 사람이 무신정권 시대의 무인집정 최이(崔怡)다. 그가 서해와 한강 사이에 운하를 굴착하여 연결시키려고 사람을 보내어 안남(安南;부평) 땅의 지세를 보게 하였으나 불가하여 중지하고 말았다. 조선에 들어와서 중종대(1506~1545)에 김안로(金安老)가 굴포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중략…

이 굴포천이나 굴포교로 볼 때에 김안로의 굴포 작업이 한강 쪽에서 진행되어 원통현까지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정조는 김안로가 “40리에 조수를 통하려고 하였으나 “원통현에 이르러 중지하였다”고 하였는데 한강에서 원통현까지는 40리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한강물이 원통현까지 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조수를 통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40리는 서해에서 한강까지의 전 구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 통조(通潮)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서해의 조수를 통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사』에는 굴포천을 굴착하려는 목적이 세곡 운송을 위한 것이라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성현에서 멀지 않은 장수동에는 무네미 고개라고도 불리는 수현(水峴)이 있다. 수현은 조선 중종때의 권신인 김안로(金安老)가 삼남(三南)지방에서 서해를 통해 올라오는 세곡(稅穀)을 한양까지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한 수로(水路), 즉 경인운하를 만들기 위해 굴포천을 파다가 실패한 일 때문에 생긴 이름으로 전해온다. 김안로는 당시 부평의 원통이 고개나 지금 서구의 안하지 고개를 뚫어 물길을 연결하려다 암반 때문에 실패하자 이곳 무네미 고개쪽을 파서 수로를 만들려 했는데 이곳에서도 암반에 막혀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때 그가 어떻게든 ‘물길을 넘겨보려 했다’고 해서 이곳의 이름이 물넘이고개, 곧 무네미고개가 되었고 그 이름이 한자로 바뀌어 수현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한강과 서해를 안전하면서도 빠른 뱃길을 열려는 시도는 오랜 역사적 사실이었다. 당시 육로는 운송수단이 발달하지 못한 까닭에 뱃길을 이용해 전국 각 지방에서 거둔 조곡(租穀)을 중앙정부로 운송했는데, 이 조운(漕運) 항로는 김포와 강화도 사이의 염하를 거쳐 서울의 마포 경창으로 들어가는 코스였으나 염하는 만조 때만 운항이 가능했고 손돌목(강화군 불은면 광성리 해안)은 뱃길이 매우 험해 배가 좌초되거나 파선하는 일이 빈번했던 것이다.

이런 연유로 안정적인 조운 항로 개척은 필수적인 일이어서 고려 때는 물론 조선조 중종조에 들어와서도 손돌목을 피하는 항로로 인천 앞바다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현대에 들어서 지난 1966년 서울시 영등포구 가양동에서 인천시 서구 원창동 울도까지 총연장 21km, 수심 4m, 하폭 90m의 운하 건설이 추진되기에 이르렀으나 경인지역의 급격한 도시화와 지역 개발로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서 방수로 신설을 통해 홍수량 일부를 서해로 방류하는 내용의 굴포천 치수대책이 수립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 홍수 예방을 위한 수로 확보와 함께 평상시에는 운하로 사용하려는 것이 이른바 1995년도부터 시작된 경인운하사업 추진이었다.

그러나 민자(民資) 사업자까지 선정해 사업이 진척되려는 궤도에 오를 듯했으나 환경단체의 반대와 경제성 논란 등으로 사업은 여러 해 동안 지연되었다. 이 과정과 경인아라뱃길 완공에 대해서는 인터넷 ‘두산백과’의 내용을 인용한다.



| 아라마루 전망대

2003년 경제성 평가가 과장되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등에 따라 운하 건설 사업을 재검토하기로 결정된 데 이어 2004년 7월 공식 중단되었다. 이에 다시 네덜란드의 운하 전문업체인 DHV사에 사업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 2006년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결과를 얻었고, 2008년 보완된 사업 계획을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재검증하여 사업 타당성이 있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져 같은 해 12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사업 추진을 확정하였다.

사업 진행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어 한국수자원공사 경인아라뱃길건설단이 주관하였다. 2009년 1월 기본 계획이 수립되어 3월부터 방수로와 김포터미널을 연결하는 수로가 건설되었고, 6월 교량과 갑문 등 주요 공정이 착공되었다. 2012년 5월 25일 개통되었다.

주(主) 운수로로는 당시 조성되었던 굴포천 방수로 14.2km를 활용하고 한강 쪽으로 3.8km를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까지 총 18km이다. 주운수로의 양단에 면적 280만㎡의 인천터미널과 200만㎡의 김포터미널이 조성되었고, 터미널 안에는 각각 면적 108만㎡와 6000㎡의 배후단지가 조성되었다.

이렇게 2008년 국가정책조종회의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사업 시행자를 K-water로 변경하고 2009년에 마침내 첫 삽을 뜨게 된다. 이때 명칭도 경인운하에서 경인아라뱃길로 변경되었고, 2011년에 경인아라뱃길이 탄생하고 이듬해 5월 25일 개통되기에 이른 것이다.

‘인천관광 100선’에는 “물길 따라 펼쳐진 다채로운 풍경”이라는 제목으로 경인아라뱃길의 경승을 설명하기도 했다.

3) 검단산업단지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원 225만㎡에 총 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조성한 수도권 최초의 복합 산업단지이다. 기존의 난립해 있던 공장지대를 기반시설이 확보된 산업단지로 조성해 인천 서북부 지역의 중소기업을 위한 명실상부 새로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는 900여 개의 신규 공장이 입주하는 수도권의 대규모 산업단지로서 인천북항, 경인아라뱃길과 인접하고 인천공항과 서울을 잇는 연결축에 위치해 공항고속도로와 철도,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연계가 용이하다. 특히 인천지하철 2호선이 단지 입구에 연결되는 등 물류와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으로 최적의 지리적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수도권과의 편리한 접근성과 산업단지 인근에 약 1,000만 평 규모의 검단신도시와 김포한강신도시가 위치해 인력 수급이 용이하고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친환경 명품산업단지로 각광 받고 있다.

검단산업단지는 단지 내에 산업시설 용지, 지원시설 용지, 주유소 용지 및 폐기물처리 및 종말 시설 용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주거용지, 공원 녹지와 저류지, 도로,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이 조성되어 있다.

2015년 제조업 특화 ‘검단지식산업센터 블루텍’이 검단산업단지 중심에 들어섰다. 대지면적 26,441㎡에 연면적 151,935.5㎡의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초대형 제조업 지식산업센터로, 약 520실의 제조업 공장과 356실의 기숙사, 금융시설을 포함한 66실의 지원시설과 휴게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4) 검단신도시

인천광역시 서구에 지어지고 있는 2기 신도시로 1995년 김포군에서 인천시로 편입된 검단지역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대곡동 일대가 범주에 들어 있다.

검단 신도시의 자족도시, 친환경도시, 디자인도시, 문화도시, 에너지 절감도시를 지향해 조성되며, 산·학·연 네트워크가 구축된 수도권 서북부의 중심 도시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애초 계획은 655,500㎡에 92,000세대, 230,000명을 수용하는 것이었으나 검단2신도시가 백지화되면서 461,900㎡에 75,071세대, 183,720명을 수용하게 되어 전체 계획에서 2/3로 축소되었다. 사업 기간은 2009년~2023년까지로 되어 있다.

검단1·2신도시의 별개의 신도시로 개발될 예정이었으나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해 진척되지 못하면서 검단2신도시 지주들과 주민들이 신도시 지정 해제를 요구했고,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2신도시 부지를 개발 지구에서 해제했다.

검단1신도시 부지는 3단계로 나누어 조성되며 서울에 가까운 1단계 부지는 2015년 10월에 기반공사가 시작되었다. 2015년 10월 22일 사업 변경이 승인되면서 검단새빛도시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가 2017년 5월 11일 다시 검단신도시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한편 2015년 3월 3일, 중동의 두바이투자청(ICD)이 검단신도시에 4조 원을 투자해 퓨처시티를 조성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발표되었다. 도하 언론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다투어 보도하면서 중동의 거대한 오일 머니의 투자로 검단신도시의 장밋빛 미래를 예언하기도 했다. 심지어 당시 정부의 중동외교 성과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수도권 매립지 기한 연장을 앞둔 시점이어서 민심잡기용이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검단신도시에 개교할 것이라는 중앙대 인천캠퍼스 계획이 발표 3년 만에 백지화된 사건 때문에도 더

욱 그런 시각이 많았다.

이후 두바이투자청과의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다가 갑자기 두바이홀딩그룹이라는 기업이 주체가 되어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 MOU가 체결되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바이투자청이 아닌 두바이홀딩그룹이라는 기업으로 투자 주체가 변경되었으며 갑자기 사업 명칭도 퓨처시티에서 스마트시티로 변경되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결국 검단 스마트시티코리아 프로젝트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오류와 함께 2016년 11월 최종 무산되고 현재는 수도권 마지막 신도시인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이 인천시, 인천도시공사와 LH가 공동사업으로 시행중에 있다.

검단신도시가 완공되면 수도권의 균형 발전과 주택 수급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종·청라지구, 김포신도시 등 검단 주변의 급격한 도시 공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도시로서 수도권 서북부 거점 벨트를 형성함은 물론 서북부지역의 부도심으로 행정, 문화,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창출될 것이다.



| 검단신도시 입지여건도 (출처: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연표로 보는 검단의 산업

1991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 설립(3개 시·도)
1992	수도권 지역 폐기물 최초 반입
1995	검단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지정
200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사법) 공포 검단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공사 착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설립 제1매립장 사용 종료, 제2매립장 사용개시, 서울시 2016년 매립 종료 선언
2003	검단지역 2006년 7월까지 3년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행위 허가 제한
2006	건설교통부, 인천 검단신도시 340만 평 개발 계획 최종 확정 검단 일반지방산업단지 지정
2007	인천시 정부에 검단신도시 면적 11.239㎢에서 18.095㎢(547만 평)로 늘려줄 것 공식 제안 수도권매립지 제2매립장 주변 영향 지역 결정·고시 환경부 제2차 수도권매립지 종합 환경 관리 계획 발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검단신도시 심의 의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45호)
2008	인천시 검단신도시 대곡동, 마전동, 불로동 일대 6.93㎢에 대한 건축허가 제한 기간 1년 연장 공포
2009	검단신도시 건설 착공 검단신도시 개발 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51호) 검단지역 토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2010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 고시(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07호) 검단신도시 용지 보상 착수 국토해양부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 검단산업단지 입주 공고
2011	주민대책위원회 국토해양부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 해제 요구 탄원서 제출 결정
2012	주민들 인천시청에서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정 해제 촉구 집회 인천시 검단신도시 2지구 택지개발사업 해제 요청 주민 간담회 개최
2013	검단2지구 택지개발사업 취소
2014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 인가 공고

	<p>인천시장 두바이 방문, 스마트시티 투자 유치 협의 두바이 투자청(ICD) 검단신도시에 4조 원 투자 퓨처시티 조성 발표 중앙대학교 인천캠퍼스 설치 계획 취소 서울·인천·경기 3개 지자체 수도권 매립지 3·1 매립장 매립 완료까지 연장 사용키로 합의</p>
2015	<p>인천시 두바이홀딩그룹과 검단 스마트시티 조성 MOU 체결 스마트시티사 하페즈 CEO 방한 검단 현장 실사 및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자본금 송금 계좌 개설 검단새빛도시 1단계 부지 지장물 철거 공사 진행 검단1신도시 부지를 3단계로 나누어 1단계 부지 기반공사 시작 사업 변경 승인으로 검단새빛도시로 사업명 변경 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2공구(LH구간) 착공</p>
2016	<p>인천시와 두바이홀딩 합의각서(MOA) 체결 두바이홀딩과 토지 가격 협상 무기한 연기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스마트시티코리아 사업설명회 개최 검단 스마트시티코리아 프로젝트 최종 무산</p>
2017	<p>검단신도시 택지개발사업 1·1공구(IDTC구간) 착공 검단새빛도시 명칭 변경, 시 차원에서 추진 검단신도시로 명칭 변경</p>
2018	<p>서구의회가 수도권매립지 관련 4자 협의체 합의 내용 즉각 이행 촉구 및 서구의회에 제2차 본회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촉구 결의안' 채택 개발계획 변경(4차).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 335호) 검단신도시 아파트 분양 개시</p>
2019	<p>검단신도시 일반 상업 용지, 주상복합 용지 공급 개시 서구청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서구 지역미분양관리지역 해제 요청 검단산업단지~검단IC간 도로 개설 착공식 개최 조달청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1공구 건설공사' 공사입찰 시행 발표 3기 신도시 전면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 주도 파주 운정, 일산, 검단 등 1·2기 신도시 주민 및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반대 주민 집회 개최</p>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Chapter III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의 문화유산

1. 시지정문화재
2. 비지정문화재

Ⅲ. 검단의 문화유산

인천의 문화재는 2019년 9월 현재 지정·등록된 것으로 총 267점이 있다. 이들 중 참성단, 강화지석묘 등 국가지정문화재가 69점, 인천 도호부청사, 부평도호부청사 등 시 지정문화재가 190점, 공화춘 등 등록문화재가 8점이다. 문화재는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또 지정되므로 그 수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각 시기마다 집적되는 현황을 통해 당대의 문화인식을 볼 수 있어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서구에 남아 있는 지정문화재는 서곶들노래 등 무형문화재 3점을 포함해 17점이 있는데, 인천 최초의 사적으로 지정되었던 경서동 녹청자도요지와 천연기념물인 신현동 회화나무, 유형문화재인 심즁(집) 신도비, 그리고 대곡동 고인돌 및 류사눌 묘를 비롯한 9기의 묘역이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를 포함하면 현재 93점의 문화유산이 파악되는데, 2019년 9월 현재 조사된 비지정문화재를 보면, 두밀 유물산포지 등 유물산포지(39), 연희진 터 국방유적(5), 청송심씨 묘역 등 묘지(11), 밀양당씨 정열비(1), 가정 터, 대곡동 굿당, 왕길동 염전 터를 비롯한 기타 자료(19) 등 모두 78점 정도이다. 아직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오랜 역사만큼이나 많은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지역민의 관심과 손길을 통해 지난 역사의 흔적을 이야기 할 때를 기다리고 있다.

서구는 검단지역개발과 매립을 통해 청라신도시가 조성되면서 문종의 묘역 등 문화유산들이 발굴되어 이전된 것도 있고, 신도시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보존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자료들을 수집, 정리하는 것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서구의 역사문화콘텐츠를 풍성하게 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현재 검단지역에 남아 있는 지정·비지정문화재 36기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시 지정문화재인 기념물(6) 외에 유물산포지(10), 유적 추정지 및 유적(7), 묘지(5), 고인돌(1), 정열비 및 사당(2), 보호수(2), 기타(3)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다.

1. 시 지정문화재

1) 기념물

(1)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33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3-1



| 대곡동 고인돌군



| 대곡동 고인돌

대곡동 고인돌군은 가현산 동쪽 자락인 안산과 쇠재산 사이의 평평한 경작지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해발 100m 내외의 저산성 평지를 이루고 있으며 앞쪽으로는 서구 독실동에서 발원한 나진하천이 동북으로 흘러 한강에 합류하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1977년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攬)』에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이후 서울대학교박물관(1990)의 조사에 의해 9기가 보고되었으며 1992년 발간된 『김포군지(金浦郡誌)』에서는 A군과 B군으로 구분해 언급되었고 1999년 한양대학교박물관에서 김포시의 문화유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했다. 이어 동양고고학연구소(2001), 경기도박물관(2002)에 의해 조사되었으며 인천광역시립박물관(2004)과 인하대학교박물관(2005)의 조사에 의해 A, B, C, D, E 군

의 5개 군으로 조사 보고되었다.

기왕의 조사된 내용을 정리해보면, A군은 인천광역시 대곡동과 김포시 마산리의 경계에 자리한다. 가현산에서 북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과 운휴산에서 남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이 서로 연결되는 나지막한 구릉 능선 위에 위치한다. 탁자식 지석묘 1기를 중심으로 25개의 석재가 널려있다. 모두 2m 이하의 소형으로 묘역조성, 인공림 조성, 군사시설의 조성 등에 의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B군은 A군에서 황곡마을로 가는 소로의 북편 해발 50m 정도의 나지막한 가지능선의 말단에 위치한다. 모두 6기가 확인되었다. 성혈이 새겨진 2기(1호-12개, 2호-4개)를 제외한 나머지 4기는 지석묘로 단언할 증거는 없으나 지석묘의 부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C군은 B군에서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200m 정도 가면 왼편으로 공장건물이 보이고 오른편으로 곡간부가 드러나 있다. 유적은 가현산의 가지능선 사이의 곡간부에 자리하는데 곡간부의 약간 볼록 솟은 새끼능선에 위치한다. 지석묘는 능선마루를 따라서 유적이 집중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쪽의 말단부에는 민묘가 조성되어 있다. C군에서 확인된 지석묘는 모두 75기이다. 그 중에는 지석묘가 아니거나 단순한 암석인 것들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성혈과 채석흔이 확인되는 것이 12기 존재한다.

D군은 C군의 동쪽에 있는 남북방향으로 뻗은 구릉산에 위치한다. 이 지석묘군은 도로로 인해 북쪽과 남쪽으로 잘린 상태이다. 북쪽의 구릉에서 2기, 남쪽의 구릉에서 6기를 확인했다.

E군은 D군에서 소로를 따라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시 기념물 제33호로, 문화재안내판이 세워져 있고 철제울타리가 둘러져 있어 쉽게 찾을 수 있다. 대곡동 지석묘군의 가장 동쪽에 해당되며, 가현산에서 남동쪽으로 뻗어 내린 가지능선의 끝자락에 구릉의 축선인 동서 방향으로 분포해 있다. 총 7기가 확인되었다.

(2) 한백륜 묘역(韓伯倫 墓域)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4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20-4



| 한백륜 묘역

한백륜(1427~1474)은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자는 자후(子厚), 호는 의암(毅菴)이며, 본관은 청주(淸州)이다. 조선 제8대 예종 비(妃) 안순왕후(安順王后)의 아버지로서 청천부원군(淸川府院君)에 봉해졌으며, 1446년(세종 28) 19세에 출사해 오위도총관(五衛都總管) 등 요직을 거쳐 1470년(성종 1)에 우의정에 올랐다. 그는 당대의 명신인 정인지, 한명회, 신숙주 등과 교류했고, 특히 외척임에도 불구하고 청백리로서 이름을 날렸다.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넓고 누추해 친지들이 개수할 것을 권했으나 “선인께서 물려준 것으로 비바람만 가리면 족하다”하며 청빈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현재 묘역이 위치한 지역을 능안골이라고 부르는데 그의 묘가 능과 같이 크다 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한다. 그의 묘역에서는 1981년 총 5매의 백자묘지명이 출토되어 현재 인천시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3) 김안정 묘 출토 묘비(金安鼎 墓碑)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7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810-10번지



| 김안정 묘 출토 묘비

풍산김씨 중시조인 김안정은 고려 말기에 벼슬이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좌윤(三司左尹)에 이르렀다. 공의 묘가 개경에 조성되었지만 이후에 분실되어 조선시대에 와서 후손(계화당 김인손 후손)이 원당동에 풍산김씨 집성촌을 이루면서 김안정의 의관묘를 조성했다.

묘역에는 김안정의 묘와 아들 김자량(金子良)의 묘 등 모두 6기의 묘가 있다. 김안정의 묘가 가장 위쪽에 있고 혼유석, 상석, 향로석 등의 석물이 있으며 동쪽에 1786년(정조 10)에 새로 건립한 비가 있다. 신비를 건립하면서 매장되었다가 최근 발견되어 다시 세워진 김안정 묘비는 높이 128cm, 너비 53cm의 규모로 1634년(인조 12)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마모가 심해 그 각자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 새로 건립된 묘비는 총고 202cm, 비신 높이 133cm, 너비 57cm의 규모로 전면에 “고려봉익대부삼사좌윤김공안정지묘(高麗奉翊大夫三司左尹金公安鼎之墓)”라 각자되어 있다.

(4)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潘南朴氏 大宗中墓域)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59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51-1



|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반남박씨는 고려 후기의 문신 박상충이 입향조로 이곳에 자리를 잡은 뒤에 조선시대를 거쳐 지금에 이르기까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반남박씨 묘역의 초입에는 조선 인조 때 대사헌을 지낸 박동선과 그의 아들이며 역시 인조 때 이조참판을 지낸 박정의 신도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그 위로 산허리를 돌아가며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박동선 신도비의 크기는 총고 320cm, 비신 240×97×40cm로 건립 연대는 1707년(숙종 33)이다. 반남박씨 묘역의 입구 왼쪽에 서있는 신도비로 낮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 그리고 옥개를 갖춘 조선 중기 신도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양면비로 찬자는 조선 중기 소론의 거두였던 윤증이 짓고 이렴이 썼다. 전각에 이름났던 최석정이 전서를 맡았다. 박동선은 조선 후기의 대학자이자 문신인 박세당의 조부

였기 때문에 평소 박세당과 교분이 있었던 윤증과 최석정이 신도비 건립에 참여했던 것으로 보인다.

박정 신도비는 크기는 총고 310cm, 비신 225×94×36cm의 양면 비로 건립연대는 1712년(숙종 38)이다. 반남박씨 묘역의 입구 오른쪽에 서있는 신도비이다. 비교적 높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 그리고 장식이 없는 옥개를 갖춘 조선 중기 신도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찬자는 병자호란 당시 삼전도비(三田渡碑)를 지었던 이경석이다. 찬자(撰者)인 이경석이 죽은 연대는 1671년이기 때문에 모순이 있는 듯하나 신도비문의 찬(撰)은 1655년에 이미 해 두었던 것을 1713년 증손인 박필기가 썼던 것으로 보인다. 아들 박세당과 교분이 있었던 최석정이 전서를 썼다.

박응인 묘갈에 따르면 묘갈의 설립일은 승정 기원후 57년 경진(庚辰) 4월 이라고 전한다. 하지만 승정 기원후 57년은 계해년 1683년 이고 경진년은 1700년이다. 설립일의 오기가 있으므로 어느 것이 옳은지 확인하기 어렵다.

그 크기는 140×60×21cm이다. 현재 박응인의 묘역은 새롭게 정비되어 석물들은 모두 최근의 것으로 교체되어 있다. 다만 봉분의 우측으로 측면을 보며 세워져 있는 묘갈명만이 묘역의 조성연대를 짐작케 할 뿐이다. 낮은 대좌에 화강석 몸돌로 이루어져 있으며, 몸돌에 비해 옥개가 커서 균형적이지는 못하다. 4면비로 지은이는 조선 중기 대동법 실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김육이고 쓴 이는 남인이었던 유상운이다.

(5) 의령남씨 종중묘역(宜寧南氏 宗中墓域)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0호
- 소재 : 서구 원당동 산82-1



| 의령남씨 종중묘역

의령남씨 부정공파 두장공계 문중 묘역에 있는 남정화의 묘, 남정의 묘, 남두장의 묘 등 3기의 묘는 묘표, 묘갈,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 등 조선 후기의 석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으로 원형이 잘 유지되고 있다.

남정화(南挺華) 묘의 석물은 1679년(숙종 5)에 건립된 것으로 묘갈문은 김석주(金錫胄)가 짓고 이정영(李正英)이 글씨를 썼다. 망주석은 한 쌍으로 밑면이 팔각형 기둥이고 맨 꼭대기의 공 모양은 끝이 뾰족한 연꽃 봉오리 형태이며 가장자리는 구슬 모양의 무늬를 둘렀다.

남정(南澮) 묘의 석물은 1674년(현종 15)에 건립된 것으로 묘갈은 김수항(金壽恒)이 글을 짓고 심익현(沈益顯)이 글씨를 썼다. 묘갈의 머릿돌은 반원형으로 반쯤 가려진 해를 중심으로 구름무늬를 조각

했고 사각형태의 향로석은 문양을 넣었다. 상석을 받치는 속돌에도 문고리형태의 문양이 있다. 문인석은 조례에 참석한 관원의 복장형이고 망주석은 한 쌍으로 밑면이 팔각형 기둥이고 맨 꼭대기의 공모양은 끝이 뾰족한 연꽃봉오리형태이며 가장자리는 구슬모양의 무늬를 돌렸다. 석조미술품으로 예술적 조각솜씨를 잘 나타내었다.

남두장(南斗長) 묘의 석물은 1701년(숙종 27) 건립된 것으로 묘갈은 남구만(南九萬)이 글을 짓고 글씨도 썼다. 묘갈은 네 귀에 추녀를 달아 지은 집의 지붕형으로 지붕석은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네모형의 받침돌은 문양을 넣지 않았다. 문인석은 조례에 참석한 관원의 복장형으로 묘역 내 타 문인석에 비해 약간 작은 편이나 아담하면서도 우수한 조각 솜씨를 보인다.

(6) 평산신씨 종중묘역(平山申氏 宗中墓域)

- 지정 :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1호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0-1



| 평산신씨 종중묘역

평산신씨 묘역은 대곡동 황곡에서 두밀로 향하는 길 좌측 야산에 위치한다. 조선 중종 때 문신인 신영(申瑍)이 입향조가 되어 지금은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서남에서 동북향으로 흘러내린 야산의 구릉지에 4기의 무덤이 층을 이루며 조성되었다. 묘역 최상단에 우석규(禹錫圭)와 그의 부인의 묘가 쌍분으로 조성되었다. 우석규의 딸이 신영과 혼인하면서 평산신씨가 대곡동에 뿌리내리게 되었다. 그 밑으로 입향조 신영과 그 부인인 단양우씨(丹陽禹氏)의 합장묘가 있다. 묘갈명은 훼손이 심해 판독이 힘들다. 좌측으로 신도비와 문인석, 망주석이 세워져 있다.

신영(1499~1559)은 조선 중기 문신으로 자는 윤보(潤甫)이다. 사직서령 신세경의 아들로 김식(金湜)의 문인이다. 1516년(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1523년(중종 18) 알성문과에 장원해 홍문관에

발탁되었다. 수찬으로 있을 때 화를 입은 스승 김식을 변호하다가 탄핵되었다. 뒤에 형조좌랑·함경도도사를 거쳐 공조·형조·병조의 정랑과 지평을 지냈으나 권력층의 미움을 사 수원부사로 좌천되기도 했다. 그 후 한성부서윤을 지냈고 10여 년 동안 이조·호조·예조·병조 참판을 지냈으며, 이어서 대사헌·대사간·호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가 지중추부사에 이른 다음 사직했다. 시호는 이간공(夷簡公)으로 두말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평산신씨의 입향조이다.

신영 신도비는 크기 294×86×25cm로 건립연대는 1572년(선조 5)이고 찬자는 김계휘, 서자는 송인이다. 대리석 재질로 이루어진 양면비로 비석의 상단에 전서로 이간공 신도비명(夷間公神道碑銘)이라 새겨져 있다. 임진왜란 이전의 신도비라는 점에서 자료적 가치는 높은 편이다. 다만 마모가 쉬운 대리석 재질이기 때문에 탁본을 하기 전에는 판독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로 신영의 업적과 가계를 기록하고 있다.

그 아래로 신영의 아들 신승서(申承緒)와 그의 부인 은진송씨(恩津宋氏)의 쌍분이 구성되어 있는데, 신승서는 조선 중기의 유학자로 영의정을 지낸 신흠(申欽: 1566~1628)의 아버지이다. 그 밑으로 신승서의 5대손인 신철(申轍)과 그의 부인 경주이씨(慶州李氏)의 무덤이 있다. 이들 무덤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신승서의 형 광서(光緒)와 부인 죽산안씨(竹山安氏)의 무덤이 구성되어 있다.

2. 비지정문화재

1) 유물산포지

(1) 두밀 유물산포지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서구 대곡동 439·440번지 일대

김포시와 경계에 인접한 곳에 위치한 검단공동묘지 북서쪽의 밭 일대에서 도기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적은 쇠재산의 북서쪽 끝 완만한 남향의 밭으로 주변 일대는 공장과 논으로 둘러싸여 있다. 과거에는 해안가에 인접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물의 출토 빈도 수는 높지 않다.

(2) 마전동 유물산포지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서구 마전동 26-8, 26-10 일대

마전동 삼북골 가현에 위치하는 구릉 남현의 완만한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구릉의 정상부를 경계로 해 동서방향으로 마전동과 대곡동으로 나뉜다. 유적의 주변으로는 민가와 공장이 위치하고 있다. 과거 조사에서는 타날문토기편과 백자, 도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3) 대곡동 유물산포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



- 시대 : 청동기~조선
- 소재 : 서구 대곡동 527, 528-1 529번지 일대

검단 길을 지나다가 여래교를 못 미쳐 왼쪽으로 빠지는 도로 끝에서 골목길로 들어서면 접근하기 쉽다. 골목 안으로 진입해 구릉쪽으로 다가가면 정면으로 군부대가 보인다. 군부대를 못 미쳐 왼편으로 민가가 보이는데 민가를 중심으로 아래 밭과 윗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수습유물로는 토기편, 도기 저부편 백자 저부 및 수키와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②



- 시대 : 고려
- 소재 : 서구 대곡동 570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에서 군부대 방향으로 가다 군부대정문 약간 못 미쳐 동쪽에 위치한 밭 일대에서 청자편 등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맞은편에는 공장들이 자리 잡고 있다. 수습된 유물은 대부분 청자편으로 정확한 기종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



- 시대 : 청동기~삼국
- 소재 : 서구 대곡동 606-4전 일대

대곡동과 마전동의 경계부분에 위치하는 유물산포지로 완만한 북향의 밭 주변으로는 공장들이 자리잡고 있다. 마전동 가현에서 대곡동 태현으로 넘어가는 작은 언덕을 넘으면 두 갈래의 길이 나오는데 그 중 오른편의 소로를 따라 100m 가량 가다보면 유적에 도달한다. 과거의 조사에서 청동기시대 무문토기편과 삼국시대 타날문토기편이 확인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서구 대곡동 505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에서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으로 도라지골산의 나지막한 남사면의 능선 끝자락에 위치한다. 유물이 수습된 밭 주변으로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으며 건물 신축 공사 등으로 인해 대부분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 기와 및 자기 저부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⑤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서구 대곡동 507전, 506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①’과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의 사이에 위치한 곳으로 도라지골 산의 나지막한 구릉 남사면 밭 일대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유적의 전방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과거 조사에서 고려·조선시대 도기편과 기와편이 다수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물산포지 ⑥



- 시대 : 고려~조선
- 소재 : 서구 대곡동 490-49, 12전 일대

‘대곡동 유물산포지 ④’의 맞은편 정면에 위치한 장고산 남사면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으로 현재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 유적의 전방에는 들판이 펼쳐져 있으며,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지형이다. 과거의 조사에서는 수키와편과 자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①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서구 대곡동 산39임, 산40임 일원

장고산의 북쪽 봉우리 정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상부의 둘레를 따라 시대미상의 석축시설이 확인되었다. 내부의 범위는 약 30평 정도로 작은 규모이다. 근래에 조성된 군사시설일 가능성도 있으나 신앙유적이나 관방유적일 가능성도 있다.

대곡동 유적추정지 ②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서구 대곡동 산35임, 산37임 일원

장고산의 남쪽 봉우리 정상부에 해당하는 곳으로 정상부에서 특별한 시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장고산의 남사면은 비교적 완만한 편으로 전방에 나진하천 유역의 들판이 펼쳐져 있다. 선사시대의 고지성 집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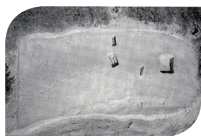
대곡동 유적추정지 ③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서구 마전동 601, 609 일대

삼국시대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대곡동 유물산포지 ③’과 바로 인접한 곳으로 타날문토기편이 수습된 지점이 구릉의 북사면이므로 그 곡간부에 해당되는 지점에 생산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 검단유적



- 시대 : 청동기~근대
- 소재 : 서구 마전동 산150 일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과 인하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검단 1지구와 2지구로 나뉘어 발굴 조사되었다. 조사결과 1지구에서는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2 지구는 1, 2, 3 구역과 도로개설구간으로 나뉜다. 이 중 2구역과 도로개설구간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2기, 회곽묘 2기, 토광묘 4기, 미상의 수혈유구 1기, 석렬유구 1기가 확인되었다. 도로 개설구간에서는 토광묘 4기, 유물포함층 2개소가 확인되었다.

(5) 불로동유적



- 시대 : 청동기~조선
- 소재 : 서구 불로동 348-1, 410-10 일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본부에서 추진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3~2004년에 걸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총 4개 구역으로 나누어 발굴 조사되었다. 1구역에서는 문화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2구역은 군부대시설 구역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외되었다. 3구역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1기와 소성유구, 구석기 문화층이 확인되었고, 4구역에서는 소성유구 1기, 수혈유구 9기, 회곽묘 2기가 확인되었다.

(6) 불로동 유물산포지



- 시대 : 삼국~조선
- 소재 : 서구 불로동 537-1, 547-4, 547-11 일대

원당사거리에서 불로동 방면으로 넘어가다 보면 뒷골이라는 마을에 도달하게 된다. 유적은 뒷골의 북쪽 구릉에 위치한다. 구릉의 남쪽 하단부에 민가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민가들 사이의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기와편과 자기편, 타날문토기편 등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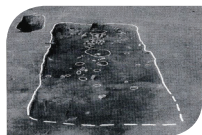
(7) 당하동유적



- 시대 : 구석기~조선
- 소재 : 서구 마전동 산179 일대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지표조사와 2001년 인하대학교박물관이 시굴조사를 실시했다. 총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다. 조사결과 I·III·IV구역에서는 특이할만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고 II구역에서 토광묘 1기와 고토양층이 확인되었다.

(8) 원당동유적



- 시대 : 청동기~조선
- 소재 : 서구 원당동 산118 일원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본부에서 시행한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의해 지표조사와 발굴 조사되었다. 유적은 4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3개의 구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었다. 1구역은 만수산의 남동쪽으로 뻗은 능선에 위치한다. 조사결과 석관묘 1기, 청동기시대 석관묘 3기, 소성유구 1기, 회광묘 2기, 토광묘 3기가 확인되었다. 2구역에서는 소성유구 2기, 분묘유구 101기, 성격미상의 수혈 6기와 백자, 토기류, 청동합, 청동수저, 청동젓가락, 인골 등이 출토되었다. 4구역은 3개의 구릉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구릉은 각각 가, 나, 라 지점으로 나뉜다. ‘가’지점에서는 19기의 장방형의 청동기시대 주거지와 3기의 수혈이 확인되었다. ‘나’지점에서는 청동기시대 주거지 7기, 수혈유구 4기, 토광묘 2기가 확인되었다. ‘라’지점에서는 구석기와 고토양층, 청동기시대 주거지 5기와 토광묘 1기가 확인되었다.

(9) 당하동 유물산포지



- 시대 : 고려
- 소재 : 서구 당하동 205

원당동 서문교회 뒤편 산기슭 쪽으로 원당사거리에서 장기사거리 방면으로 가는 길 우측으로 100여 m 떨어진 곳에 우측으로 빠지는 길이 나온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면에 언덕 위로 서문교회가 보인다. 서문교회의 뒤편 동남쪽의 산기슭에 민묘가 있고 민묘의 우측의 밭에서 유물이 수습되었다. 과거의 조사에서 경질토기편과 연질토기편들이 수습되었다.

2) 묘지

(1) 원당동 고인돌

- 시대 : 청동기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산11-1



| 원당동 고인돌

원당동유적에서 남쪽 정면으로 보이는 구릉의 정상부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다. 덮개돌의 남쪽 단면에는 돌을 쪼갬 흔적이 확인되며, 석질은 편마암 계열로 추정된다. 크기는 개석이 $265 \times 130 \times 30$ cm, 남쪽의 받침돌은 $135 \times 90 \times 22$ cm, 북쪽의 받침돌은 $165 \times 110 \times 200$ cm이다. 덮개돌의 상면에는 성혈이 관찰되지 않고, 쪼개져 패인 흔적만 관찰된다. 원당유적과 함께 연관해 볼 때 고인돌이 위치하는 구릉 주변에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2)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2임



대곡동 전주류씨 묘역

항곡 안쪽으로 들어가면 너른 공터가 나오는데 공터를 둘러싸고 전주류씨의 묘역이 넓게 조성되어 있다. 조선시대 지리지나 읍지 자료, 그리고 최근에 조사되었던 자료에서도 전주류씨는 생소한 성씨이다. 묘역의 석물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개 1970년대 이후에 조성된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이 묘역이 최근에 이장해 조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우선 공터의 입구 좌측 구릉으로는 3기의 무덤이 모여 있다. 제일 위로부터 류시성(柳時成) 묘역, 류진(柳軫) 묘역, 류파(柳坡) 묘역 순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좌측으로는 류계반(柳季潘)의 망배단이 조성된 것이 특징이다. 이 중 류파 묘는 남아있는 묘갈명에 따르면 1657년(효종 8)에 조성된 것으로 전체 류씨 묘역 중 확인되는 가장 오래된 무덤이다. 그러나 이 묘역 역시 옆에 서있는 새로운 오석(烏石) 비로 미루어 볼 때 최근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골짜기 건너로 류항(柳沆), 류효찬(柳孝贊), 류악(柳渥), 류계생(柳啓生)의 묘역이 시계방향으로 늘어서 있다.

(3)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산164



|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

고성이씨는 고려시대 거란침입 때 공을 세워 철령군(鐵嶺君; 고성의 별호)에 봉해진 이황(李璜)을 시조로 한다. 11세 용헌공(容軒公) 이원(李原)은 조선 전기 국가제도를 확립하는 데 공헌을 했고, 12세 좌윤공(佐尹公) 이질(李埴)은 한성좌윤을 역임했다.

당하동 고성이씨 묘역은 본래 16세기 초반 동구 화수동 37-2번지 일대에 조성되었는데 정숙공(貞肅公) 이척(李則)이 죽자 그가 장전(莊田)으로 관리해 오던 곳에 이척의 묘를 조성한 것을 시작으로 묘역이 조성되었다. 1936년 인천부의 부역확장 계획에 따라 화수동에 있던 묘역은 정숙공의 증손자인 이희(李曦), 이돈(李暵) 형제의 묘역이 있는 서구 석남동 산50번지로 이장되었다. 1970년 인천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석남동 묘역이 또 이장하게 되자 현재의 당하동 산164번지로 이척과 이옹(李翁), 이변(李忭), 이성(李性) 묘가 이장되었다.

현재 묘역에는 이척, 이옹, 이성의 묘가 확인되며 묘비가 없는 봉

분은 이번의 묘로 추정된다. 근래 건립한 이분(李賁), 이래(李萊), 이요(李堯)의 설단이 세워져 있다.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이척의 봉분은 정부인 안동권씨와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갈과 묘비, 상석과 향로석, 석수 1쌍, 문인석 1쌍이 있다. 어모장군(禦侮將軍)을 지낸 이옹의 봉분은 숙인 동래정씨, 숙인 용인이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순안현령을 지낸 이성의 봉분은 숙부인 정선전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상석 왼쪽에 석물이 하나 놓여 있는데 기존에 향로석으로 사용하던 것으로 보인다.

(4) 대곡동 전주이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57



| 대곡동 전주이씨 묘역

전주이씨는 통일신라 때 활동한 이한(李翰)을 시조로 한다. 태조 이성계는 이한의 22세손이다. 대곡동에 위치한 전주이씨 묘역은 효령대군 명원군파(明原君派)의 묘역이다.

현재 묘역에는 효령대군을 기준으로 6세 이경운(李卿雲), 8세 이진현(李晉賢), 9세 이만협(李萬協)의 묘가 있다. 또한 묘비가 없어 그 내역을 알 수 없는 묘도 다수 존재한다.

내자시정(內資寺正)을 지낸 이경운의 봉분은 증정부인 안동김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병조참판을 지낸 이만협의 봉분은 정부인 풍산심씨, 정부인 수원백씨와 쌍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5) 마전동 청도김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산16-1



| 마전동 청도김씨 묘역

현재 묘역에는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를 지낸 김점(金漸)의 유허단이 있고 김유손(金裕孫), 김유손 처 진양정씨, 김영우의 묘가 있다. 한편 김영우의 묘비 오른쪽에 김유손의 옛 묘비 2기, 진양정씨의 옛 묘비 1기, 김영우의 묘비 1기 등 묘비군이 구성되어 있다.

묘역 상단 오른쪽에 김점의 유허단과 유허단비,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그의 묘소는 북한 장단 송서면에 있어 성묘를 할 수 없자 그의 아들 김유손의 묘가 있는 곳에 1978년 유허단을 설치했다. 의흥사 중령호군(義興司中領護軍)을 역임한 김유손은 청도김씨 마전동 입향조로 검단면 열애리(悅愛里, 마전동 여래마을)에 장사지냈다. 묘역 상단에 김유손의 묘가 위치하고 있다. 후처인 정부인 안동권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이 있다. 진양정씨의 묘는 별도로 단분으로 조성되었으며 묘비,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이 있다. 김유손 묘 아래쪽에 있는 묘비군에 1480년에 세운 진양정씨의 묘비가 있다.

(6) 오류동 평산신씨 묘역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산62



| 오류동 평산신씨 묘역

평산신씨는 고려 건국에 힘을 보탠 대장군 신숭겸(申崇謙)을 시조로 한다. 대곡동 황골에 이간공(夷簡公) 신영(申瑛)이 입향한 이래 그의 자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었다. 신영의 장남이 신흥서(申弘緒)이고 신흥서의 아들이 신섬(申銑)이며 신섬의 아들이 신방열(申邦說)이다. 신흥서의 묘는 고양에, 신섬의 묘는 신영 묘 우측 기슭에 있다는 기록으로 볼때 신방열의 후손들이 오류동으로 옮겨와 세거한 것으로 여겨진다.

오류동 평산신씨 묘역은 오류동 백석산에 위치한다. 현재 묘역에는 신방열과 아들인 신전(申僊)의 묘가 있다. 공조참판에 추증되었던 신방열의 묘는 증정부인 나주박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묘비와 새 묘비,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개성부도사(開城府都事)를 역임한 신전의 묘는 숙인 의령남씨와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묘비, 새 묘비 2기, 상석과 향로석, 망주석 1쌍이 있다.

3) 기타

(1) 밀양당씨 정열비

- 시대 : 일제강점기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279



| 밀양당씨 정열비

정열비는 일반적으로 열녀비와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다. 열녀란 유교사상이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조선 중기 이후 위난(危難)을 당해 목숨으로 정절을 지켰거나, 오랜 세월 동안 수절한 부녀자를 일컫는 것으로 관에서는 이를 후세에 기리기 위해 마을 입구에 열녀비 또는 사당을 짓게 했다. 밀양당씨(1810~1895)는 반남박씨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 그녀의 나이 48세 되던 1857년(철종 8)에 남편 박종주(朴宗柱)가 중병으로 쓰러지자 일주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간병했으나, 결국 운명하자 손가락을 잘라 그 피를 입으로 흘려 넣어 회생케 했다고 한다. 1926년 김포군수 조준구가 이를 기리어 마을 입구에 정열비와 사당을 세웠다.

(2) 대곡동 황곡마을 느티나무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0-1

500년 된 보호수로 높이 20m, 둘레 6m이다. 대곡동 황곡마을 당산나무이기도 하며, 예전에는 제관을 뽑아 정기적으로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당할아버지 나무’로 불린다. 이 당산나무는 기도원으로 넘어가는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다.

(3) 대곡동 황곡마을 삼거리 느티나무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24

1982년 10월 15일에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200년의 나무이다. 높이 23m, 둘레 3m이며, 용궁 굿당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당할아버지 나무’처럼 당제 대상은 아니지만, 현지에서는 ‘당할머니 나무’로 불리며 근래에는 굿을 하러 온 무당들이 막걸리를 놓는 등의 치성을 보이고 있다.



| 대곡동 황곡마을 느티나무



| 대곡동 황곡마을 삼거리 느티나무

(4) 대곡동 굿당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산142 옆



| 대곡동 굿당

20여 년 전에 들어선 굿당은 10개가 넘는 방과 산신당과 서낭당, 용궁당, 칠성당으로 꾸며져 있다. 여기에 굿당이 생긴 것은 ‘터가 세 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 한다. 굿당은 전화를 통한 사전 예약으로 운영되는데, 주인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무당(보살)들이 모여든다고 한다. 무당들은 잠시 굿당을 빌려 굿을 하는데, 보통 굿은 방에서 이루어지며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불한다. 굿에 필요한 떡, 전 등의 제물들은 굿당에서 만든다.

굿당에서도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떡과 삼색과일, 술 등을 가지고서 굿당에 모신 신들에게 제의를 지낸다. 제의 순서는 집 뒤쪽에 자리한 산신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 뒤란의 용궁할아버지, 마당의 서낭 순서이다. 이를 통해 산신이 신들 중의 으뜸임을 알 수 있다. 모든 신들은 상으로 모셔져 있다.

(5) 안동포 당제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595-2 동아연립 앞



| 안동포 당제

마을 노인들에 따르면 당 제사에는 돼지고기를 쓰지 않는데 그것은 당의 신이 긴 업(뱀)이기 때문이다. 뱀과 돼지는 상극으로, 뱀은 돼지를 물어도 아무런 상처를 주지 못하는 반면, 돼지는 뱀을 잘 먹는다고 한다. 당은 현지에서 ‘할아버지·할머니’로 불린다. 음력 정월 14일 낮 12시에 제사를 지내는데, 예전에는 제관을 선출해 지냈으나 지금은 노인회장이 제관이 되어 제사를 지낸다. 제물을 구입하는 경비는 마을 사람들이 성의껏 낸 돈으로 치러진다. 그 돈으로는 제물과 술을 사며, 떡은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다.

제관은 제사 지내기 며칠 전부터 부정한 일을 금하고, 몸을 깨끗이 하느라 정성을 다한다. 제사를 지낼 때 마을의 남자들은 참여하고, 축문은 따로 없으며 단지 “도당할아버지, 할머니, 동네 아무 일 없게 해달라”라고 축원만 한다. 인줄(금줄)은 제관의 집에만 걸고 당

주위에는 걸지 않는다.

동아연립이 있는 곳에 본래 당집이 있었고, 따라서 그곳을 ‘당산’이라고 불렀다. 빌라가 지어지면서 당은 한쪽으로 옮겨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본래의 당집은 고깔 모양으로써 열 사람 정도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큰 규모였고, 그 안에는 위패가 있었다고 한다. 매년 10월이 되면 터주의 주저리처럼 지붕을 갈아주었다. 주저리에 끈 새끼줄은 다른 지방과 달리 오른새끼로 한다. 그러나 지금의 당은 당집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크기도 터주보다 약간 클 뿐이다. 또한 당은 엽가리처럼 매년 짚을 덧씌워준다.

안동포에서는 매년 음력 11월이면 날을 받아 대동굿을 했다. 당군네(무당)는 오류동에 사는 이가 주로 왔으며, 때에 따라서는 검단이나 인천 등지에서 오기도 했다. 11월에 날이 정해지면 마을 주민들은 식구별로 일정한 금액을 내는데, 이때 배를 부리는 이는 옷돈을 내기도 한다.

굿은 이틀 동안 진행되며 여자들은 참여할 수 없고, 마을터에서 시작해 당집, 우물 순으로 옮겨간다. 제물은 소머리, 삼색과일, 막걸리 등이며, 굿이 끝나면 대동마당에서 음복을 한다. 이때에는 여자들도 참석을 한다. 안동포에서 마지막으로 굿을 지낸 것은 쓰레기매립지가 생기던 1992년이였다. 마을의 무사태평을 기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6) 하동정씨 사당

- 시대 : 조선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02 태정마을



| 하동정씨 사당

하동정씨 문성공파 정인지와 그의 아들인 정현조를 모셨고, 10월 15일이 되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후손들이 마을을 떠나고 수원에 새로운 사당이 지어지면서 사당 제사는 지내지 않았고, 지금은 폐허로 변한 상태이다. 태정마을에 자리한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현재의 사당은 50여 년 전에 지은 것이다. 사당은 1칸이며, 문은 남향을 향하고 있어 마을에서 사당을 보면 뒷벽 모습만 보인다. 그래서 벽면 한쪽에 뒷마루를 설치해 마을 전경이 보이도록 했다.

10월 제사에는 20명이 참가하다가 후에 7명으로 인원이 대폭 줄었고, 정순태 옹이 줄곧 제물을 준비해 시제를 쳤었다. 사당에는 시제를 위한 위토가 없어 제사에 따른 경비를 따로 마련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다 보니 제물은 삼색과일, 인절미, 편, 약주, 송어 등에 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송어를 조기보다 높은 물고기로 치며, 송어가 없는 경우 조기를 올렸다. 대부도, 영흥도 등지에서는 마른 송어를 찌서 제상에 올리는 반면 여기에서는 생 송어를 익혀서 올렸다.

(7) 왕길동 염전 터

- 시대 : 시대미상
- 소재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60 일대



| 왕길동 염전 터

안동포에는 염전이 많았었다. 당시 제염업에 종사하던 염부들은 15명 정도로 이들은 사택에서 생활했다. 염전사택은 한 건물마다 15개의 방을 갖췄다. 방의 크기는 사방 8자로써, 한 가정이 단칸방에서 어렵게 생활했다. 생산된 소금은 인천과 서울 등지로 팔려나갔다.

당시 염전이었던 곳은 현재 공장들이 차지하고 있다.

강옥엽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참고문헌】

- 경기도박물관, 2002, 『도서해안지역종합학술조사 III』.
- 고려문화재연구원, 2008, 『인천 검단 신도시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고려문화재연구원, 2009, 『인천 검단2 택지개발예정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국립민속박물관, 1995, 『한국의 마을제당』 제1권(서울·경기도편).
- 김포군지편찬위원회, 1992, 『김포군지』.
- 동양고고학연구소, 2001, 『인천 대곡동 고인돌무덤』.
- 동양고고학연구소, 2006,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고려 삼사좌운 김안경선생묘역 실측조사』.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97, 『문화유적총람』 상권.
- 이경성, 1949, 『인천고적조사보고서』, 인천시립박물관.
- 이훈의 편저, 1996, 『인천금석비명집』,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2001, 『계양사』.
- 인천광역시 계양구, 2011, 『계양의 역사와 도시변화』.
- 인천광역시 부평구, 1997, 『부평사』.
- 인천광역시립박물관, 2004, 『인천북부 종합학술조사』.
-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2, 『인천광역시사』.
- 인천광역시 서구, 2003, 『서구사』.
-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2008, 『인천의 문화유산을 찾아서』.
-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2015, 『인천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 인천직할시, 1994, 『인천의 문화재』.
- 임호재, 1990, 『경기도 김포반도의 고고학 조사연구』, 『연보』 2, 서울대학교박물관.
- 중앙문화재연구원, 2004, 『인천청라지구문화재지표조사 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1994, 『신공항고속도로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3, 『인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3, 『인천 원당-불로간 도로개설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4, 『인천백석지구도시개발사업 문화재지표조사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경밀지표조사』.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5, 『문화유적분포지도』.
- 인하대학교박물관, 2006, 『검단공업지역 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0, 『인천 검단지역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2, 『인천 원당지구 1·2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1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인하대학교박물관, 2003, 『인천검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문화유적 조사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인천 동양택지개발사업지구(1지구) 문화유적 발굴조사-지도위원회 자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인천 불로지구 문화유적 시굴조사 약보고서』.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4, 『인천 원당지구 1·2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2차 지도위원회의 자료-』.
- 한국문화재보호재단, 2005, 『인천 원당지구 4구역 문화유적 발굴조사 약보고서』.

Chapter I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의 인물

1. 선주 성씨들
2. 전근대 인물
3. 근현대 인물

IV. 검단의 인물

1. 선주 성씨들

1) 마전동

- 광산김씨(光山金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아왔다.
- 연안김씨(延安金氏) : 김횡(金滢)이 17세기 후반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 순흥안씨(順興安氏) : 조선 중기부터 가현에 집성촌을 이루었다.
- 남원양씨(南原梁氏) : 조선 중기부터 세거해 왔다.
- 광주이씨(廣州李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성주이씨(星州李氏) : 15세기 후반에 이우(李友)가 입향해 그 후손들이 청마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해 왔다.
- 나주임씨(羅州林氏) : 17세기 중엽에 임제(林濟)가 입향해 그 후손들이 여래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해 왔다.
- 인동장씨(仁同張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하동정씨(河東鄭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청주한씨(淸州韓氏) : 조선 중기부터 완정에서 세거해 왔다.
- 양천허씨(陽川許氏) : 18세기 초에 허병두(許炳斗)가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 남양홍씨(南陽洪氏) : 17세기 초에 홍계융(洪繼隆)이 입향해 그 후손들이 능안에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했다.

2) 금곡동

- 평산신씨(平山申氏) : 조선 중기부터 좌동에 입향해 세거해 왔다.
- 남원양씨(南原梁氏) : 조선 초기부터 김포시 양촌면 대포리에서

이주해 살았다.

- 장수이씨(長水李氏) : 조선 중기부터 싯골에서 세거해 왔다.

3) 오류동

- 반남박씨(潘南朴氏) : 16세기 중엽에 박응남(朴應男)이 입향해 봉화촌에 거주해 왔다.
- 달성서씨(達城徐氏) : 17세기 초에 서종기(徐宗基)가 입향해 봉화촌에 거주했다.
- 순흥안씨(順興安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고성이씨(固城李氏) : 조선 중기부터 봉화촌에 거주해 왔다.
- 광주이씨(廣州李氏) : 조선 중기부터 대촌에서 세거해 왔다.
- 배천조씨(白川趙氏) : 조선 중기에 조문빈(趙文彬)이 입향해 세거해왔다.
- 청주한씨(淸州韓氏) : 조선 중기부터 반월촌에서 살아왔다.

4) 왕길동

- 안동권씨(安東權氏) : 17세기 초에 권신(權信)이 입향해 사월에 서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왔다.
- 광주김씨(廣州金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김해김씨(金海金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남원양씨(南原梁氏) : 조선 중기부터 사월에서 살아왔고, 지금도 후손 일부가 살고 있다.
- 고성이씨(固城李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아왔다.
- 광주이씨(廣州李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아왔으며 지금도 후손 일부가 거주하고 있다.
- 성주이씨(星州李氏) : 조선 중기부터 거주해 왔다.
- 청주한씨(淸州韓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아왔다.

5) 당하동

- 안동권씨(安東權氏) : 조선 초기부터 매발에 세거해 왔다.
- 광산김씨(光山金氏) : 15세기 중엽에 김달도(金達道)가 입향해 그 후손들이 줄곧 세거했다.
- 청송심씨(靑松沈氏) : 조선 중기부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에서 이주해 광명에 세거해 왔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 초기 희령군파 이향영(李向榮)이 입향해 집성촌을 이루고 살아왔고, 현재 후손들이 살고 있다.
- 양천허씨(陽川許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아왔다.

6) 원당동

- 풍산김씨(豐山金氏) : 16세기 초에 김인손(金麟孫)이 입향해 원당에서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 의령남씨(宜寧南氏) : 18세기 전반 남종언(南宗彦)이 원당으로 입향해 후손들이 세거해 왔다.
- 반남박씨(潘南朴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아왔다.
- 순흥안씨(順興安氏) : 조선 중기부터 집단 거주해 왔다.
- 고성이씨(固城李氏) : 17세기 중엽에 이광세(李匡世)가 입향해 고산 뒤에서 세거해 왔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 초기부터 집단 거주해 왔다.
- 배천조씨(白川趙氏) : 조선 초기부터 거주해 왔다.
- 양천허씨(陽川許氏) : 조선 중기 명종조에 입향해 지금도 발산에서 후손 일부가 살고 있다.

7) 불로동

- 풍산김씨(豐山金氏) : 약 170여 년 전 원당동에서 불로동으로 이주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 남평문씨(南平文氏) : 조선 중기에 문이길(文以吉)이 입향해 세거해 왔다.
- 밀양박씨(密陽朴氏) : 조선 중기부터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 파평윤씨(坡平尹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아왔다.
- 경주이씨(慶州李氏) : 조선 중기부터 살아왔다.
- 전주이씨(全州李氏) : 조선 중기부터 집성촌을 이루며 살았다.
- 평택임씨(平澤林氏) : 조선 중기에 임지간(林智幹)이 입향해 갈산에서 세거해 왔고, 현재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8) 대곡동

- 풍산김씨(豐山金氏) : 조선 중기 김종춘(金宗春)을 입향조로 세거해 왔다.
- 반남박씨(潘南朴氏) : 15세기 중엽에 박병문(朴秉文)이 입향해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했다.
- 거창신씨(居昌愼氏) : 조선 중기에 연산군의 화를 피해 내려와 살기 시작해 그 후손들이 살고 있다.
- 영산신씨(靈山辛氏) : 조선 초기부터 살아왔다.
- 평산신씨(平山申氏) : 16세기 중엽에 신영(申瑛)이 입향해 후손들이 세거했다.
- 하동정씨(河東鄭氏) : 대곡동의 하동정씨는 학역재(學易齋) 정인지(鄭麟趾)의 후손으로 사헌부 장령(掌令)을 지낸 정유(鄭維)가 16세기 후반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2. 전근대 인물

검단의 크지 않은 단위면적과 인구에 비해 걸출한 인물들이 무수히 배출되어 자료가 풍부하다. 여기서는 2014년 발간한 『인천광역시 서구사』를 발췌 수록한다.

1) 마전동

(1) **김횡(金滂: 1636~1706)** 연안김씨(延安金氏)이다. 1682년(숙종 8) 증광문과(增廣文科) 제삼인(第三人)으로 급제했다.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과 장령(掌令)을 지냈다. 1685년(숙종 11)에 서장관이 되어 연경(燕京)에 다녀온 후 숙천부사(肅川府使)가 되었다. 그 후 내직으로 승정원 승지를 거쳐 병조, 예조, 형조참의를 역임했다. 외직으로는 순천, 평산, 성천 등지의 도호부사를 역임하고, 1705년(숙종 31) 가선대부 품계에 오르고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을 지냈다. 17세기 후반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2) **김려(金礪: 1639~1683)** 광산김씨(光山金氏)로 자는 여휘(汝輝)이다. 통덕랑(通德郎)을 지낸 김성구(金聖龜)의 아들이다. 무과에 급제한 후 장연현감(長連縣監)을 거쳐 황주진관(黃州鎭官) 병마절제도위(兵馬節制都尉)를 지냈다.

(3) **이우(李友: 생몰년 미상)** 성주이씨(星州李氏)로 이자견(李自堅)의 아들이다. 15세기 후반 경기도 용인에서 마전동 청마로 입향한 입향조이다. 관직은 창신교위(彰信校尉)와 충무위부사직(忠武衛副詞直)을 지냈다.

(4) 이인호(李仁好; 1742~1795) 본관은 성주(星州)이다. 1775년(영조 51) 사마시에 급제했고, 정조 때 문과에 올라 병조좌랑, 예조좌랑과 사헌부 장령(掌令)에 이어 개성부 소윤(開城府少尹)을 역임했다.

(5) 이장후(李章后; 1753~1815) 본관은 성주이며 마전동 청마 출신이다. 1789년(정조 13)에 사마시에 입격하고 1795년(정조 19)에 춘당대문과(春塘臺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사헌부 지평(持平)을 거쳐 태천현감(泰川縣監)을 지내고 중앙관직인 사헌부 장령(掌令)을 역임하며 1809년(순조 9)에 치러진 별시에서 감시관(監試官)을 지냈다.

(6) 임제(林濟; 1616~1675) 본관은 나주(羅州)이다. 고려 충렬왕 때 시종공신(侍從功臣)으로 대장군과 판사재시사(判司宰寺事)를 역임한 임비(林庇) 9세손 탁(卓)이 조선 개국 초 봉순대부(奉順大夫)로 나주에 정착, 세거한 데서 본관을 나주로 삼았다. 17세기 중엽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마전동 여래마을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했다.

(7) 임수진(林秀鎭; 1797~1855) 본관은 나주이며 자는 성재(聖在)이다. 무관으로 오위(五衛)에 속한 정4품 호군(護軍)을 지냈다.

(8) 한창(韓昌; 1410~1451) 청주한씨(淸州韓氏)이다. 강원도관찰사를 지내고 사후에 순성 적덕 병의 보조공신(純誠積德秉義補祚功臣)으로 영의정 청천 부원군(靑川府院君)에 추증되었다.

(9) 한백륜(韓伯倫; 1427~1474) 본관은 청주(淸州)로 완정 출신이다. 1444년(세종 26) 식년문과에 급제해 장사랑(壯仕郎), 소격전 직장(昭格殿直長), 경복궁 사연(景福宮賜宴) 등의 관직을 거쳤다. 1462년(세조 8) 사옹원 별좌(司壘院別座)로 있을 때 딸이 세자

빈으로 책봉되고, 후에 예종비(睿宗妃) 안순왕후(安順王后)가 된다. 1466년(세조 12)에 의빈부도사(儀賓府都事)에 발탁되고 2년 후인 1468년 공조정랑(工曹正郎)에 제수되었다. 외척임에도 불구하고 청백리로서 이름을 날렸다.

(10) 안순왕후 한씨(安順王后; ?~1498) 한백륜의 딸로 완정에서 태어났다. 동궁에 들어가 소훈(昭訓)에 봉해졌다가 1460년(세조 6) 영의정 한명회(韓明澮)의 딸이 세자빈에 책봉되어 장순왕후(章順王后)로 가례(嘉禮)를 행했으나 이듬해에 병사함에 따라 1461년(세조 7)에 세자빈으로 간택되었고, 예종이 즉위하자 왕비에 책봉되었다. 이듬해에 예종이 승하하면서 1471년(성종 2)에 인혜대비(仁惠大妃)에 봉해지고 그 후 1497년(연산군 3)에는 명의대비(明懿大妃)에 책봉되었다.

(11) 한경석(韓慶錫; 1463~1520) 청주한씨로 자는 중대(仲大)이다. 한열(韓悅)의 아들이다. 1493년(성종 24)에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쳐 제학에 오르고 1507년(중종 2)에 황해백(黃海伯)에 올랐다가 1514년(중종 9)에 호조판서에 올라 청원군(淸原君)에 올랐다. 1518년(중종 13), 기묘사화를 예견하고 사임한 후 우고(于古)가 있는 금릉(金陵)의 금릉향교 동남쪽에 거처를 잡고 향민의 학문과 예를 가르쳐 운림선생(雲林先生)이라 불렸다.

(12) 허병두(許炳斗; 생몰년 미상) 양천허씨(陽川許氏)로 18세기 전반기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13) 홍계융(洪繼隆; 생몰년 미상) 남양홍씨(南陽洪氏)로 17세기 초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했다.

(14) **홍진화(洪震華; 1670~1703)** 본관은 남양(南陽)으로 홍계응의 후손이다. 부모에 대한 효성이 지극해 사헌부 지평(持平)의 관직과 정려(旌閭)를 하사받았다.

(15) **홍유징(洪有徵; 1694~1758)** 본관은 남양으로 자는 백상(伯祥)이다. 홍진화의 아들이다. 1713년(숙종 39)에 진사에 급제한 후 양지현감(陽智縣監)을 지냈다.

2) 금곡동

(1) **양성지(梁誠之; 1415~1482)** 남원양씨(南原梁氏)이다. 1441년(세종 23) 진사, 생원 양시(兩試)에 합격하고, 이어 식년문과에 급제해 경창부승(慶昌府丞)과 성균관 주부(主簿)를 역임했다. 집현전에 들어가 부수찬(副修撰)과 교리(郊理) 등을 지내며 세종의 총애를 받았다. 『고려사』 개찬에 참여했고 이어 집현전 직제학(直提學)으로 승진했다.

1463년(세조 9) 왕명으로 『동국지도(東國地圖)』를 찬진했으며 같은 해 홍문관 설치를 건의해 역대의 서적을 보관케 하고 제학으로 취임했다. 이듬해 구현시(求賢試)에 급제해 이조판서에 오르며, 대사헌 재직 중에는 『오륜록(五倫錄)』을 찬진했다. 1469년(예종 1)에 지중추부사와 홍문관 제학 및 지춘추관사를 겸직했다. 이때 『세조실록』을, 1470년(성종 1)에는 『예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1481년(성종 12) 홍문관 대제학을 역임하며 『여지승람(輿地勝覽)』 편찬에 참여했다.

(2) **양연(梁淵; 1486~1542)** 양성지의 손자이다. 1524년(중종 19)에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홍문관 대제학, 동지경연춘추관사

(同知經筵春秋館事),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摠府都摠管), 좌참찬을 지내고 후에 좌승지와 병조판서를 거쳐 이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외직으로는 중성판관(鐘城判官), 전라감사를 지내고 1541년(중종 36) 우참찬에 오르고 지중추부사에 이르렀다.

(3) 양지(梁誌: ?~1592) 임진왜란 때의 절신(節臣)으로 양성지의 후손이다. 적성현감(積城縣監) 당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연천 삭녕에 와 있던 경기감사 심대(沈岱)의 종사관으로서 왜적의 야습(夜襲)을 만나 끝까지 항전하다가 심대와 함께 순사(殉死)했다. 금곡리 좌동에 충신정려(忠臣旌閭)가 내려졌으나 현존하지 않는다.

(4) 양진룡(梁震龍: 1581~1647) 본관은 남원(南原)이다. 광해군 때 폐모론이 일어나자 세마(洗馬)로서 출사하지 않고 3일 동안 통곡하며 시 수십 편을 지었다. 그 뒤 강호에 묻혀 성리학에 열중했다. 김장생(金長生)의 문인이기도 했다. 검단 좌동에 사송정(四松亭) 또는 석호정(石湖亭)을 지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3) 오류동

(1) 박응남(朴應男: 1527~1572) 반남박씨(潘南朴氏)로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으며 시호는 문정(文貞)이다. 16세기 중엽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2) 박세재(朴世材: 1655~1712)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의경(義京)으로 박응남의 후손이다. 1676년(숙종 2) 무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쳐 절충장군에 이르렀다. 묘는 검단 금곡동 와마산(臥馬山)에 있다.

(3) 서종기(徐宗基; 생몰년 미상) 달성서씨(達成徐氏)로 17세기 초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4) 서내수(徐來修; 1736~1801) 본관은 달성(達成)으로 봉화촌 출생이다. 문과에 급제해 정3품 당하관 품계인 통훈대부의 계(階)를 받고 군자감정(軍資監正)으로 재직했다.

(5) 서학순(徐學淳; 1763~1835) 본관은 달성으로 봉화촌 출신이다. 무과에 급제해 많은 관직을 지냈으며, 사후에 가선대부 전행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오위장(嘉善大夫前行同知中樞府事兼五衛都摠府五衛將)을 추증받았다.

(6) 서유진(徐有珍; 1764~1832) 본관은 달성이며 봉화촌 출신이다. 문과에 급제해 여러 관직을 거쳐 문관 정3품 당상관인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고 공조참의를 지냈다.

(7) 조문빈(趙文彬; 1738~?) 본관은 배천(白川)이다. 순조 때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여러 벼슬을 거쳐 보공장군병마도절제사(保功將軍兵馬都節制使)에 이르렀고 함경남도 백두산 아래 혜산 첨절제사(僉節制使)로 청나라와의 국경에 백두산정계비를 세우게 한 공로가 있다. 오류동에 입거한 입향조이다.

4) 왕길동

(1) 권신(權信; 생몰년 미상) 본관은 안동(安東)으로 17세기 초에 입향해 사월에서 그 후손들이 세거해 왔다.

(2) 권경수(權慶洙: 1818~1885) 본관은 안동으로 권신의 후손이다. 속사곶 출신으로 통정대부(通政大夫)에 올랐다.

5) 당하동

(1) 김달도(金達道: 생몰년 미상) 본관은 광산(光山)이며 고명은 달존(達尊), 자는 도경(道卿)이다. 형조도관좌랑을 지낸 퇴촌(退村) 김열(金閱)의 아들이다. 세종(世宗) 때 벼슬길에 나아가 영흥도호부 판관(永興都護府判官)을 지내고 사후에 호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김포판관공파(金浦判官公派)의 시조이며 검단 당하리 독정마을에 처음 세거를 한 입향조이다.

(2) 심한성(沈漢成: 1653~1738) 본관은 청송(淸松)으로 자는 정숙(貞叔)이다. 영의정을 지낸 공숙공(恭肅公) 심회(沈澮)의 9세손이다. 관직은 병절교위(秉絕校尉)를 지냈다. 효행이 지극해 1887년(고종 24)에 효자 정려(孝子旌閭)가 내려졌고 예조(禮曹)에서 내린 입안이 함께 전한다.

(3) 이침(李枕: ?~1465) 태종공정대왕(太宗恭定大王)의 6남(六男) 희령군(熙寧君)이다. 시와 예문에 통달했고 평생 왕의 어명을 따랐다. 안남(安南) 율현리(栗峴里)에 사패지(賜牌地)를 받았다. 희령군은 당하동 죽저리의 입향조로 그의 후손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6) 원당동

(1) **김안정(金安鼎: 생몰년 미상)** 고려 공민왕 때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판상사(判尙事)를 지낸 시조 김문적(金文迪)의 7대손이며, 별좌(別坐)를 지내고 이조참판을 증직받은 윤견(允堅)의 아들이다. 자세한 이력은 알 수 없으나 원당동에서 발굴된 그의 묘비에 의하면 봉익대부삼사좌윤(奉翊大夫三司左尹)을 지냈으며, 사후에 이조판서 겸 홍문관 대제학을 증직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김자량(金子良: 1352 ~ 1400)** 본관은 풍산이고 자는 수지(遂之), 호는 한죽헌(寒竹軒)이다. 정몽주와 이색의 문하에서 수학했다. 1372년(공민왕 21) 사마시에 급제했으며, 이듬해 문과별시에서 장원급제해 벼슬이 시중에 이르렀다. 고려 말 혼란기에 관직을 사직하고 황해도 의 서쪽 청학동에 은거했다. 조선 건국 이후 태조에 의해 대사마대장군(大司馬大將軍)에 특수했지만 출사하지 않았으나 후에 다시 태조의 부름에 따라 1393년(태조 2)에 한성부판윤에 제수되었다. 그 후 다시 예조판서 겸 지경연문관제학(知經筵文館提學)을 제수받았다. 1396년(태조 5)에 함길도 관찰사를 역임했으며, 이듬해 호조판서 겸 사복시부제조가 되었다. 그 후 1399년(정종 1) 형조판서, 다음 해 병조판서 등을 역임했다. 손자인 김인손의 행장에 의하면 『근사록』과 『주자대전』에 조예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김인손(金麟孫: 생몰년 미상)** 본관은 풍산으로 군기시직장(軍器寺直長)을 지낸 김종수(金從水)의 아들이다. 1509년(중종 4) 별시 문과(別試文科)에 급제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홍문관 교리와 사간원 대사간을 역임했다. 가선대부의 품계에 올라 동지의금부사(同知義禁府事)와 이조참의, 병조참판을 역임했다. 자헌대부(資憲大夫)

의 품계를 받고 평안도관찰사를 지낸 뒤 병조판서에 올랐다. 풍산김씨 김포 입향조로 그 후손들이 원당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4) 남정화(南挺華; 1543~1615) 본관은 의령(宜寧)이며 자는 국실(國實)이다. 서사(筮仕)로 관직에 나가 통정대부에 올랐으며, 말년에 가선대부첨지중추부사(嘉善大夫僉知中樞府事)를 지냈다.

(5) 남정(南潏; 1586~1648) 남정화의 아들로 자는 여청(汝淸), 호는 한곡(寒谷)이다. 서사(筮仕)로 관직에 나가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시작으로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을 거쳐 비안현감(比安縣監)을 지냈다. 인조만정 후 전생서 주부(典牲暑主簿)를 거쳐 홍천현감, 한산군수를 역임하고, 오위장(五衛將)을 지냈다. 사후 증직되어 첨지중추부사 겸 지의금부사(知中樞府事兼知義禁府事)를 추증받았다.

(6) 남두장(南斗長; 1613~1689) 남정의 아들로 자는 천경(天卿)이다. 1650년(효종 1)에 진사가 되어 장악원 주부(掌樂院主簿), 장예원 사평(掌隸院司評)을 거쳐 의령현감, 한성부 판관(判官), 온양군수, 종묘 서령(宗廟署令)을 거쳐 공조정랑과 한성부 서윤(庶尹)을 지냈고 후에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역임했다. 사후에 승정원좌승지 겸 경연참찬관(承政院左承旨兼經筵參贊官)에 증직되었다.

(7) 이광세(李匡世; 생몰년 미상) 본관은 고성(固城)이다. 문과에 나아가 직장(直長)을 거쳐 나주목사를 지냈다. 17세기 중반에 원당 고산(高山)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8) 남양홍씨(南陽洪氏) 풍산김씨(豐山金氏) 중정(重鼎)의 처로 부군이 사망하자 3일 후에 애절하게 요절해 열녀(烈女)로 추앙되어 1850

년(철종 1)에 열녀문을 하사받았다. 열녀문은 현재 원당동 90번지 대문에 그 편액이 걸려있다. 편액에는 “열녀학생김중정처유인남양홍씨지문(烈女學生金重鼎妻孺人南陽洪氏之門)”이라고 되어 있다.

7) 불로동

(1) **임득장(林得長: 생몰년 미상)** 평택임씨(平澤林氏)로 임인산(林仁山)의 아들이다. 일찍이 사마시 문과에 급제해 통훈대부의 품계를 받고 정주목사를 지냈다. 묘는 갈매울 만수산에 위치해 있다.

(2) **임추(林樞: 생몰년 미상)** 본관은 평택(平澤)으로 자는 백기(伯機)이며 임용晦(林用晦)의 아들이다. 1559년(명종 14) 경회문과(慶會文科)에 급제하고 의정(衣正)을 거쳐 고양군수를 역임하는 중에 별시(別試) 병과에 급제해 통정대부의 품계를 받았다. 묘는 고양(高陽)에 있었으나 실전(失傳)되어 갈매울 만수산에 비문을 새로 새겨 세웠다고 전한다.

(3) **임충간(林忠幹: ?~1597)** 임추의 아들로 1591년(선조 24)에 현령으로 병과에 급제했다. 용인현감을 지내다가 임진왜란 중이던 1597년에 순절(殉節)했다.

8) 대곡동

(1) **박병문(朴秉文: 15세기)** 본관은 반남(潘南)으로 아버지는 경상도 도관찰출척사 박규(朴葵)이다. 박병문은 문음으로 입사해 병조

오위(五衛)의 사직(司直)등 여러 관직을 지냈다. 15세기 중엽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세거했다.

(2) 박동선(朴東善: 1562~1640) 박병문의 후손으로 반남박씨 13세손이 된다. 자는 자수(子粹), 호는 서포(西浦)이다. 1589년(선조 22)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 증광문과(增廣文科)에 병과로 급제했다. 인천과 부평, 남양 부사(府使)를 지냈다. 1624년 이괄(李适)의 난 때에는 병조참의로서 인조를 공주에 호종(扈從)했고, 난이 평정된 후 사헌부 대사헌이 되었다. 1625년(인조 3) 이조참판을 역임하고 다음 해 다시 대사헌이 되었다. 그 후에는 형조판서, 좌참찬과 우참찬 및 지돈녕부사와 지중추부사 겸 지경연사(知經筵事), 지의금부사(知義禁府事), 지춘추관사(知春秋館事) 등을 지냈다. 아들 박정(朴炡)의 공훈으로 금천부원군에 증직되었다. 사후에 정헌(貞憲)이라 시호를 받았으며 현재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3) 박정(朴炡: 1596~1632) 박동선의 아들로 자는 대관(大觀), 호는 하석(霞石)이다. 1619년(광해군 11)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해 승문원부정자(承文院副正字)로 등용되었다. 그러나 아버지 박동선이 폐모론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받아 유배되자 사직했다. 이후 인조반정에 참여해 정사공신(靖社功臣)에 책록되었다. 사간, 홍문관응교, 함평현감 등을 역임했다. 문과중시(文科重試)에 병과로 급제해 좌승지, 대사간, 병조의 참지, 참의를 지냈다. 남원부사로 있을 때 관내의 도적을 철저히 색출하는 등 선정을 베풀었다. 금주군(錦州君)에 봉해지고 후에 대사간, 대사헌을 거쳐 이조참판에 특직되었다가 홍문관부제학에 임명되었다. 사후에 충숙(忠肅)이라는 시호를 받았고 현재 대곡동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에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4) **박세당(朴世堂; 1629~1703)** 박정의 아들로 자는 계궁(季肯), 호는 서계(西溪)이다. 1660년(현종 1) 가을에 시행된 식년 사마시 회시(會試)를 2등으로 통과하고 이어 증광문과(增廣文科)에서 장원을 차지했다. 1664년 부수찬(副修撰)으로서 황해도 암행어사로 나갔다. 1667년에 수찬을 거쳐 이듬해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취임치 않아 장형(杖刑)을 받고, 이해에 동지사서장관(冬至使書將官)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그 후 예조, 형조의 참의를 지내고 1694년(숙종 20) 갑술옥사(甲戌獄事)에 소론(小論)이 중용되자 승지(承旨)로 특진한다. 이듬해 공조판서를 거쳐 이조, 형조판서를 역임했다.

(5) **신영(申瑛; 1499~1559)** 평산신씨(平山申氏)이며 아버지는 사직서령 신세경(申世卿)이다. 신영은 우석규(禹錫珪)의 딸 정부인 단양우씨(丹陽禹氏)와 혼인해 슬하에 4남 4녀를 두었다. 차남인 신승서(申承緒)의 아들은 조선 중기 한문학의 정종(正宗) 또는 월상계택(月象谿澤)으로 칭송받는 상촌(象村) 신흠(申欽)이다. 그리고 4녀는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와 혼인해 예학의 거두 사계(沙溪) 김장생(金長生)을 낳았다. 따라서 신영은 신흠의 조부이며 김장생의 외조부가 된다.

신영은 1516년(중종 11) 진사시에 합격하고, 2년 후 알성문과에 장원해 홍문관에 등용되어 수찬(修撰)으로 있을 때 화를 입은 스승을 변호하다가 탄핵을 받았다. 뒤에 형조좌랑과 함경도 도사를 거쳐 공조, 형조, 병조의 정랑(正郎)과 지평(持平)을 역임했다. 권력층의 미움을 사 수원부사로 좌천되었으나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다. 뒤에 한성부 서윤(庶尹)을 지내고 10여 년 동안 이조, 호조, 예조, 병조의 참판을 역임하고, 대사헌, 대사간, 호조판서를 거쳐 우참찬에 올랐다가 지중추부사에 이르러 사직했다.

(6) 신흠(申欽: 1566~1628)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자는 경숙(敬叔), 호는 현현(玄軒)·상촌(象村)·현옹(玄翁)·방옹(放翁)이 있다. 1585년(선조 18)에 진사가 되고 이듬해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임진왜란 때 삼도순변사(三道巡邊使) 신립(申립)을 따라 조령전투에 참가했으나 패하자 양재도찰방(良才道察訪)으로 강화에 들어갔다가 체찰사(體察使) 정철(鄭澈)의 종사관이 되었다. 뒤에 도승지(都承旨), 병조판서를 지내고 1608년(선조 41) 대사헌으로 세자책봉주청사(世子冊封奏請使)가 돼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해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7신(遺教七臣)의 한사람이 되었다.

인조반정 뒤에 우의정을 거쳐 좌의정이 되고 영의정에 올랐다. 정주학자(程朱學者)로 문명이 높았고 장유(張維), 이식(李植)과 함께 조선중기 한문학의 태두로서 조선 4대 대가로 불렸다.

(7) 신익성(申翊聖: 1588~1644) 신흠의 아들이다. 12세 때 선조의 딸 정숙옹주(貞淑翁主)와 결혼해 동양위(東陽尉)에 봉해졌고, 1606년(선조 39)에 오위도총부(五衛都總府) 부총관이 되었다. 병자호란 때는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위해 끝까지 청군과 싸워 지킬 것을 주장하며 칼을 뽑아 그들을 위협하기까지 했다. 1643년(인조 21) 척화오신(斥和五臣) 중의 한 사람으로 청나라 심양으로 붙잡혀갔다. 후에 풀려나 귀국해 시와 술로 세월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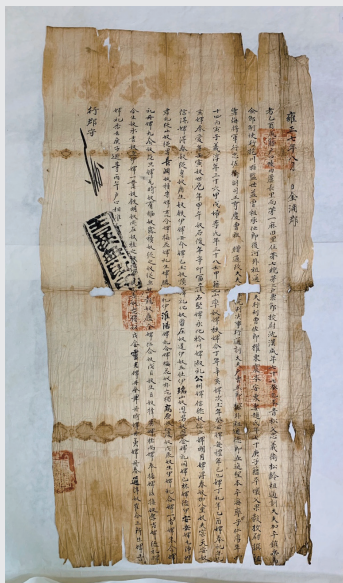
(8) 신면(申冕: 1607~1652) 신흠의 손자이다. 1637년(인조 15)에 정시 을과로 급제했다. 이조좌랑을 거쳐 홍문관 부제학과 사간원 대사간 등을 역임했다. 1651년(효종 2)에 송준길(宋浚吉)의 탄핵을 받고 아산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승정원의 동부승지로 복귀했으나 김자점(金自點)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그 일당으로 국문을 받다가 자결했다.

(9) 정인지(鄭麟趾: 1396~1478) 본관은 하동(河東)이다. 1414년(태종 14) 식년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해 사헌부 감찰, 예조좌랑을 지내고 집현전 학사로 등용되었다. 1427년(세종 9)에 문과중시(文科重試)에서 장원을 했다. 여러 관직을 거쳐 1455년(세조 1)에 영의정이 되고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1468년(세조 14), 남이(南怡)의 옥사(獄事)를 다스려 익대공신(翊戴功臣) 2등에 책록되었다. 천문, 역법(曆法), 아악(雅樂) 등에 관한 많은 책을 편찬하고 김종서(金宗瑞) 등과 『고려사』를 찬수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에 공이 컸고 훈민정음의 서문을 썼다. 시호는 문성(文成)으로 대국동에 있는 사당에 제향되었다.

(10) 정유(鄭維: 16세기) 정인지의 후손으로 호는 청사(淸史)이다. 사헌부 장령(掌令)을 지냈다. 16세기 후반에 입향해 그 후손들이 세거했다.

(11) 정협(鄭浹: 1642~1718) 본관은 하동이다. 1675년(숙종 1) 생원시에 합격하고, 곧 사마시에 급제해 벼슬길에 올랐다. 내직을 거치고 1684년(숙종 10)에 한산군수(韓山郡守)를 거쳐 2년 후 평양서윤(平壤庶尹)을 지냈다. 강화경력(江華經歷), 남원부사, 원주목사를 지냈다. 1696년(숙종 22)에 호조정랑 겸 액정서별감(戶曹正郎兼掖庭署別監)과 나주목사를 지냈다. 1704년 성천도호부사(成川都護府使)를 끝으로 관직에서 물러나 검단 대국동 설원부락에 머무르며 사당을 건립하고 유고집을 남겼다.

심한성(沈漢成) 준호구(准戶口)



심오섭님 기증, 서구문화원 소장

1729년(영조 5) 김포군에서 노장면 마전리에 거주하던 77세의 병절교위(秉絶校尉, 종6품) 심한성(沈漢成; 1653~1738)에게 발급한 준호구이다. 호주인 심한성의 내외 4조가 기재되어 있고, 같이 거주하는 아들 인순(仁淳, 44세)과 의순(義淳), 그의 처 이씨(38세) 그리고 노비들이 기재되어 있다.

준호구(準戶口)란?

준호구는 호적대장(戶籍臺帳)에 의거해 관에서 발급하는 문서이다. 소송, 성적(成籍), 과거 응시, 직역(職役) 결정 등에 참고자료로 필요했고, 도망 노비의 소유(추쇄)에도 이용했다. 호주의 신청으로 관에서 발급했고, 이에 대한 수수료가 있었다. 기재 내용은 등급하는 연·월·일과 등급하는 관부, 의거한 장적, 주소, 호주의 직역, 성명·나이·본관, 호주의 4조(祖), 호주 처의 성씨·나이·본관, 호주 처의 4조, 솔거자녀의 나이, 노비의 나이, 발급자의 수결(手決), 정정(訂正)의 유무표시와 답인(踏印; 관인을 찍음) 등이 있다. 준호구는 호구단자(戶口單子), 호적대장(戶籍臺帳)과 함께 신분제도·가족제도·노비제도 등 조선시대 사회사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3. 근현대 인물

1) 마전동

(1) 이교승(李敎承; 1889~1957) 검단 마전동에서 출생해 1911년 한성사범학교 단기 교원양성 과정을 졸업했다. 1912년 김포공립보통학교 부훈도(副訓導)로 처음 교단에 섰으며 1926년까지 동교에서 일했다. 경남 거창의 위천공립보통학교 교장을 거치고 1932년 강화의 교동공립보통학교 교장을 끝으로 퇴임, 검단 마전동으로 귀향했다. 향리에서 농촌진흥운동에 투신했으며 1939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변신, 김포군 지방사회 주사로 일했다. 광복 후에는 지역 유지들의 중망을 받아 검단면장을 맡기도 했다.

1950년 5월 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도 김포 선거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13,356표를 얻어 당선되었으며 곧 자유당에 입당했다. 문교위원회 소속으로 국가 교육행정에 기반을 닦았다.

1952년 부산 임시수도 시절 개인적 친분이 있던 백낙준 문교부장관의 권유로 문교부 산하 국민사상지도원이 주관하는 월간지 발행에 참여해 『사상』의 발행인을 맡기도 했다. 당시 편집 등 실무는 장준하(張俊河)가 담당했고, 후일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서영훈(徐英勳)이 편집기자로 일했다. 이 잡지는 백낙준을 경계한 이기붕에 의해 폐간되고 뒷날 장준하에 의해 『사상계』로 계승되었다.

(참고: 『역대의원총람』, 『경북 34회 동창회 회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2) 임종협(林鍾協; 1931~2000) 본관은 나주(羅州)이고 마전동에서 출생했다. 1946년 검단공립보통학교를 나와 1950년 인천공립상업학교를 졸업했다. 1953년부터 검단면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김포군청 재무과 회계계장, 내무과 기획예산계장을 거쳐 1971년 검단

면장을 지냈다. 1975년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승진, 김포군청 재무과장과 내무과장을 지냈고, 1985년 지방서기관으로 승진해 김포군 부군수를 거쳐 1991년부터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일했다.

(참고: 『김포시사』 2012)

2) 금곡동

(1) 양재동(梁在東: 1933~2011) 검단 금곡동 좌동마을의 유서 깊은 남원양씨(南原梁氏) 집성촌에서 출생했다. 조선 초기 이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눌재(訥齋) 양성지(梁誠之)의 직계 후손이다. 향리의 서당과 김포향교에서 한학을 공부했을 뿐 정규학교 졸업 기록은 없고 단국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2년간 수학했다.

18세에 육군에 자원입대하자마자 한국전쟁이 발발, 1951년 고랑포 전투에서 전공을 세워 화랑무공훈장을 받았다. 1955년 제대한 뒤부터 1970년대 초까지 마을 이장, 이동 조합장 등을 맡으면서 도로 정비 등 마을 근대화에 힘썼으며, 1972년 제1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피선되었다.

이후 한국반공연맹과 재건국민운동 김포군 위원회 위원으로 일했으며 민방위교육 내무부 위촉 강사로 10여 년간 100회 이상 출강하는 등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김포군 행정자문위원,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선도위원, 유도회 김포지부 부회장, 검단 유도회 회장 등을 지냈다. 민족통일협의회 김포시 운영위원, 양곡라이온스클럽부회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인천시 서구문화원 이사로도 일했다.

1980년 주식회사 원진물산을 창립해 경영했으며, 남원양씨 문양공 대중회 회장직을 맡아 지방문화재로 등재된 대포서원, 수안사 등을 건립했다.

(참고: 『국가상훈인물대전』 2002)

3) 당하동

(1) **심영택(沈永澤; 1869~1949)** 본적과 주소는 옛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351번지이다. 1920년 6월경 서울 경신학교 교정에서 이규승(李奎承)·장응규(張應奎)·여준현(呂駿鉉) 등과 함께 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다. 주비단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로서 군자금 모집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주비단의 조직 계획은 심영택 등이 1919년 5월경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는 뜻에서 세워졌고, 장응규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다녀온 뒤 구체화되었다.

주비단의 조직은 사령장 아래 부사령장, 참모장, 재무부, 교통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했다. 심영택 등은 임시정부 발행의 독립공채권을 이용해 6천여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러나 주비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피체되어 1922년 4월 13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한일합병에 불만을 품고 중국에서 광복회라는 단체를 조직, 조선 내에서 다액의 운동비를 모집하기로 하고 포고문이라는 협박장 및 충청도 내의 자산가의 명단을 작성, 협박장을 이들에게 우송 금원을 교부받고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살해하는 등 치안을 방해한’ 혐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참고: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독립운동관련 판결문』국가기록원 데이터베이스)

4) 원당동

(1) **김봉흠(金鳳欽: 1884~1975)** 검단 원당동에서 출생했다. 일찍이 경서(經書)에 능통했으며 관료에 나아가 1909년 재판소 서기로 임용되어 광주지방재판소로 갔다. 그 후 인천부(仁川府)와 한성부(漢城府) 주사를 지내다 법관양성소를 졸업하고 인천과 부산 등지에서 일했으며, 제2대 검단면장으로 일했다. 1937년 12월 8일 『동아일보』는 「신흥김포지방소개판」을 한 면 전체에 실었는데 김봉흠을 ‘정치적 수완가 검단면장’으로 소개했다.

1952년 검단초등학교 초대 육성회장을 맡았으며, 김포군 선거관리위원장도 지냈다. 1969년에는 김포군 노인회 발족에 기여하고 수석회장을 지냈다. 1977년에는 김포군지편찬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참고: 『동아일보』, 『김포시사』 2012)

(2) **김낙동(金洛東: 1903~1980)** :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검단 대곡동 출신이다. 향리의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다가 신식 학문에 뒤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집안 어른들의 명령으로 김포공립보통학교에 입학해 졸업했다. 그 후 경성으로 가서 중등학교를 다녔다.

귀향해 농촌 지도자 역할을 하다가 1938년 6월 25일 이웃 부락의 이철옥 등과 함께 창신강습소(현 창신초등학교의 전신)를 설립, 초대 소장이 되었다. 1946년 2월 창신강습소가 검단국민학교 당하분교로 승격되고 1949년 창신국민학교로 승격되는 동안 그는 동교 교장의 지위를 유지했다.

1947년경 시, 읍, 면부터 시작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면장으로 출마했다. 김포공립보통학교의 은사이자 사돈인 이교승(李敎承)을 물리치고 당선되었다. 그 뒤 이교승은 제2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김낙동의 조력으로 당선되었다.

김낙동은 1947년 6월 10일부터 1960년 8월까지, 중간(1956년 7월부터 1957년 8월경까지의 1년)을 뺀 약 12년간 선출직 검단면장으로 재직했다. 6·25 동란 직후 극심한 가뭄으로 면민들이 고초를 겪을 때 인천 양곡저장소를 찾아가 때를 쓰다시피 해 트럭 2대 분의 양곡을 받아와 면민들의 찬사를 받았다.

1970년경부터 2년간 김포의 유일한 서원인 우저서원(牛渚書院)의 원장을 맡아 전통적인 유학자 가문의 맥을 잇는 일을 하고 은퇴했다.

5) 대곡동

(1) **김중환(金重煥: 1863~1932)**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두말에서 김종간(金宗侃)의 아들로 태어나 1872년 사숙에서 공부하고 성균관에 입학했다. 이때 총명한 인재였던 것 같다. 1889년(고종 26) 10월 9일 왕이 경무대에 나가 성균관 학생들을 격려하고 우수한 인재 4명에게 직부전시(直赴殿試)하게 했다는 기록이 『고종실록』에 있다. 직부전시는 왕이 직접 문제를 던져 현장에서 과거시험을 치르고 합격하면 1차 생원 진사시를 면제하고 곧바로 대과(大科)로 가게 하는 것이다. 그는 1889년(고종 26)에 문과시(文科試)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 해 말 가주서(假注書)로 임명되어 관로에 올랐다. 가주서는 승정원에 소속되어 『승정원일기』를 기록하는 임시직이었다.

1891년 성균관 전적(典籍)에 임용되고 사간원 정언(正言)으로 옮겼다. 사헌부 지평(持平) 자리에 있다가 1898년에는 칙임관 3등에 보임되어 오늘의 행정자치부 차관인 내부 협판(內部協辦)에 올랐다.

1900년에는 중추원의관에 임명되었다. 다음해 토지 소유증명 규정에 문제가 있어 바로잡아야 한다는 상소를 올렸다. 그 영향 때문인지 소유자의 권리를 결정하고 증명해 지계(地契)를 발급하는 지계아문(地契衙門)의 부총재를 지냈다. 1905년에는 특명전권공사로 임

명된 기록이 있는데 아마 일본에 파견 간 것으로 보인다.

이해 대한제국이 일본과 을사늑약을 맺어 국권을 상실하면서 고속승진을 거듭하던 김중환도 자리를 잃었다. 친일의 대열에 섰다면 더욱 승승장구했을 것이다.

그는 애국교육과 계몽활동으로 방향을 돌렸다. 대한자강회를 계승한 대한협회 간부로서 1907년부터 애국계몽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보성(普成)학교, 한남(韓南)학교, 현성(玄成)학교 교장을 지냈다. 일본 통감부가 작성한 『한국관인의 성격일반』이라는 자료를 보면 그는 당대 실력자로서 내장원경 자리에 있던 이용익(李容翊)과 가까웠다. 보성학교는 이용익이 설립했고 뒷날 보성전문학교와 고려대학교로 발전했다. 김중환은 관직에서 은퇴한 뒤 이용익이 요청해 보성학교 교장을 맡았고 다른 학교 교장으로까지 가게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2) 김중기(金重驥: 1869~1940) 대한제국 시기 내부 협판과 중추원의관, 보성학교 교장을 지낸 김중환(金重煥)의 아우이다. 『대한제국 관원이력서』에 본적이 김포군 마산면 두곡리로 실려 있다. 1876년 3월 사숙(私塾)에 입학해 공부하고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았다. 1894년 2월 성균관 소속으로 생원시에 응시해 3등으로 입격한 교지(敎旨)가 가문에 남아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과거시험인 갑오식년시(甲午式年試)였다.

1895년 4월 2일 한성부(漢城府) 주사(主事) 판임관(判任官) 6등에 보임되고 그해 8월 5일 교동(喬桐)군수 주임관 5등에 보직되었다. 이 무렵에 독립협회 회원으로서 넉넉하게 보조금을 낸 기록이 있다.

1896년 6월 교동군수를 사임했다. 1899년 12월 30일 종묘친제시차비관(宗廟親祭時差備官)이라는 임시직에 임명되고 1901년 11월 중추원의관이 되었다. 1902년 2월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결정하고

증명해 지계를 발급하는 지계아문의 위원이 되었다. 당시 형 김종환이 지계아문 부총재로 재직한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1906년 1월 정3품 안릉별단(安陵別單) 직위에 올랐다.

1914년 경기도토지조사위원회 위원을 맡았다. 지계아문의 위원 경력에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김포군 참사를 지냈다.

(참고: 『광서(光緒) 20년 4월 교지(敎旨)』, 『승정원일기』, 『독립협회보』, 『대한제국 관원이력서』.)

(3) 박일량(朴一陽; 1901~1981) 김포초등학교 제1회 졸업생이다. 동양염직회사, 공익사 등에서 1927년 농기구, 비료, 철물을 취급하는 두밀상회(斗密商會)를 창업하고 부를 쌓았다. 김포지역 운수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이후 농업협동조합의 전신인 김포금융조합장과 김포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한강수리조합 창립이사, 김포의용소방대장, 대한노인회 김포시지부 초대회장, 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 김포시 지부장 등을 역임했다. 우저서원 원장과 김포향교 전교(傳敎)를 역임했다. (참고: 『동아일보 1937년 12월 8일자. 『김포시사』 2012)

(4) 신해영(申海永; 1865~1909)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대곡동 황곡마을에서 출생했다. 갑오경장 때 관비유학생으로 일본에 유학해 게이오대학(慶應大學)에서 4년간 경제학을 전공했다.

1898년 중추원 의관으로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독립협회의 민권운동에서 박영효·서재필을 대신(大臣) 후보로 천거한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적도 있었다. 1904년에 탁지부 참사관, 다음해에 학부 편집국장으로 임명되었다.

1905년 보성전문학교 설립 당시 설립자 이용익(李容翊)이 학교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일임하자, 그는 2~3명의 동지와 함께 학

교설립을 의논해 법률·이재(理財)·농학·상학·공학 등 5개 학과로 된 2년제 전문학교의 창립을 성안했다. 같은 해 5월에 사립보성전문학교로 개교하면서 초대교장에 취임했다.

신해영이 이용익과 가까워진 것은 같은 대곡동 출신인 2년 연상의 전 내부 협판 김중환의 소개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크다. 신해영은 이용익과 막역한 사이였으며 보성전문보다 한발 앞서 설립된 보성학교의 교장이었다.

신해영은 박은식(朴殷植)과 교분이 두터워 서우학회(西友學會)의 운영을 돕기도 했다. 1906년 6월에는 4권 2책의 『윤리학교과서』를 편술해 보성중학교에서 발행했다. 1909년 일제 통감부는 불온한 교과서라 해 발매금지처분을 내렸다. 한편, 1907년 4월에 재일한국유학생 감독으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1909년 9월에 시모노세키에서 작고했다.

(참고: 『민족문화대백과사전』, 『고려대학교 60년지』,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

(5) 신일수(申一洙: 1910~1990) 대곡동 황곡마을에서 보성전문학교 초대교장 신해영의 아들로 출생했다. 김포공립보통학교를 나왔다. 1945년 광복 후 김포군의 초대 검단면장을 지내고, 1956년에는 민선으로 검단면장을 지냈다. (참고: 『김포시사』 2012.)

(6) 신동수(申東洙: 1913~1990) 대곡동 황곡마을 평산신씨(平山申氏) 가문에서 출생했다. 김포공립보통학교와 경성제2고등보통학교(현 경북고)를 나와 일본 유학길에 올라 도쿄외국어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귀국해 부산고등수산학교(뒷날 부산수산대학교와 부경대학교로 바뀜)에서 교편을 잡았다. 광복 후 서울로 와서 한동ان 외국어대학 강사로 일했으며 다시 부산으로 가서 동아대학교 교수로 일했다. 동아대학교 부설초급대학의 학장을 지내고 퇴임했다.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신해영(申海永)의 『윤리학교과서(倫理學教科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한국학중앙연구원 사진 제공

1906년 신해영(申海永; 1865~1909)이 중학교의 윤리 교육을 위해 편찬한 교과서이다. 4권 2책으로 구성되었으며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다.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에서 발행해 1908년에 재판본이 간행되었으나 1909년에 학부(學部)의 지시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었다.

당시 중학교의 수업연한인 4년을 고려해 4권으로 구성되었고 매 학년 수업 시간 수를 대략 40시간으로 산정해 이에 맞게 구성했다. 제1권은 수신(修身), 제2권은 가족의 본무(本務), 제3권은 사회, 제4권은 국가를 다뤘다.

책의 전반적인 성격은 국권수호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애국계몽적 요소가 짙다. 이 책은 아세아문화사에 의해 1977년 『한국개화기 교과서총서(韓國開化期教科書叢書)』의 일부로 재간되기도 했다.

심영택(沈永澤) 호패(號牌)



심오섭님 기증, 서구문화원 소장 / 검단선사박물관 사진 제공

유학(幼學) 심영택(沈永澤; 1869~1949)의 호패로 1884년(甲申)에 김포군에서 발급한 것이다. 크기는 세로 8.2cm, 가로 1.1cm 이다. 심영택은 1920년 6월 이규승, 장응규, 여준현 등과 주도해 서울 경신학교에서 결성한 주비단 사건으로 체포되어 53세 되던 1922년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항일운동의 공훈을 인정받아 1995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 받은 인물이다.

Chapter V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 이야기

1. 옛이야기
2. 우리 동네 이야기
3. 직접 듣는 이야기

1. 옛이야기

- 1) 두밀마을 은행나무
- 2) 하룻밤 사이 부화된 달걀
- 3) 불로장생의 약초를 캔 만수산
- 4) 폭풍을 이긴 안동포의 도사공
- 5) 좌동 호수와 상무지 포구
- 6) 천하장사 이백산, 복산 형제
- 7) 계양산에 왕좌를 빼앗긴 분틀매
- 8) 오류동 회화나무

1. 옛이야기

1) 두밀마을 은행나무

두밀 분틀매의 남쪽에 있는 작은 마을을 아랫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다. 이 은행나무에 얹힌 옛이야기가 오랜 세월 전해오고 있다.

옛날에 늙은 탁발 스님이 이 마을에 들렀다. 그는 그냥 이곳을 스쳐 지나는 중이었다. 공양미를 넉넉히 받은 스님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내가 보기에 이 마을은 천하의 명당입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이 마을은 참 좋은 마을이다, 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좋은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지요. 이곳이야말로 천하의 명당이니까.”

그러더니 수십 보를 걸어가 마을 가운데에 짚고 온 지팡이를 꽂았다. 땅 표면은 메말라 있었으나 지팡이는 젖은 땅에 꽂을 때처럼 쑥 들어갔다. 스님은 표연히 걸어 마을을 나갔다.

지팡이는 다음날 싹이 나더니 깊이 뿌리를 내리고 커졌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 나무가 은행나무인 것을 알았다.

뒷날 근방에 이름을 날리던 풍수가 한 사람이 마을에 들렀다가 은행나무를 보고 말했다.

“참으로 절묘한 자리에 심었군요. 이 나무 때문에 마을 전체가 명당이 될 것이요. 뿌리가 먼 곳의 물질을 당겨 물도 많아지고 곡식도 잘 열릴 것이요.”

그 뒤로도 두밀마을 사람들은 은행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다.

2) 하룻밤 사이 부화된 달걀

지금의 단봉초등학교 자리인 대촌(大村)을 기막힌 명당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풍수지리상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닭이 알을 품은 듯한 형상)인 데다 구전되어 온 전설이 있어서이다.

옛날에 착하고 가난한 달걀 장수가 있었다. 그는 벼짚으로 엮은 달걀 꾸러미를 수백 개씩 지게에 얹어서 지고 팔러 다녔다.

그는 장사를 위해 들른 마을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어려운 형편에도 꼭 돕고는 했다. 한 마을에서는 아들이 행상을 나가 돌아오지 않아서 굶고 있는 노파에게 달걀 두 개를 주었다. 그리고 다른 마을에서는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해 목이 쉬도록 우는 아이를 보고 달걀 두 개를 아이 아버지에게 주었다.

장사를 마칠 무렵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게다가 소나기라도 몰려오려는지 하늘이 컴컴해지고 있었으므로 그는 부지런히 걸었다. 빈 원두막에서 도롱이를 덮고 누웠다. 빗소리를 자장자 삼아 듣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 아침에 잠에서 깬 그는 간밤에 꾸ฝัน을 생각하며 몸을 일으켰다.

꿈속에서 흰옷에 백발을 하고 지팡이를 든 신령이 말하는 것이었다.

“착한 달걀 장수야. 어서 내려가 보아라.”

거짓말처럼 비가 개고 아침 햇살이 언덕과 들판에 가득했다. 그는 꿈이 이상한 터라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다.

그는 깜짝 놀랐다. 지게에 남은 달걀들이 한꺼번에 저절로 깨지고 병아리가 태어나 있었다. 또다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그의 눈앞에서 병아리들이 쑥쑥 자라서 온몸에 금색 털을 한 어른 금닭으로 변해 버렸다.

그는 거기서 번 돈을 잘 불려서 부자가 되었는데, 평생 남을 도우며 착한 일을 계속했다.

3) 불로장생의 약초를 캔 만수산

불로리 앞산 만수산 기슭에 노인 부부가 살았다. 슬하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이 없었다. 딸들을 시집보낸 뒤에는 늙은 데다가 부양할 아들이 없어 하루하루를 고단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의 머리는 백발로 가득했으며 얼굴은 주름이 가득했다.

노인은 식량이 떨어져 약초를 캐서 팔려고 산에 올라갔다. 풀이 무성한 비탈에서 토끼와 고라니가 이름 모를 풀을 뜯어 먹고 있었다.

“저놈들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가 혼잣소리로 중얼거리며 그쪽으로 다가갔다. 토끼와 고라니가 풀 뜯는 일에 열중하는 바람에, 그는 식은 죽 먹기로 그놈들의 뒷다리를 잡을 수 있었다. 노인은 그것들을 칠팔굴로 묶어 버렸다.

‘오늘은 참 재수가 좋군. 내가 빠르고 힘이 좋아 잡은 게 아니라 이것들이 풀 먹느라 정신이 없어서 거저 주운 거지. 그런데 고라니와 토끼가 정신없이 뜯어먹는 풀이라면 사람도 먹을 수 있을 거야.’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풀을 뜯어 입에 넣었다.

조금은 씹살하지만 고소한 맛이 있었다. 그리고 싸아 하는 기분 좋은 느낌이 온몸을 휩쌌다. 그는 몸도 늙기도 늙었지만, 배가 고파 고라니와 토끼를 집으로 메고 가기도 힘들 듯했으므로 배를 채우기 위해 풀을 자꾸 뜯어 먹었다. 그러자 갑자기 흐린 눈이 환하게 밝아졌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 뜯어먹은 풀이 자신의 몸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는 매일 산으로 가서 그 약초를 먹었다. 부부의 머리는 젊은이처럼 검게 변했고 잃었던 힘도 되찾아 농사일도 하게 되었다.

이후 많은 사람이 뜯어 가는 바람에 그 약초는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그 약초를 먹은 노인 부부와 풍수가는 회갑 이후로도 3갑자(甲子)를 살았다. 1갑자가 60년을 뜻하니 적어도 250살까지 산 것이다.

그런 전설 때문에 산 이름은 만수산이 되고, 마을 이름은 불로리가 되었다.

4) 폭풍을 이긴 안동포의 도사공

옛날 안동포 포구에 김호(金浩)라는 선주 겸 도사공(선장)이 있었다. 그는 나이가 마흔이 넘고 네 사람의 동사(서해안에서 하급선원을 가리키던 말)를 데리고 있었는데 추젓잡이(초가를 새우잡이)에서 만선을 하고 귀향했다. 그는 넉넉하게 동사들의 몫을 내놓았다.

김 도사공은 뱃머리에서 물으로 뛰어내리다가 문득 예감이 이상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공교롭게도 늙은 동사 역시 하늘을 올려보았다. 두 사람은 잠시 후 눈이 마주쳤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김호 도사공은 불길한 예감을 안고 자는 등 마는 등 밤을 보냈다. 아침 빛이 창에 스며들 무렵, 갑자기 창문이 우르르 흔들렸다. 강력한 폭풍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 그는 주섬주섬 옷을 입고 일어섰다.

배를 잃느니 죽는 게 낫지. 차라리 배를 몰고 바다로 가자. 바다에 떠 있으면 배는 상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배도 죽고 내가 살면 배도 살 것이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뱃머리에 묶인 밧줄을 풀었다.

밧줄이 풀리는 순간 배는 미친 듯이 춤추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몇 번이나 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

김 도사공은 방향타를 잡아 정확하게 바람의 방향에 맞추었다. 파도가 배의 옆구리를 친다면 그것으로 끝이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배는 우지끈 소리와 함께 허공으로 솟아올랐다. 그 시간이 매우 길었다. 그렇게 싸우기를 한나절, 배는 포구에서 한참 멀리 밀려나 있었다.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멍들고 기진맥진한 채로 마지막 힘을 다해 버티는데 서서히 파도의 힘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폭풍은 거짓말처럼 잦아들고 그는 배를 몰고 포구로 들어갔다. 삼십여 척이나 되던 배들이 한 척도 안 보였다. 모두 부서져 버린 것이었다.

그해 가을에서 다음 해 가을까지, 안동포에서 고기잡이에 나선 배는 그의 배 한 척뿐이었다. 그는 많은 돈을 벌어 몇 해 뒤에는 배 세 척의 선주가 되었다고 한다.

5) 좌동 호수와 상무지 포구

오류동의 봉화촌과 금곡동의 좌동 일부, 그리고 김포시 양촌면의 대포동 황포마을과 향동 일대를 아우르는, 광대한 무논지대가 있다. 이곳은 옛날 황포방죽을 쌓기 전까지는 담수호였다.

305번 국도변 해병 2사단의 현판이 선 곳을 ‘빈양모테이’라고 부르는데 여기가 호숫가여서 낚시를 했다고 하니, 호수의 면적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수의 아래쪽 끝이었던 황포방죽에 서서 호수의 위쪽 끝이었던 빈양모테이를 바라보면 지평선이 가물가물 보일 정도로 멀다. 이 호수 가운데 이무기 굴이 있었다는 전설이 있다.

좌동에 사는 농부가 호숫가에 소를 매 놓고 멀지 않은 밭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농부가 깜짝 놀라 달려가니, 호수 가운데 네 다리가 번쩍 들린 채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소를 본 듯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백발의 노인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호수에 사는 거야.”

어느 해에 심한 가뭄이 들어 호수가 바닥을 드러냈다. 노인들은 백년만의 가뭄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호수 바닥에 커다란 굴이 입을 벌리고 나타났다.

사람들이 실타래에 돌을 매어 풀어 넣어 보았다. 실은 끝도 없이 풀려 들어갔다. 마을에서 태어나서 늙어온 노인 한 사람이 바다 가운데 박혀 있는 복숭아 섬을 가리켰다.

“저 섬에도 똑같이 생긴 굴이 있어. 굴이 거기까지 이어진 거야.”

그때부터 사람들은 호숫가에 소를 매지 않게 되었다.

이 담수호는 조선 후기에 김포 관아에서 황포방죽을 막으면서 물이 빠지고 광대한 갈대 습지로 바뀌었다.

6) 천하장사 이백산, 복산 형제

오류동 봉화촌 고성이씨(固城李氏) 집안에 형제 장사가 태어났다. 백산(白山)과 복산(福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들 형제는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검단 지역에는 이들에 대한 많은 일화가 전해 온다.

형 백산은 자신이 태어난 봉화촌에서 농사를 지으며 생애를 마쳤는데, 힘이 장사임에도 성품은 온순해서 마치 순한 황소 같았다.

특히 아이들을 좋아해, 아이들이 “백산 아저씨, 매달아줘요.”하고 매달리면 양쪽 팔을 옆으로 쪽 뻗어 한팔에 다섯 명씩 걸고는 손살 같이 걸어갔다.

이웃집으로 품앗이를 하면 자신은 보통 사람의 다섯 배로 일하는 데도 억울하다는 표정을 하지 않았다.

“이 사람아, 자네는 다섯 몫의 일을 하니까, 다섯 날치 품앗이로 따져 달라고 하게.”

누가 그렇게 말하면 그는 순박한 눈을 소처럼 크게 뜨고 고개를 흔들었다.

“똑같은 것이예요. 힘 약한 사람도 자기 힘자라는 데까지 일하고 한몫을 하는 거고, 저도 힘자라는 데까지 일하고 한 몫 받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는 대신 밥을 많이 먹잖아요.”

마을의 농부들은 너도나도 백산과 품앗이를 하려고 했으므로 그는 하루도 쉴 사이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그러나 그가 화를 낸 때도 있었다. 소가 없는 집에 품팔이를 가서 소 대신 쟁기를 끌었는데 쟁기날이 부러졌다. 그러자 주인은 그의 책임이라고 우겼다.

“네가 마구 끌었기 때문에 쟁기가 부러졌으니 품삯을 줄 수 없어.”

백산은 눈을 크게 떴다.

“소가 쟁기를 끌다가 쟁기가 부러지면 소가 물어내야 하나요?”

주인이 말했다.

“백산아, 네가 사람이지 소냐? 다음부터 소라고 부르고 밥 대신 소
여물을 주라?”

주인은 백산이 착하다는 것을 알고 역지를 써서 말한 것이었다.

“아니예요. 난 소가 아니라 이백산이에요!”

백산은 그때 마당의 바위에 앉아 있었는데 끄 힘을 쓰자 잇몸에
박힌 어금니처럼 뿌리가 깊은 바위가 쑥 뽑혀 버렸다. 놀란 주인은
아무 말 못 하고 품삯을 내주었다.

그의 아내는 백산만큼이나 착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힘이 장사인
남편이 사람들과 싸워 다치게 할까 봐 늘 걱정했다.

“당신은 절대로 싸워서 안 돼요. 사람들이 죽거나 다칠 테니 남
들이 때려도 맞기만 해요.”

백산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은 그것을 안 저자의 불한당 각다귀들이 스무 명이나 덤벼 몰
매를 때렸다. 백산은 매를 맞다가 남의 집 뒷마루로 달아났다. 거기
까지 쫓아간 불한당들이 돌을 던지며 놀렸다.

“이눔덜아! 내가 덤비면 네눔덜은 모두 배가 터져 죽어!”

백산은 억울함을 참지 못해 주먹으로 딱딱하기 짝이 없는 봉당을
쿵 찍었는데 팔목까지 쑥 파여 들어갔다. 그것을 보고 불한당들은
흔비백산해 달아났다.

동생 복산은 결혼 후 분가해 오류골에서 살았다. 그는 배를 몰고
서해 거점도(巨簷島)로 가서 구들돌을 캐서 물으로 싣고 와서 팔아
삶을 영위했다. 그도 역시 형처럼 우직하기 짝이 없었다. 돛이 없는
전마선(傳馬船)을 몰고 노를 저어 다녔는데 구들돌을 가득 싣고도
노를 저으면 돛을 올린 빈 배를 거뜨하게 앞질렀다.

그는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 애써서 캐서 신고 온 구들돌을 싸게 팔았지만 일 욕심은 많았다. 배에 너무 구들돌을 많이 실어 뱃전에 물이 찰랑거려 걸핏하면 구들돌을 바다에 던지곤 했다.

지나가던 어부들이 그렇게 버리면 아깝지 않느냐고 소리쳤다.

“까짓거 또 캐면 되지요, 뭐.”

그러면서 그는 그냥 웃었다.

그는 서곶의 범머리 포구, 검단의 안동포 포구, 좌동의 상무지 포구, 양곡의 대명리 포구 등 근방의 포구로 많은 구들돌을 실어 날랐다. 그가 제공하는 구들돌은 얇고 단단한 데다가, 워낙 양이 많아 근방의 온돌방들은 거의 그의 것으로 만들어졌다.

7) 계양산에 왕좌를 빼앗긴 분틀메

두밀마을에는 분틀메라는 작은 산이 있는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 하나가 구전되어 온다.

옥황상제는 굽이굽이 흐르는 한강을 먼저 만들었다. 그런 다음 여기저기 크고 작은 산을 흙으로 빚어 툭툭 던지기 시작했다.

“강 서쪽이 텅 비었군. 이쯤에 큰 산을 하나 놓아야겠군.”

옥황상제는 지금의 분틀메 자리를 겨냥해 흙을 던졌다.

“이런, 흙덩이가 너무 작군.”

옥황상제는 큰 덩이를 웅장한 모습으로 빚어 다시 던졌다. 그러나 그때 바람이 휩 불어오고 옥황상제는 에취 소리를 내며 재채기를 했다. 그 바람에 흙 반죽이 빗나갔고 옥황상제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헛김이 어찌나 센지 흙 반죽은 20리를 날아가 떨어졌다. 그게 계양산이 되었다.

잘못 만들어진 작은 산은 옥황상제를 바라보며 뚝뚝 눈물을 흘렸다.

“몹시 억울했던 모양이구나. 대신 너에게 지혜를 갖게 해 주마.”

옥황상제가 말했다.

그래서 그 작은 산은 거기 의지해 사는 인간과 동물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은 정기를 받아 건강하고 총명하게 살았다.

그러나 산은 여전히 억울함을 떨치지 못해 이따금 ‘우우웅’ 소리를 내어 울었다. 산 아래 사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고 ‘억울하고 분하다’는 뜻을 살려 ‘분통메’라고 했는데 그 말이 변해 분틀메가 되었다.

8) 오류동 회화나무

5백여 년 전 오류동에 처음으로 고씨(高氏) 성을 가진 사람이 가솔을 이끌고 들어와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그는 회화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그 나무가 땅속에 깊이 뿌리를 내렸고 그의 자손도 뿌리를 내렸다. 자손들은 입향조(入鄕祖)를 생각하며 나무에 수제(樹祭)를 지내고 받들어 모셨다.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다른 성씨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고씨들처럼 회화나무를 우러러보지 않았다. 수백 년이 지나며 나무는 등치가 굽어지고 마치 이무기의 몸통처럼 꿈틀거리는 듯한 형상이 되었다. 그리고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우웅우웅’ 하고 우는 소리가 회화나무 쪽에서 들려왔는데, 사람들은 이무기가 나무속에 산다고 믿으며 가까이 가지 않으려 했다. 그들은 자식들에게 말했다.

“비 내리는 날 고목 밑에 가지 마라. 나무가 갑자기 이무기로 변해 네 몸을 친친 감고 하늘로 치솟을지 모르니까.”

고씨 가문은 물론 그 마을 사람들은 회화나무에 대해 일종의 외경심을 갖고 있었다. 나무에 그네를 매는 일도 하지 않았고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자거나 장기를 두는 일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은 멧돌 손잡이와 도리깨를 만들려고 나무를 뺐다. 그러자 며칠 후 동티가 나서 온 식구가 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피부가 뱀 껍질처럼 변하고 열이 펄펄 끓어올랐다.

그 사람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울면서 절했다.

“늙은 나무님, 이렇게 엎드려 비오니 용서하시어 저와 식구들의 병을 낫게 해주옵소서.”

그러자 그때 ‘우웅’ 하고 이무기가 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 사죄

하던 그들 일가는 물론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그 해부터 고씨 성을 가진 사람이건 아니건 마을 사람들 모두가 나무에 제사를 지냈다. 이무기의 보살핌 때문인지 그 마을은 큰비가 와도 홍수가 나지 않고 가뭄도 없이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마치 도당제처럼 지내던 그 수제(樹祭)는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2. 우리 동네 이야기

- 1) 마전동 여래마을 87년의 역사, 검단초등학교
- 2) 금곡동 우리 시대의 기억저장소
- 3) 오류동 서해 문화의 새로운 디딤돌
- 4) 왕길동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
- 5) 당하동 반가운 소식이 오가는 동네
- 6) 월당동 향토자산의 보고
- 7) 불로동 차향^{茶香}을 품다
- 8) 대곡동 사람이 나고 자라 다시 돌아가는 곳

2. 우리 동네 이야기

1) 마전동 여래마을 87년의 역사, 검단초등학교

‘큰 밭’ ‘큰 마을’ 마전동 여래마을

본래 검단면에는 마전리와 여래리가 각각 있었다. 그러나 검단에 지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마전리는 마전동을 연상케 하므로 어느 정도 익숙한 이름이지만 여래리는 참 낯선 이름일 수 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1914년 전국행정구역통폐합 때 검단면의 마전리와 여래리가 통합되어 마전리¹⁾가 된 이래로 여래리는 공식 문서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래리와 그 주변의 주민들이 예전부터의 여래리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으로서 여래마을을 애용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마전(麻田)’은 한자 그대로 ‘삼밭이’, 즉 삼밭이 많은 동네를 일컫는다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 이 동네에서 삼이 많이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니 ‘큰 것’을 지칭하는 ‘밭’과 ‘밭’이 합해져 ‘큰 밭’이라는 뜻의 ‘마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다.

‘여래(如來)’ 또한 동네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한자 그대로 불교 또는 승과 관련되어 ‘여리’에서 ‘여래’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으나 옛말에 ‘여래, 여리’는 ‘대(大)’나 ‘주(主)’의 뜻을 나타내었으므로 여래마을은 곧 ‘큰 마을’이다. 실제로 여래마을은 예전부터 법정리로서 1957년까지 검단면사무소, 파출소, 검단초등학교가 위치해

1) 박한준 외, 2009,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55쪽.

있었으니 이름에 걸맞은 ‘큰 마을’이었다.²⁾

현재는 행정동 구분으로는 검단동, 마전동, 당하동으로 나뉘었고 큰 받들도 사라져버렸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마전리는 마전동으로 계승되어 이름으로나마 그 역사를 이어왔다. 그러나 여래마을은 여래리가 행정구역상 소멸되고 더불어 1957년 이후 면사무소와 파출소가 원현(院峴), 지금의 인천지하철 2호선 검단사거리역 근처로 이전하면서 검단초등학교가 있는 동네를 예스럽게 부르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검단초등학교 정문 쪽에 있는 ‘여래식당’이라는 간판이 정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이런 사정 때문일 것이다.



| 여래마을에 있는 여래식당 (출처: 카카오맵)

검단초등학교, 검단에 교육의 장을 열다

인천검단초등학교는 이 여래식당 맞은편 높은 지대를 쳐다보면 바로 보인다. 주소는 서구 마전로 115번길 24(구 주소 마전동 147-1). 동네 주민들의 말로 좀 더 자세히 적는다면 큰짜산과 작은짜산이

2) 같은 책, 55-56쪽.

둘러 있는 여래마을 중심에 인천검단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검단초등학교는 마전로 115번길과 검단로 623번길이 만나는 사거리 안쪽 높은 지대에 있어서 멀리 큰 도로에서도 학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다.

1907년 9월, 김포공립소학교 즉 현재의 김포초등학교가 개교했는데, 당시 김포군에 속했던 김포면, 고촌면을 비롯해 검단면의 학생들까지 배정받는 학교였다. 배움에의 의지가 있다면 검단에서 김포초등학교까지 적게는 5km 내외에서 많게는 10km 내외에 육박하는 거리를 감당하며 통학을 해야 했다.



| 1932년 검단공립보통학교



| 1960년대 검단국민학교

그러다 1932년 7월에 검단공립보통학교, 지금의 검단초등학교가 개교했다. 드디어 검단의 학생들은 김포초등학교까지 힘들게 통학하지 않아도 초등교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비록 검단초등학교는 김포초등학교보다는 늦게 개교했지만 그래도 무려 87년의 역사를 간직한 초등학교이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친다면 3대가 검단초등학교 동문이 될 수 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한국 근대사를 상기해 보면 3대가 여래마을에서 이어 살아오면서 같은 학교 동문이 된다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 아니 인천에서 제일 오래된 학교는 아니라 하더라도 90년에 육박한 역사를 간직한 학교가 그리 흔하지 않

기 때문에 검단초등학교가 걸어온 유구한 역사는 대서특필되어야 마땅하다.

검단초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 개교했다. 그래서 ‘검단공립보통학교’ 개교기념식 사진 정면에는 학교 중앙 현관에 게양된 일장기가 펼쳐져 있다. 일장기가 휘날리는 일제강점기 ‘검단공립보통학교’의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물론 일본인 선생이 교편을 잡는 등 일제의 교육방침을 따라야 했었다는 점일 게다. 개교 6년 뒤인 1938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조선총독부의 ‘제3차 조선교육령’은 일제의 교육방침의 정점을 찍는 정책이었다. 조선과 일본의 제도 및 문화를 일치시킨다는 명목 아래 일본의 제도 및 문화에 조선인을 동화시키는 정책이었던 내선일체 운동의 일환인 ‘제3차 조선교육령’의 시행으로 우선 일본과 조선의 학제가 일치되었고, 둘째로 조선어를 수의(隨意) 과목화해 일종의 선택 과목으로 바꾸고 대신 일본어를 ‘국어’로서 가르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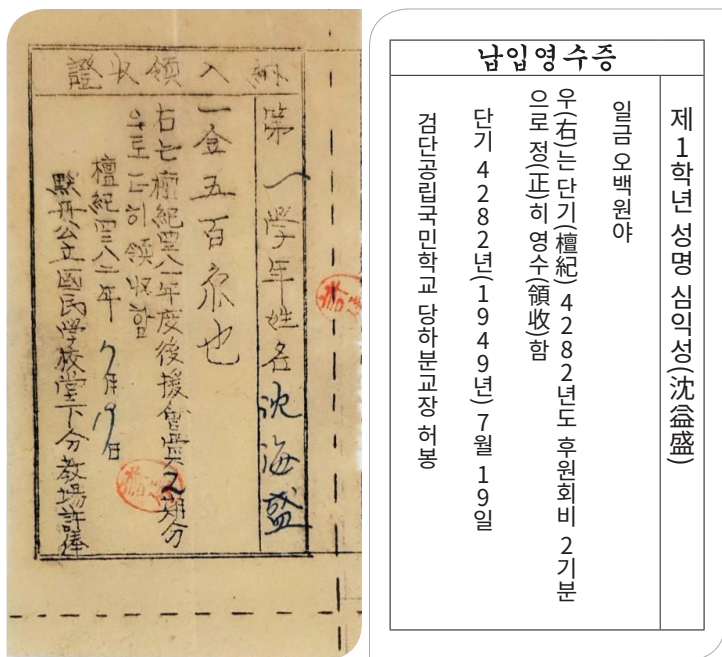
이에 따라 우선 조선인 학교의 명칭이 보통학교의 경우 일본의 그것과 똑같이 소학교로 바뀌었다. 1938년 4월 이후에는 ‘검단공립보통학교’가 ‘검단공립소학교’로 교명이 바뀌었을 것이다. 또 1941년에 다시 일제의 정책에 따라 ‘검단국민학교’로 교명이 바뀌었다. 이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1996년 3월 ‘검단국민학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지금의 이름인 검단초등학교가 탄생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조선어 수의 과목화는 규정상으로는 학교당국의 선택에 따를 수 있었지만 『조선일보』와 같은 당시의 언론매체의 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조선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했다. 조선어 수의 과목화는 실질적으로 조선어 폐지에 가까운 정책으로 인식되었으며 실제 수업시간에 조선어를 사용하는 일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는 없었을 것이다. 지극히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며 살기는 어려운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강제하지 않아도 타국의 언어인 영어를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요즘의 세태와 비교하면 실로 극과 극의 대조가 아닐 수 없다.

일제강점의 와중에도 학교를 증축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매일신보』 1941년 10월 7일 기사에 따르면 “김포군 검단공립국민학교에서는 명춘(明春)에 학급을 증설하고자 만반준비(萬般準備)를 거듭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문제되는 것은 경비임으로 동학후원회에서는 이 대책을 강구코자 지난 3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는데 동회장 이건영(李建榮) 씨와 불로리(不老里) 김병영(金炳榮) 씨는 즉석에서 금천원식을 자진기부하여 일반을 감격시켰다.”라고 전하고 있다. 당시 학교 증축의 필요성과 염원이 잘 드러나고 있다. 이후 학교는 계속 증축되어 학교의 규모는 계속 커져왔다.

한편 해방 후 해방된 조국에 사는 기쁨을 당시 검단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도 적극적으로 누렸던 것 같다. 『현대일보』의 1947년 5월 27일 기사에 “대한광복의열사 봉건회(大韓光復義烈祠 奉建會)에 대해 일반사회독지의 찬조금이 답지하는바 이십사(二十四)일 경기도학무국장을 통해 도내 각 국민학교 아동과 직원들이 성심으로 모아 보낸 찬조금을 동회사무소로 전달했다”라고 보도하면서 ‘검단국민학교’도 ‘백원’을 성금으로 보냈다고 적고 있다. 대한광복의열사가 실제로 만들어졌는지, 위치와 사적 등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것은 해방 공간에 검단초등학교인들도 함께 했다는 점이다.



검단공립국민학교 당하분교 후원회비 납입영수증(출처: 심익성님 기증, 서구문화원 소장)

위 자료는 1949년 검단공립국민학교 시절 후원회비 영수증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두 군데 있다. 첫 번째는 “검단공립국민학교 당하분교장”이라는 문구이다. 엄밀히 말하면 “검단공립국민학교 당하분교장”은 현재 고산후로 161번길 6(구주소 원당동 809)에 있는 창신초등학교를 가리킨다. 창신초등학교는 원당지구 최초의 초등교육기관인데 본래 1938년 6월 25일 창신 학술 강습소로 개강했으며, 1946년 5월 16일 공립으로 수용되어 검단국민학교 당하 분교장으로 인가되었다가 1949년 8월 18일 창신초등학교로 인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쨌거나 “검단공립국민학교 당하분교장”의 후원회비는 “검단공립국민학교”와 같았을 것이다. 여기서 또 “오백원”이라는 문구가 눈

에 들어온다. 1949년 2기분 후원회비가 5백원이다. 당시 구 서기 월급이 쌀 2가마니 가격에 해당하는 4천원 정도였다 하니 후원회비가 매우 비싼 편이다. 당시 후원회비, 월사금을 못 내서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는 말이 어느 정도 실감이 난다.

우리나라는 1950년 6월 1일부터 초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었으나 초등학교 완전 무상 의무교육이 실시된 것은 1959년부터이다. 그 이전까지는 월사금이나 후원회비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많았다. 물론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비단 학비만이 문젯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다. 2007년 경상남도 거창군을 시작으로 2010년까지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자체별로 시도해왔다. 2011년부터 무상급식에 대한 논란이 일어 매해 지자체별로 무상급식 여부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무상 의무교육의 개념을 조금씩 넓히고 그에 걸맞은 제도를 구축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꿈을 키우며 더불어 행복한’ 검단초등학교와 여래마을 사람들

검단이 지금보다 농경지가 많았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에 종사하던 시절, 검단초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보다 효율적인 모내기를 모범적으로 보이면서 학부모와 이웃이 사는 지역 주민사회에 일조하기도 했다. 한편 주민들은 검단초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직원을 도와 운동장을 만들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일을 돕는 등 내 아이나 우리 (옆집) 아이가 다니는 검단초등학교, 본인의 모교인 검단초등학교, 또는 내 손자손녀가 다닐 수도 있는 검단초등학교라는 생각으로 학교일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검단공립보통학교
모내기 시범 모습(1930년대)



운동장 및 배수로 공사를 하는
선생님과 주민들(1960년대)

반면 요즘 검단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은 모내기 시범을 보인다가, 학교 공사에 직접 나서거나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검단에서 농사일을 하는 가정이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었고 대부분의 학부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한편 학교의 공사와 같은 행정적인 부분은 시도교육청의 업무로 분업이 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대신 지금의 생활문화에 맞는 한에서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검단초등학교 생활을 도모하고 있다. 이를테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거나, 검단초등학교를 비롯해 능내초등학교, 마전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합창단인 하늘소리키즈 합창단을 결성해 인천지역문화 행사에 참여한다거나, 전국소년체전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둔다거나 하면서 각자가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 인생 '초등' 공부를 한다.

1930년대 한 학년이 30여 명 안팎이던 검단초등학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규모가 커져서 2019년 현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총 37학급, 학생수 총 906명, 교직원수 총 78명의 규모 있는 학교가 되었다. 아울러 검단초등학교병설유치원도 생겨서 총 3만 69명의 원아와 교직원 9명까지 검단초등학교 울타리 내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예전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검단초등학교 배경을 멋지게 만들어

주는 산들이 있었다면 머지않아 검단초등학교와 산들 사이에 아파트 숲이 생겨 산들은 보다 먼 배경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아울러 수년 이내에 인근에 검단신도시 조성 공사가 끝나면 검단초등학교 주변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모할 것이다. 이런 변화들이 검단초등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테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터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영향은 길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이나 부정적인 영향 일변도에서 끝나지는 않는다. 어느 쪽이든 우리 근대사의 꽤 많은 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검단초등학교인 만큼 앞으로도 그 역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87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검단초등학교는 여래마을과 검단 나아가 우리 근대사의 말 없는 증인으로서 자리한다. 검단의 사람들은 검단초등학교와 함께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후 검단식 초등교육을 만들어 오는 데에 일조했다.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학부모가 포함되는 시민사회 일반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마련인데 초등교육은 더욱이 그러하다. 근래에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마을과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했고 신생 초등학교들과 초등학교 외에 다양한 사교육기관들이 더불어 생겼지만 검단초등학교의 과거를 공유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 이런 의미심장한 학교의 연혁이 검단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짧막하게라도 안내되어 있지 않은 점은 참 안타깝다. 지금을 기준으로 보다 최근의 연혁이 중요하다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잊혀져 가지만 기억해야하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오늘날을 잘 사는 데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검단초등학교 운동장 가에 굽고 묵직한 기둥으로 풍성한 잎을 받치고 서 있는 나무, 플라타너스 아래에서 다시 우리가 살아온 시간과 살아가야할 시간을 떠올려보자.



| 검단초등학교

윤미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2) 금곡동 우리 시대의 기억저장소

금곡동 가는 길

말로만 듣던 금곡동을 찾아간 것은 여름의 초입이었다.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하고 운전을 시작한 지 20분쯤 지나자 목적지 근처라더니, 차는 알 수 없는 회사의 정문 안으로 들어가 있었다. 당황한 나를 보고 회사 경비아저씨가 나오셨다. 주변에 금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지 않느냐고, 금곡동을 찾고 있다고 여쭙더니 잘 모르겠다신다. 아무튼 여기는 금곡동이 아니라고 하시곤 가시더니 이내 다시 돌아오셨다. 회사 담 바로 옆길로 들어가면 동네가 하나 있다고 들으셨다고.

차를 돌려 나와서도 어쩔 줄 모르겠는 상황은 계속되었다. 회사 앞은 차들이 뽕뽕거리는 대로변이고 주변엔 가정집 하나가 보이질 않았다. 게다가 알려주신 길은 시멘트가 발린,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한 좁은 길이었다. 포장은 됐지만 아스팔트도 아니고, 시멘트를 발라놓은 길 양옆으로 풀과 나무가 무성했다. 여기로 들어가면 동네가 있다고? 미심쩍었지만 가지 않을 수도 없어서 차를 돌렸더니 멈췄던 내비게이션이 그제야 다시 작동했다.

금곡1동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길은 내내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좁은 시멘트 길은 산길이나 시골길처럼 구불구불했고 길 양편으로 오래된 양옥부터 슬레이트 지붕을 얹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었고, 어쩌다 판자를 열기설기 이어 만든 집도 볼 수 있었다. 간혹 동떨어진 곳에서 있는 한 두 동짜리 빌라도 있고, 낡은 우물에, 무성한 풀밭 너머론 각종 공장이 보이고 사이사이엔 밭이 있었다. 게다가 시멘트 길은 군데군데 끊어져 흙바닥과 시멘트 포장길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처음 본 금곡동은 197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를 한곳에 모아놓은, 뭐랄까 아주 커다란 박물관 같았다.

역사 속 금곡동 - 지명과 유래

금곡동은 해발 40m 이내의 저산성 평지를 이루고 있어 예로부터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다. 1995년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기 전까지 금곡동은 경기도 김포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인천광역시지만 지역의 역사적 특징은 김포와 더 가깝다. 서해와 한강유역에 인접한 지리조건은 사람이 살기에 적당해, 선사시대의 유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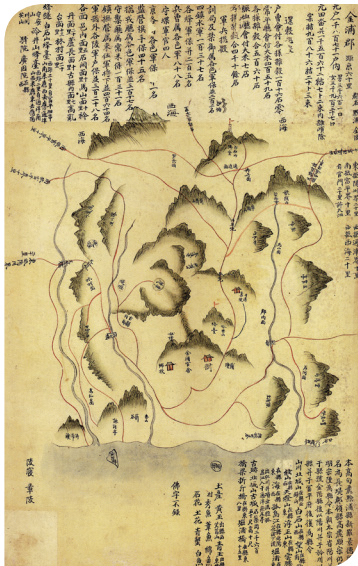
금곡동을 포함한 김포 일대는 바다(중국)와도 가깝고 한강 일대의 곡창지대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삼국시대에도 백제, 고구려, 신라 순으로 뺏고 빼앗기를 반복했으며,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은 변함이 없었다.

금곡동은 조선시대 김포군(또는 김포현) 검단면 금곡리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조선 중종연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검단이라는 지명이 처음 나타나며¹⁾ 조선 영조 연간에 편찬된 『여지도서』의 방리(坊里) 조에서 검단면(黔丹面)에 속한 8리 중에 금곡리(金谷里)라는 지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쇠가 난다해 쇳골이라 했고 이를 한자로 표기해 금곡리라 했으며, 조선시대 장수(長壽)이씨가 입향해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해진다. 1914년 김포군 마산면과 노장면을 검단면과 통합했을 때 금곡리도 주변의 신리를 통합했고²⁾ 검단면이 인천 광역시 서구에 편입된 1995년 이후에는 줄곧 금곡동으로 불리고 있다.³⁾

1) 『신증동국여지승람』 권2, 김포현, 토산조. ‘토산인 황옥(黃玉)이 김포현의 서쪽 검단리 애갈산에서 산출된다’

2) 인천광역시 서구, 2004, 『서구사』 623쪽.

3) 금곡동의 역사와 관련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해 정리했음을 밝힌다. 인하대학교박물관, 2007, 『인천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해동지도(海東地圖)』
김포군 (18세기 중엽)



『近世朝鮮五萬分之一地圖』 김포(1917년)

금곡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금곡동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만난 이균홍 님(1961년생) 기억 속 금곡동은 아기자기하고 자족적인 시골 마을이었다. 봄에는 논으로 새참을 나르고 서로 품앗이를 했으며, 막걸리 심부름을 다니는 재미가 있었다. 주전자에 술을 받아오다가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조금씩 마시다 보면 주전자가 가벼워지고, 원래 무게에 맞춥하니 물을 채워가면 어른들이 자꾸 술이 싱겁다며 타박을 줬던 기억은 언제 꺼내도 재미있는 추억담이다. 물이 맑고 많아 여름에는 친구들과 가재를 잡고 다이빙도 하며 물놀이를 했다.

열심히 놀았지만 놀면서 소를 먹이고, 건너편 산에 가서 매일 구들도 한두 장씩 날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사촌 형들이랑 무거운 구들을 캐고, 나르고 거기에 흙과 짚을 섞어 직접 구들장을 놓았

다. 지금 생각하면 힘든 노동이었는데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다. 쇠가 나서 쇧골, 금곡동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동네이니만큼 산에서 나는 구들도 특이했다. 색깔도 옥색부터 까무잡잡한 색까지 다양했고, 크기도 여러 가지였다. 당시 ‘나이롱 구들장’이라고 시멘트로 만든 네모난 것이 있었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진짜 구들장이었다. 자연산이라 울퉁불퉁해서 정으로 다듬어야 했지만, 성능이 좋아서 겨울 난방을 온전히 여기에 의지했다. 아는 사람들은 와서 캐가거나 돈을 주고 사가기도 했다.

이균홍님이 자랄 때는 동네에 금곡동이라는 이름을 준 광산 채굴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고 한다.⁴⁾ 그래도 굴은 여전히 남아있어서⁵⁾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녀오다 종종 들러서 놀았다고 했다. 굴은 어둡고 안쪽에는 물이 고여 있었으며 박쥐와 뱀이 살고 있어 무서워서 끝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그저 물이 고인 쪽으로 돌을 던져 물수제비를 뜨고, 굴 입구에서 자석으로 땅을 헤집으며 쇧가루를 누가더 많이 모으려 하는 놀이를 했다. 쇠나 금을 캐던 곳이라고 하면 흔히 상당한 규모일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들어가는 입구부터 계산하면 열추 25~30m쯤 되리라고 짐작했다. 얼마나 깊은지 실제로는 모르지만, 물수제비를 뜰 때 돌이 툭툭 튀어 가는 걸 듣고 대략 그리 짐작했다고 한다.

서낭당 고개와 당나무에 대한 기억이 선연한데, 특히 당나무는 이제 사라져버려서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서낭당 고개는 시멘트 길을 놓을 때 깎아서 지금은 그나마 넓어지고 밝아졌지만 어릴 때는 좁은 산길인데다 모퉁이였고 서낭신 때문에 대낮에도 무서워서 주변

4) 그의 증언에 의하면 1950년대 초까지는 채굴작업을 했고 그 이후로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5) 굴은 지금도 남아있다. 주소는 금곡동 산 200번지다. 지금은 굴 근처에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서 가볼 수 없고, 그나마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되었다고 한다.

을 지날 때는 최대한 빨리 뛰어가곤 했다. 당나무와 당집이 있던 자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당제를 지냈는데 어릴 때는 그게 마을잔치였다. 제를 올리기 열흘 전부터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분담해 쌀과 고기를 준비하고 함께 음식을 했다. 그러던 것이 당나무와 당집이 있던 자리를 외지인이 매입해 공장을 지으면서 당집도 당나무도 다 사라져버렸다.

굿당이 있던 곳도 지금은 흔적을 찾아볼 수 없게 변했다. 굿당이 있던 곳에는 컨테이너가 놓여있고, 외지인의 사유지가 되어서 컨테이너 훨씬 앞쪽으로 철그물 문이 채워져 있었다. 컨테이너에 사람은 살지 않고 가끔 다녀가는 듯한데, 컨테이너 앞에 커다란 개 두어 마리가 묶인 채 큰 소리로 짖어대며 경계해 더이상 둘러볼 수가 없었다.



| 굿당 서낭당 사진



| 서낭당 자리 (2019년)



| 쓰러진 당산나무



| 당나무가 있던 자리



| 당나무 자리 (2019년)

(출처: 인하대학교박물관, 2007, 『인천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이렇게 공장과 컨테이너들이 들어온 건 불과 15년 정도 되었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이나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옛 모습이 많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마을 땅의 상당 부분이 논이었는데 이제는 논이 다 없어지고 그 자리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풀만 가득한 공지(空地)로 남아 을씨년스럽게 변해버렸다. 그렇잖아도 나주하면 배, 청송하면 사과, 하듯 김포하면 쌀인데 왜 논이 하나도 보이지 않나, 어릴 때 논농사를 많이 지었다는데 논은 다 어디있나 궁금했는데 그 많은 논이 다 사라져버렸다니, 단순히 안타깝다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논농사는 힘들고 지을 사람도 없으니 논을 팔거나 공지로 묵히거나 그도 아니면 밭으로 바뀌버렸다면, 주변에 있는 밭들이 전에는 다 논이었던 땅이라고 했다.



| 공장과 밭이 들어선 옛 논자리



| 논에서 밭으로 변한 마을풍경

이균홍님의 자녀들도 다 외지로 나가있고, 현재 마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노인들이다. 이균홍님과 그 세대가 마을 일을 하며 마을을 지키고 사는 마지막 젊은 세대인 셈인데 이제 금곡동도 이주민들만의 동네가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균홍님 역시 옛날이 좋았다고, 가난해도 마을 사람들 사이에 정이 있었든 그 시절을 그리워했다.

현재 금곡동은 2005년 6월 도시개발공사의 수용 이후 도시개발사업지로 지정된 상태이다. 여지껏 가칭 조합이었지만, 곧 정식 조합

이 만들어질 것이고 다소 지지부진하던 개발이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는 형국이다. 금곡동에서 도시개발사업지로 포함된 땅은 총 18만 6천평이며, 약 5400세대 정도가 속해 있다고 한다.

어떤 방식으로 도시개발이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금곡동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면 인천 서구에 있는 자연마을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가까운 대곡동도 그렇고, 금곡동도 마찬가지다. 도시개발은 필요하다. 형평성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주민복지를 위해서도 그렇다. 하지만 마을마다 생태나 환경이 다르고, 그에 따른 요구점도 다른데 그간 도시개발의 역사를 보면 그런 부분의 고려는 거의 없었다. 가까운 가정동이나 청라만 봐도 대한민국 도시개발의 현주소를 알 수 있고, 금곡동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

이균홍님 역시 획일적이고 일방향적인 도시개발을 걱정했다. 그렇다고 개발을 하지 않겠다고 할 수도 없고, 여러모로 고민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는 현재 있는 마을의 산책로라도 보존하고 갔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인공조림 대신 현재의 산책로를 살리자는 것이다. 인공조림은 비용만 많이 들고, 그가 보기엔 모양도 다 똑같아서 개성이 없으니 기왕이면 있는 것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지, 산책로를 보존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금곡동을 나오며

금곡동 조사와 인터뷰에 함께 해준 서구향토문화연구소 이윤희 연구원의 말은 과거를, 사라져가는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보존할 것인가-에 관한 해묵은,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이 연구원이 백석동에 조사를 나갔을 때 어떤 집을 방문했다. 할머니 혼자 살고 계신 집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할머니는 원래 백석동 주민도 아니었다. 다른 곳에서 살다가 결혼해서 백석동으로 왔는데 시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남편인 할아버지도 뒤따라 가시고, 자식들은 다 외지로 나간 후 할머니 혼자 남아서 집을 지키고 있었다. 문패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이름만 있고, 자신의 이름도, 생래(生來)의 흔적과 이야기도 없는 곳에 혼자 남은 할머니.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면 그 집은, 그 집에 얹힌 기억과 사람들은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이균홍님도 말했다. ‘이제 여기도 5년이나 길어야 10년만 있으면 다 변하겠지. 모두 돌아가실테니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질테고...’ 그래서 우리는 사진을 찍었다. 개발된다고 해서 집수리도 안 하고 그냥 계속 뒀다는 집 앞에 집주인인 이균홍님이 섰다. 그의 과거와 현재는 이렇게라도 남았지만 수많은 다른 이균홍님들은, 이미 잊혀졌고 지금도 잊혀져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 공간의 냄새와 흔적들은 누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자택 앞에서 이균홍님

금곡동을 나올 때는 들어간 길과 다른 길을 잡았다. 버젓한 아스팔트 포장도로였고, 계획도시 같이 깔끔하고 새침한 맛은 없지만, 어쨌든 내가 들어갈 때 본 금곡동은 아니었다. 나올 때 본 금곡동은 지방 어디를 가나 볼 수 있는 작은 소도시의 모습이었다. 글을 쓰려고 자료를 뒤지고 찍은 사진을 들추고 녹음한 인터뷰를 다시 들으면서 내가 처음 본 금곡동을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찾아보니 내가 처음 들어간 길은 버스도 다니지 않고 아는 사람들만 다닌다는 일종의 ‘뒷길’ 같은 곳이었다.

앞으로 언제 다시 금곡동에 갈지, 다시 방문했을 때 금곡동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전혀 짐작할 수 없다. 하지만 내 기억 속 금곡동은 처음 좁은 시멘트 포장길로 들어섰을 때의 금곡동으로 남을 것 같다. 나는 그 금곡동 속에서 신기하게도 어릴 적 내 할머니 집의 냄새, 내 기억 속 가장 따뜻했던 공간의 냄새를 맡았다. 그리고 글을 쓰면서 금곡동은 우리 시대에 남은 마지막 기억저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금곡동을 보면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 우리의 오늘은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나은 미래를 가지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하는지도 보여준다.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디게 가더라도 다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금곡동이 말하고 있었다.

송수연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3) 오류동 서해 문화의 새로운 디딤돌

서구의 새로운 얼굴, 오류동

강화도와 교동도 등 서해 최북단의 주요 섬들로부터 국제공항이 위치한 영종도, 그 아래 영흥도와 덕적도까지 서해안의 요충지로 기능하는 여러 섬과 함께 인천항을 포함한 인근 내륙의 8개의 자치구를 행정구로 삼고 있는 인천시는 지리적 특성상 경제와 안보의 거점 도시 역할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해 문화를 이끄는 중심 도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인천의 행정구는 서북단의 연안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는데, 그중 서구는 김포시와 경계를 마주하는 가장 북쪽 내륙에 위치한다. 서구는 김포시 바로 아래에서부터 인천항이 있는 중구 이전까지 면적 상 인천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중구가 영종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서구가 내륙에서는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만큼 인구도 많아 현재 서구는 인천시의 인구수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서구는 인구수가 실제 활용 면적 면에서 인천시의 최대 자치구로 볼 수 있는데, 이는 1995년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변동과 이후 진행된 활발한 개발사업의 추진 덕분이다. 서구의 면적이 지금과 같이 확장된 계기는 김포군에 포함되어 있던 북부의 검단면 지역이 1995년 인천시로 편입되면서부터이다. 1995년 인천이 광역시로 개편되면서 당시 이 지역은 인천시 서구로 편입되었다. 이로 인해 서구의 면적은 이전에 비해 약 1.5배 가량 늘어났으며 더불어 인천시의 면적도 증가하게 되었다.

물론 당시에는 인천보다는 김포나 서울 생활권에 가까웠던 검단

지역의 인천 편입이 주민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이후 검단신도시가 개발되고 대형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검단은 차차 인천시의 경제문화권 안으로 융화되어가기 시작했다. 현재 이 지역은 2018년 새로운 행정동명이 확정되어 검단동, 마전동, 오류왕길동, 원당동, 당하동, 불로대곡동의 6개의 동으로 불리며 서구의 새로운 도심으로 얼굴을 알리고 있다.

그중 오류왕길동은 청라지역의 위쪽으로부터 서해 연안을 감싸 안으며 내륙 안쪽까지 비교적 넓은 면적을 차지한 행정동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은 법정동 상으로는 오류동과 왕길동으로 나뉘지만, 해안으로부터 내륙까지 대부분 면적이 오류동에 해당하며 왕길동은 이에 비해 비교적 작은 면적만을 차지하고 있다. 오류동은 경서동과 함께 서구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며 특히 북부에 넓게 자리해 서구의 북단을 눈에 띄게 확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로운 행정동으로서 오류동은 그 면적상의 우위와 함께 위치상으로 해안과 접하고 있는 비교적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다. 특히 인천 지역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경인항 인천터미널의 경인아라뱃길이 자리하고 있어 서해 문화의 특수성을 품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인천의 경제문화는 서해안의 지리적 특수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국내뿐 아니라 국제 물류의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인천은 송도에 이어 청라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국제도시로 개발해 나가고 있다. 역사적으로 인천항을 통해 매개되었던 국내외의 인적, 물적 자원의 왕래가 국제도시의 형성으로 더욱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천은 경제뿐 아니라 교육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를 확대해 나가며 서해를 대표하는 중심 도시로서 새로운 가치들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

이같은 발전에 힘입어 인천은 또한 문화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마련해 가고 있다. 인천이 담고 있는 문화적 특성은 인천항과 그 인근의 월미도와 차이나타운, 만국공원으로 불렸던 자유공원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다. 이들 지역은 개항지의 역사를 담고 있는 인천의 특수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 곳으로, 외래문화의 유입과 교류로부터 형성된 특수한 문화적 흔적들이 남아있어 여전히 많은 사람의 발길이 모여드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서해안에 근접해 실제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어 인천 시민뿐 아니라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의 시민들이 바닷가를 찾아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자주 찾는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이들 지역이 인천 서해문화의 구도심 역할을 한다면 최근에는 서구 오류동의 경인항 아라뱃길이 새로운 서해문화의 매력을 알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2009년 착공 후 약 3년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12년 5월에 개통한 경인 아라뱃길은 한강 하류에서부터 김포를 거쳐 인천시 서구 오류동에 이르는 길이 약 18km, 폭 80m의 인공 수로로, 한강의 물줄기를 서해안까지 잇는 국내 최초의 내륙운하로 건설되었다.

본래 이 물길은 고려 때부터 조운(漕運) 운하로 사용될 만큼 중요한 항로였으나 바닷길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운항에 어려움이 따라 운하건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또한 인근 지역의 홍수 피해도 잦아 운하를 통한 치수기능의 필요성도 요청되었으나 그간 여러 문제로 인해 건설이 지연되고 있던 실정이었다. 그러다 1987년 굴포천 유역의 대홍수로 큰 피해가 발생하자 방수로를 신설하기 위한 사업이 구상되었고 이에 한강 하류로부터 서해안을 잇는 경인운하 사업이 추진되었다. 경인운하는 2012년 정식 개통하면서 ‘경인 아라뱃길’로 명명되었는데 이는 아리랑의 후렴구인 ‘아라리 오’에서 따온 우리말을 사용한 명칭이며 하천의 이름 역시 ‘아라천’으로 명명되었다.



| 아라타워 1층에 위치한 아라리움 홍보관에 전시된 자료 중

아라뱃길은 아라김포 터미널과 경인항 인천터미널의 두 터미널을 사이에 두고 이어져 있으며 각각의 터미널에는 물류단지과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특히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은 한강의 물줄기가 서해안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 아라뱃길과 함께 서해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서해안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다.

아라뱃길이 개통되면서 인천시는 경인항 인천터미널 주변에 서해안의 풍경을 한눈에 담아볼 수 있는 높이 76m, 23층 규모의 아라타워 전망대와 함께 서해 옛 섬마을의 모습을 테마로 한 인공섬 아라빛섬을 조성해 이 지역을 서해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아라빛섬 인근을 서쪽 육지 끝의 나루터라는 의미에서 ‘정서진’으로 지정해 표지석을 세우고,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인 노을종을 설치해 서해안의 낙조 명소로 개발해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에 힘입어 이제 오류동은 서해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도심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는 자치구의 활발한 문화사업 추진과 더불어 서구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함께 이뤄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영종대교 방향을 조망한 모습

서해 문화의 새로운 명소, 정서진 아라뱃길의 탄생

오류동에 위치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은 요즘에는 흔히 정서진 아라뱃길이라 불리고 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아라뱃길이 자리한 경인항 인천터미널을 서해 끝쪽의 나루터인 정서진으로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 2011년 인천이 이 지역을 정서진으로 정하기 이전까지 정서진이라는 지명은 서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두루 사용되고 있던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충남 태안군이 2005년 만리포 지역을 정서진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전남 무안군도 정서진을 지정하기 위한 시도를 해왔다. 정서진이라는 명칭이 서쪽 육지 끝의 나루터라는 의미 외에는 지역을 특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은 터라 서해안에 인접한 여러 도시들에서 제각기 의미를 부여해 정서진을 명명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서진이라는 명칭은 역사적으로 인천 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강화도에 위치한 고려산의 낙조

봉으로 유명한 낙조대는 동해안 정동진의 반대쪽에 있다 해 예로부터 정서진으로 불렸다. 동쪽 해안에서는 해가 뜨는 경관이 장관이니 정동진이 일출 명소가 되었다면, 서해안에서는 붉게 달아올랐던 해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드넓은 지평선 아래로 아스라이 저물어가 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으니 정서진은 낙조의 명소로 불렸던 것이다.

이를 본다면 강화도 고려산의 낙조봉은 정서진의 조건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바다를 끼고 있는 높은 산에 올라 탁 트인 시야에서 바라보는 낙조의 광경이라면 다른 어떤 지역보다 그 정취를 흠뻑 느끼기에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 위에 위치한 낙조봉은 배가 건너다니는 나루터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정서진이라는 명칭이 그리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다. 또한 이외에도 인천에는 여러 낙조의 명소가 있는데 영종도의 왕산해변 역시 해변가에서 서해의 아름다운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지역이며, 강화군의 장화리는 낙조마을이 있어 낙조의 명소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처럼 인천에는 서해안을 끼고 낙조 명소로 불리는 여러 지역이 있지만 ‘임금이 광화문에서 말을 타고 동쪽으로 가면 다다른 나루’라는 뜻의 정동진(正東津)의 명칭을 생각했을 때, 그 대칭 개념인 정서진(正西津) 역시 서울 광화문을 기준으로 정서방향에 위치해야 그 의미가 맞을 듯하다. 또한 배가 드나드는 뱃길과 나루터가 있던 자리라는 의미까지 고려한다면 뱃길의 시작점이자 육지의 끝이 그 정확한 위치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정서진의 뜻과 부합한 지역은 태안이나 무안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왕산해변이나 낙조마을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에 서구는 서울 광화문에서 일직선의 정서 방향으로 본토가 끝나는 지점이 서구 세어도 해안임을 제시하며 이 지역을 정서진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은 서구 오류동을 말하는 것으로 아라뱃길의 끝부분인 경인항 인천터미널 부근이 바로 정서진의 좌표점

이라 할 수 있다.

서구는 2011년부터 ‘정서진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정서진 지정 사업을 추진했고 그해 정서진 지정 선포식을 개최했다. 경인항 인천터미널의 아라뱃길에 조성된 인공섬인 아라빛섬 인근에 정서진 표지판을 세우고 서해안의 조약돌 모양을 형상화한 대형 노을종을 설치해 낙조 명소로써 정서진의 특성을 부각하는 한편 새로운 출발이라는 의미를 새겨 넣으며 정서진의 새로운 탄생을 널리 알리고자 했다.

또한 그해 말 곧바로 정서진의 이름을 딴 ‘정서진 해넘이 축제’를 아라뱃길에서 개최했다. 새해 첫날의 정동진 일출 행사와 같이 한해의 마지막 날 정서진에서 일몰을 보며 가는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이 해넘이 축제는 현재까지 매년 이어지고 있어 정서진을 일몰 명소로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시와 서구의 이같은 발 빠르고 조직적인 사업 추진에 힘입어 이제 경인항 아라뱃길과 정서진은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의 개통과 함께 경인항 인천터미널을 중심으로 정서진 광장과 수변무대 등을 설치해 정서진의 의미를 알리는 한편 많은 시민들에게 휴식을 취하고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제공했다.

즉 아라뱃길과 정서진은 우연한 시기에 같은 장소에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 공간의 기획을 위한 인천시와 서구의 치밀한 계획과 노력이 만들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인천시는 아라뱃길이 완공되어가던 2011년부터 경인항 인천터미널 인근을 정서진으로 지정하는 사업을 추진했고 대대적인 행사를 기획해 아라뱃길과 정서진을 함께 알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한 공간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스토리텔링을 통해 결합하고 이를 반영한 여러 구조물을 설치해 이색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했다. 노을

종과 노을벽, 아라뱃섬과 그 안에 재현된 나루터의 형상 등이 바로 그것인데, 이러한 기획들은 아라뱃길의 의미를 풍성하게 하면서 이를 인천의 역사와 서해 문화 안으로 접목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

특히 정서진을 대표하는 노을종이라는 조형물은 당시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직접 명명한 명칭으로 알려지는데, 그는 조형물 제막식에서 “저녁노을이 종소리로 울릴 때/ 나는 비로소 땀이 노동이 되고/ 눈물이 사랑이 되는 비밀을 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시 ‘정서진 노을 종소리’를 헌정하며 정서진과 노을종의 의미를 스토리를 통해 아름답게 표현하기도 했다.

또한 노을벽은 서구 시천동에 내려오는 옛이야기를 차용해 만들어진 조형물로 정서진 노을을 보면서 사랑을 고백한 연인이 결국 사랑을 이루었다는 스토리를 토대로 ‘소망의 노을벽’으로 구성했다. 노을벽에는 종을 매달 수 있게 해 실제 시민들이 소원을 적은 작은 종을 매달아 소망을 빌고 안녕을 기원할 수 있도록 설치하기도 했다. 소망의 종이라 불리는 이 종 역시 서구의 문화유산인 녹청자의 형상으로 경서동 녹청자박물관에서 직접 제작해 사용하고 있다.



| 정서진의 상징조형물 노을종

한편 그옆에 위치한 작은 인공섬 아라빛섬에는 해넘이 전망대와 숲속쉼터, 해송숲, 나루터 등이 구성되어 있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서해의 섬에 와있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바다의 빛이라는 아라빛의 의미처럼 아라빛섬에는 넘어가는 해의 마지막 빛을 조망할 수 있는 아늑하고 운치있는 전망대가 마련되어 있어 여유있게 낙조를 즐길 수 있다.

눈에 띄는 곳은 바로 나루터인데 나무로 된 갑판 근처에 역시 나무로 만들어진 나룻배가 정박해 있는 모습이 옛 나루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며 정서진의 의미를 재현하고 있다. 옛 정취가 듬뿍 느껴지는 나루터라 노을이 지는 모습과 함께 그저 사진만 찍어도 좋을텐데 놀잇배를 타고 섬을 구경하는 체험교실로도 사용된다니 작은 인공섬에 불과한 아라빛섬이 한층 더 빛이나는 것 같다. 근래에는 아라빛섬 워터파크 사업 추진 소식도 들려오는 만큼 앞으로 아라빛섬이 정서진의 명물로 더욱 거듭날 전망이다.

정동진과 동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그 대칭 개념인 정서진은 아직까지는 정동진만큼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처럼 활발한 문화기획을 통해 그만의 특색을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서해안의 명소로 더욱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정호승 시인이 ‘정동진’에 이어 ‘정서진’이라는 시를 발표해 서해 낙조의 아름다움과 그 찬란한 의미를 노래했으니 이 시를 통해 많은 사람이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히 노을 지는 정서진으로 발길을 옮길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정서진에서 낙조와 인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시민들

시민문화의 장, 정서진 해넘이 축제

정서진 아라뱃길에서는 일년내내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어 서구를 비롯한 인천 시민문화의 장을 열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작년에는 ‘2018 정서진 피크닉 클래식’이라는 문화 행사를 기획해 지역민과 관광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기도 했는데 당시 정서진 노을중 아래에서 노을음악회도 개최해 정서진을 홍보하는데 일조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정서진 노을중 무대에서는 인천시 에너지 캠페인 ‘에너지 잇고, 미래 잇다’의 스타트 이벤트로 ‘자가발전 언플러그드 콘서트’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개최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라뱃길 광장에서는 2012년부터 8년째 주말을 이용한 ‘정서진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고 있어 인천시의 대표적인 주말 정례장터로 이용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한해의 마지막날 정서진 아라뱃길에서 개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인천의 대표적인 연례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해넘이 축제는 서해의 일몰을 감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 해를 맞는 준비를 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정서진 아라뱃길의 장점을 최대로 살린 행사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연말이면 대개 일출 명소를 찾아 뜨는 해를 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만, 그러려면 그전에 우선 지나간 해를 잘 마무리해 보내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해 기획된 행사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수평선 끝으로 지는 붉은 낙조를 감상하면서 지나간 한 해를 천천히 되돌아보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며 다가올 새해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정서진 해넘이 축제는 정서진이 지정된 2011년부터 시작해 작년 2018년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개최 때마다 다양한 테마로 풍성한 행사를 기획해 정서진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작년에 개최된 2018 해넘이 행사는 ‘기해년 낙화 빛을 품다’라는 주제로 12월 31일 정서진 아라빛섬 수변무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특히 주민과 예술이 만나는 문화 행사로 기획되어 서구 지역 예술인의 공연과 더불어 주민들이 함께 만드는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이루어져 보다 뜻깊은 행사로 진행되었다.

유명 가수의 공연 대신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행사들이 개최되었고 그 중 ‘끝페스티벌’은 연말의 축제라는 의미를 살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큰 호응을 얻었다. 끝페스티벌은 ‘먹어라’, ‘즐거라’, ‘살아라’라는 세 가지 문구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무료공연부스를 운영해 즐거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이 한 해의 마지막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감성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다.



| 정서진 해님이 축제



| 낙화놀이

또한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재연해 눈길을 끌었는데 약 1시간 동안 천천히 타들어가는 낙화봉과 떨어지는 불꽃을 보며 한 해의 시름을 날리고 새로운 다짐을 기원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그 모습이 장관이어서 불꽃놀이와는 사뭇 다른 이색적이며 웅장하기까지 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전통놀이를 재연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약 3천여 명의 많은 시민들이 모여 함께 축제를 즐기며 덕담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만큼 이제 정서진 해님이 행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인천 시민들의 기억에 자리잡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이를 통해 정서진 아라뱃길, 나아가 인천 서구는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도시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정영진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 강사

4) 왕길동 쉽게 잊히지 않을 이름

왕길동이란 지명을 처음 들었는데도 쉽게 잊히지 않았다. 검단이란 곳을 잘 알지 못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지명이 쉽게 잊히지 않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터였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왕’이란 글자가 주는 임팩트였던 것 같다. ‘왕’은 뜻도 그러하거니와 발음상으로도 인상적이며 기억하기 좋은 글자이다. 아니나 다를까, 『검단의 역사와 문화』에서 왕길리의 지명유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조선 중엽에 어느 풍류객이 이 마을을 왕길(旺吉)이라고 작명하여야 마을에 덕이 있고 생활이 풍요로울 것”이라고 했다는 이야기다. 조선 중엽의 어느 풍류객이었는지는 몰라도 마을 이름에 ‘왕’자를 붙일 생각을 했다니 그의 배포도 꽤나 크지 싶다.

하지만 ‘왕길’이라는 이름 전에 분명 다른 이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어느 풍류객은 왜 마을 이름을 바꾸라고 했을까? 왕(旺)은 ‘성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로 흔히 왕성(旺盛)하다는 말을 할 때 쓰이며 기운이나 세력이 왕성하다는 의미를 가졌다. 길(吉)은 ‘길하다’로 복이 있다는 뜻이다. 즉 왕길(旺吉)은 왕성하고 복이 있는 동네라는 뜻인데, 마을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 풍류객은 이름을 바꿀 생각을 했을까? 혹 사람들이 개명을 하는 이유와 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이름을 바꾸면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믿음 같은 것.

늦더위가 맹렬하던 8월 말, 왕길동을 찾았다. 차로 이동하면서 둘러본 왕길동은 넓었고, 눈을 돌리는 곳마다 산이었으며 가옥보다는 공장이 많았고 인적은 드물어 조용했다. 왕길동을 돌면서 필자는 거리에서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 사실 거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지금의 왕길동에는 거주지보다는 산업시설이 더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 즉 눈을 돌리면 산

이 보였고 그 아래에 위치한 것이 대개 공장이어서 거리라기보다는 길이 나 있을 뿐이었다. 사람이 일상적으로는 다닐 일이 없는 그런 길. 그러나 왕길동이 본래 산업지역은 아니었다. 서해안에 위치한 인천은 꾸준히 간척사업을 해오면서 지도를 여러 번 바꾸었다. 왕길동도 예외는 아니었다.

다음 지도를 보면 왕길동 부근의 지형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왼쪽 지도는 1963년 지도이다. 이때만 하더라도 왕길리 바로 아래에 안동포가 위치해 있으며 안동포가 바다라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또 아직 간척사업이 시작되기 전의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약 10년이 지난 1975년도 지도를 보면 지형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왕길리 아래 바다이던 안동포가 육지로 변한 것이다. 안동포가 간척되자 왕길리는 훨씬 내륙에 위치한 듯 보이기도 한다. 안동포 위로 네모 표시가 된 곳이 염전지역을 나타낸 것인데 1963년 지도에서 누군가 초록색 펜으로 염전을 표시해 놓은 것과 유사하다. 또, 1975년 지도에서 바다에 직선으로 빨간 선을 그어 놓은 것은 제방을 표시한 것이다. 즉 간척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며 간척사업으로 어디까지 육지화가 될 것인지 예상해볼 수 있는데, 지금의 지도와 비교해보니 빨간 선이 그어진 바다 안쪽으로 모두 육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1963년 김포지역 지도



| 1975년 김포지역 지도

필자는 안동포에 직접 가보고 싶었다. 네비게이션에 안동포를 찍고 안내한 대로 갔는데 도착한 곳은 수도권매립지 근처 주민체육공원이었다. 정말 이 자리가 안동포 자리였나? 뜨겁게 내리쬐는 별만 너른 운동장에 가득할 뿐, 어디에도 이곳이 안동포였다는 흔적은 없었다. 만일 이곳이 정말 안동포 염전이 있던 곳이라면 소금은 진짜 잘 만들어졌겠다 싶을 정도로 별이 뜨거웠다. 하지만 잘못 찾아온 듯싶었다. 현재로서는 그 지역에서 적어도 1960년 이전부터 거주했던 분만이 옛 안동포 자리를 지정해줄 수 있을 것이다.



| 1960년대 안동포 염전(유춘길님 제공)

위 사진은 필자가 서구문화원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1960년대 안동포의 모습을 그나마 보여주고 있는 귀한 사진이다. 이 사진의 제작자이자 사진 속 주인공이기도 한 유춘길 씨가 안동포 염전에서 바닷물을 끌어 올리는 수차 위에 서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지금의 왕길동에서 염전은 상상할 수 없다. 바닷가 마을 왕길리는 서해안 간척사업과 1997년 수도권 정비계획 등을 거치면서 공업지역이 되었다. 상전벽해란 바로 이런 변화를 두고 하는 말일 테다. 왕길동 어디를 다녀도 바다를 떠올릴 수는 없었다. 오히려 눈에 띄는 것은 산이었고 산 아래 자리하고 있는 크고 작은 공장이었다.

네이버에서 왕길동 지도를 찾아보았다.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다른 이름을 가진 묘지가 세 곳이나 있는 점이였다. 바로 검단공설묘지, 왕길공설묘지, 기독교성결교회묘지였다. 지도상으로 봤을 때 세 곳은 서로 인접해있었기 때문에 모두 돌아보고 싶었다. 묘지가 왜 그리 궁금했을까. 갯벌은 매립되고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선 곳, 생활터전이 완전히 바뀌면서 사람들의 생업도 하루아침에 바뀌었을 동네에서 죽은 사람들은 평안하신지 궁금했다. 먼저 검단공설묘지로 갔다. 좁다란 비탈길을 따라 몇 번 구불구불하더니 도착.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관리사무소가 있었고, 그 반대편에 묘지가 자리하고 있었다. 눈으로 보기에 묘지 규모는 크지 않았다. 다른 공설묘지에 비해 작고 아담한 느낌이었었는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묘지현황을 보니 필자가 크게 틀리게 본 것 같지는 않았다. 서구에는 공설묘지 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면적은 16,462㎡이고 총매장 가능구수가 611구밖에 되지 않았다. 검단공설묘지가 2개소 중 한 곳일 테니 총매장 가능구수도 그만큼 줄어든다.

검단공설묘지는 조용했다. 정리가 꽤 잘된 묘지와 그렇지 않은 묘지가 대비를 이뤘다. 무덤 주변에 큰 나무를 세우기도 했고, 비석의 짧은 비명(碑銘)이 죽은 자를 향한 산 자의 애뜻한 마음을 느끼게 했다. 묘지란 죽은 자가 머무는 땅이지만 산 자를 위한 곳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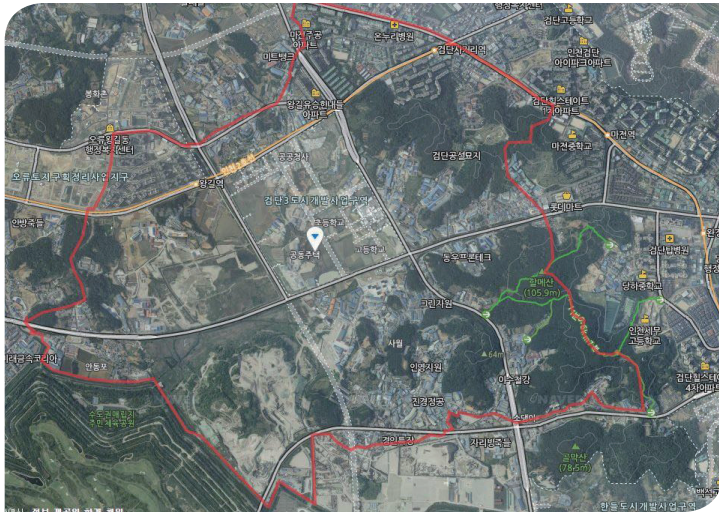


| 검단공설묘지

나머지 두 묘지도 찾아보기 위해 발길을 옮겨 기독교성결검단묘지로 향했다. 공장이 들어선 좁은 길을 뚫고 겨우 찾은 입구에는 사유지이므로 외부차량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안내 현수막이 있었다. 안내 현수막은 내리교회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 분명 이 묘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왜 막아 놓았을까? 얼마 뒤 네이버 지도를 다시 찾아 봤을 때는 기독교성결검단묘지가 표지되지 않았다. 대신 처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내리교회묘지가 새로 나타난 것이다.

살펴보니 기독교성결교회묘지로 나오던 곳은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랜 기간 묘지 부지를 놓고 관련 교회와 그 곳에 가족을 매장한 가족, 그리고 그 근처의 거주민들과 갈등이 있었고 얼마 전에야 기독교성결교회묘지 부지가 매매 되었다는 기사를 확인했다. 그래서 인지도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지도에 표시되는 곳이 사라지고 산 아래로 난 대로 맞은 편, 내리교회 요양원 근처에 내리교회 묘지라는 곳이 나타난 것이다.

내리교회는 현재 인천 중구에 위치한 교회이고 1885년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 시작된 곳이며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이다. 내리교회 홈페이지에는 1972년 1월에 내리교회묘지를 검단면 왕길동으로 이전 조성했다는 기록이 있다. 또한 같은 재단에서 1999년도에 설립한 내리요양원도 왕길동에 있는데 내리교회묘지와 가까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내리교회묘지에는 어떤 인물들이 잠들어 있을까? 교회 관리인에게 문의해보니 묘지 운영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데 이곳에는 한국 최초로 목사안수를 받은 김기범 목사의 묘소가 있었다. 1920년에 영면한 이후 처음에는 수봉공원에 안장되었다가 1972년에 왕길동 묘지로 옮겨졌단다. 그렇다면 아마도 처음에는 기독교성결교회묘지에 안장 되었다가 근래 다시 조성된 내리교회묘지로 이장되었을 가능성이 크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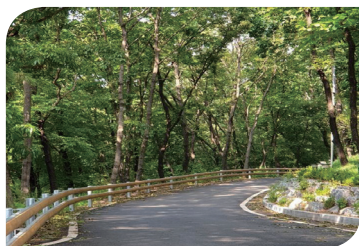
검단3구역 도시개발구역

결국 나머지 묘지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다시 차를 타고 대로로 나왔다. 도로는 말 그대로 대로였으나 한적했다. 속도를 내려는 순간 도로에서 보이는 산비탈에 묘지가 보였다. 차를 멈추고 멀리서나마 묘지의 모습을 대강 훑어보는데 그 밑으로 플랜카드가 걸려 있었다. 모두 묘지 이전을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기독교성교회묘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의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묘지 맞은편으로는 대단치 거주 시설이 건설 예정이었다.

지도를 보니 2018년도에 산 맞은 편, 왕길동 133-3번지 일원이 검단3구역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인천시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곳의 계획인구는 11,004인이며 총 4,315세대의 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실제 묘지가 위치한 산자락과 대로를 마주하고 선 부지는 언뜻 보아도 꽤 넓어 보였다. 모르긴 몰라도 이 계획대로 도시개발이 추진되고 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온다면 왕길동은 지금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 다른 분위기를 가질 게 분명했다. 때문에 산자락에 위치한 묘지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든 사

람들에게 요셋말로 혐오시설일 게 분명하고 그렇게 플랜카드를 매달 수밖에 없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갔다. 현재 왕길동은 먼저 터를 잡은 죽은 자들과 앞으로 터를 잡을 산 자들이 섞이지 못한 상태로 공존하는 중이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사월마을이었다. 사월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참 예뻐다. 차 한대 다닐 정도의 좁은 길이었지만 깔끔하게 포장된 도로 양 옆으로 나무그늘이 드리워져 있어 걸어보고도 싶다는 느낌을 주는 길이었다. 그 길의 끝에 사월마을회관이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사월마을회관은 새 건물이었다. 머릿돌을 보니 2019년 준공일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집들은 어디 있는 거지? 마을회관을 중심으로 위, 아래, 좌, 우로 난 길로 뛰어다니며 집을 찾았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것은 공장뿐이었다.



| 사월마을 가는 길



| 사월 마을회관

필자가 사월마을을 알게 된 것은 환경관련 기사를 보면서이다. 왕길동과 오류동의 경계에는 수도권매립지가 있다. 수도권매립지는 오류동에 속해 있지만 오류왕길동이라 불릴 정도로 오류동과 왕길동을 사실상 한 지역으로 봐도 무방한 면이 있다. 오류동에는 수도권매립지 근처에 산업단지가 있어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를 둔 반면 사월마을은 지도로 보기에 또 직접 가서 봤을 때도 수도권매립지 및 기타 공장들과 인접해있었다.

사월마을 관련 기사를 검색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췌가루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을 곳곳에서 췌가루가 검출되었다는 건데, 그 이유가 수도권매립지가 생긴 뒤 인접한 사월마을에 폐기물처리업체와 관련 공장들이 들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사월마을은 정부에 건강영향평가를 청원하고 조사 중이라고 했다.

필자가 사월마을의 마을회관 앞에 섰을 때 순간, 여기가 마을인가? 하며 조금 의아해했던 느낌이 떠올랐다. 앞서 말한 대로 마을회관 가까이에는 민가보다 공장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가장 최근 기사에는 매립지 주변 환경피해 해결 목적으로 특별회계 예산 2천 400억이나 되는 돈이 지급되었다는데 그 돈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며 한탄 섞인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요즘에야 간척지가 청라, 송도와 같은 신도시가 되고 인천에서 가장 비싼 집값을 자랑하는 동네가 되었지만 인천이 간척사업을 통해 얻은 초기 간척지는 일차적으로 공업용지로 수용되었다. 다시 말해 이 같은 공업용지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청라, 송도가 가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이유에서라도 희생을 감수했던 마을이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제대로 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보니 왕길동은 흥미로운 곳이기도 했다. 필자가 왕길동을 돌아다니며 길에서 만난 사람은 몇 없었지만 왕길동의 모든 특징, 공장과 묘지와 매립지 등이 결국 인간과 너무 가까이 닿아 있는 것들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 집 앞에는 없으면 하는 것들이 왕길동에 모여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것들 말이다. 그런데 사실 묘지는 왕길동만의 문제는 아니다. 인천 서구와 김포 지역에는 예부터 묘지가 많았고 그것은 다시 말해 죽은 자들이 편히 누울 수 있는 터이기도 했다는 의미다.

자연(지형)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업을 바꾸었고 바뀐 생업은 다시

마을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누군가는 삶의 터전을 잃었고, 누군가는 병을 얻기도 했으며 누군가는 새로운 삶의 터전을 꿈꾼다. 죽은 자도 역시.

공장이 있든 수도권매립지가 있든 묘지가 있든 결국 왕길동에도 사람이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 들어올 곳으로 변화하게 될 예정이다. 즉 지금보다 더 나아질 곳이 분명하기에 고민이 깊어지는 동네이기도 하다. 사람만이 값이 아님을 인정한다면, 또 정말 사람을 위한 제안과 지금 왕길동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조금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지만 기대 섞인 생각을 해본다.

어느 풍류객의 바람처럼 덕이 있고 풍요로운 생활이 가능한 왕길동의 미래를 그려본다. 왕길동이란 이름을 지어준 어느 풍류객의 예언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겠다.

5) 당하동 반가운 소식이 오가는 동네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아, 오랜만이네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지내요.”

안부를 묻고 답하는 소리는 언제 들어도 반갑다. 요즘은 SNS 사용이 일반화되어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과 인사를 주고받기 간편하다. 게다가 누구나 와서 볼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도 있어서, 본인이 먼저 자신의 소식을 알리기도 한다. 여행, 외식, 쇼핑 등 일상을 실시간으로 사람들과 공유한다. 휴대전화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친구와도 지구 밖의 우주인과도 소통할 수 있다.

통신 기술은 그야말로 눈부시게 발전해 과거의 전화, 전보, 편지 등의 통신 수단 사용은 상상하기 어렵다. 옛날에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이의 수고가 있었을까, 또 그리운 이의 안부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웠을까 싶다. 과연 그러한 것이 필자에게는 가끔 손편지를 주고받는 친구가 있어서 종종 그 기분을 느낄 수 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하는 기분이란. 여러 말을 다듬고 골라서 쓴 답장을 빨간 우체통에 달각하고 넣는 순간이란. 단 한 줄 메시지여도 여러 장 편지글이어도 보내는 이와 받는 이의 마음은 전해지기 마련이다.

당하초등학교 3학년 5반에서 온 전화

올봄에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당하초등학교 하송화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인천 서구에서 새롭게 지정 예정인 문화재가 있는지 묻고는 인천 서구 문화유산과 관련된 자료를 찾았다. 아무래도 향토문화연구소이다 보니 서구와 관련된 역사나 문화재, 지명유래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특히 새 학기인 3~5월에

는 초등학교 3·4학년 선생님이나 학부모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이 시기에 우리 고장에 대해 알아보는 단원을 배우기 때문이다.

선생님 역시 수업 자료를 찾다가 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지를 알게 되었다고 했다. 그간 출간된 향토지 가운데 도움이 될만한 책을 추리고, 개인적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관리되었으면 하는 축꽃봉수에 대한 설명도 포함해서 답변을 보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회신이 왔는데, 프로젝트 수업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었다. 처음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녹음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의는 끝에 수업 당일 전화를 연결해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실시간 연결이니만큼 대본을 준비하고 몇 번의 연습을 통해 통화를 마쳤다.

통화 중에 들린 3학년 5반 아이들 반응으로 보아서는 꽤 성공적이었다. 인터뷰를 마치고 전화를 끊으려는데 아이들이 큰소리로 사랑한다고 외쳐서 요즘 말로 ‘심쿵’했다. 이후로도 여운이 남았었는데 여름이 시작될 즈음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전화와 전자우편으로만 소식을 전하다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려니 괜히 설레었다. 첫 만남 같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서로에게 고마움과 응원을 보내며 헤어졌다.

당시 본고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 발간 준비 중이었는데, 선생님과 의 인연을 살리면 좋은 글감이 될 것 같았다. 게다가 V-2. 우리 동네 이야기에서 당하동 원고를 맡게 되어서 더욱 필연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필자가 질문할 기회가 생긴 것이다. 선생님 역시 취재를 흔쾌히 승낙해주어 여름방학이 한창일 때 당하초등학교를 찾았다.

여름방학 중이라 학생들은 볼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교문에 들어서니 몇몇 아이들이 있었다. 요즘에는 방학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학생들이 오간단다. 필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땐 방학 기간에는 소집일을 제외하고는 학교에 가지 않았다. 소집일이 다가오면 같은

반 친구에게 전화해서 날짜와 시간을 몇 번이나 확인했었다. 당일에도 텅 빈 운동장을 보고는 멍칫해서 교문 앞에서 망설이곤 했었다.

기억을 뒤로하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한 5학년쯤 되어 보이는 친구가 “안녕하세요!” 꾸벅 인사를 했다. 순간 놀랐다가 곧 “네, 안녕하세요.”라고 답했다. 큰 목소리의 씩씩한 인사에 두 번째 ‘심쿵’을 당했다. 아마도 학교 안에서 만나는 사람(어른)에게 인사를 건네는 모양이다. 학교 선생님이나 눈에 익은 사람도 아닐 텐데 어색한 기색도 없이 낯선 이에게도 밝게 인사를 건네는 친구가 참 예뻐다.

곧 3학년 5반 교실에서 하송화 선생님을 다시 만났다. 취재를 진행하다 보니 선생님은 인천 검단과의 인연이 깊었다. 선생님은 서울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평으로 이사 온 뒤, 중학교 1학년 때 당시 김포시 검단면 마전리로 이사를 왔다. 검단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되어서도 인천 서구에서 교직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1999년에 신현초등학교로 처음 부임했으니 올해가 꼭 20년이 되는 해이다.

20년이라는 세월만큼 교육 환경과 방향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선생님 역시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왔다. 최근에는 언플러그드 컴퓨팅, 코딩, 과목 융합(스팀), 가상박물관 수업 등을 진행했다. 몇 해 전에는 대학원에 진학해 공부한 내용을 실전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프로젝트 수업 역시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시작되었다. 수업은 아이들이 직접 서구에서 새로운 문화유산을 찾아보는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을 익히고 인천 서구의 지정 문화재를 공부한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추천한 문화유산을 투표를 통해 최종 6개로 추려서 제비뽑기를 통해 각 모둠에 나눈다. 모둠별로 선생님 또는 부모님과 함께 담당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사진 촬영과 자료 수집을 진행한다. 이렇게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발표하고 나아가 홍보 활동까지 진행하는 것이다.



| 당하초등학교 3학년 5반 친구들



| 문화유산 프로젝트 발표자료



| 우리 고장의 이야기

3학년 5반 아이들이 선정한 인천 서구의 새로운 문화유산은 ‘아시아드 경기장, 아라뱃길, 검단선사박물관, 드림파크, 당하산, 당하초등학교’이다. 일반적으로 성인이 생각하는 문화유산과는 거리가 있지만, 아이들이 만든 발표자료를 본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품보드에 만든 발표자료에는 문화유산별로 주제가 달려 있다. ‘아시안게임의 역사가 담긴 아시아드 경기장, 천년의 약속이 흐르는 아라뱃길, 유물이 가득한 검단선사박물관, 재생에너지로 되살아난 드림파크, 자연과 문화유산이 숨 쉬는 당하산, 희망이 있는 당하초등학교’이다.

특별한 점은 본인이 맡은 문화유산이 왜 서구의 새로운 문화유산이 되어야 하는지를 친구들에게 설득했다는 점이다. 선생님 설명으로는 “발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가 왜 만들었고 내가 찾은 문화유산의 특징은 무엇이고, 친구들이 납득할 만한(이유를 설

명하고), 친구들이 서구민의 대표다. 친구들을 설득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다.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려면 이 동네를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라고 말이다.

지역에서 진행하는 문화사업의 목표에는 ‘애향심 고취’가 자주 등장한다. 주민들의 참여와 호응의 정도 등을 바탕으로 그 성패를 가늠하곤 한다. 과연 ‘애향심’이라는 것을 지표로 가늠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말이다. 하지만 이번 당하초등학교 3학년 5반의 ‘서구의 새로운 문화유산 찾기 수업’은 그 목표를 충분히 달성했고 과정 또한 훌륭했다고 감히 평하고 싶다. 프로젝트 수업을 마치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메달을 만들어서 하나씩 걸어주었다고 했다. 메달에는 서구 마스코트인 ‘서동이’가 엄지를 척 세우고 있는데, 나도 3학년 5반 친구들에게 양손 엄지를 세워 “친구들 최고예요!”라고 전하고 싶다.

임금님이 내려주신 답변

민원(民願)이라는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편이다. 사전적인 뜻은 주민이 행정 기관에 대해 원하는 바를 요구하는 일이지만 현장에서 듣는 주민의 목소리가 항상 부드럽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 조선 시대에는 ‘상서(上書)’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다. 상서는 조선 시대의 민원서로 청원이 있을 때 관아에 내던 소지(所志)의 일종이다. 관찰사·수령 등에게 올리고, 그 내용은 효행과 같은 행실이 훌륭한 사람에게 정려(旌閭)를 내려달라는 청원과 못자리 등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해 달라는 청원이 주를 이룬다.

여기서 ‘정려(旌閭)’는 충신, 효자, 열녀 등을 그 동네에 정문(旌門)을 세워 표창하던 일을 말한다. 이는 양반에게는 가문의 영광이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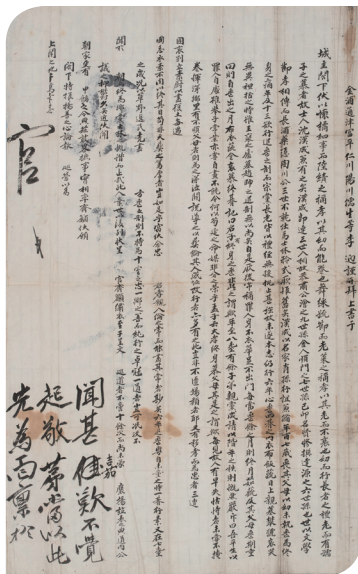
며 노비에게는 면천할 수 있는 신분 상승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리고 동네의 자랑으로 오래도록 남기도 한다. 인천 검단 당하동 광명 마을에도 효자 정려가 전해져온다. 바로 청송심씨 문중의 심한성(沈漢成; 1653~1738)에게 내려진 효자 정려이다.

심한성은 영의정을 지낸 공숙공(恭肅公) 심희(沈澮)의 9세손으로 병절교위(秉節校尉; 종6품 하계 무신)를 지냈다. 그의 효행이 지극해 김포, 통진, 부평, 인천 등지의 유생들과 마을 사람들이 여러 번 상서를 올려 효자 정려를 청원했다. 그 가운데 풍운회(風雲會)의 이름으로 김포군수에게 올린 상서가 있다.

풍운회 상서에서 심한성이 효자 정려를 받기에 합당한 인물임을 강조하는 효행들이 기술되었다. 상서에 따르면 그는 일곱 살 때 부모님을 잃었는데 당시에 너무 어려서 예절에 맞게 상주 노릇을 하지 못한 것을 평생 한으로 여겼다. 13세가 되어서는 6년 동안 추상(追喪)했고 베옷을 입고 나물만 먹으면서 매일 부모님 산소에 가서 애처롭게 곡을 했다. 장성해서도 부모님의 상례에 극진했으며 고을의 선량한 선비로서도 그 행실이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특히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 번 관(官)에 글을 올리고 수의사또에게 함께 호소했으며 관찰사에게 글을 올린 것이 십여 차례입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상서가 여러 번 올려졌음을 알 수 있다.

보통 이러한 상서를 접수한 관찰사나 수령은 이를 검토하고 그 처분을 문서의 좌편 하단 등의 여백에 써놓는다. 이것을 제음(題音) 또는 제사(題辭)라 한다. 그리고 상서를 올린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 풍운회상서에서도 역시 관에서 내린 제음이 적혀있는데, “듣고 보니 매우 가상해 감탄할 따름이며 나도 모르게 존경심이 생긴다. 이번에 마땅히 이 일을 먼저 직접 아뢰겠다.”라고 했다.



품은회 상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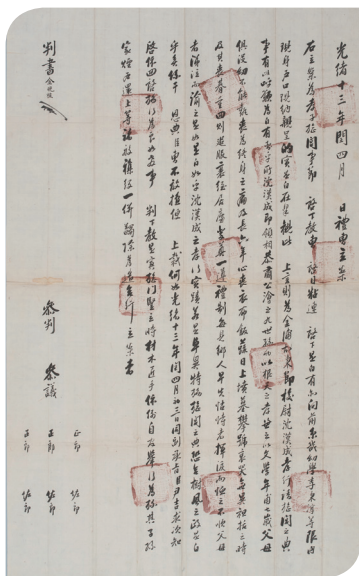
상서를 올린 사람들의 마음이 통했는지 1887년(고종 24)에 효자 정려가 내려졌고 당시 예조(禮曹)에서 내린 입안(立案)이 함께 전해진다. 입안은 조선 시대 관아에서 개인의 청원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인증해 주기 위해 발급한 문서이다. 따라서 예조 입안은 효자 정려를 청원한 상서에 대한 답변서라고 할 수 있다.

예조 입안에는 임금께 심한성의 효행을 정려하는 은전(恩典)을 베풀어주시기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리고 “은전에 관한 일은 예조에서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 성상(聖上)께서 재결해 주심이 어떠하겠습니까?”라고 아뢰었다. ‘성상(聖上)’은 임금을 높여 부르는 말로, 당시 임금이었던 고종을 말한다. 당시 효자 정려를 위해서 임금의 허락이 필요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조선 시대 정려 대상자는 문려(門閭)를 세워서 널리 알리고 그 집안의 요역을 면제해 주었다. 입안에서 “성상께서 회계(回啓)대

로 시행하라 재가하셨기에, 정문(旌門)을 세울 때 필요한 목재와 목수에 관한 일은 전례대로 관(官)에서 거행할 것이며, 그 자손 집안의 환곡과 제반 잡역은 모두 면제하도록 입안합니다.”라고 했다. 심한 성 역시 정문이 세워지고 그 자손들은 환곡과 제반 잡역에서 면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효자 정려를 청원한 상서와 예조 입안, 그리고 정려각 안에 있던 현판이 함께 전해진다. 청송심씨 후손인 심오섭님이 인천서구문화원에 기탁해 주셔서 문화원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렇게 상서와 입안, 현판까지 함께 전하는 예는 매우 드물다. 특히 검단을 비롯한 주변 지역 유생들이 작성한 상서와 예조에서 작성한 입안은 당대 사회상을 연구할 수 있는 귀한 자료이다. 지난 2018년에는 검단선사박물관 개관 10주년 기념 특별전 「그래서, 검단」에서 상서와 예조 입안이 전시되어 많은 시민에게 소개되기도 했다.



예조입안



「그래서, 검단」 전시

비가 갠 뒤 밝아오는 아침

‘당하(堂下)’는 당(堂)이 있는 마을인 원당(元堂) 아래에 위치해 붙은 이름이라고 전한다. 그리고 광명마을은 제림산에서 비가 갠 뒤 마을을 바라보면 아침 햇살이 유난히 밝아 ‘광명(光明)’이라 불렀다는 설이 전해진다. 이밖에도 ‘괭맹이, 광메이, 텃골’ 등으로 불렸다.

밝고 환한 이름답게 광명마을에는 동내를 빛낸 인물이 많다. 앞서 소개한 효자 정려를 받은 심한성과 함께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심영택(沈永澤; 1869~1949)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1920년 이규승·장응규·여준현 등과 서울 경신학교에서 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다.

주비단은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해 만들어진 비밀결사단체로, 독립군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에 지원하고 독립을 위한 선전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21년 일제 경찰에 의해 서울 주비단원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심영택을 비롯한 단원들은 주비단과의 관련 사실을 계획적으로 부인했다. 일제의 고문에 의한 허위 진술이었다고 주장하는 등 일제의 강압에 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을 심영택이 일제 경찰에게 신문(訊問)을 받을 때 작성한 조서(調書)를 통해 자세히 살필 수 있다. 심영택 신문조서 국역본은 국사편찬위원회의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피고인 심영택(沈永澤)

위 피고인에 대한 대정 8년 제령 제7호 위반 등 사건에 대하여 대정 10년 10월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예심계 조선총독부 판사 영도웅장(永島雄藏)

조선총독부 재판소 서기 전산십태랑(殿山十太郎)

열석하여 예심판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신문하다.

문) 성명, 연령, 신분, 직업, 주소, 본적지 및 출생지를 말하라.

답) 성명은 심영택.

연령은 53세(음력 8월 2일생).

신분은 —.

직업은 농업.

주소는 김포군 검단면 당하리 351번지.

본적지는 주소와 같음.

출생지는 전 동소. ... (중략) ...

문) 피고는 대정 9년 음 6월 말경 이민식(李敏軾) 집에 가서 동인 및 안鍾운(安鍾雲), 신석환(申奭煥), 이규승(李奎承), 김성진(金聲鎭) 등과 회합하고,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상해임시정부를 원조하기 위해서 주비단이라고 칭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군자금 모집하여 임시정부에 송금하려고 하는 의논에 참여했다는 것인데 어떤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이민식 집에 간 일도 없다.

문) 이민식은 자택에서는 상담하는 데 형편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경신학교 교정 버드나무 밑에 자리를 마련하고 의논을 한 결과 피고는 사령장, 안종운은 부사령장, 이민식은 참모장, 장응규는 교통장, 이규승은 서기가 되었다는 것인데 어떤가.

답) 그러한 일은 없다. 묻는 바와 같은 장소에 간 일은 없다.

문) 검사에 대해서는 피고는 명망이 있는 사람이므로 사령장이 되어달라고 하였으나, 자기는 거절하였다고 말하고 있지 않은가.

답) 그러한 말을 한 일은 없다. 검사로부터 주비단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였더니, 단(團)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 하고 물으므로 모른다고 대답해 두었다. 또한 검사가 이민식으로부터 그러한 일에 대해서 찬성토록 요구받은 일이 있었지 하고 물으므로, 동인이 용무가 있으니 오라고 하였으나 자기는 병중이었으므로 가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대답해 두었다. ... (하략) ...

이처럼 그는 주비단 단장을 맡아 주모자 격으로 의심을 받았지만 다른 단원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일관되게 사실관계를 부인해, 1922년 4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규승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조사 당시 53세였으므로 적지 않은 나이였다. 이후 일제 경찰의 감시와 탄압으로 서울 주비단 조직은 와해되었다. 이후 심영택은 임시정부가 발간하는 『독립신문』의 연길 지국장을 맡기도 했으며 해방 이후 1945년에 조직된 광복회에도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다행히 광복의 기쁨을 맞이했다. 어두운 하늘은 밝게 개고 새 아침이 열렸다. 아마도 조국의 해방 소식은 그 어떤 소식보다도 반가웠을 것이다. 잃었던 빛을 다시 찾은 날의 기억을 과연 잊을 수 있을까. ‘광명’이라는 마을 이름처럼 비 온 뒤 맑게 갠 아침처럼 밝은 날이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6) 원당동 향토자산의 보고

예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에는 여러 유력 문중들이 대를 이어 거주했다. 이른바 명문가로 일컫는 문중들은 서구 향토사의 일면을 장식했다. 1970년대 들어 도시 개발의 여파로 다른 지역의 문중들이 서구로 유입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서구가 대단위로 개발되면서 서구의 문중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문중의 묘역이 남아 있어 서구의 옛 명문가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좋은 향토자산이 되고 있다. 문중의 묘역은 인물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비문이 있고, 조성 당시 묘제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다. 또한 당대의 석물들은 미술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원데이’라 불렸던 원당동에는 조선시대부터 풍산김씨(豊山金氏)와 의령남씨(宜寧南氏) 문중이 세거했다. 도시 개발의 여파에도 다행히 두 문중 묘역이 서구 관내에 남아 있다. 풍산김씨 묘역에는 조선 후기 문신 김안정(金安鼎)의 묘가, 의령남씨 묘역에는 조선 후기 무신 남정화(南挺華)를 비롯한 남정(南澣), 남두장(南斗長) 등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이 두 가문에 대해서는 서구 향토사에서 여러 차례 조명되어 왔다. 가문의 시조와 서구에 입향(入鄕)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가문에서 배출한 인재들과 그들의 무덤에 대한 기록들을 정리하는 연구가 수차례 진행되었다. 이같이 향토사의 조각을 찾는 작업들로 인해 서구 향토사는 풍요로워지고 있다.

고산후 풍산김씨 중시조 김안정 묘

원당동은 아파트단지의 개발로 옛 모습이 많이 변했다. 예로부터 옥계봉(玉階峰)에서 송우산(悚愚山)에 이르는 산줄기를 ‘고산(高山)’이라고 했는데, ‘고산하(高山下)’와 ‘고산후(高山後)’로 구분했다. 고산하는 고산의 아래를 말하고, 고산후는 고산의 뒤를 말한다.

그중에서 고산후에는 김안정 묘가 조성되어 있다. 2009년 조사에 따르면, “고산후에 고려조 풍산백(豊山伯) 김문적(金文迪)의 5대손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좌윤(三司左尹) 김안정(金安鼎) 공의 묘역 외 100여기의 풍산김씨 묘가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서 도시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대부분 이장되고 김안정 묘와 일부 묘 5기만 남아있다”¹⁾라고 했다. 여기서 언급한 ‘일부 묘 5기’는 현재 김안정 묘 하단에 있는 묘들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풍산김씨 문중의 묘라고는 짐작이 되지만 누구의 묘인지 알 수 없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봉분이 깎여 있어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도 묘라고 인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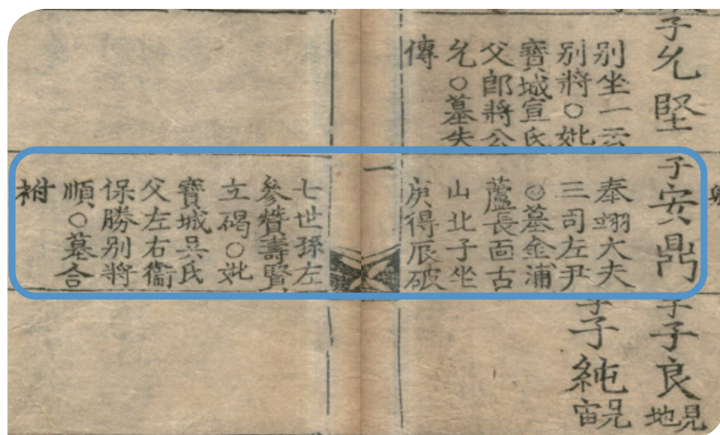


풍산김씨 세계표

1) 박한준, 2009년, 『검단의 역사와 문화』, 인천서구향토문화연구소, 141~142쪽.
이 책에는 5대손으로 나와있으나 7대손이 맞다.

풍산김씨는 조선시대 원당동에 터를 잡았다. 풍산김씨는 고려시대 판상사(判相事)를 역임한 김문적(金文迪)을 시조로 한다. 김문적은 신라 경순왕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11세 손으로, 고려시대 좌리공신(佐理功臣)에 책록되고 풍산백(豊山伯)에 봉해졌다. 이후 후손들이 본관을 풍산으로 했다. 풍산은 지금의 경상북도 안동시이다.

고려 후기 문신 김안정(金安鼎; 생몰년 미상)은 풍산백 김문적의 7대손이다. 김안정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증조부는 보승랑장(保勝郎將)을 지낸 김연성(金鍊成)이고, 조부는 지숙천군사(知肅川郡事)를 지낸 김합(金盒)이다. 아버지는 별좌(別坐)를 지낸 김윤견(金允堅)이고 어머니는 낭장(郎將)을 지낸 선공윤(宣公允)의 딸 보성선씨이다. 김안정은 좌우위보승별장(左右衛保勝別將)을 지낸 오순(吳順)의 딸 보성오씨와 혼인해 슬하에 장남 김자량(金子良), 차남 김자순(金子純)을 두었다.



『풍산김씨 세보(1782년)』 중 김안정 부분

『풍산김씨 세보(1782년)』를 보면, 김안정이 봉익대부(奉翊大夫) 삼사좌윤(三司左尹)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세보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그는 사후에 이조판서로 증직되었다. 세보에는 그의 묘가 김포 노장면(蘆長面) 고산(高山) 북쪽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 묘는 이북에 위치한 것으로 전해진다. 개성 인근에 조성되었던 묘가 실전(失傳)되어, 세보에 기재된 것처럼 후손들이 김포 노장면 고산에 묘를 조성했다. 그런데 이 묘는 시신이 안치된 묘가 아닌 의관(衣冠) 묘²⁾라고 전해진다. 김포 노장면은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에 해당하며, 당시 조성한 의관 묘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것이다.

서구 원당동에 김안정의 묘가 새로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은 원당동에 입향한 후손들이 김안정을 중시조(中始祖)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아들 김자순(金子純)은 군기시 직장, 통례원 좌통례를 역임하고 일파를 이루었는데, 김자순의 손자인 김인손(金麟孫)이 풍산김씨 원당동 입향조로 지칭되고 있다.

입향조 김인손 이래 풍산김씨는 원당동에 세거하며 지역의 명문가로 거듭났다. 김자순의 증손 김양진(金楊震)은 문과에 급제해 벼슬이 부제학(副提學)이었으며, 청백리(淸白吏)에 뽑혔다. 김양진의 현손 김영조(金榮祖)는 문과에 급제해 벼슬이 이조참판(吏曹參判)이었으며, 향사에 배향되었다. 김영조의 아우 김응조(金應祖)도 벼슬이 우윤(右尹)이었으며, 서원에 배향되었다. 김양진의 증손 김수현(金壽賢)은 벼슬이 참찬(參贊)·제학(提學)이었다. 그 중에서도 김안정의 7세손 참찬(參贊) 김수현은 김안정의 묘비를 세운 인물로 세보에 기재되어 있다.

2) 의관(衣冠) 묘는 시신 없이 의복과 갓을 묻는 무덤을 말한다. 개성에 있던 김안정 묘가 실전되어 후손들이 김안정을 기릴 수 있도록 시신 없는 묘를 조성한 것이다.



| 김안정 묘 전경



| 김안정 묘비(1634년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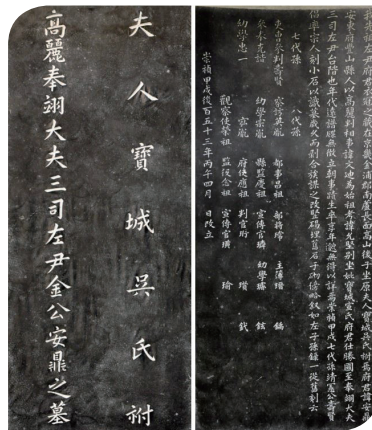
| 김안정 묘비(1786년 건립)

2015년 서구문화원의 조사³⁾에 따르면, 조사 당시 김안정의 묘는 부인 보성오씨와 합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묘비, 혼유석, 상석, 향로석, 망주석, 문인석이 있었고, 현재까지 큰 변화는 없다.

3)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85~294쪽.

묘비는 1634년 건립한 것과 1786년 건립한 것이 있다. 1634년 세운 묘비는 김안정의 7세손 김수현을 비롯해 7세손과 8세손들이 세운 것으로 비문이 마멸되어 장대석(長臺石) 옆에 묻고, 1786년 새로 세운 묘비를 세운 것이다. 2003년 묘역 인근에서 1634년 세웠던 묘비가 출토되어 김안정의 봉분 앞에 보호각을 씌우고 다시 세웠다. 이 묘비는 그 가치를 인정 받아 ‘김안정 묘 및 출토묘비’라는 이름으로 2004년 4월 6일,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 57호로 지정되었다.

1786년 세운 묘비는 봉분의 오른쪽에 봉분 방향을 보고 세워졌다. 금석문의 내용은 1634년 세운 묘비의 내용을 그대로 따르되, 새로 건립하게 된 연유를 부기했다.



| 1786년 건립 묘비 탁본(좌: 전면, 우: 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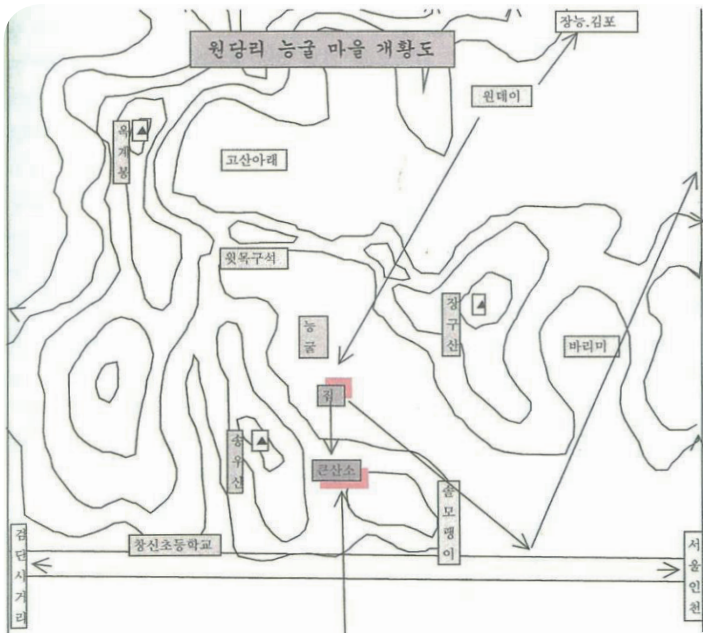
능굴 ‘큰 산소’ 의령남씨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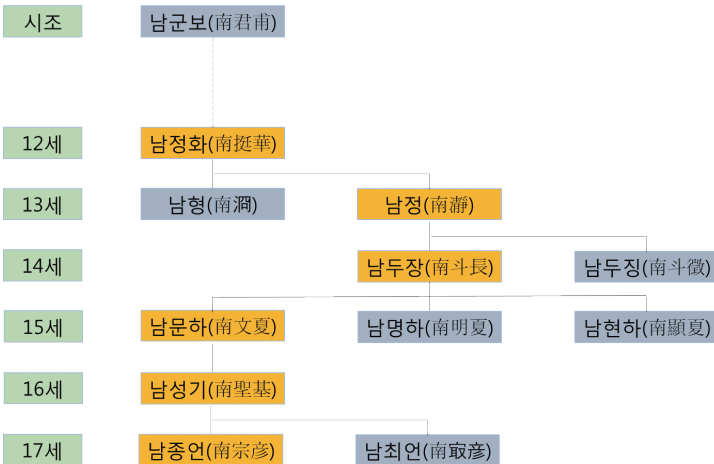
| 의령남씨 묘역 전경

원당동에는 능굴이라고 부르는 옛 지명이 있다. 능굴은 능이 있는 고을이라는 뜻의 ‘능굴’이 후에 바뀐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능굴, 능굴이라는 지명은 원당동만의 특별한 지명은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다. 원칙상으로 능(陵)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무덤을 의미하지만 각 지역별로 왕릉이 있었을 리는 만무하고, 커다란 규모의 무덤을 능이라 인식하곤 했다. 원당동 능굴 서북쪽을 윗목구석이라 부르는데 이곳을 태릉(胎陵)이라 불렀다고 전한다. 따라서 태릉이 있는 마을이라는 뜻에서 능굴이라 부르던 것이 능굴로 바뀐 듯하다.

능굴에는 의령남씨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의령남씨 묘역에 대해서는 향토사적 접근이 수차례 이루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의령남씨 문중에서 자체적으로 출간한 서적이다. 『큰 산소의 어제와 오늘』(2009년 초판, 2010년 증보, 2015년 증보 수정)이라는 제목으로 ‘의령남씨 한성부 서운 두장공계 문중 약사’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능굴에 자리한 의령남씨 문중과 묘역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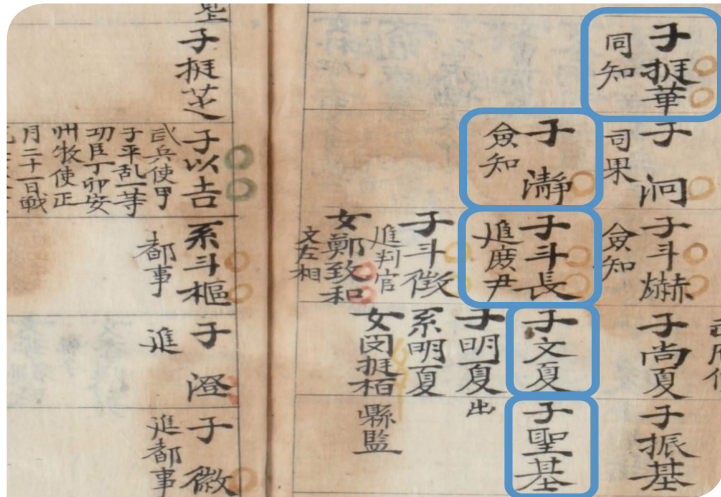


능골 마을 개황도(『큰산소의 어제와 오늘』, 2015, 135쪽)



의령남씨 세계표

의령남씨는 고려시대 통헌대부(通憲大夫) 추밀원직부사(樞密院直副使) 남군보(南君甫)를 시조로 한다. 남군보는 신라 경덕왕 때 남씨로 사성 받은 남민(南敏)의 후손으로, 고려 충렬왕 때 공을 세워 의령군(宜寧君)에 봉해졌다.



『만가보』 중 의령남씨 부분



남종언 묘 오른쪽에 세워진 원당리 입향조 표지석

능굴의 의령남씨는 한성부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 권정승계(權政丞契)에 거주하던 17세손 남종언(南宗彦)이 1747년경에 김포군 노장면 능동리(凌洞里)로 이주한 것으로 전한다. 그 이후로 누대에 걸쳐 능굴에서 세거하면서 집 남쪽에 묘역을 조성했다. 의령남씨 묘역은 원당에서 가장 높은 산인 옥계봉에서 송우산과 장구산에 이르는 양지 바른 산줄기에 위치한다. 2015년 서구문화원의 조사⁴⁾에 따르면, 조사 당시 묘역에는 남정화(南挺華), 남정(南澮), 남두장(南斗長), 남문하(南文夏), 남성기(南聖基), 남종언(南宗彦) 등의 묘가 조성되어 있다.

능굴에 세거한 의령남씨 부정공파 두장공계 문중에서는 이곳 묘역을 ‘큰 산소’라 부른다. 이곳에는 12세손 남정화, 13세손 남정, 14세손 남두장, 15세손 남문하, 16세손 남성기, 17세손 남종언 등의 묘가 500평 정도의 공간에 조성되어 있다. 이곳에 처음 묘가 조성된 것은 남정 사후(1648년)부터이며, 이후 세거하면서 묘역이 조성되었다. 그러다가 1970년 남정의 아버지 남정화 묘를 이전해 왔다. 이 중에서 남두장의 묘가 제일 크고 중앙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수가에 의하면 명당 자리라고 한다.⁵⁾



| 남정화 묘 전경

4)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295~323쪽.

5) 남기명 편저, 2015, 『큰 산소의 여제와 오늘』, 3쪽.

이 묘역에서 가장 선조라 할 수 있는 남정화(1543~1615)는 조선 후기의 무신이다. 아버지는 군수(郡守) 남응로(南應老)다. 군수 임의신(任毅臣)의 딸 숙부인(淑夫人) 풍천임씨(豐川任氏)와 혼인해 슬하에 장남 남형(南澗)을 두었고, 증영의정(贈領議政) 김오(金禔)의 딸 숙부인 연안김씨(延安金氏)와 혼인해 슬하에 차남 남정(南澮)과 2녀를 두었다.

남정화의 묘는 원래 현재의 위치에 조성된 것은 아니었다. 1615년 광주군(廣州郡) 중부면(中部面) 탄리(炭里)에 조성되었다가 1970년 능굴로 이장했다. 이때 묘비와 석물들도 함께 옮겼다. 현재 남정화의 묘는 묘역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숙부인 풍천임씨, 연안김씨와의 단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옛 묘비와 새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 탁본 작업이 진행 중인 남정화 묘비

옛 묘비는 1679년 건립한 것으로, 당대 문장가였던 승록대부 행병조판서 겸 홍문관 예문관 대제학 김석주(金錫胄)가 지었고, 보국승록대부 행판돈녕부사 겸 판의금부사 이정영(李正英)이 썼다.

의령남씨 문중 묘 중 능굴에 가장 먼저 조성된 묘는 조선 후기의 무신 남정(1586~1648)의 묘다. 남정의 자(字)는 여청(汝淸), 호는 곡(谷)이다. 아버지는 남정화, 어머니는 숙부인 연안김씨다. 남정은 참봉(參奉) 정민수(鄭民秀)의 딸 숙부인 광산정씨(光山鄭氏)와 혼인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남두장(南斗長), 차남은 남두징(南斗徵)이다.

남정은 사산감역(四山監役), 장예원사평(掌隸院司評), 비안현감(比安縣監)을 지냈다. 인조반정 후 전생서주부(典牲署主簿)를 거쳐 홍천현감(洪川縣監), 한산군수(韓山郡守) 겸오위장(兼五衛將)을 지냈다. 사후에 첨지중추부사(僉知中樞府事) 겸지의금부사(兼知義禁府事)로 추증되었다.

현재 남정의 묘는 묘역 좌측에 위치하고 있다. 남두장이 작성한 가장(家狀)을 보면 이곳의 위치를 ‘김포군 노장리 자좌지원(子坐之原)에 있는데, 장릉(章陵)에서 남쪽으로 23리 거리다.’라고 했다. 봉분은 숙부인 광산정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갈과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묘비는 1674년 건립한 것으로, 숙종 때 문신 김수항(金壽恒)이 짓고, 글씨가 뛰어났던 청평위(靑平尉) 심익현(沈益顯)이 썼다. 묘비의 이수 부분에 구름 같은 문양이 새겨진 것이 특징이다.



| 남정 묘 전경



| 남정 묘비



남두장 묘 전경

남두장은 조선 후기의 문신이다. 아버지는 남정, 어머니는 숙부인 광주정씨다. 남두장은 증판서(贈判書) 이희민(李希閔)의 딸 증숙부인(贈淑夫人) 연안이씨(延安李氏)와 혼인해 슬하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장남은 남문하(南文夏), 차남은 남명하(南明夏), 삼남은 남현하(南顯夏)다.

1650년 진사(進士)가 되어 1652년 전설사별검(典設司別檢)에 제수되었다가 제용감직장(濟用監直長), 장악원주부(掌樂院主簿), 장례원사평(掌隸院司評) 등을 역임했다. 그 후 의령현감(宜寧縣監), 의금부도사(義禁府都事), 석성현감(石城縣監), 익위사사어(翊衛司司禦), 평강현감(平康縣監), 온양군수(溫陽郡守)를 거쳐 종묘서영(宗廟署令), 공조정랑(工曹正郎), 한성부서윤(漢城府庶尹), 광흥창수(廣興倉守)를 지냈다. 의령현감과 온양군수로 있을 적에 어사(御史)가 남두장의 선정(善政)을 포상하도록 계문하기도 했다. 후에 승정원좌승지(承政院左承旨) 겸경연참찬관(兼經筵參贊官)에 추증되었다.

현재 남두장의 묘는 묘역 우측에 위치하고 있다. 봉분은 증숙부인 연안이씨와의 단분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묘비, 혼유석, 상석과 향로석, 문인석 1쌍, 망주석 1쌍이 있다. 연안이씨는 남두장보다 5년 먼

저 별세해 원당동 선영에서 장례를 지냈다가 남두장이 별세하자 묘를 합했다.

1701년 건립된 남두장 묘비는 숙종 때 영의정이었던 당대의 문장이 남구만(南九萬)이 짓고 글씨도 써서 문장과 글씨 또한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된다.



남두장 묘비 탁본

2009년 5월, 남정화, 남정, 남두장 세 기의 묘는 인천광역시 보존묘지로 지정 고시되었다. 이어 2010년 4월, ‘의령남씨 종중 묘역’이라는 명칭으로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되었다. 기념물 지정 당시 조사 의견에 따르면, “남정화의 묘, 남정의 묘, 남두장의 묘 등 3기의 묘는 묘표, 묘갈,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 등 조선시대 후기의 석물이 보존되어 있어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 묘제 및 석조 미술품으로 보존되어야 하며 사대부 묘역이 문화재로서 보존된 예도 흔치 않아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해 보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라고 했다.

인천시 기념물 지정 때 문화재지정구역은 1,058㎡, 문화재영향검토구역은 20,589㎡로 고시되었다. 큰산소로 불리는 남정화, 남정, 남두장 묘역이 그 대상지였고 이곳에는 남두장의 아들 남문하(南文

夏), 남문하의 아들 남성기(南聖基), 남성기의 아들 남종언(南宗彦) 등의 묘도 있다.

한편 큰산소 묘역 이외에 있던 의령남씨 문중의 묘는 검단 신도시 건설 사업에 따라 부지가 수용되었다. 2011년, 사업 부지에 들어가 있던 주변 묘 14기를 개장(開禮)해 화장한 후, 큰산소 동남쪽에 묘역을 조성했다.⁶⁾



| 새로 조성한 의령남씨 집단 묘역(2011년 조성)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6) 새로 조성한 집단 묘역에 세운 ‘묘지 조성 경위’ 표지석과 『큰산소의 어제와 오늘』(165~168쪽 참고).

7) 불로동 차향^{茶香}을 품다

...(전략)...

봉함 뜯어 자용을 보기도 전에 / 未暇開緘見紫茸
 종이에 배인 향내 벌써 코를 찌르네 / 已覺透紙香熏鼻
 구리쇠 화룻가에 차의 운치가 행여 깎일까 염려되지만 / 銅灰雖恐損標格
 한창 타는 불로 끓이기를 손수 시험했네 / 活火煎烹手自試
 솔바람이 솥에 들어 쇠사하니 / 松風入鼎發飈飈
 듣기만 해도 마음과 귀를 맑게 하누나 / 聽之足可清心耳
 찻잔에 가득히 맛이 길으니 / 滿椀悠揚氣味濃
 마시자 시원하여 골수를 신선으로 바꾸는 듯 / 啜過爽然如換髓
 영남에 놀던 그때는 아직 동몽이어서 / 南遊昔時方童蒙
 차 마시는 깊은 취미 몰랐었더니 / 不識茗飲有深致
 이제 공의 선사를 받음으로써 / 今日因公輒賜龍
 옥천자와 같이 통령했소다 / 通靈也似玉川子

...(후략)...

차를 주신 박치암에게 사례하며謝朴恥庵惠茶 / 이연중李衍宗

『동문선東文選』 제7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양주동(역)

2018년 7월 25일, 검단신도시에서 900년 전의 고려청자가 출토되었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아주 온전한 상태로 출토된 청자 다기(茶器)세트는 차를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의 개발이나 분양을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관심거리가 되었다.

멀지 않은 과거인 1995년, 인천광역시가 출범하면서 김포군 소속의 검단면이 인천광역시 서구로 편입되었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상

태에서 행정구역의 경계가 이리저리 달라지다보니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조선, 고려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간 과거의 검단은 그 명칭이 어떻게 불리며 어느 행정구역에 속했는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목에서 교통의 요지 역할을 했을 것이다.

검단지역의 이러한 면모는 1990년대 말 전국적으로 불어온 국토 개발의 열풍 속 시작된 문화재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기 시작했다. 당시 인천의 대규모 택지 조성을 위해 이루어졌던 조사들을 통해서 다양한 고고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원당과 검단, 불로동 일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취락유적, 검단과 인접한 김포 양촌·운양동에서 확인된 원삼국시대 분묘 유적들은 이 지역이 좋은 입지를 바탕으로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집단의 생활권역이 되었음을 알려준다.

이번에 청자 다기세트가 출토되었다는 고려시대에는 어땠을까? 원당동·불로동 등지의 고려 건물지에서 확인된 ‘김포(金浦)’명 기와는 고려시대 김포현의 중심이 현재의 검단지역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찍부터 해로를 통한 무역에 뛰어난 활동을 보였던 고려 왕실 이기에, 강화만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길목의 검단지역은 해상교통의 거점 역할을 했을 것이다.



원당동 유적 출토 ‘김포’가 새겨진 기와편
©검단선사박물관

2003년, 정부가 서울의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2기 신도시를 건설할 것을 발표하면서 12개 지역 중 하나로 인천 서구 검단이 지정되었다. 대상부지 분석에 따라 택지개발지역으로 확정된 총면적 11.1㎢에 주택 74만 7천호를 공급하는 대규모 사업을 앞두고, 2013년부터 약 5년에 걸친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다. 지점별로 총 다섯 개의 기관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로, 불로동의 청자들은 호남문화재연구원에서 조사한 II구역에서 출토되었다.

고려청자가 출토되는 장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먼저 청자를 만들어내는(생산) 곳이다. 가마터에서 출토된 청자를 통해 우리는 당시 어떤 종류의 청자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검단과 가까운 경서동에 녹청자를 굽던 가마터가 있었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음은 만들어진 청자를 사용(소비)하던 곳이다. 이를 다시 나누어보면 첫 번째로는 궁지, 성지, 관청, 주거지를 비롯한 건물터, 두 번째는 삼국시대 이래 가장 중요한 차의 수요처였던 사찰, 마지막으로 무덤을 들 수 있다.

무덤에는 같은 시기의 유물들이 한곳에 일괄적으로 부장되므로 이를 통해 그 시대의 생활양식이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주로 왕릉, 귀족과 호족의 무덤이나 불교의 영향으로 인한 화장 등으로 석실묘, 석곽묘, 석관묘 등이 축조되었고, 민간의 호족과 부유층, 농민의 무덤으로는 토광묘가 사용되었다. 고려 무덤에서 출토되는 유물은 무덤주인의 신분적 위치와 성별 등에 차이가 있겠으나 크게 금속, 도자, 직물류, 철기, 동전 등으로 구성된다. 그 가운데 청자나 백자로 나타나는 그릇류는 완(碗), 발(鉢), 병(瓶), 호(壺), 접시 등이 주를 이루는데 이 같은 기종의 조합은 일상에서의 식생활 또는 다례(茶禮)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불로동의 청자 다기는 II-1지점 29호 석곽묘에서 출토되었는데, 찻물을 담던 발(대접)과, 잔, 잔받침(盞托), 접시, 주자(注子) 등이 하나의 세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구성은 다른 많은 무덤에서도 비슷하게 출토되었으며, 같은 무덤 내에 청자가 양질 혹은 조질로 구성되거나 혹은 구성의 일부가 도기, 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것은 있지만 같은 종류의 그릇이 다른 재질로 함께 부장되는 예는 드물다 한다. 이를 보면 지역적 특성이나 무덤 주인의 지위가 다를지라도, 구성상 최소한의 기본 갖춘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동반되는 유물들은 청자를 생산하던 가마터와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시대 일상 생활용품과 부장용품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다구(茶具)로 추정되는 완이나 발, 주자, 병 등은 함께 부장되는 그릇들에 비해 고급으로 제작된 것들이어서 차가 일상에서 중요한 것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불로동 II-29호 석곽묘
©호남문화재연구원



출토된 청자 다기 일괄
©호남문화재연구원

우리가 고려시대라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청자는 사실 차문화의 발달과 함께 성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고려시대 차문화의 중심 계층은 왕실과 승려, 문인이었다. 고려시대 차는 술과 더불어 나라에서 관리하던 품목으로 왕실로부터 일반에까지 보급이 이루어졌다. 궁중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있을 때마다 차를 마시는 진다

(進茶)의식이 행해졌으며 국제외교상의 예물로도 차가 이용되었다. 또한 차문화는 불교와 인연이 깊기 때문에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에는 차문화의 전성기였다. 경남의 화계와 밀양, 전남의 광양과 순천 등 주요한 차의 산지가 대부분 사찰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경내에 따로 다헌(茶軒)을 마련하거나 공양을 위해 인근에 차밭을 가꾸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차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도 개경에는 차를 파는 ‘다점(茶店)’이 생겨났고 차의 재배와 공급이 이루어지는 ‘다소(茶所)’도 존재했다. 왕실과 사찰의 각종 행사와 하사품으로 차가 활용되었는데 때로는 북송의 고급 차가 사용되기도 했다. 고려의 차시(茶詩)에는 평양부의 박금천(薄金川)에는 차물을 길어 가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하며, 차를 사려고 저자에 갔다는 기록도 보인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차가 일반화되었고 상업적으로 유통되기도 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의 기록들을 보면 왕이 신하와 백성 혹은 스님에게 차를 하사하거나, 반대로 왕에게 차를 올렸다는 기록이 자주 나온다. 특히 왕이 신하의 장례에 차를 보냈다는 기록이 자주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장례 절차에 차가 쓰이지 않았을까 추측된다.

차를 마시기 위해 중국은 물론 고려에서도 다구가 필요했고, 이 때 도자기로 만든 다구는 보온에 적합하고 그 색과 질감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즐길 수 있었으므로 애호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고려 이전에도 이미 중국으로부터 자기가 수입되어 차를 마실 때 애용되고 있었지만 고려초부터는 국내에서 백자와 더불어 청자가 다구로서 제작되었다. 단기간에 중국에 버금가는 자기 제작기술을 갖추게 된 것은 청자의 수요에 맞물려 생산활동 또한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다기에 관한 자료는 아직 많지 않지만 고급 청자를 이용한 차문화는 왕과 귀족이 주로 향유했던 문화로 사치품의 성격을 띠고 있다 볼 수 있다. 불로동의 청자 다기들은 매끄럽고 얇은 기벽을 가진, 아주 잘 만들어진 양질의 고급청자로 주로 관에 공급되던 가마터인 강진이나 부안과 같은 곳에서 생산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가까운 경서동에 청자를 만들어내던 가마터가 있었지만, 경서동에서 생산되었던 녹청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매끄러운 고려청자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처음에는 본격적인 청자가 만들어지기 전에 통일신라 질그릇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친 청자로, 이러한 녹청자가 점차 세련되어 본격적인 청자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초기적인 청자로서 그 성격을 규정해 흔히 도기에서 청자로 가는 과도기적 초기 청자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고려 초기부터 중기, 후기에 걸쳐 생활용의 막청자로서 널리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려말 문신인 송은 박익의 묘 벽화. 다례를 치르는 모습으로 추정
 ©동아대학교박물관

그렇다면 불로동의 청자는 고려시대 어느 시기 즈음에 만들어진 것일까?

고려청자는 그 형태와 문양에 따라 크게 세 단계로 시기를 나누어 추정해볼 수 있다. 전기 청자의 첫 번째 특징은 굽의 모양에 있다. 동그란 굽의 바닥에 닿는 면적이 넓게 돌아가는 모양이 해 둘레에 나타나는 빛과 닮았다 해 ‘해무리굽’이라 부른다. 또한 전기의 청자는 문양이 없는 회청색의 단정한 빛을 띠거나, 몸체에 선을 새겨 넣어 유약의 고임만으로 문양이 나타나는 음각 문양이 주를 이룬다.

중기의 청자는 새로운 형태의 기종이 추가되면서 종류가 다양해지고, 한편으로는 전체적인 색이 밝아지며 유약이 두꺼워지는 경향도 있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상감문양의 등장이라 할 수 있다. 음각으로 새겨 넣은 선에 백토나 흑토를 채워 넣은 방식으로 고려만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후기는 그릇의 모양이 단순화되고 품질이 떨어지며 퇴화하는 단계로 원의 간섭이 시작되는 13세기 후반부터 변화가 시작된다.



| 불로동 출토 자기 세트 ©호남문화재연구원

불로동의 청자는 단정한 회청색을 띠며 상감문양이 나타나지 않는 고려 전기의 것으로 보인다. 특기할만한 것은 무덤에서는 잘 출토되지 않는 참외모양 주자가 확인되었다는 것인데, 완과 발, 접시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종류보다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여준다.



충주 단월동 출토 참외모양 주자



태안 대섬 해저 출토 참외모양 주자

블로동 청자와 비슷한 기형의 주자들로 모두 11C말~12C전반기로 추정

11세기 말에서 12세기 전반까지의 참외모양 주자는 무게중심이 하단에 있는 타원형의 주자가 생산되고, 12세기 후반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동체의 모양이 점점 원형에 가깝고, 주름의 골이 얕아지거나, 나중에는 문양과 문양 사이 구획선의 기능만을 하는 것처럼 변하게 된다.

블로동의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조사단도 청자를 만든 흙(태토)과 기법으로 봤을 때 세트의 청자들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된다며 12세기 전반 청자를 많이 생산한 강진이나 부안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고려시대에는 무덤을 쓸 때 문무양반의 직급에 따라 조성원칙을 정했는데 1품부터 6품에 이르는 묘지의 규모를 품계에 따라 한정했다.¹⁾ 여기서 6품 이하는 모두 총길이 30보(步)에 높이 8척(尺)을 넘지 못하게 했는데, 현재 확인되는 고려시대의 무덤은 이 규정을 따른 결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신분이 낮거나 경제력이 미약한 사람들에게 대한 기록인데, 『고려사』의 기록에 따르면 굶어 죽은 사람들의 해골이 널려 있고 죽어도 묻지 않는 경우가 있어 구휼차원에서 관리에게 매장을 명하거나 중법으로 다스리는 일들이 있었다.

1) 『高麗史』 卷85 志39 刑法2 禁令條 景宗元年二月, 定文武兩班墓地. 一品, 方九十步, 二品, 八十步, 墳高, 並一丈六尺. 三品, 七十步, 高一丈, 四品, 六十步, 五品, 五十步, 六品以下, 並三十步, 高不過八尺.

이러한 자료는 하층민의 경우 무덤조성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려주며, 무덤을 쓰더라도 부장품들을 넣어주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발굴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석곽묘나 토광묘는 하층민을 대상으로 한 무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부장품으로서 도자기를 동반하는 경우는 그 무덤 주인은 적어도 일정한 신분을 갖고 있거나, 평민이라 하더라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이었을 것이라는 데 이견을 갖기 어렵다.

조사 현장을 찾은 도자사 전공의 장남원 이화여대박물관장 역시 청자들이 “12세기 전반 강진에서 만든 품질 좋은 비색청자로 시신을 안치하고 의례를 올린 뒤 묻었거나 부장품으로 넣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다. 액체를 담은 주전자나 병, 작은 잔이나 그릇, 접시나 받침은 고려시대 무덤에서 나오는 또한 보편적인 구성이라면서도, 참외모양 주전자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된 사례가 흔하지 않고 잔 받침은 신분이 높은 사람을 위한 의례에 주로 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미루어보면 이 무덤의 주인은 11세기 후반 혹은 늦어도 12세기 전반, 전국에서 청자를 두루 쓰던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생산지가 아닌 멀리 전남지역에서 고급 청자를 공급받을 만큼 사회적 지위 혹은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이 사람은 검단 지역사회에 작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다. 김포 및 검단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지방의 토호세력의 무덤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당시 차는 왕실의 대표적인 하사품으로 사용되었고, 연회와 의례에도 빠지지 않았다. 지금도 절에 가면 차를 내어주는 곳을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찰에서도 차가 중요한 매개체였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한편으로는 문인들도 개인의 수행이나 여가, 모임과 교류에 차를 즐기며 시를 읊었다. 글머리에 있던 고시의 저자 이연중(생몰년 미상)은 제왕운기의 저자로 유명한 이승휴의 아들로, 문과에 급제한

후 70이 넘는 나이까지 관직생활을 했다. 이 시는 그의 만년에 쓰인 것으로 바빠 살았던 벼슬길을 지나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기며 신선 의 기분을 느낀 것을 표현한 것이다.

문인으로서 예종의 총애를 받았던 곽여(郭與; 1058~1130)는 1116년 예종에게 차를 하사받고 시를 읊었다 하며,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은 송광사에서 보내준 차를 끓이며 그 향기와 맛을 음미 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규보와 이색은 차에 관한 시만 수십 편 에 달할 정도이다.

문인들이 차를 보내고 받을 때 주고받거나, 마시며 읊은 시들은 당시 음다 풍류의 극치였고 도락(道樂)이었다.

검단지역에 고고학적 흔적이 잘 남아있는 이유는 사실 이 지역이 중심가의 외곽지대로 도시화가 늦게까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야 알려지게 된 옛 흔적을 통해 고즈넉한 불로동에서 아름다운 청자에 좋은 차를 한잔 내리며 다도와 풍류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상상해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는 도시개발 혹은 도시재생을 진행할 때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주 흐름이다. 발굴조사로 알게 된 고고학적 성과, 혹은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 등 유·무형의 것을 현대에 맞게 잘 녹여내 그 가치를 전승하는 것이다. 불로동에 불어올 두 번째 변화의 바람에 고려의 차향과 그 잔의 따듯한 온기가 깃들기를 슬며시 바라본다.

김슬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참고문헌】

- 송재소 외, 2011, 『한국의 차문화 천년』 3, 돌베개.
- 이종민, 2007, 『고려 분묘 출토 도자 연구-소비방식의 관점에서』, 『역사와 담론』 46, 호서사학회.
- 이종민, 2016, 『고려 중기 청자제작의 확산과정과 그 배경』, 『호서고고학』 34, 호서고고학회.
- 이진수, 2015, 『고려시대 차문화 공간 연구-고려도경을 중심으로』, 『차문화-산업학』 제29집.
- 장남원, 2006, 『고려중기 청자연구』, 혜안.
- 장남원, 2007, 『고려시대 차문화와 청자-청자 다구를 중심으로』, 『미술사논단』 24, 한국미술연구소.
- 장남원, 2011, 『소비유적 출토 도자로 본 고려시대 청자의 수용과 다례와의 관계』, 『역사와 담론』 59, 호서사학회.
- 장남원, 2016, 『물질문화 관점으로 본 고려청자』, 『미술사와 시각문화』 제18호.
- 조희진·차인국·김수민, 2018,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사업 I ~III 지점 발굴조사 성과』, 『인천 검단의 고고학』, 중부고고학회.
- 최미향, 2011, 『고려시대 청자 주자 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8) 대곡동 사람이 나고 자라 다시 돌아가는 곳

필자(筆者)의 사전적 정의는 ‘글을 쓴 사람 또는 쓰고 있거나 쓸 사람’이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고 모니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지금도 나는 필자이다. 사전에는 분명하게 ‘글을 쓰고 있거나 쓸 사람’도 필자라고 했기 때문이다. 글 제목도 ‘대곡동’이라고만 써넣고 완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글이 누군가에게 읽힌다면 다행히 마감과 편집의 고비를 넘겼다는 뜻이다.

필자 본인이 편집자이기도 해서 반칙 아닌 반칙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인쇄를 넘기기 직전까지 퇴고의 기회 혹은 고난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토록 구구절절한 변명이 이 글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는 못하더라도 이 원고를 쓰기까지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표현하고 싶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줄 쓰기도 어려웠던 이유는 대곡동이 나에게 조금 특별하기 때문이다.

대곡동은 인천광역시 지정문화재 정기조사에 조사원으로 참여하면서 찾을 기회가 있었다. 이 조사는 지정문화재의 현상, 관리, 수리, 환경보전상황 등에 관해 체계적으로 조사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정책 활용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런 배경으로 대곡동 그리고 검단의 문화재들을 직접 보고 느낄 수 있었다.

황곡마을 고인돌

막 여름이 시작되는 날 황곡마을에 있는 고인돌을 찾았다. 대곡(大谷)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현산 큰 골짜기에 황곡마을이 자리한다. 가현산을 배후에 두고 앞으로는 작은 하천이 흐르고 좌우에는 나지막한 구릉이 호선을 그리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황곡마을은 ‘황골’이라고도 불리는데, 가을이 되면 논 전체가

황금 물결로 출렁거려 붙여졌다는 지명유래가 전한다. 한편 대곡동에서 김포시 양촌면 마산리로 통하는 고개는 주변에 고인돌이 많아서 ‘돌고개’라고도 불렸다.

고인돌이 있는 마을에서는 보통 돌 숭배가 확인되는데, 황곡마을 역시 고인돌이 앉아있는 형태를 보고 마을의 길흉을 점치기도 했다. 통상 고인돌이 높게 오른 곳의 자연부락은 그해 풍년이 들고 마을 사람들이 잘사는 반면, 돌이 주저앉은 곳은 그해 흉년이 들고 가난해진다고 여겼다. 그래서 때로 주민들은 덮개돌 밑에 돌을 괴어 놓기도 했었다고 전한다. 하지만 이런 풍속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현재 마을에는 크고 작은 공장들이 들어서 있다. 공장과 민가, 논밭이 혼재해 있어서 이곳에 고인돌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기는 쉽지 않다.

당시 찾아간 계절 탓인지 고인돌 주변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인천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대곡동 고인돌 가운데 극히 일부이다. 대곡동 고인돌은 지난 2005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정밀지표조사에서 5개의 작은 군집을 이룬 총 99기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인하대학교 박물관, 2005, 『대곡동 지석묘: 인천 대곡동 지석묘 정밀지표조사보고서』).

이후 경기도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에 의한 조사를 통해 기존에 알려진 대곡동 고인돌군의 규모와 범위가 훨씬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가현산을 경계로 한 김포시 마산리에도 22기의 고인돌이 분포하고 인근 석모리에도 고인돌이 조사되었다. 이렇듯 대곡동 일대에 분포하는 고인돌은 대략 120여기가 넘어서는데, 이는 강화도의 고인돌과도 견주어도 적지 않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표조사 이후 발굴조사 단계로 나아가지 못해 하부구조 등 구체적인 성격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인돌 가운데 일부만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되었을 뿐이다. 대곡동 고인돌 현황을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 당시 조사를 맡았던

인하대학교 박물관을 찾았다. 그리고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인하대 박물관 선임연구원 박성우 선생님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먼저 조사에 착수하게 된 상황을 들을 수 있었다. 대곡동의 고인돌은 2005년 이전에도 지표조사가 몇 차례 이뤄졌었다. 하지만 조사지역을 확대해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구청에서 인하대 박물관에 조사를 의뢰하게 되었다. 지표조사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고인돌 부재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밀집도가 높고 많은 수의 부재들이 조사되어 주목을 받았다.

조사 당시 낙엽 퇴적물이 많아서 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낙엽층이 두껍게 퇴적되어 풀대를 가지고 일일이 찢어보면서 확인하느라 애를 먹었다고 한다. 그리고 지표조사는 땅을 굴착하지 않고 시각에 의존해 진행하기 때문에, 퇴적층 아래 드러나지 않은 고인돌 부재들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어 대곡동 고인돌 부재에서 확인된 가공 흔적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고인돌에 사용할 적당한 크기의 돌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석재의 겉에 따라 구멍을 뚫는다. 그리고 구멍에 나무로 된 췌기를 박는다. 이 나무췌기에 물을 부으면 나무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점점 팽창하게 된다. 그리고는 결대로 석재가 떨어져 나가게 된다. 이후에는 손과 석기로 손질해 고인돌 부재를 완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석을 가공한 흔적들은 대곡동 고인돌에서도 발견된다.



대곡동 고인돌 채석흔(E군 1호)



대곡동 고인돌 채석흔(E군 5호)



| 판돌과 꺾돌만 남은 모습(D군 2호)



| 판돌만 남은 모습(D군 6호)

대곡동 고인돌은 덮개돌은 유실되고 밑에 꺾돌만 남은 경우가 다수이다. 박성우 선생님은 보통 꺾돌 하부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부장 유물을 함께 묻는데, 꺾돌만 남은 상황에는 되도록 빨리 하부구조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나마 덮개돌이 있으면 도굴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파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덮개돌이 없는 경우에는 금방 훼손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길가, 경작지 근처, 사유지, 문화재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훼손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였다. 따라서 노출돼있는 것을 먼저 발굴조사해 현장보존이 가능하면 복원하고 그렇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보존하면 된다는 것이다.

문화재 보호라는 인식과 관련 법규들이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문화재가 사유지 안에 있을 때는 재산권에 관한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을 함께 해결할 만한 뾰족한 방법을 찾기란 어렵다. 특히 검단은 신도시 개발로 인해 대규모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남의 일처럼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다.

평산신씨 종중 묘역,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원형

황곡마을에서 두밀마을로 넘어가다 나지막한 산에 평산신씨 종중 묘역이 자리한다. 대곡동 고인돌에서 평산신씨 종중 묘역까지는 걸어서 10분 내외면 갈 수 있다. 묘역 최상단에는 고려시대 시중(侍中)을 지낸 우현보(禹玄寶)의 후손인 우석규(禹錫珪)와 그 부인의 묘가 모셔져 있다. 평산신씨 묘역에 다른 성씨인 단양우씨(丹陽禹氏)의 묘가 있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아래에 자리한 신영(申瑛)의 묘비를 읽어보니 정부인(貞夫人) 단양우씨와 함께 묻혔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 우석규는 신영의 빙부(聘父)로 둘은 장인과 사위 사이인 것이다.

본래 황곡마을에는 고려시대 단양우씨가 집성촌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16세기 초 신영이 우석규의 딸과 혼인하면서 이곳에 입향해 입향조가 되었다. 이후 그 후손들이 세거해 현재 묘역에 우석규의 묘가 최상단에 위치하고 그 아래로 신영을 비롯한 평산신씨 후손들이 모셔져 있는 것이다.

이 묘역은 조선시대 사대부 묘역의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손(女孫) 봉사(奉祀)를 위해 사위에게 상속한 실증적 자료로도 평가받는다. 여손 봉사는 외손(外孫) 봉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딸과 사위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사후봉사를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 사대부 묘역에는 봉분과 함께 묘비, 상석(床石), 향로석(香爐石), 문인석, 망주석(望柱石), 장명등(長明燈)과 같은 석물이 배치된다. 신영의 묘에서도 역시 조선 사대부 묘역의 전형적인 석물 배치가 나타난다. 봉분은 부인인 단양우씨와 함께 단분으로 조성되었고 그 앞으로 묘비, 상석, 향로석, 문인석, 망주석과 함께 신도비가 세워졌다.

석물들을 관찰하다 보면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바로 문인석의 형태가 조금씩 다르다는 것이다. 다음 사진을 보면 그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 복두를 쓴 문인석 모습(우석규 문인석 우)

| 금관을 쓴 문인석(신영 문인석 좌)

사진 왼편의 문인석은 공복(公服) 차림에 복두(幘頭)를 쓰고 있다. 공복은 문무관료가 공사(公事)에 참여할 때 입는 옷이고 복두는 이 때 쓰는 검은색 관모(冠帽)이다. 복두는 위가 평평하고 각진 것이 특징이다.

사진 오른편의 문인석은 조복(朝服) 차림에 금관(金冠)을 쓰고 있다. 조복은 국가의 중요 의례 때 입던 화려한 장식의 예복(禮服)을 말하고 금관은 머리에 쓰던 황금색 관모로 금량관(金梁冠)이라고도 한다. 문인석에 표현된 금관은 가운데가 둥글게 솟아있고 세로줄의 골이 나있는 것이 특징이다.

본래 조선 초기부터 16세기 중기까지 능묘에는 복두공복 차림의 문인석을 세웠다. 하지만 중종(中宗) 말기부터 금관조복 차림의 문인석이 새로이 등장한다. 우석규가 조선 초기 인물이고 신영이 1499년(연산군 5)에 태어나 중종대(中宗代)에 관직 생활을 이어 1559년(명종 14)에 사망했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일맥상통하는 이야기다. 앞서 소개한 두 개의 문인석을 통해 당시 석조미술의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는 것이다.

두밀마을 반남박씨 종중 묘역, 두 부자가 나란히 받은 신도비

이어 두밀마을에 있는 반남박씨 종중 묘역을 찾았다. 묘역 초입에는 문화재 안내판, 표지석과 함께 묘역 안내도가 있다. 그리고 묘역 남서쪽에는 반남박씨 종중 재실인 대곡재(大谷齋)가 위치한다. 인천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9호이기도 하지만 문중 묘역이기에 종중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검단 대곡동의 반남박씨는 15세기 중반 조선 전기의 무신 박병문(朴秉文)이 두밀마을에 터를 잡은 뒤 대대로 살아왔다. 묘역에는 그와 그 후손들이 모여져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후손들 가운데 조선 중기 문신인 박동선(朴東善; 1562~1640)과 그의 아들 박경(朴堧; 1596~1632)의 신도비가 세워졌다는 점이다. 신도비는 금석문 중 하나로, 임금이나 고관의 평생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무덤 앞 또는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 세운 비석이다.

두 부자의 신도비는 묘역 하단 동남쪽에 별도로 위치한다. 높이는 2m가 훌쩍 넘고 비신(碑身)에는 빼곡하게 돌아가신 분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 먼저 박동선의 비신 맨 위에 전서체로 쓰인 전액(篆額)을 보니 ‘의정부 좌참찬(議政府左參贊) 증영의정(贈領議政) 금천부원군(錦川府院君) 시정헌(諡貞憲) 박공(朴公) 신도비명(神道碑銘)’이라 적혀있다. 그의 이름(諱) 동선(東善)은 한참을 내려가야 보인다.

전액에는 먼저 돌아가신 분의 ‘대표 관직’이 나오고 그 뒤로 사후에 품계와 벼슬이 추증된 관직 즉 ‘증직(贈職) 관직’이 나오고 그의 ‘시호(諡號)’와 성씨가 따른다. 시호는 왕과 왕비를 비롯해 벼슬한 사람이나 학덕이 높은 선비들이 죽은 뒤에 그의 행적에 따라 국왕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따라서 전액을 통해 그의 대표 관직은 의정부 좌참찬으로 사후 영의정 금천부원군으로 증직되었고, 임금으로부터 정헌(貞憲)이라는 시호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



| 박동선 신도비



| 박동선 신도비 전액 전면



| 박동선 신도비 전액 후면



| 박정 신도비



| 박정 신도비 전액 전면



| 박정 신도비 전액 후면

그렇다면 이제 박정의 신도비에 새겨진 전액을 읽어보자. 우선 신도비 전면 최상단으로 시선을 향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고 그대로 신도비를 돌아서 후면 역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읽으면 된다. ‘정사공신(靖社功臣) 이조참판(吏曹參判) 금주군(錦州君) 증판서(贈判書) 충숙박공(忠肅朴公) 신도비명(神道碑銘)’으로 읽힌다. 그는 정사공신에 책록되었고 이조참판을 지냈으며 금주군에 봉해졌었다. 사후 판서로 증직되었으며 충숙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이처럼 신도비에는 어느 관직에 올라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에 대한 기술도 있지만, 망자의 삶을 더욱 실질적으로 살필 수 있는 일화가 담기기도 한다. 다음은 박정의 정유재란 시기에 엮힌 일화이다.

정유년(1597)에 왜구가 다시 날뛰자 ... 적이 고을에 들어오자 공이 비로소 아전과 백성들을 거느리고 배를 타고 피하는데, 사람이 많아서 배에 다 태우지 못하게 되자 공은 타던 말을 버리고 사람을 건너게 하였으니, 고을 사람들이 이 일을 전하여 마지않는다. ... 간간이 경기도사·수안군수, 인천·부평·남양의 부사로 나가기도 하였는데, 가는 곳마다 백성을 다스리고 공무에 이바지할 때 한결같이 성실함으로 자신을 단속하였고, 아랫사람을 부리되 간결함과 편안함에 힘썼다.

번역본 : 인천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그의 아들인 박정의 신도비에도 그가 남원부사로 있을 때 관내의 들끓던 도적을 색출해 선정을 베푼 일화가 담겨있다.

기사년(1629) 여름 ... 당시 남원은 도적의 소굴이 되어 도륙함이 횡행하였지만 어느 누구도 감히 어찌하지 못하였다. 공이 처음 도착하여서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은밀히 무인과 아전 가운데 계략이 있는 자를 심복과 이목으로 삼아 도적들의 정황을 탐색하였고, 그 무리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알고 불시에 덮쳐 포박하니, 스스로 서로를 끌고 와서 항복한 자가 전후로 육칠십 명이나 되었다. 도적의 괴수 백용일이 공의 숙소를 염탐하여 밤을 틈타 담을 넘어 들어와 창문 구멍으로 칼을 찔렀는데, 머리를 찌른다고 여겼지만, 발이 찔렸다. 공은 이미 먼저 경계하는 마음이 있어 문고리를 견고하게 단속하였고, 발도 심하게 다치지 않았으니, 사람들은 이 일로 인해 공을 더욱 지혜롭게 여겼다. 이보다 앞서 공의 노고가 인정되어 가선대부에 올랐고 금주군에 봉해졌는데, 이에 이르러 조정의 의논이 체임을 허락한 것은 공을 중히 여긴 것이다. 공이 돌아갈 때 부종 사람들이 병사를 많이 동원하여 호위할 것을 청하였지만 공이 말하기를, ‘걱정할 것 없다. 감히 나를 범하지 못할 것이다.’ 하고,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백용일이 잡혀 죽게 되자, 남원 일대와 인근 고을이 편안하여 경계할 일이 없어졌으니, 모두 공의 힘이다.

번역본 : 인천서구문화원, 2015, 『인천 서구의 분묘유적과 금석문』

대곡동의 지정문화재를 둘러보니 모두 죽은 이가 잠들어 있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형상으로 해발 215m의 가현산을 배후에 두고 앞으로는 소하천을 바라보고 좌우로는 나지막한 구릉이 있어 전형적인 배산임수라 할 수 있다. 고인돌이 세워진 선사시대부터 풍수지리를 고려해 문중의 못자리를 선택한 조선시대까지 대곡동이 명당이라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재들은 우리의 눈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인천 서구 검단의 지정문화재는 대곡동뿐 아니라 마전동의 한백륜 묘역, 원당동의 김안정 묘 출토 묘비, 의령남씨 종중 묘역이 있다. 모두 죽은 이가 잠든 곳이라 실망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세히 오래 살피면 그 안에서 유구한 검단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 부디 검단의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많은 이들이 검단에서 태어나고 자라 다시 그 땅에 묻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3. 직접 듣는 이야기

- 1) 쇯골마을 토박이
이균홍
- 2)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20년
당하초등학교 하송화 선생님
- 3) 대곡동 고인돌 이야기
인하대 박물관 박성우 선임연구원

1) 쇧골마을 토박이, 이균홍

구술자	이균홍 1961년 인천시 서구 금곡동 출생 前 금곡동 통장 現 김단 농협 이사, 영농회장
구술일자	2019.07.12
구술장소	금곡마을회관 및 쇧골마을 일대
채록자	송수연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를 기획해서 발간하고 있는데요. 북서곶, 남서곶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김단 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곡동 쇧골마을 이야기도 나누고 이균홍 선생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들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금곡동은 지명유래에도 나오지만, 일제강점기에 금을 캐기도 하고 이후에는 철을 생산을 해내는 곳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린 시절에 이와 관련된 기억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금 채취하는 거기에서는 굴이 꽤 깊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한 25m 정도 굴이 이렇게 좀 경사지게 쪽 들어간 굴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갔다 오다 여기 모여서 굴까지 들어가서, 물 있는 데서 침병침병 들어가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박쥐가 거기서 많이 살았고 뱀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굴 끝에는 물이 많이 차 있었으니까. 그 뭐 제비돌(물수제비)이라 그러나요? 돌 이렇게 해서 하는 거. 그런 그 저기도 많이 하고. 뭐 일요일 같은 때는 소

같은 거 해서 소 풀 뜯기다가, 그런 놀이를 많이 하면서 자랐죠.

쇠에 대해서는 여기가 뭐 알다시피 이제 금곡동 쇯골마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나무들이나 그런 게 많이 울창해져서 이제 가볼 순 없지만요. 그전에는 이제 학교에서 과학시간이라 해야되나 무슨 시간에 (배웠던) 자석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쇯돌이나 뭐 아니면 쇯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다니면서 학교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 (산에) 올라가서 진짜 쇯이 저기 하나 (자석에 붙느냐). 쇯돌은 까마면서도 빨간 그 성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이제 모아가지고 누가 제일 많이 또 자석에다 붙여오느냐 하는 시험도 하고. 예 그런 부분(기억)이 많이 있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쪽 그 건너 산에 저기 구들장 있죠. 구들돌이 거기에 있었어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전에는 집에 구들장을 깔았잖아요. 구들을 쳐다가. 그런 게 아직도 있을 거예요, 산에. 제가 어려서 (동네) 형들하고 사촌 형들하고 그걸 짚어지고 하나씩 갖다가 날렸어요. 하루에 두서너 개씩 가져다 놓고. 흙을 발라서 구들로 만들었죠. 그런 기억도 있네요.

정말 ‘쇯골’이라는 이름이 걸맞네요.

아닌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금곡동에 ‘쇯골부락’이죠. 금이나 쇯돌, 뭐 이런 구들장 같은 그런 것도 아주 색깔이, 옥 색깔 나는 것도 있고 까무잡잡한 그런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자그마한 것도 있고요. 그전에 빠루라고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들면은 하나씩 층마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채집해다가 들여다다 가져가고 그런 기억도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오셔서 구들로 쓰셨어요?

그렇죠. 집에 가서 이제 그걸 놓고 구들로 만드는 거죠. 지푸라기 하고. 이제 지푸라기 떨어가지고. 이제 다 뭐 흙이 다 산에 있으니까. 산에서 빨간 흙들, 황토부터 갖다가 섞어서 해놓으면. 돌은 (크기가) 일정치가 않죠. 흙으로다가 수평을 맞춰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좀 움푹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돌들은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당시에 놀멘놀멘 하신 거예요? 꼭 ‘일’이다 이렇게 생각 안 하시고?

그렇죠. 그걸 일이라 생각하면 못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했죠. 당시에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할 수 있는 것도 저기 하니까. 지금은 몰라도 그때 당시에도 아시는 분들은 동네에 어르신들한테 얘기해서 아마 사가신 분(도 있었어요). 자세한 거는 모르는데 그런 것도 예.

구들돌이 뭐 진짜 울퉁불퉁해요.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뭐 이쪽에는 이렇게 두껍고, 저쪽에는 가늘고 얇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기 하시는(연장 다루실 줄 아는) 분들은 정으로다가 앉아서 쳐서 다듬어서 편안하게 했던 부분은 아직도 기억이 좀 나네요.

제가 찾아봤더니 옛날에 철 캐고 이러던 데가 지금도 남아있다고 들었어요. 산 200번지라고요. 그 터가 남아있나요?

예, 있어요. 남아있기는. 현재 (채광) 하는 건 없고요. 이만한 굴이 있어요. 굴도 굴이지만 침하가 돼서. 그냥 이렇게 산 절개를 해서 캐던 그 부분 같은 거는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가면 볼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각적으로. 거기서 아직 뭐 하거나 그런 건 벌써 전에 중단되었

죠. 제가 알기론 아마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올해 신아홉인데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삼삼오오 모여서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는데 아마 1950년대 초까지만 해도 그런 걸(채광)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당시 마을에선 농사가 중심이었을 텐데 절기마다 했던 놀이나 추억이 있으세요?

봄철 같은 때에는 아무래도 논농사가 많았더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하고 해서 같이 새참을 날라드린다는가, 막걸리 사오라 하면 심부름을 하고. 모도 같이 찌가지고 했던 그런 기억은 많이 나죠. 친구들도 그때는 품앗이처럼. 그때 당시 1960년대, 저희 때까지만 해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남아있었죠. 친구들이랑 같이 일손도 돕고. 우스갯소리로 논일 끝나면 어르신들 중에는 막걸리 한 잔 먹고 들에 쓰러져 있던 기억도 나고요. 그런 기억들이 이제 좀 나죠.

저희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면, 막걸리 심부름 다니면서 한 잔씩 몰래 마셔보고 했다던데요.

심부름하면서 어르신들 일하시는데 새참 같은 때. 그땐 뭐 초등학교 때 어리니까 한잔 먹고 그냥 조금만 먹어도 취하잖아요. 논두렁 같은 데 취해 있다가 깨 가지고 또 오후 되면 소 뜯기러(풀 먹이러) 나가야 되니까. 그런 그 상황이 있기도 했죠.

맛은 모르죠. 어르신들이 드시니까 그전에는 또 막걸리도 뭐 집에서 많이 담그셨잖아요. 그런 그 술을 담그셔 갖고 독에서 퍼갖고 오라 그러면 퍼다 보면 사람이 또 궁금하잖아요. 어려도, 조금씩 맛보고. 마실 때는 맛있죠, 달고.

밑에 하천이 그때는 컷터랬어요. 가재 같은 것도 많이 서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폐수 같은 게 많이 내려오고 그러니까. 메꾸지기도 많이 메꾸지고. 저 학교 다니면서 어렸을 때는 어려서래도 깊이가 있어갖고 뛰어내려갖고 다이빙도 하고. 지금은 뭐 다 메꾸지고 오폐수들이 나오고 그래 가지고. 저기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

초등학교는 당시 검단국민학교로 다니셨죠?

예, 그렇죠. 검단국민학교로 다녔거든요. 중학교는, 검단중학교가 제가 5회 졸업인데 거기가 1973년인가 1974년인가 개교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1977년도에 졸업을 했으니까. 1973년도인가 1974년도인가 그때 아마 1회 졸업생들이 (나왔죠).

*검단중학교는 1970년 3월 2일 개교해 1973년 1회 졸업생을 배출함

그럼 그 이전에는 서곶에 있던 인광중학교로 다니셨겠네요?

그렇죠. 저희 작은 누이 둘째 누이도 인광중학교를 다녔어요. 작은 누이가. 그때는 여기에 중학교가 없었으니까, 김포 아니면 양곡으로다가 다녔어요. 그때는 그쪽으로다가.

버스 타고 검단에서 서곶으로 왔겠네요.

그렇죠. 17번하고 그때 인양여객인가 그거밖에 없었지. 한 대 놓치면은 한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것이 진짜 싫었으니까. 그때는 포장도 백석까지만 되어있었고 이쪽에는 포장도 안 되어 있었어요. 다 그냥 자갈길이었더랬죠.

초등학교는 걸어서 다녔겠네요. 걸어서는 얼마나 걸렸어요?

걸어서 다녔죠. 여기 마을에서 이제 이 검단으로는 안 돌아다니고 뒷길로 산길이 있어서 왔고. 그래서 그 지금 풍림아파트 있는 데 마전동 산으로다가 많이 다녔어요. 가는 시간은 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놀기도 하고 겨울에 눈두렁에 빠져서 양말도 다 젖고 그냥 학교 가다가 장난도 하고 그러면 뭐. 그때 당시에는 한 삼사십 분씩은 아마 걸어서 다녔을 거예요. 지금에야 뭐 저기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걸어서 다녔죠.

이후에 고등학교는 어느 지역으로 진학하셨어요?

저는 대흥공고 다녔어요, 인천. 근데 여기는 지금 인천으로 다니지 얼마 안 되었죠. 저희 때만 해도 김포하고 양곡에 있는 학교로 많이 갔어요. 고등학교 진학도 몇 사람만 했고요. 한 1기 졸업생에서 뭐 한 20~30명 정도만 이제 인천으로 다니고.

학교는 다니면서 1년 선배, 2년 후배가 제일 무서운 거야. 2년 3년은 그냥 넘어가는데 바로 위에 선배가 제일로. 저는 대흥공고를 다녔거든요? 지금은 이제 무슨 저기로 다 바뀌었는데. 통학하는 애들이 한 학년에 꼭 11명이에요. 10, 11명. 검단에서 서곶까지. 한 학년에 꼭 10, 11명. 그 기수가 어마어마하게 너무 저기 해서 2년 선배가 절대로 안 때려요.

(고등학교때) 우리는 17번을 안 타고 다녔어요. 시외버스만 타고 다녔는데, 검문소가 거기 하나 있더랬어요. 거기에 파출소도 같이 있었고요. 거기서 버스 문으로다가 타고 내리고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창문을 열어줘요, 애들이. 그러면 그냥 거기다가 가방 던지고 창문으로다가 올라가 갖고 맨 뒤로다가 타요.

**6·25전쟁 이후 태어나셔서 기억이 많지 않으시겠지만, 어른들께
듣기론 당시 이곳에는 큰 어려움은 없었다죠?**

예, 그나마 저기는 큰 어려움은 내란 같은 거 저기는 없었어요.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마을이 가현산에서 이렇게 세자봉에서 보면 삼태기 모양 딱 아늑해요, 이 부락이. 선조들이 머리가 참 지혜롭고.

제가 장수 이씨 25대손이에요. 제가 25대고 우리 손주가 있으니까, 지금 27대까지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97세 되신 분이 최고령이세요, 마을에. 근데 지금 요양원에 가 계세요. 대마도 정벌하신 이종무(李從茂; 1360~1425) 장군님이 대조 할아버지시고요. 집안 역사는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뒤지지는 않을 거예요.

장수 이씨가 여기 터를 잡고 산 지 400년 됐다고 나오더라고요.

400년이 넘을 거예요. 전에 나와 있는 거는 아마 400년.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나름대로 계산했을 때는 550년에서 600년 됐다고 봐야죠. 제가 25대니까요. 대시조 할아버님 묘가 여기 있어요. 시향을 1년에 한 번씩 지내요. 이종무 장군님 묘는 지금 용인에 계시고요.

씻골마을에 가옥 수는 얼마나 돼요?

여기가 지금 마을로는 범위가 커요. 저쪽 좌현부락 거기까지 있는 데까지거든요. 가현산 밑으로 해서, 거기까지거든요. 거기 마을이 이제 금곡동이에요, 거기는 원래. 원미부락이면 씻골만 저기 하면 우리가 지금 한 전체 250~260호 돼요.

큰 마을하고 작은 마을로 부락이 나뉘져 있어요. 작은 쇓골이 작은 마을이고 아까 저기 동네 들어가신 마을이 있어요. 거기는 큰 마을이고요.

장수 이씨는 그러면 어느 마을에 주로 살고 계세요?

저쪽 마을(작은 쇓골)에도 있고 여기가 이제 큰할아버지 자손이고 작은 마을 있는 데가 작은할아버지 자손이에요. 지금 생전에 계신 분이 이제 한 분이 계세요. 지금 97세이신데 요양원에 계세요. 그 아 주머니는 한 열흘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리고 타성은 김이라든가 박이라든가 원이라든가 성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저희 집안사람들은) 이제 각지로 나가서 사시는 분들도 많죠. 저희가 원래 전북 장수동 이가요. 장수 이가는 부산에도 계시고 경상도 그쪽에도 해서 집성촌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전라도 내려가고 한번은 이제 용인 내려가서 이종무 장군 시향을 음식 차려서 제지내려 다니죠.

쇓골마을하면 장수 이씨를 연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처음부터 여기 들어와서 사신 분들이 우리 장수 이가가 이제 처음부터 뿌리를 내리고 살았기 때문에. 검단에서도 쇓골하면 장수 이가. 젊은 친구들은 몰라도 50대 후반 60대 사람들은 이제 그 이상 되면 다 알죠.

가현산 당제에 관한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예, 당산이요, 가현산 당산이라고. 이제 그 굿당들도 없어졌어요.

굿당도 있었는데. 인천에서는 그래도 알아주는 굿당이고 사람들도 많이 왕래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어졌어, 철거됐더라고. 내가 올해 가봤어요. 거기도 그렇지만 당산이라는 저기는 동네 중심에 산이 있더라구요.

당나무인가 참나무인가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를 개인이 산을 사면서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못 하게 결사적으로다가 막 았었죠. 어르신들 몇 분이서 가셔서 말리다가, 이놈이 그냥 요거만 남겨놓고 뿌리도 다 보이게 남겨놓고 다 거기를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낫는데 이거만 해서 했을 때 저기서 연락이 왔어요. 방송곡에서. 그래서 인터뷰 좀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한 이삼일이 있다가 보니까 다 없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후손들이고 선친이고 일 년에 한 번씩 그래도 마을에서 모여서 동네 그 우상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다가 해서 제를 지내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했더라구요. 근데 개인이 사서는 ... 서울 어디에서 경찰하던 사람이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어마어마하게 어르신들하고 맥살잡이하고 싸우고. ‘놔둬라, 놔둬라.’ 다른 데 가면 나무들 이렇게 해놓고서 펜스 쳐놓고 그렇게 (보호수 지정)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뭐 어쩔 수 없이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게 참 아쉬운 거 같아요.

어릴 때 당제 지냈던 기억은 혹시 나세요?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저는 이제 몇 번은 갔더랬죠. 당연히 가서 이제 어르신들 하는 거 뭐 제의라든가 이런 거는 해서 갖다 쓰고 해서 하시면 그런 거 기억은 나요. 그거야 뭐 하게 되면 전에는 한 열흘이고 며칠 전부터 해서 준비를 했죠. 동네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진짜 뭐 도회지가 아니고 시골이다 보니까요. ‘아저씨 뭐 좀 하나 저기 해주세요’ 하기도 하고

요. 쌀이나 떡이나 각자 분담을 했어요. ‘당신네는 뭐 상 좀 갖고 와, 조카네는 뭐 좀 갖고 와’ 해서 같이 했던 부분이 있죠.

제 지내고 거기서들 막걸리도 한 잔씩 하기도 하고요. 또 제 지내기 전에 이제 산신제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부분은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00년도까지는 아마 지낸 것 같아요. 2000년, 한 2001년도까지? 근데 그 이후에는 사라져버렸죠.

당제가 산신이나 자연에 지내는 제사이기도 하지만 또 마을 잔치이기도 하잖아요.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요.

그전에는 몰라도 제가 다니고 할 때는 어렸으니까 천방지축으로 다가 뭐 이렇게 해서 음식이나 차려놓고 그러면 저기지. 어르신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도 못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아쉽네요.

거기 가면 나무 있는 데 주변에도 참나무가 많았는데, 거기 이제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애들은 뭐 저기지만. 사슴벌레라든가 나무에들 있는 곤충들 채집을 하러 다녔고, 학교에서 이제 숙제를 내주잖아요. 알아보러 다니던 그런 부분은 생각이 좀 나네요.

마을 언덕에 서낭당 고개가 있잖아요. 어릴 때 서낭당 고개에 가는 건 무섭지 않으셨어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서낭당 고개로 가다 보면. 이제 옛날에는 지금은 그래도 도로가 좀 넓었는데 옛날에는 좁았어요. 마전동 넘어가기 전이에요. 가현산 올라가기 전에 좌측으로다가 여기서 가다 보면 있는데. 거기 흰 천을 걸고 해서. 거기다가 이제 미신 믿는 분들이랄

까. 그런 분들이 거기다가 뭘 해놓고 고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고.

아무래도 어려서 다닐 때는 거기 지날 때는 진짜 겁이 나서 막 뛰어 다니고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에 와서는 아무렇지도 않지만 어렸을 때는 진짜, 혼자서 하굣길이라든가 해서 갈 때는 무서웠죠. 거기가 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코너로 굽었잖아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펴졌어요. 고개 깎고 도로도 포장까지 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굽은 길가 고개에 덜러덩 그것만 하나 있는 거예요. 참나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엔 진짜 많이 무서워했죠. 어르신들은 그냥 그런 거 저기 했으니까 저긴데. 진짜 어려서 국민학교 다니고 그거 뭐 압니까. 그냥 저기 하다 보면 진짜 실 같은 거 여러 가지를 갖다가 걸어놓고. 어떨 때는 흔한 저기는 아니지만, 그 과일이라든가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혼자 다니면 진짜 거기가 산길 아주 좁은 길이더랬어요.

지금은 이제 길을 넓혀서 차들도 많이 통행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그 부분이 많이 있었죠.

묘각사에 대해서는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묘각사에 대해서는 전 깊이는 몰라요. 거기가 이제 왜 그러냐면 금곡동이 있지만, 거기는 이제 신동부락에 속해요. 신동부락으로다가 거기에 묘각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학교 다닐 때는 그쪽으로 소풍도 다니긴 했어요. 검단국민학교에서 이제 걸어서. 장릉으로도 다니고 했는데. 아마 신동부락에서 더 묘각사에 대해 많이 좀 기억을 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있는 금곡마을회관은 새로 지은 것 같은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예, 근데 여기가 마을회관이 저쪽 너머에 슬레이트 지붕으로다가 해서 해놨더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오래되고 거기가 이제. 매립지에서 보상이 나왔을 때 이거를 사서 여기다가 신형으로다가 지은 거예요. 2002년도인가, 2001년도일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200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2000년도인가 2001년도 정도일 거예요.

이 책은 『인천서구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서구 옛 사진들을 모아서 만들었어요. 찾아보니 금곡동 사진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곳 알아보시겠어요?

어, 여기는 우리 식구인데. 여기 큰누이고 작은누이고 우리 막내, 저.

아, 선생님이시구나. 이균준 선생님이 사진 주셨더라고요. 형님이시군요?

옛날에 이거 할 때 (기증)한다고 해서. 형은 이제 군대 생활을 오래 하셨죠. 군대에서 제대하셔서 이제 (지금은) 의정부에 사시는데.

여기는 어디쯤일까요? 산 앞에서 찍은 거 같은데요.

여기가 저희가 128-1번진데요 37. 올라오시다 보면 좌측에 그 슬라브(지붕) 집 있어요. 동상 뒤에. 저기에서 산에서 찍은 거예요.

네, 산을 배경으로 해서 찍으셨나 봐요. 근처에 가서 다시 사진 촬영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참, 이 사진도 있어요. 어머니 생신 사진이요.

예, 이모님들 오셨었죠. 이때 누가 달라고 해서 제가 옛날 사진을.
어머니 생신이고, 막내 이모신데 지금 병상에 계시고, 여기 큰이모
시고요.



| 금곡동 마을 뒷산을 배경으로 이균홍님 가족 사진 1950년대



| 이균홍님 어머니 생신날 기념촬영 1970년대

앞으로 바라는 마을 상이라고 할까? 그런 건 어땠으면 하시나요?

지금 이대로 살았으면 좋는데, 우리가 지금 아시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이 이제 들어가요. 인천시에서 이제 다 끝났고. 그래서 정식조합만 남은 상황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한국의 변화상으로도 봤을 때는 뭐 여기도 어차피 안 하면 민간인이 안 오면 인천시에서 다시 수용을 할 거예요. 2006, 5년도에 인천시에서 수용을 했더랬어요, 이 땅을, 부지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간으로다가 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그 모습을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나아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만 해서 자연 그대로 살아도 좋아요, 근데 정부에서 자꾸 하다 보니까, 수시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면도 많이 속이 좀 상하는 상황이죠.

마을의 전통과 자연이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면서도 한편론 도시화가 현실에 더 부합하는 상황이죠.

이제 논농사도 누가 짓겠어요. 지금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농사들도 이젠 힘들어서 못 하세요. 논 있는 것도 지금 그냥 아파트 있는 사람들은 주면 좋으니까. 그 사람들 와서 해 먹고. 그러니까 겨우, 농기구 같은 것도 올해 (보상) 시작되면 2년 내는 다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농기구들도 이렇게 집안에다 깊이 두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요새는 하도 고물상 이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있으면 그냥 가져가요. 아직도 여기는 낮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노인정에 와계시고 노인들만 계시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아직도 그런 거 막 싣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집에도 낫쇠로 만들 것들이 광에 있었는데, 문도 안 잠그고 다니니까 갔다 오면 인두들도 찾아보니까, 인두가

또 없어진 거예요. 안에 있는 그 돌절구 있잖아요, 그것도 채갔더라고
요. 가져갔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다가 놓지를 못해요.

과거의 금곡동과 비교해서 지금 현재의 금곡동의 모습은 어떠세요?

그 뭐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예전만은 아무래도 못하다고
봐야죠. 현실적으로 예전에는 생활이 어려웠지만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하면서 이웃과 이웃 사이에 정이 많았었죠. 세상이 빠르게 변
하다 보니 믿음이나 정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예전이 더 낫죠.

지금 자연부락이 남은 데가 저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금곡동에 쇓
골하고 좌동하고 신동. 그리고 저 태정도 아마 거기 대곡동도 지금 3
개 부락이 지금 여기와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요. 지
금 검단면 전체에서 지금 남은 데는 자연부락은 대곡동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안타까운. 자꾸만 자연들을 그냥
다 훼손하고.

농토를 많이 갖고 있든 적게 갖고 있든, 그런 거보다도. 그래도 어
췌든 간에 예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면을 무시할 수 없죠. 마을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지만, 동네에서 같이들 태어나서
오래도록 같이 이렇게 사는 그 면이 이제 사라지니까. 옛날 그 어느
마을이든지 지금 가면 전국 곳곳에 보면 전부 다 산이고 뭐고 전부
다 없애잖아요. 그런 면이 많이 안타까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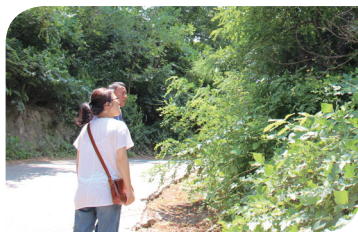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금곡동
쇓골마을이 원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 안온하게 변화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마을일 돌보시고 어르신들 챙기는 선생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긴 시간 취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모습



| 이균홍님



| 쇫골마을 취재 모습

2) 아이들과 함께 성장한 20년, 당하초등학교 하송화 선생님

구술자 하송화
1975년 서울시 강서구 출생
초등학교 4학년 부평 이사. 중학교 1학년 검단 마전리 이사.
1999년 교사 임용, 현재 당하초등학교 재직 중

구술일자 2019.08.13

구술장소 당하초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채록자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올봄에 서구의 새로운 문화유산 찾기 프로젝트 수업으로 처음 뵈었었죠? 다시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오늘은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에 당하동 이야기를 담고자 찾아왔어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언제 교직을 시작하셨나요?

1999년도 3월 1일, 신현초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네, 정확히 기억하시네요. 1999년이면 벌써 20년이네요. 20주년 기념으로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20주년이 되면서 애들이(자녀들이) 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를 위해서 뭐를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것 중 하나가 자격증을 따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오랜 기간 근무하다 보니 나태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준에 맞춰서 새로운 것을 하려고 노력해요. 아무래도 세대 차이가 나니까요. 하지만 제 생각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많아요.

그럼 첫 제자들은 벌써 29~30살이 되었겠네요?

네, 2학년 처음 맡았었고, 다음 해에 맡았던 (당시) 6학년 제자들과 연락을 해요.

감회가 새로우시겠어요. 신현초등학교가 첫 부임지라고 하셨죠?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옮기시나요?

인천은 4년에 한 번씩 옮겨요. 제가 어린 마음에는 ‘좋은 학교로 배정받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 선배님께서 ‘네가 가는 곳이 천국이다. 학교를 가리지 말고 가서 아이들과 천국을 만들어라’ 하셨어요. 그때 많이 부끄럽더라고요. 다시 가게 되면 새로운 것 같아요. 당시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났었어요. 셋별 같았어요. 창의력도 너무나 뛰어났고요.

처음 발령 났을 때, 난로 있던 학교였어요. 그다음이 라디에이터. 요즘 많이 시설이 좋아졌죠. 학생들이 많았을 때는 힘들었어요. 이제 20명대 초반으로 학생 수가 줄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 옛날에는 너무 많았는데, 학생 수가 점점 줄어야지’ 하죠. 20명이 딱 좋은 것 같아요. 남녀 수도 맞추고 모둠 만들기도 좋아요.

교과 과정도 다양해지고 담임선생님 말고 전문분야의 선생님들도 수업을 진행하시고, 20년 동안 교육환경에도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프로젝트 수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었어요. 재구성이라고는 하지만, 한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넘게는 어렵죠.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를 못 한 채 우리 것만(프로젝트 수업 주제만) 이해하고

넘어갈까 봐(염려하죠).

연계가 잘 될지 아이들이 잘 받아들일지 고민이 많았어요. 작년에 2학년 학년 부장을 했을 때 언플러그드 컴퓨팅이라는,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직접 컴퓨터를 하지 않고서라도 논리적 사고를 키우기 위해, 코딩도 하고요. 10차시 짜리를 자율활동으로 해서 짜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은 학년 부장의 고유권한이 있어서요. 같은 학년 선생님들께 동의를 구하고 진행했죠. 자료 만들고 전문적 학습공동체라고 지원금이 또 나와요. 70만원. 신청을 했더니 나왔어요. 그걸로 교재도 사고 뭐 같이 어디 가서 보기도 하고. 코딩교육이라고도 하잖아요. 공개수업도 진행했었어요. 아이들이 재미있어했어요. 저도 만족스러웠고요. 재구성은 스팀 교육 한창 유행했을 때. 영재교육, 스팀교육 했을 때 미술과 국어를 연결한다든지 과학과 수학을 연결한다든지 융합 수업을 했었어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요?

대학원은 사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승진하려면 연구점수를 필요로 하지 않니?’ 대학원 진학하라고 주변에서 많은 의견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고 싶은 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나이 들기 전에(도전해야겠다 싶었죠). 마침 박물관 미술관 학과가 있더라고요. 체험이나 현장학습을 아이들과 자주 나가니까. 연계해서 실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관도 포함되고요. 우리나라는 무료입장도 많고 지원이 많은 편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 왔지만, 많이 가질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관심을 갖게 할까. 거기서 다루는 소재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3학년과 관련 연관성을 찾아 보니까. 이번과 같은 사회 프로젝트 수업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2017년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당시 6학년 아이들을 맡고 있었어요. 그때는 미술 감상 수업을 했는데 그때는 가상박물관 수업을 했었어요. 수업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문화재 탐구를 많이 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일종의 프로젝트죠. 다문화, 문화 다양성 신문도 하고 복도 전시회도 해보고요. 탐 쌓기라고 인권 탐 쌓기도 해보고요. 공개 수업도 하고요. 아이들이 발표하게끔 한 거죠. 프레지(prezi; 협업 프레젠테이션)에다가 가상박물관을 꾸며서 발표해보는 그러면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서로 알아보고. 문화상품도 만들어보고 했었어요.

학교 수업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공부를 시작하셨군요. 직장생활도 힘드시 텐데 자기 시간을 내서 노력하시는 모습이 정말 멋지세요.

네, 원래는 계절학기였다가 야간으로 돌렸어요. 배우면 바로 다음 날 바로 써먹어야지 생각이 들었어요. 스스로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공부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 같아요.

감사하게도 부탁을 드리면 무료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하면서 이동 환경 교실이라고 해서. 큰 버스가 와요.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제가 8차시로 짜서 한 달 정도 진행했었는데요. 만족도가 높았어요. 2시간 정도는 차 안에서 해요. 필통 만 들고. 지구, 물, 산소 뭐 이렇게 그런 걸 하고 나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 같아요.

오히려 학년 부장이 되면 눈치가 보일 때도 있죠. 다른 반 선생님들께 권유해야하는 입장이라. 흔쾌히 또 해주세요. 무료 기관들에도 감사하죠. 안타까웠던 것은. 가보고 싶어도 인천에서는 딱히 연결되는 것이 없어요. 버스를 지원한다든가. 해줘봤자 한두 반이라서.

올봄에 진행한 서구의 새로운 문화유산 찾기 프로젝트 설명 부탁 드려요.

(발표 작품) 이것은 2~3주 걸렸고요. 한 달 전에 답사를 갔죠. 같이 정해봤어요. 우리 서구에서, 2단원이 문화유산이거든요. 단원 들어가면서부터 설명했죠. 문화유산에 대해서. 공부하고. 우리 동네 주변에는 뭐가 없을까? 아이들이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럼 너희들이 새로 만들어보고 싶은 문화유산이 없을까? 했더니 아이들이 10개 정도 말을 했어요. 그중에서 그러면은 모둠별로 같이 팀 프로젝트를 할 건데 할 만한 것들을 같이 결정해보자. 그래서 거수로 결정을 했어요, 그다음에는 가고 싶은 장소를 정했어요.

(각 모둠이 문화유산을 각자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반(전체가) 6개를 선정하고 모둠별로 뽑기를 했죠. 왜냐면은 나는 다른 걸 하고 싶은데 (그 주제를 하기로 한) 모둠으로는 못 가잖아요. 하지만 먼저 6개를 문화유산을 먼저 정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생각해보라는 의미에서 같이 정하고. 모둠 별로는 뽑기를 해서 정하게 되었죠. 불만이 거의 없었어요. (문화유산에 선정된 합당한) 그럴만한 조건이 있다고 생각했나 봐요.

선생님과 같이 여섯 군데 가자. 수, 토, 일에 가기로 했죠. 저랑은 2~3곳을 다녀왔고요. 나머지는 어머님들께서 본인들이 같이 가주면 안 되냐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당연히) 되잖아요. 사실은 아이들끼리 보내는 것이 가장 좋았으니까. 가기 전에는 너희가 살펴봐야 할 것들. 우리가 답사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을 봐야 되고 사진 자료도 많이 필요하고 기관에 계신 분들하고 인터뷰 질문들도 준비해야 하고. 이런 작업을 미리 했어요. (답사) 가기 전까지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준비 기간이 한 달. 한 달 걸렸고, 그거 할 때 서

구의 문화유산까지 배운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진 찍고 다녀와서 발표 자료 만들고. 그게 한 2~3주 정도 또 걸렸죠. 거의 두 달 가까이 걸렸어요. 문화유산 프로젝트가 두 달짜리였어요. 한 달은 서구의 문화유산, 한 달은 새롭게 발굴하고 싶은 문화유산.

특히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당하산은 정말 생각을 못 했었어요. 당하산이 제일 그럴싸했어요. 주변에 약수터도 있고 해서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봤나 봐요.

이건 아이들이 직접 찍은 사진인가요?

네, (발표 자료에) 사진은 몇 장 안 들어갔지만, 아이들이 수백장은 찍었을 거예요. 제가 같이 갔을 때는 소풍 가는 느낌이었어요. 굉장히 더웠는데도 진짜 군소리 안 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담임선생님과 자기 팀만 같이 간다는 거에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참여에 중점을 두는 수업이잖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거나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던 점이 있었나요?

답사는 안타까운 건 제가 유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있어요. 아이들한테만 맡겼더니. 수많은 조형물을 수백개를 다 찍더라고요. 내버려 뒀더니. 아시아드 경기장에서 이게 문화유산에 선정될만한 가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 그것을 어려워했어요. 그 부분을 이 해시키는 것이 어려웠죠. 왜 이게 문화유산이 됐으면 좋겠는지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그때서야 어떤 행사를 치뤘던 곳이고, 뭐가 있는 곳이고. 이런 것들은 찾더라고요. 약간 아직은 어려서. 아직 2학년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용어에 대한 해석도 안 되

었고 자기가 뭘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어렵듯이 이해하는 거고요. 답사 갔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교실에서 했을 때도. 지금 사진을 떼긴 했는데. 활동했던 사진을 붙여놔있어요. 그냥 음. 아이들이 이걸 진짜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 할 때가 많아요. 저조차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게 단계별로 차근차근 한다고 했는데도 확확 넘어가는 게 있어요.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사회(과목)라는 어려움.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해줬어요, 우리의 프로젝트. 서구의 문화유산과 관련해서요.

제일 좋았던 것은요. 애들은 스스로가 찾아보고. 아이들은 인터넷 검색 아직 못하거든요. 타자 잘 못 치죠. 그런데 같이 컴퓨터실 몇 번이나 갔었어요. 검색하는 방법. 문화유산 찾는 방법. 그랬더니 집에 가서도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고, 왜 선정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하고, 거기에 맞게 결과물을 만들어야 하고. 과정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프로젝트였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문화유산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이 과정 자체가 더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 밑에 있는 메모판에(발표 작품 하단) 아이들 생각을 써놔있어요. 예를 들면 검단 선사박물관이 문화유산이 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아이들이 발표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모듬의 아이들이 될 수 있는 이유, 될 수 없는 이유를 (폼보드 아래쪽에) 써서 붙였거든요. 될 수 있는 건 파란색(좋이)로 될 수 없는 건 분홍색(좋이)를 썼어요. 그럼 한눈에 봐도 어느 색이 많은지 눈에 띄잖아요, 어느 모듬에서 한거는 가능성이 높네, 적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이들의 생각을 정리도 하면서, 저 특징이 문화유산이라는 조건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토

의 토론도 했었어요. 그런 것도 조금 같이 접목을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무작정 발표만 하면 우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학자들이 그냥 문화유산을 지정하지는 않잖아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 입장이 돼서 만들어보자 이런 거였거든요.

사실은 처음에 제목은 ‘문화유산 메이커가 되어보자’였어요. 메이커라는 말은 너무 거창하고 실제로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발굴’ 정도로, 발굴이라는 용어도 어려워. ‘찾아내 보자, 찾아내자’ 그건 또 시시해서, 용어선택을 고민했죠. (다행히) 아이들이 발굴이라는 용어를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발표) 작품을 만드는 것이 주가 아니라. 내가 왜 만들었고 내가 찾은 것의 특징은 무엇이고, 친구들을 납득시킬만한, 친구들이 서구민의 대표다, 이 사람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거 하고 나서 메달도 제가 하나씩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가장 동의를 많이 얻은 건 무엇인가요?

당하산이요. 본인들이 있는 근처. 익숙한 곳. 그런데 (나머지 선정된 문화유산 가운데) 다 안 된다고 한 건 없었어요. 사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아이들) 나름대로 판단했으니까. 오개념만 안 생기면 다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이들이 이걸 하면서 논리적인 생각도 해보고, 자긍심을 조금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서구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으니까, 또 나 자신이 자랑스러워지려면 이 동네를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홍보도 좀 했으면. 홍보까지 한 거였어요. 토의를 해서 홍보 계획을 (세웠죠). 포스터를 만들어서 붙였어요. 아라뱃길 한 친구들이 했었어요. 나중에 찾으시면 보여 드릴게요.

사실 전 애들이 힘들었을 거 같아서 말을 안 했는데. (한 아이가)

‘선생님 저 포스터 만들어왔어요’ 하면서 이만큼 뽑아왔더라고요. ‘가자! 드림파크로!’ 이런 문구를 만들어서 수십 장을 뽑아왔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먼저 홍보해보자’ 했죠. 총마다 한 1~2주 정도 게시를 했죠. 사람들이 오며 가며 보더라고요. 선생님들도 기특해하시고 아이들도 뿌듯해하고. 이렇게 내가 홍보를 하고 싶은 맘이 들 정도면 (수업이 성공적이었구나 생각했죠). 그리고 서구문화원에서 자료를 많이 썼으니까 (아이들이) ‘게시판에 글을 실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의견이에요. 하지만 전 부담드리는 거 같아서 실행하진 않았죠. 자꾸 전화하기가 그래서.

아뇨.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는 좋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죠.

아이들이 다양한 걸 많이 생각했어요. 완정역 가서 홍보 배지를 나눠주자. 뭐 이런 아이디어들. 그래서 홍보까지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알릴 것이다’까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다운 깜찍한 그런. 저는 이 수업이 끝나고 마음이 너무 즐거웠어요. 결과를 떠나서 참 좋다. 아이들하고 이런 걸 해냈다는 것이. 힘들었지만요. 아이들을 한마음 한뜻으로 데려가기가 힘들죠. 아이들이 ‘하기 싫어요’ 하면 끝이잖아요. 김새잖아요. 아이들이 순수하게 잘 따라와 줬어요. 우리 반만 이런 수업을 하고 있어, 이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꿈 같은 시간이 지났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려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아이들이 선정한 문화유산 중에 선생님이 주목했던 것이 있나요?

저는 관광적인 것으로 접근이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많은 사람이 보고 유명해졌으면 하는 것. 아이들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유명한

곳들. 제가 그래서 뒷통수를 맞은 게 당하산이었어요(생각지도 못한 후보였기 때문에).

당하산 발굴현장 안내판을 보면서 궁금했을 거 같아요. 그곳이 문화재 발굴하고 흙으로 덮어 놓은 곳이거든요.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애들한테 힌트는 준 거예요. 이 동네 사는 애들만의 그런 거(특권)잖아요. 많이들 (당하산을 주제로) 하고 싶어 했어요. 우리 학교랑 당하산. 다른 건 스케일이 크잖아요. 두 개는(당하초등학교랑 당하산은) 와닿잖아요.

발굴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네요.

네, 당하산을 맡은 모듬 아이들이 답답해했어요. ‘할 게 없어요. 넣을 게 없어요’ 여러 번 저랑 이야기했고요. 저도 사진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어요. 여러 궁리 끝에 나온 결과예요. 답사를 가봐도 화려한 사진도 안 나오고요.

해당 유적 발굴한 기관 홈페이지나 문화재청 가서서 발굴보고서 검색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누구나 발굴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발굴의 기록을 찾아보는 거죠. 그러고 보니 발표방식도 다양하네요.

클래스팅(classting; 학교 도우미 앱)에 파워포인트 틀을 올려요. 도움이 되면 그 틀을 쓰고 동영상 자료로 해서 말로 설명해도 되고 그림 그려서 해도 되고. 발표 방법도 본인들이 정하는 거예요.

동영상으로 발표한 자료도 있어요. 처음에 서구 문화재 발표할 때도 서곶들노래 발표한 팀이요. 그 팀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어요.

홍보물 만든 팀이 그 팀이에요. 이걸 제가 만든 동영상이에요. 이 수업을 할 때 동기유발 자료로 만든 거예요. 아이들이 서구 문화재를 조사한 거를 ‘너희들이 이렇게 조사를 했었지?’ 이런 식으로요.

시지정문화재도 수업을 하셨네요. 아이들이 흥미를 보인 것은 무엇이었어요?

애들은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경서동 녹청자 요지, 회화나무 그리고 대곡동 고인돌, 한백륜 묘역이요.

발표 내용도 직접 구성했네요. 사진도 어디서 구했는지 잘 찾았네요. 천동기 시대. 오타도 귀엽네요. 아이들에게는 ‘묘역’ 이런 단어는 어려웠을 텐데요.

서구 문화재 16개를 뽑아서 코팅자료로 해서 나눠주고 서구 마블이라고 마블게임도 만들었어요.

직접 만드셨어요?

네, 같이 게임도 했어요. 이 문화재는 얼마의 가치가 있을까? 그럼 가치가 매겨지더라고요, 재미있었어요.

아이들이 사회 과목을 어려워해요.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3학년 아이들이 다 이해가 될까?’ 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사회가 어렵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말도 어려운 문화유산. 어렴풋이 문화유산이 무엇인지 알겠지만, 우리 동네에 접목시켜서 해보려니깐 아이들이 개념을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죠. 문화유산이라는 범위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업 준비하면서 세계문화유산도 찾아봤

있어요. 그 조건이 되는 게 네다섯 가지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 조건표를 보고 찾아보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 조건을 한국어로 대체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래서 오개념을 형성할 수도 있겠다는 고민이 많았어요. 주변에서도 우려하는 것이, 자칫하면 오개념이 심어지고 사회 관련 과목을 할 때 잘 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걱정). 저희 교과 심사 때에도 그런 점을 우려하셨어요.

아마 처음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네요. 사회 과목에 대한 이미지라던가 첫인상은 오래가니까요.

재미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사회(과목)에 흥미를 잃을까 봐(걱정했죠). 그래서 대학원 수업에서 천상열차분야지도를 접하고 아이들에게 소개하기도 했어요. 저런 것이 문화재구나. 문화재와 문화유산은 구분되어야 하잖아요.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문화재로 지정될 때까지 사람들이 하는 일들도 수업했어요. 그리고 애향심 고취는 학습 목표에도 있었는데 말도 어렵고 촌스럽죠. 자기 동네를 사랑하는 걸 가르치고 주입할 수 없잖아요.

저도 검단에 들어온 게 중학교 때 왔거든요. (당시엔) 김포시 검단면 마전리였어요. 저 어릴 때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인천이 되었죠. 그때부터니까 오래 살았네요. 결혼하고 부천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발령받아서 원당으로 왔죠. 당하동, 원당동. 선사박물관 자리 그 자리 발굴하는 것도 봤죠.

선생님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이요.

그럼 인천과의 인연은 언제부터인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부평으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검단 마전리로 이사했구요.

검단의 변화상을 다 보셨겠네요.

솔직히, 저는 서인천고등학교를 나왔어요.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이 다 논밭이었어요. 초록들을 보고 자랐죠. 정말 빠르게 개발이 되었죠.

당시 기억나는 풍경이 있으신가요?

집 뒤에는 군부대 있었구요. 다 그냥 논밭이었어요. 빌라 이런 거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논밭이었어요. 서인천고등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도 다 논밭이었어요.

버스는 몇 번 타고 다니셨어요?

7번, 17번, 77번, 1번 다 있었죠. 청라 가정동 그쪽도 터널로 다녔었어요. 요즘 가면 깜짝 놀라죠. 제가 중학교는 부일여중, 부평 쪽으로 다녔어요. 1번만 타야 됐었잖아요. 집에서 6시, 6시 반에 나왔어요. 차가 그 완전 백마장 이런 곳까지 뺑뺑 돌아가서 1시간 넘어서 가는 텐데. 버스 놓치면 끝이니깐, 엄청 부지런하게 다녔거든요. 그

래서 고등학교는 정말 ... 선생님께서 말리셨어요. 너 그 학교 가면 내신 때문에 밀린다. 그런데 저는 너무 진짜 힘들게 다녀서 가까운 데서 다니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모든 버스가 다 가니까요. 검단에서 다 지나가니까.

얼마나 걸려요?

한 20분, 그때는 가까웠죠. 신호등도 많지 않고(차도 많지 않았죠). 다 논밭이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까먹잖아요. 제가 한 20년 만에 왔으면 확 변화된 것을 느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변해가니까. 확 달라졌다는 느낌은 없어요. 처음 제가 이사 왔을 때, 이 모습이었는데. 다시 보니깐 이런 모습이었네. 아, 변화는 확 느껴지진 않죠. (자녀) 아이들도 거의 이 쪽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쉽게 옮기긴 힘든 것 같아요.

네, 검단에는 최근까지도 자연마을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요. 당하동에도 많이 남아있었죠.

자연마을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사라질 거 같아요. 저희가 다 아파트잖아요. 아이들은 보통 같은 아파트끼리 친해요. 당하초등학교 학생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정도 많고요.

지금 아파트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커서 고향인 당하동을 어떻게 기억할까 궁금해요. 그럼 인천 서구 하면 떠오르는 인상이 있다면요?

문화 다양성의 집합체 같아요. 약간 유서 깊다는 느낌은 없지만 다양하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그냥 이런 용어가 어떨지 모르

겠는데 ‘향토적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검단도 조금 그랬어요. 오래된 동네인 것 같은데 특별히 알려지진 않았고. 그냥 제 느낌에. 세련된 느낌보다는 투박한 느낌. 그런데 뭔가 경계선에 있는 듯한. 구(區)가 있잖아요. 서구의 지정문화재들을 보아도 크게 화려한 건 없잖아요. 수업하면서 소박한 인상을 받았어요.

또 한편으론 상대적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연마을이 남아있으면 좋잖아요. 얼마전에 남편 고향 동네에 다녀왔어요. 그곳도 남편이 살던 골목만 딱 남아있고 (다 바뀌었어요). 마침 거기 같이 살았던 어르신이 계셔서 차 한잔을 했었는데, 빨리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편한 데서 살면서 저들은, 그것도 조금(이기적인 거 아닐까).

문화재에 대한 관심도 이어가려고 노력해야죠. 조심스러워요. 항상 경계해요. 일회성 수업 주제로만 그치지 않으려고요. ‘내년엔 더 발전시켜서 학년이 바뀌면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지’하고 생각해요. 이번엔 학년이 아직 어려서 한계점들도 있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해볼래? 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답이. 우리 생각했을 때 이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럭비공처럼 (튀죠). 제가 놓친 부분들이 많을까 늘 염려해요. 다음번엔 고학년들과 하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못 해봤던 거를 도입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그럼 교직 생활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일한 기억밖에는 없네요. (웃음) 2017년에는 6학년을 맡게 되었어요. 그 전 학교에서 6학년 부장을 맡았었는데 여기 와서는 직책 없이 6학년만 맡게 된 거죠. 아이들과 뭘 한번 해봐야겠다 했죠. 그런데 3월 중순에 A형 간염에 걸려서 병가를 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

이들이 월드비전에서 하는 희망을 꿈꾸는 교실이라는 그런 춤추는 것을 홍보하고 캠페인 하는 다문화적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끼리 이미 다 구성을 맞춰서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찍어주려고 했더니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방송부가 있으니까) 찍고 편집까지 다 해서 보냈더라고요. 유튜브에도 올리고요. 그러면 오리온에서 과자를 이만한 한 박스를 줘요, 40봉지 들어있는. 아이들이 그거 먹고 즐거워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해볼 만한 것은 많았던 것 같아요. 3~4년간은 꾸준히 환경프로젝트도 해보고 저희는 대체로 다 교육과정에 녹아들게끔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해요. 1~2학년 같은 경우는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예절 수업, 밥상머리 예절교육을 예산 따다가 해봤어요.

저희가 뻘하잖아요. 아침 활동 진행하고 수업 6교시 하고 3시부터 제 일을 하잖아요. 제가 뭘 해보려면 남아서 해야 해요. 아이들이나 선생님들도 다 가시고 5시부터 뭔가 배고픔과 함께 1시간 정도 있으면 생각이 막 떠올라요.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원래 퇴근 시간은 언제예요?

4시 40분인데, 8~9시에 간 적도 많아요.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따로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멋지세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 선생님들도 다 노력하세요. 정말 교재연구도 열심히 하고요. 그에 비하면 저는 그냥 즐겁고 재미있게 지내려고 노력해요. 솔직히 하나를 꾸준히 못 해요. 항상 새로운 걸 시도하는 편이에요. 대학교 때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규

때는 합주부를 했었어요. 아이들과 계속 같이하는 거. 아이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웃음)

신규 때는 애들을 잘 가르쳐야지 했어요. 결혼 전이었는데 7~8시까지 안 갔어요. 하다못해 가구 배치라도 다시 하고요. 너무 좋은 거죠, 학교가. 드디어 교사가 됐어. 어렸을 때 꿈을 이룬. 중간쯤 되니까 아이들을 가르친다기보다 학교는 사회성을 길러주는 곳이구나, 나는 보조자 역할이구나.

요즘에는 보육의 개념이 (커진 것 같아요). 제 친구가 학원 강사로 있는데, 그 친구도 그러더라고요. 학교뿐만이 아니라 학원도 그렇대요.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 줄 장소가 필요한 거죠. 돌봄 교실만 해도 어머니가 집에 계셔도 아이들을 맡기기도 해요. 학교는 이제 보육 기관이다. 모든 걸 학교가 다 해야 하잖아요. 역할이 많이 확대되었죠.

학교에 대한 인식이 점차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일방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느낌은 없어요. ‘재미있게 함께 배워볼까?’ 하는 마인드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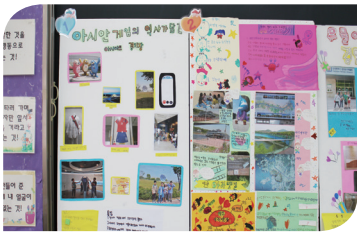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선생님께서도 20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오신 것 같아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인터뷰 모습



| 하송화 선생님



| 문화유산 프로젝트 발표자료

3) 대곡동 고인돌 이야기, 인하대 박물관 박성우 선임연구원

구술자	박성우 1961년 인천시 중구 신흥동 출생 University of Wisconsin-Milwaukee (Ph.D.) 고고학박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선임연구원 (2005년~ 현재)
구술일자	2019.06.07, 08.29, 09.27
구술장소	인하대학교 박물관
채록자	이윤희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안녕하세요. 2005년에 검단 대곡동 고인돌군을 인하대학교 박물관에서 조사했었죠? 이번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3)-검단』에 대곡동 고인돌 이야기를 담고자 찾아왔습니다. 박물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 박물관에서는 다른 박물관에서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유물 수집, 전시, 복원 그런 업무를 하고요. 지금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표조사, 발굴조사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학술조사, 지역의 문화재 점검조사라든가 혹은 서해 5도 문화재 학술조사라든가 하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 2018년에 인천시 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박물관에서 맡아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때 서구도 포함이 되었었죠? 이렇게 지정문화재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문화재를 지정해야 지속적인, 집중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정된 문화재의 성격에 따라서는 문화재청이나 중앙정부에서 어떤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학술적으로 어디에 어떤 문화재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자료로 수집해둘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니까. 문화재를 등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서구의 시지정 문화재는 분포상 검단에 집중된 편이고 문중 묘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검단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발굴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죠. 하지만 문화재로 새롭게 지정되거나 하는 움직임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담에서는 ‘인천 서구는 발굴하는 사람들에게는 블루오션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왜냐하면 이 서구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이 천천히 된 지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구지역에는 원지형이 훼손되지 않은 그러한 자연지형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또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유적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것도 많아요. 그걸로 추정을 해보면 아직 발굴되지 않은 매장문화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기타 문화재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데가 (인천 지역 중에서도) 서구지역입니다.

서구에 매장문화재 존재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신데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라는 게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 개발이 아니고서야 대규모로 전면적인 조사는 어렵잖아요. 서구에서는 이번 검단신도시가 그 기회였다고 생각해요. 발굴 성과들을 보니까 유구나 유물들도 잘 나왔고. 몇 가지 소개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인하대 박물관이 검단 원당동, 불로동에서도 발굴했었고 고인돌도 확인을 한 게 있었고. 근데 최근만 보더라도 불로동 이쪽에서 어디 문화재 연구소였더라 충청문화재연구원인가요?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많이 조사가 됐었고. 이거는 좀 전문적인 얘기를 하자면 청동기시대 환호(環濠)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그런 어떤 성스러운 장소로 추정되는. 흔히 우리가 의례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환호도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석기라든가 이런 유물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보기 힘든 양상이었고요.

인천 지역에서 저도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을 몇 번 해봤지만, 굉장히 다양한 양상의 문화재들이 지금 서구지역에서 계속 발굴이 되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전면적인 발굴조사) 기회가 생긴다면 충분히 그러한 선사시대이건 역사시대이건 새롭게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죠.

말씀 중에 다양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동기시대 주거지 평면형태는 그렇게 크게 차이를 볼 순 없지만 출토유물이. 그러니까 유물의 조합이죠. 유물 한 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물의 그 세트를 이루는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합을 이루는 세트가 시기 차이가 아주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다른 지역에서 잘 확인되지 않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석기 혹은 석기 조합, 유물들의 조합 이런 것들이 최근에 확인된 것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전체를 보더라도 보완적인 자료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특별한 발굴 성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박물관에서 인천 지역 발굴조사들을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할 만한 유적이 있나요? 서구에서 조사된 내용도 알려주세요.

글쎄 저희가 일단은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까 작은 발굴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는데 서구 같으면은 원당동 발굴을 했었고요. 인천에 다른 지역 같으면은 강화 중성 발굴을 했었고. 문학산에 청동기시대 주거지 발굴했었고, 인천에 강화 향교? 향교 터를 확인하는 발굴 수행도 했었고. 예 그다음에 작은 규모의 발굴들 특히 구제발굴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죠.

학술적으로 중요한 발굴이었다면 아무래도 문학산 발굴하고 강화 중성 발굴이 있죠. 서구 원당동 같은 경우도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하나 확인이 됐지만, 그래도 당시로선 확인된 게 많지 않았던, 당시에는 한 12년 전인데 그것도 꽤 그래도 상당히 좀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발굴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원당동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입지나 형태는 어떤가요?

제 기억에 그때 원당동에서 저희가 발굴했던 건 소위 세장방형 주거지 하나가 큰 게 확인이 됐었고요. 이미 주변 지형이 훼손되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보통 청동기시대 주거지가 하나만 그렇게 달랑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10여 기면 10여 기, 그 이상 모여있는데. 그때 우리가 확인 가능했던 건 그거 한 개였었고. 그거를 발굴하게 된 계기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고인돌이 하나 확인이 됐었습니다. 고인돌이 있다는 건 주변에 생활유적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 마을에 대규모 고인돌이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게 지배자급의 무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배자 혼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마을의 평범한 주민들도 분명히 고인돌이라는 묘제를 사용했을 거다.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시기의 다른 묘제도 있지만 어떤 고인돌은 보면 정말 장정 남자 두 사람이면 충분히 옮길 수 있을 만한 작은 덮개돌, 작은 규모의 그런 고인돌도 많이 발견이 되고요.

한편 규모로 봤을 때 어린아이의 무덤으로도 볼 수도 있지만, 사람이 죽어서 일단 땅에 묻어서 육탈이 되면, 흔히 뼈만 남게 되면 뼈만 추려서 묻었던 2차장으로도 생각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대곡동 일대에서 발견되는 이런 고인돌, 이 정도 규모라면 사실은 마을사람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기 때문에 꼭 귀족층만의 묘는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2005년에 대곡동 고인돌 정밀지표조사할 당시에 어떻게 조사에 착수하게 됐는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대곡동 고인돌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도 계속 지표조사 단계에서 몇 번 조사가 이미 이뤄졌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서구청에서 대곡동 일대를 다시 한번 정밀 조사를 해서 뭔가 후속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한다고 할까요. 그런 목적에서 2005년에 우리 인하대 박물관에 의뢰해서 정밀지표조사를 했죠. 범위를 좀 확대를 해서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그런 지역까지 지표조사의 영역을 넓힘으로 해서 그동안에 확인되지 않았던 새로운 고인돌 부재들을 많이 찾아냈죠. 그 당시에 거의 개수로 따지면 100여 개에 가까울 정도로 그리고 a, b, c, d, e 그 다섯 개 군에 그거는 기존에 알려져 있었지만, 그 각 군 안에서 새롭게 찾아낸 고인돌 부재들이 많을 정도로.

또 그 이전에 했던 때 하고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2005

년 할 당시에는 지표조사나 발굴현장이나 이런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실측하는 기관들도 생기고, 요즘은 드론을 많이 쓰지만 (당시엔) 조그마한 소형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촬영을 하고. 당시 기술로서 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투입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다 조사를 했던 거죠.

고인돌이 있는 대곡동 황곡마을이 풍수지리로도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들었어요. 지형상으로나 인문지리적으로도 특징이 확인되나요?

그곳이 집성촌이기도 하고 문중 묘역이 있죠. 그런 묘들이 위치한 데는 대부분 풍수적으로 좋은 곳에 묘가 위치하고 그 주변에 보면 가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양팔이 안고 있는 듯한. 물론 대곡동 할 때도 계곡 곡 자가 들어가지만 그런 큰 계곡부를 이루고, 그 밑에 낮은 지형에서는 지금도 농사를 짓기 좋은 그런 땅이 되어있고. 그리고 둘러쳐져 있는 산의 지형 때문에 바람막이의 역할도 해주고. 그래서 지형적으로 보면 선사시대부터 생활유적이 많이 발견되는 그러한 지형이죠.

신석기시대나 청동기시대나 대부분 주거지가 너무 높지 않은 해발고도 한 100m 내외의 하나의 능선 상으로 한 8부 능선? 7, 8부 능선이나 능선 정상부에 보통 주거지들이 많이 위치를 하죠. 그래서 대곡동에 고인돌이 그렇게 많이 있다는 것은 그 시기에 살았던 생활유적이 반드시 가까운 데 있는 거죠. 주거지라든가. 농사를 지었다면 농사를 지었던 경작지라든가.

대곡동 고인돌 조사결과를 보면 규모면에서 강화나 고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뒤지지 않더군요. 특히 밀집도가 굉장히 높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첫 번째로 중요한 건, 2005년도 조사할 당시에 그 이후로도 몇 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 덮개돌은 없어져 버리고 밑에 흙돌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반면 덮개돌이 남아있다면) 보통 흙돌 하부에 시신을 매장하거나 부장유물이 매장되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이미 다 훼손돼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하부구조를 발굴해서 안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래도 덮개돌이 덮여있으면 어떤 도굴꾼 같은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파보기 전에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데 덮개돌이 없는 경우에는 훼손이 금방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 우선 첫 번째.

그다음에는 큰 길가라든가 경작지에 바로 붙어있는 것이라든가 그러면은 그게 개인 땅이고 어떤 문화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 같은 경우는 무슨 작업을 하다가 방해가 돼서 깨서 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 노출돼있는 것을 우선으로 발굴조사를 해서 현장보존이 가능하면 복원을 해서 두는 거고. 그래서 사유지에 있다면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보존을 하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조사 당시에 봤을 때 덮개돌의 부재나 이런 것들은 보통 능선 위나 능선 사면에 있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서 덮개돌이나 흙돌이 무너지면서 계곡을 따라서 계곡 안쪽으로 다 흘러 내려온단 말이죠, 이게. 지금 있는 위치가 원래 위치는 아니고 물론 원래 위치에 잘 남아있는 고인돌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들어 올려가지고 발굴조사를 통해서 예를 들면, a, b, c, d, 갑, 을, 병, 정 이 네 개가 하나의 세트 조합이구나, 라든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개수가 몇 개나 되는구나.

우리가 조사할 때는 문자 그대로 지표조사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곡동은 굉장히 오랜 시간 퇴적이 많이 되고 그 위에다가 또 낙엽이 퇴적이 많이 되었어요. 우리가 못 찾아낸 고인들의 부재가 아마 더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런 거를 더 하려면 그거는 지표조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역별로 a구역, b구역 나눠서 하더라도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위급한, 심각하게 위험에 노출돼있는 이거를 우선적으로 하든 빨리 그거를 발굴조사를 해야 정확한 양상이 진짜 파악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그냥 개략적인 파악만 하고.

말씀 중에 나왔던 지표조사, 시굴조사, 발굴조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 조사를 할 때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문화재 보호법에 현재 확인된 문화재가 있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원지형을 훼손하는 그런 토목공사가 이뤄질 때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면적 이상이 되면 문화재 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첫 번째 하는 단계가 지표조사. 그래서 가령 서구에 학교 운동장만한 어떤 지역에 건설현장이 벌어진다고 할 때 그 원지형이 살아있는(파괴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 일단은 옛날 우리가 고문헌, 고지도도 찾아보고 또 현장에 나가서 육안으로 우선 첫 번째 살피니다만 법상 우리가 삽으로 막 속에까지 파볼 수는 없어요. 철차상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떤 토기편, 자기편, 어떤 기타 무슨 석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보면은 대충 저희들이 추정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어떤 유물이 부장돼있던 무덤이 훼손이 되면서 그 유물들이 밖으로 흘러나와서 밑으로 쏠려 내려다거나 그런 것이 파악이 되면 아 거기에는 어떤 무덤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집터가 있었을 것이다, 건물지가 있었을

것이다,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근거로 해서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 혹은 표본조사, 시굴조사랑 비슷한 애한테 처음에 시험적인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전면적으로 파보는 게 아니고 그건 일종의 돈과 시간의 낭비가 되기 때문에.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그런 어떤 도량을 파는 거죠. 땅을 파서 그 안에 뭐가 묻혀있는가를 확인을 하면 그랬을 때 실제 그런 어떤 무덤이나 건물지 같은 게 확인이 되면 다음 단계로 본 발굴, 정식발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순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대곡동 고인돌은 지표조사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만약에 고인돌 하부구조를 조사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그 발굴이라는 거는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해체를 우선 하죠. 덮개돌을 다른 데 옮겨놓고 흙을 주변으로 마찬가지로 작은 규모지만 도량을 파서 트렌치를 파가지고 내부를 조금씩 조금씩 확인해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파보면 알 수 있는데 한 번이라도 파던 그러한 자리는 전혀 훼손이 안 됐던 자리하고 흙 색깔부터 다르고 하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저희가 암반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생활했던 공간의 어떤 퇴적층은 다 파서 바닥이 완전히 드러날 때까지 파서 뭔가 유물이나 시신이나 기타 관이나 뭐가 됐건. 그런 것들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고인돌 같은 경우에는 덮개돌이 워낙 무거우니까 중장비를 사용해서 옮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발굴하고도 굉장히 뭐랄까요, 특별한 방식의 발굴을 해야 되는 거죠.

면적은 좁아도 조사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르겠네요.

그렇죠. 기본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은 다 같고 고인돌 같은 경우엔 부재가 무거우니까 그 부재를 옮길 수 있는 중장비가 동원이 된다는 게 좀 다른 면이겠죠.

대곡동 고인돌 중에 밑에 궂돌이랑 위에 덮개돌이 같이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발굴조사가 가능하겠네요. 그럼 대곡동 고인돌의 특징이 혹시 있을까요? 크기라든지 형태라든지.

고인돌도 일종의 어떤 지역적인 특색이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보통 고인돌은 이 탁자식, 바둑판식, 흔히 개석식 이런 한 3-4개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곡동에 있는 고인돌군은 다 소위 옛날 용어로 북방식, 소위 탁자식 고인돌인데. 궂돌을 지상에 나오게끔 설치를 하고 그 위에다 덮개돌을 덮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남쪽으로 가면 바둑판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많은데 석검 같은 것, 혹은 매장주체부를 땅속에 묻고, 땅 지표면 바로 위에다가 덮개돌만 올려놓는. 그런 게 바둑판식. 지역마다 조금씩 형식이 다르긴 합니다. 다르긴 한데 이 대곡동 일대에 있는 거는 대곡동뿐만 아니라 강화라든가 경기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들은 대부분 그런 어떤 탁자식 고인돌이고.

저희가 그 당시에 조사를 했을 때 정확하게 잘 번지수까지 기억은 못하지만, 그 돌들은 인근에 야산 채석장에서 채취를 해서 조성되었어요. 저희 보고서에 시험조사결과서까지 다 실려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무너져있는 상태지만 우리가 그 강화 부근리 고인돌군에서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꽤 큰 규모의 고인돌들도 있고요.

석재들도 어느 정도 다듬어져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덮개돌은 옆부분을 떼어내려다가 만 그런 흔적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고인돌을 보시면 이런 구멍들이 일렬로 나 있는데 보통 당시에는 돌의 결을 따라서, 나무결을 따라서 톱질을 하는 것처럼 돌의 결을 따라서 일정 간격으로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나무뿔기를 박아놓죠. 주로 활엽수가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게 물기를 먹어서 점점점점 팽창하면 그 결대로 (돌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는 그렇게 떼어내고 자질구레한 건 손으로도 손질을 했겠죠. 그런 흔적들이 고인돌에 많이 남아있고 그래요.

그게 바로 채석흔이라는 건가요?

예, 채석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석을 가져다가 가공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당연히 가공을 하고요. 그 인근에 있는 돌을 쓴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채석장에서 그 돌들을 일정한 형태로 만 들어서 가져와서, 세부적으로 다듬고 하는 건 아마 현장에서 했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지표조사는 육안으로만 확인하잖아요. 고인돌인지 아니면 그냥 큰 돌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단서가 있나요?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고인돌 중에 보면 특히 그 남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왕왕 보고가 되는 게 있는데, 덮개돌을 그냥 큰 돌을 옮겨다가 전혀 가공하지 않고 그냥 사용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큰 바윗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밑을 파고 거기다 오히려 꺾돌을 끼워 넣는 형식으로 형성됐을 걸로 추정되

는. 이게 너무 커서 그걸 들어서 (밑에 조성하는) 그런 식으로 보고 가 된 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이게 고인돌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대곡동 고인돌뿐이 아니라 경기도 중부 지역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인돌들은 아까 말씀드린 탁자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꺾돌이나 덮개돌을 다듬기 때문에 그게 자연적으로 그냥 있는 것과는 분명히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한 지역이면, 100%는 아니지만 10개의 고인돌이면 그중에 7, 8개는 다 같은 종류의, 화강암이면 화강암, 다 같은 종류의 암석을 쓰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고인돌 부재로 쓰는 재질이면서 인위적으로 손질한 흔적이 있다 하면 이거는 고인돌의 부재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한 거죠.

만약 덮개돌이 유실되고 꺾돌만 있는 상황이라면요? 꺾돌이 얹혀진 형태를 보고서는 판단을 하나요?

덮개돌도 없어지고 꺾돌도 무너져서 얹어져 있다, 그런 경우는 구별하기가 정말 힘들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꺾돌이 하나 혹은 운이 좋으면 두 개. 그리고 그 꺾돌은 지역에 따라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시기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꺾돌을 두 개만 사용하는 데도 있고, 막음돌, 큰돌로 두 개의 꺾돌을 하고, 그 아래 위를 또 약간 작은 꺾돌로 막은. 그래서 그런 거는 같은 대곡동 지역 내라든가 저기 강화에만 들어가도 두 개만 쓴 것도 있고, 네 개만 쓴 것도 있고 한테, 그런 꺾돌이라는 거는 똑바로 세워져 있단 말이지요.

자연상태에서는 큰 덮개돌도 홍수가 나고 하면 쓸려내려 옵니다, 밑으로. 대곡동도 계곡 안쪽으로 지금 부재들이 다 쓸려내려 와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돌이 굴러다가 뽕뽕 서는 경우는 거의 확률적으로 없고. 그중에서도 특히 이 양쪽에 두 개의 어떤 꺾

돌이 나란히 보고 꽂혀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거는 인위적으로 만든 거지 자연현상으로 생긴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걸 고인돌의 껍돌이구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덮개돌이 없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훼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빨리 발굴을 해봐야 되죠, 빨리.

아까 말씀 중에 부장품 얘기가 나왔는데 부장품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과 함께 묻는 물건이잖아요. 선사시대 유구에서 주로 출토되는 부장품에는 무엇이 있나요?

글쎄요 일단 청동기시대 같으면은 석기? 그다음에 청동 유물이 사실 나오는 건 굉장히 좀 시기가 뒤로 가야 청동 유물들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런 토기들이 일상적으로 발견이 되고.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은 우리가 청동기시대라고 부르지만, 청동 유물 자체는 청동기 후기쯤 돼야 주거지가 됐건, 묘가 됐건, 약간 후대에 좀 나오는 경향입니다.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것들은 석기와 토기 종류. 특히 석검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매장문화와 부장품습은 인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당시 사람들의 믿음의 체계니까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내가 그 사람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사람의 가장 뭐랄까 일상과 관련된 마치 어떤 죽어서도 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물건을 쓴다? 어떤 그런 개념 비슷하게 내가 보통 때 사용했던 도구라든가 칼 같은 무기라든가 기타 이 사람의 어떤 신분 이런 거를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들 그런 것들이 많이 부장품으로 묻히죠.

역사시대로 오면 부장품의 성격이 분명히 어떤 그러한 권력자의 부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부속품들이 보이기는 해요. 보이기는 하는데 근데 신석기 시대나 청동기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인돌 같은 경우도 이 하부구조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멸실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죠.

고인돌은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거석문화는 무엇이고 다른 문화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고인돌 얘기로 잠깐 돌아가면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고인돌이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곳이다. 그거는 일단 원론적인 부분에서는 맞는 얘기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밑에다가 돌을 두고 시신이나 기타 용도로 사용을 하고 위에다가 큰 덮개돌을 놓는 이러한 기본 형태 꼴을 가진, 우리가 고인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신대륙을 빼놓고는 전 세계적으로 다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연대측정을 해보면 시기가 가장 빠른 것들은 오히려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라든가, 덴마크, 네덜란드와 같은 유럽에서도 고인돌이 발견이 되고요. 아시아지역에서 물론 중국에서도 발견이 되고 일본에서도 일부 발견이 되고 하지만 지역이 넓긴 하지만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이 돼요.

특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도 고인돌을 하나의 무덤의 형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쪽 지역의 고인돌은 지금 한반도의 고인돌하고 모양이나 형태는 다릅니다만, 뭐랄까 돌을 사용해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방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덮개돌을 놓는다는 기본 개념에서 보면 동남아 지역에서는 지금도 고인돌을 현재 묘제로서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아주 오래전 선사시대 인류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중 하나가 아니었을

까 생각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범주를 거석문화라는 명칭을 쓰면 영국의 스톤헨지, 영국에 가면 스톤헨지 말고도 거대한 돌들이 열을 이루고 있는 이런 거라든가, 이스터섬에 가면 모아이 석상, 이집트나 마야의 피라미드, 이것도 분명히 거석문화고. 요녕, 길림지역에 가면 고구려 장군총이나 고구려 무덤, 서울 석촌동에 적석총 그것도 사실 거석문화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많은 인력이 상당히 오랜 기간 뭔가 인력과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대한 축적물들인데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집트 피라미드가 이집트 왕의 무덤이라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 영국의 스톤헨지 그것도 그 이후에 꾸준히 발굴을 해보면 그 당시 신석기 후기쯤 되는 그러한 시기에 그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그러한 의례적인 행위를 했던, 그리고 그 인근에서 어떤 주거지나 무덤 같은 것들도 계속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1960년대에 우연치 않게 지금 터키의 지역에서 터키 고고학자들과 독일 고고학자들이 어떤 문명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을 계속 방치돼있다가 1990년대 이후에 독일 고고학자들이 또, 아 그 1960년대 했던 건 아마 미국팀이었을 거예요. 미국팀하고 터키팀이 처음에 그 단서를 발견을 하고 부분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터키 지역에서요?

예, 터키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독일 발굴팀하고 터키의 발굴팀이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가요. 199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그 모습이 거의 한 20년 넘게 발굴하는 게 하다가 몇 년 쉬었다가 이렇게 되고 또 조사 내용을 분석도 해야 되고 하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 엄청나게 큰, 거의 7, 8m 되는 무게가 수 톤이 되는 그런 기둥들이 여러 개 발견이 돼요. 그리고 그 기둥에는 각종 동물이나 어떤 상징적인 문양들이 새겨져 있는.

이 문화를 괴베클리 테페(Göbekli Tepe)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터키어로 ‘배꼽 모양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영국의 스톤헨지라든가 모아이 석상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거기는 계급분화가 되고 정착생활을 하고 뭔가 사회분화가 이뤄지고 분업이 이뤄지고 조직화 되고 사회에 계급이 생겨나고 그래서 어떠한 중앙권력이 주도가 되어서 그런 것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나 능력이 됐다, 그런 식의 해석을 많이 해왔는데.

이 괴베클리 테페는 영국의 스톤헨지 이상으로 큰 규모의 거석문화인데 그런 정착인들도 아니고, 농사를 짓던 사람도 아닌 수렵채집을 하던 사람들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발굴결과를 보면 일정한 때가 되면 거기 모여서 마치 집안사람들이 다 흩어져 있다가 제삿날 한 집에 종갓집에 모이는 것처럼 설날 같은 때. 그런 식으로 일정한 주기적으로 모여서 어떤 축제, 의례를 행했던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계의 고고학계에서는 굉장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화적인 현상을 해석을 할 때 A=B라는 직선적인 설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 중에 하나죠.

거석문화가 청동기시대의 계급분화 상징으로 생각됐었는데, 오히려 신석기 그 이전 수렵채집 하던 사람들의 거석문화가 나왔다니 정말 새롭네요.

인하대 박물관에서는 인천의 도서 지역 조사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섬 지역 조사는 현황은 어떤가요?

학술적인 조사를 수행했던 거는 그 서해 5도. 연평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2005, 6년도에 인천 지역 문화재 분포지도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거는 기존에 있는, 알려진 문화재가 지금도 잘 있나 쉽게 말씀드리면 그걸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그렇게 조사를 다니다가 새롭게 물론 발견되는 게 있으면 그 분포지도에 올렸죠. 그 당시에 한 번 조사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서해 5도 몇 번 조사를 했었고. 근데 그 백령도나 그니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해에 있는 그 섬들은 대부분의 섬에 다 유적이 있다, 첫째.

둘째는 선사시대 유적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러냐면 섬 지역은 일단은 토목공사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지역이 많고 토목공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무슨 대규모의 큰 규모의 빌딩이 선다거나 그런 저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그마한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사람 일상생활하는 그런 개인 단독주택 정도를 지으면 터파기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유적이 훼손이 되어도 일부만 훼손이 된다고나 그래서 남아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본 그런 어떤 큰 섬들, 백령도, 대청도, 덕적도, 연평도 이런 데는 다 이미 확인된 유적들도 많이 있고. 연평도 까치산 패총이나 신석기 시대 패총 같은 거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백령도 같은 데도 이미 알려진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은 발굴하기가 사실 장비를 들여다가 발굴하기가 좀 쉽지 않은 지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데. 특히 굴업도라든가, 굴업도는 제대로 문화조사가 잘 이뤄지지 않은 지역인데요. 그러한 섬들 다 뒤져보면 사실은 문화재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쉽게 문화재 발굴조사라고 말하지만 간단한 작업은 아니잖아요. 특히 대규모 발굴에서는 일단 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고 묘가 있으면 이장도 해가야 하고요. 만약 산에 나무가 있으면 나무도 다 베고서 제토를 하잖아요. 발굴조사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발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그 유적의 형태에 따라서 산성이다, 주거지다, 무덤이다, 방식은 다르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가 유적을 정식으로 발굴해 나가는 건, 이거는 발굴이란 건 두 번은 할 수가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한 번 발굴을 하면 사실은 한편에서는 그 유적이 다 해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거는 지표에서 예를 들면 주거지가 확인이 됐다고 할 때 그 바닥 면이 나올 때까지 한층 한층 긁어내려 가죠. 긁어 내려가면서 그 구조 형태를 확인하는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고, 그다음에 햇볕에 노출이 되지 않은 특히 유기물, 어떤 나무라든가 유기물이 있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시료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시료 채취를 하면 거기서 소위 방사성탄소연대 측정 같은 그런 어떠한 연대측정. 그다음에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어떤 꽃가루 같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정보, 곤충이나 곤충의 알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죠.

예산과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유구 내의 내부토를 체로 걸러냅니다. 무덤 내부라든가 주거지 내부. 너무 많으면 다 할 수는 없지만, 그중에 무덤이 10개가 발견이 됐다면 그중에 1, 2개 정도는 내부의 흙을 사실은 다 갖다가 물을 흘리면서 체를 갖고 걸러내는 이거를 플로테이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그런 걸 통해서 아주 작은 돌조각이나 씨앗 혹은 꽃가루 같은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다 걸러내야 당시에 어떤 환경이나 생물학적인 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있죠.

분야별로 나중에 보고서에 사진, 그다음에 이 유물들을 실제로 실측한 실측도면들, 그다음에 이런 어떤 과학적인 분석을 한 생물학적인 분석, 화학적인 분석 이런 걸 한 분석보고서, 이런 게 나중에 다 실리게 되는 거죠.

현장에서의 작업뿐만 아니라 실내에서의 정리와 분석 작업도 중요하겠네요. 이런 종합적인 조사 작업이 이루어진 후에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일반인들도 쉽게 보고서를 볼 수 있게 공개하고 있죠?

지금 발굴조사를 하면 기본적으로 2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발굴현장이 너무 크다거나, 또 중간에 중요한 문제가 걸리거나 물론 어느 정도 상황이 정확하면 연장은 됩니다. 그리고 발굴결과보고서를 책으로도 인쇄를 해서 각 기관의 문화재청에 보고를 하지만 pdf파일로 다 올라와 있어요. 근데 발굴한 모든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건 아닙니다.

인천지역 같으면 최근에 발굴한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도 관심 있으시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 지역 문화재라는 섹션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발굴 완료가 된 것들은 pdf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을 받아서 얼마든지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한적이지만 문화재분포지도를 보셔도 되고요. 지역별로 일반인들한테 세세한 것까진 공개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는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서구라면 서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문화재에 대한 기본정보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화재 목록부터 시작해서요.

발굴조사는 대부분 사람의 손에서, 고고학자들의 손에서 이뤄지게 되는데, 그 현장에서 조사에 임하는 연구원의 자질이랄까 마음가짐은 어때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실제 발굴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발굴이 끝난 다음에 이 데이터를 제대로 보존을 하고 분석, 해석하는 과정까지가 발굴의 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 대학의 학부부터 체계적으로, 학문적인 면에서도 기본적인 훈련이 필요하고요.

현장조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산성, 주거지, 무덤 등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발굴하는 방식에 약간씩 차이가 있어서 현장에서 그거를 하나하나 배워야 하죠.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돼요. 아까 말씀드린 연대측정이라든가 생물학적인 분석이나 그런 건 해당 연구기관에 보내서 전문가한테 의뢰하죠. 가장 어려운 부분은 조사된 유적의 성격을 해석하는 데까지는 학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오랜 기간 훈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문화재 조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고인돌 조사를 할 때는 대곡동에서 할 때는 특별히 에피소드라 할 부분은 없었고 전에 말씀드렸던 거기는 워낙 그 퇴적층이 두꺼워서, 낙엽층이 두꺼워서, 이 부재 하나하나 찾아내는 데 상당히 애를 먹었고 그래서 풀대를 가지고 다 낙엽 속을 찌러보면서 확인을 할 정도로. 애를 좀 먹었던 기억이 있고.

조사 때문에 현장에 가면 가장 첫 번째 보는 게 현수막을 봅니다. 어느 지역을 가면 재개발조합 환영 이런 환영 일색의 현수막이 걸려 있으면 우리는 별걱정 안 하고 다니는데, 아 거의 욕설에 가까운

반대 현수막이 걸려 있는 지역을 가면 그 사람들 하여튼 그 관할 구청이라든가 건설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아주 그 거칠게 대하니까. 어쨌거나 우리는 그쪽하고 거리가 멀지만 늘 카메라 숨기고 다니는. 그러다가 ○○동에서 한 번 지표조사를 할 때 글썄요 대충 한 70대 초반? 중반쯤 되는 노인분들이, 노인 한 분이 발일을 하시다가 우리가 지나가니까 불러 세우더니 막 욕설에 가까운 호통을 치시면서 “뭐 왜 와 가지고 뭐 그 쓸데없이…” 한 마디로 그분은 그쪽 지역에 무슨 재개발 계획 같은 게 이야기가 있었나 봐요. ○○동으로 기억을 하는데. 막 뭐라고 우리한테 야단을 치면서 거의 30분을 붙들려 가지고. 멀쩡하게 잘살고 있는 사람을 왜 내쫓으려고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너희들이 인생이 뭔지 아냐부터 시작을 해서. 한 30분 훈계를 들었던. 그랬는데. 그런 경우도 비밀비재하게 있어요, 왕왕 있고. 다른 지역에 어떤 다른 발굴팀 같으면 그보다 더한 꼴을 또 당하고 있었던.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역을 한정해서 인천 서구의 선사시대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지만, 인천 서구의 선사시대의 양상이 어땠는지 질문드릴게요.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인천지역이다. 인천의 서구다 하는 것은 사실 행정적인 구획일뿐이지 우리가 인류의 어떤 역사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죠, 사실은. 근데 다만 약간 지역을 좁혀서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서구뿐이 아니라 인천, 강화 이쪽 일대를 예를 들죠.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농사라는 행위를 하는 것은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이 되고 이 한반도 내에서도 신석기 시대 후기쯤 되면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인천 서구지역 같으면 바닷가와 인접해 있으니까 주변에

큰 강들도 있고. 어로를 참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건 어로행위는 사실은 섬 지역에서 신석기 시대에 많이 나타나요. 근데 청동기시대가 들어가면 의외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유적들에서도 그렇게 어로의 흔적이 아주 많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단 인천지역 같으면은 바닷가에 접해있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한 면이 있죠. 이미 신석기 시대가 되면 작은 배지만 배를 타고 상당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해서 다닌단 말이죠. 그러한 교통의 편리성.

그다음 강 하구나 해안가에 위치한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농사를 짓게 된 이후에는 어떤 비옥한 땅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사실은 한반도 전체를 봐도 신석기, 청동기시대 같은 구석기시대라든가 양상을 보면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합니다만 그리고 서구에서도 또 구석기 유적이 유일하게 확인된 데가 또 서구고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사람이 살기 좋은 여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죠.

구석기시대, 2만 년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의 산둥반도, 한반도, 일본 열도가 다 붙어있었어요, 2만 년 이전에는. 그 어떤 빙하시대 해수면의 영향 때문에. 지금처럼 섬이 형성된 건 2만 년 이후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그런 구석기 유적 같은 거는 사실은 작은 섬에서도 확인되지만, 특히 인천 해안 지역은 바닷가라는 특성 그리고 아주 높지 않은 낮은 구릉지대가 많이 펼쳐져 있는 그런 특성 때문에 구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한마디로.

선사시대 유적이 그동안 난개발 때문에 많이 훼손도 됐겠지만, 아직도 새롭게 발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데가 많고. 그중에 인천 지역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데가 개인적으로 난 서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직 원지형이 잘 남아있는 데도 많고. 땅이 좋아서.

이제는 ‘문화재 보호’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지만, 문화재가 사유지에 있을 경우 재산권에 관한 갈등이 있기도 하죠. 문화재 보존과 지역개발을 함께 풀어갈 뾰족한 방법을 찾기가 어렵지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는 늘 재산권 침해 문제하고 결부되어 갈등을 빚는데. 조금 거칠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결책은 돈이죠. 사유지를 사실은 시 예산이나 구청 예산 혹은 문화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입을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물론 발굴조사를 다 완료료 해 봐야 할 수 있는 얘기지만. 대곡동을 예를 들면 고창이 됐건 강화가 됐건 다른 어떤 고인돌군에 비해서 규모나 분포로 보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대규모 고인돌군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일단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원형에 가깝게 복원을 하면. 그리고 그쪽 지역 주민들과고 만약에 합의가 된다면 그 일대를 어떤 고창 고인돌 공원처럼, 강화 부근리 그 고인돌 공원처럼 그렇게 꾸며놓으면 그것이 꼭 어떤 큰 관광 수입을 가져온다고 장담을 할 순 없지만, 지금처럼 방치하는 것보다는 문화재 보존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효용성이 있는 거고요. 또 그러한 과정에서 땅 주인한테 일정 부분의 보상을 반드시 해야겠죠. 구체적인 방법은 각 지역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게 찾아야 되겠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이죠. 문화원에서 답사나 문화행사를 할 때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활용하는 편이에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책자발간이긴 하지만 관련된 사항들을 더 알릴 수 있게 도움 예정입니다. 긴 시간 인터뷰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인터뷰 모습



| 박성우 선생님



| 인하대 박물관



| 유적 설명 모습

Epilogue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에필로그

생명 순환의 본가, 검단

1

지난해 여름, 나는 서유럽의 한 공항에서 A380여객기를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유라시아대륙을 단번에 가로지르는 장거리 항행이었다. 비행기 양쪽 날개 연료탱크에 항공유를 가득 채운 급유차가 서둘러 떠나고, 승객들의 수하물과 기판품, 기내식 탑재도 끝났다. 게이트 앞에서 긴 행렬을 이루고 있던 승객들까지 모두 탑승하자 출입문이 닫혔다.

보딩브릿지와 분리된 비행기는 엔진을 켜지 않은 채, 보조동력장치(APU)만 구동시켜 조심스럽게 뒷걸음으로 계류장(繫留場)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공항관제탑이 지정한 활주로를 향하여 느리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한여름의 따가운 햇살이 투명한 화살처럼 드넓은 공항 램프 맨바닥에 무수히 내리쬐히자, 먼 곳에서 신기루처럼 파스텔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출발선에서 이륙신호를 기다리던 비행기가 단거리 육상선수같이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엔진을 최대출력으로 올렸다. 돌연, 세랑게티 평원에서 먹잇감을 쫓는 야수처럼 포효하며 비행기는 맹렬한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했다.

양력이 중력의 저항을 넘어서는 순간, 비행기는 땅을 박차고 그 육중한 몸을 하늘로 솟구쳤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몽환적 수채화 캔버스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끝없이 펼쳐진 녹색 담요 위로 천상의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절정을 향해 치닫는 듯, 광활

한 평지를 유장하게 휘돌아나가는 질푸른 강줄기와 작은 호수들, 소택지, 뾰족한 가톨릭교회 첨탑과 붉은 주택의 지붕들과 언덕위의 헛간들, 정겨운 물레방아까지 한눈에 들어왔다. 수려했다. 경쾌하면서도 의연했다. 몽골고원과 아시아 북방의 척박한 환경과 극적으로 대비되는 풍경이었다.

비행기는 어느새 순항고도에 접어들었다. 승무원들이 따라주는 커피 한 잔 느긋하게 마시고 나자 비행기는 알프스산맥을 넘어 오스트리아를 지나 헝가리 카르파티아 분지 상공을 날고 있었다. 우크라이나 평원까지 지나면 바야흐로 아시아 땅이다. 역사적으로 그곳 중앙아시아 대평원과 몽골고원의 광활한 땅에서 수많은 문명이 탄생하고 소멸했다. 뾰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메마른 초원을 거침없이 달리던 아시아의 북방 기마민족들은 그 옛날 당대 최고의 기동력을 갖고 있어 유라시아대륙 양단의 그 까마득한 거리도 단숨에 가로지를 수 있었을 것이다.

대항해시대 이전 유럽인들은 세상의 서쪽 끝은 포르투갈의 호카곶(Cabo da Roca), 동쪽 끝은 코카서스산맥의 카즈베기산이라고 믿었다. 대서양을 바라보고 있는 호카곶 십자가 기념비에는 ‘세상의 끝 - 육지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옛 유럽 문호의 글이 적혀 있다. 그리스 신화 속 인물인 ‘프로메테우스’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다던 조지아의 카즈베기산 오른쪽에도 바다같이 넓은 카스피해가 펼쳐져 있다.

코카서스산맥이 동서양의 교류를 막았던 험준한 천연장벽이었다면, 바로 그 위로는 습지대라는 음습한 천연장벽이 있었다. 악령이 우글거린다고 소문난 곳이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예프 인근에서 발원하는 드네프르 강 하류에 넓게 형성된 프리피야티 소택지가 그곳이다.

6세기경에 살았던 동고트족의 역사가 ‘요르다네스’는 그곳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곳은 늪지대로 둘러싸여 이동 통로가 막혀 있고

수륙이 한데 뒤섞여 사람의 침입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도 많은 여행자들이 그곳에서 기괴한 동물의 울음소리를 듣고 사람의 혼령이 늪 안에서 발버둥치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하였다.’ (장진웨이, 2010, 『흉노제국 이야기』, 333쪽 참조)

역사적으로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굳게 닫혔던 대문의 빗장을 최초로 연 사람들은 흉노족이었다. 그 옛날 아시아 사람들도 아시아대륙과 유럽을 가로막고 있는 그 소택지를 세상의 서쪽 끝이라고 여겼다. 누구도 그 늪을 건너려는 무모한 시도를 한 적이 없었다. 설령 누군가, 어떤 유목민 부족이 용감하게 도전하여 그곳을 건너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또 다시 위험을 무릅쓰고 돌아와서 경쟁자들에게 그들이 목격했던 멋진 신세계에 관한 얘기를 들려줄 이유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곧바로 새롭게 펼쳐진 놀라운 세상에 흠뻑 빠져들었다. 당시 그곳에는 게르만족의 일파인 동고트족이 살고 있었다.

중국의 사학자 장진웨이는 그의 저서에서 흉노족이 동서양의 빗장을 여는 그 역사적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다. ‘프리피아티 습지대 일대는 인간의 통행을 막았다. 그곳 양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그곳을 감히 건너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인류에게 금지된 구역이 훈족에게만은 예외였다. 서기 4세기 중엽 어느 날, 사냥을 하던 훈족 무리들이 사슴 한 마리가 소택지에서 유유히 먹이를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수확을 얻지 못한 사냥꾼들은 활을 겨눈 채 사슴을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사슴은 재빨리 늪지대 한가운데로 달아나버렸다. 사냥꾼들은 늪지대 앞에서 고삐를 당겨 말을 세웠고 멍하니 사냥감이 달아나는 곳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슴이 걸음을 멈추더니 슬그머니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닌가. 한 사냥꾼이 말했다. “사슴이 지쳤나보군. 뒤쫓아가면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야. 사슴이 건넌 길을 우리라고 못 건너가라는 법이 있겠어?”

사냥꾼들은 늪을 건너기 시작했고 지나온 곳의 나무에 표시를 해 두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사냥감을 놓치고 말았다. 그런데 해가 저서 사방이 어두워질 무렵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소택지를 건너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저 먹을 것이 필요해 사냥감을 뒤쫓다가 어느새 드넓은 소택지를 건너온 것이다. 그들 앞에 펼쳐진 세상은 바로 우크라이나 초원이었다. 훈족에게는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그 사슴이 게르만족의 일파인 고트족에게는 저주의 대상이 되어 버린 순간이었다.

2

1920년 늦가을, 아시아대륙의 동쪽 끝 한반도 부평고을의 진산이라는 계양산 아랫마을에 사는 청년 김종기는 이른 아침부터 장정 네 명이 앞뒤에서 들고 가는 가마인 사인교(四人轎)를 타고 찬서리 내린 역참로를 따라 초행길을 재촉했다. 옛날 고려시대 지방관과 보부상, 삼남지방의 선비들이 청운의 뜻을 품고 수도인 개경에 오가던 길이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에는 겨울 철새들이 떼 지어 날고 있을 뿐, 우마차 한 대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의 좁은 도로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 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역참로로 활용된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었다. 부평부 다남리에 있던 금륜역은 반세기전인 1871년 폐지되었고 시천리에 있던 구슬원은 그 이전에 이미 유명무실해졌다. 후행으로 나선 작은 아버지와 함진아비, 동네 친구 두어 명이 일행의 전부였다. 이따금 뽕얀 먼지를 일으키며 질주하는 파발마가 나타나면 갓길로 피해 있다가 지나가면 다시 길을 떠났다.

일행의 행선지는 인근 검단면의 쇓골(금곡동) 마을이었다. 바닷물이 흘러들어왔다가 썰물 때 빠져나가는 바람에 늘 질척이는 빈정

내 갯골 징검다리를 건너 검바위마을을 지나서 갔다. 장모루 가파른 산모퉁이도 돌아서 갔다. 시시내마을 앞길과 한들마을, 독정이를 가로지르는 언덕을 지나고 당하리와 마전리까지 지나자 쇓골이 지척이었다.

쇓골 입구로 들어서자 가현산과 사자봉산 줄기가 둘러싸고 있는 고즈넉한 그 마을에는 납작 엮드린 초가지붕들 사이로 참죽나무와 감나무, 고욤나무가 지천이었다. 추수를 끝낸 논에는 난알이 그대로 붙은 짚단을 임시로 쌓아 놓은 ‘난가리’들이 군데군데 세워져 있었고, 집집마다 마당가에는 탈곡을 마친 짚단들을 모아둔 ‘짚가리’들이 높이 쌓여 있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는 ‘짚가리’의 규모로 그 집 살림살이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집안 경제규모의 척도가 되기도 했다.

타작을 끝내고 남은 벼짚들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우선 벼짚은 서민가옥의 대표적인 초가지붕의 지붕재로 요긴하게 쓰였는데, 짚으로 이엉을 엮어 보통 한 해 걸러 햇이엉을 새로 해 엮었다. 초가지붕의 기원은 혈거시대를 지나 주거 양식이 형성되던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의 기록인 『구당서(舊唐書)』 열전에도 고구려인들은 살림집을 반드시 산곡에 짓는데 대부분 이엉을 이어 지붕을 만든다고 나와 있으며,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도 가락국의 김수로왕이 세웠던 가궁(假宮)은 토계(土階) 위에 세우고 초가지붕을 이은 것이라고 나와 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김수로왕 가궁이 19세기 유럽 교과서에 실렸던 ‘아틸라’대왕의 훈제국 왕궁을 묘사한 그림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이다. 고대 우리 민족 파워엘리트들과 훈(흉노)과의 연관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유럽을 뒤흔들어 민족대이동을 촉발하고 로마를 멸망케 했던 그들이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이 북방 바이칼호 인근에서 무리지어 살 때, 이웃사촌이었는지도 모른다.

1950년대 가수 김정애가 불러 유행했던 “앵두나무 처녀”라는 제목의 옛 가요가 있다. 6·25전쟁이 끝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먹고 살기 힘들었던 농촌을 떠나 서울로 무작정 상경했던 시골 젊은이들의 사연을 그린 노래다. 그 유행가 2절은 ‘석유등잔 사랑방에 동네 총각 맥 풀렸네’로 시작한다. 그 가사가 시사하듯, 우리의 전통사회에서 비오는 날이나 겨울철 농한기에 농가의 행랑방이나 헛청, 사랑방에서 지푸라기로 새끼 꼬는 일이 남자들에게는 중요한 일과였다.

짚은 농촌에서 그만큼 쓰임새가 많았다. 벚짚은 가마니를 짜고 쇠고삐를 만들고 짚신을 짜는 데도 사용되었다.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데도 요긴하게 쓰였고 지푸라기를 모아 계란 꾸러미도 만들었다. 진흙과 버무려 바람벽을 보수하는 데도 사용되었다. 동네 조무래기들은 어른들 몰래 ‘짚가리’ 중간에서 벚짚을 감쪽같이 빼내어 동굴처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소꿉놀이를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아늑해서 좋았다. 그러나 어른들은 ‘짚가리’ 무너진다고 못하게 했다.

지푸라기를 외양간과 돼지우리에서 거둔 가축의 배설물과 섞어서 만드는 거름인 두엄은 훌륭한 유기 비료로 사용되었다. 지력을 높이고 소출을 늘려서 농가의 생산성 제고에도 유의미한 기여를 했다.

씻골 장수이씨 집안인 처가는 논두렁길을 지나서 산기슭, 완만한 구릉지를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마을 중심부 초입에 있었다. 집 구조는 ㄱ자형 안채와 ㄱ자형 사랑채, 곳간채가 마주보도록 구성된 트인 ㄷ자형이었다. 중국 화북지방의 전통 가옥인 사합원(四合院, 쓰허위안)과 구조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사랑채 왼쪽 2칸은 사랑방이고 가운데 1칸은 대문, 오른쪽 2칸에는 행랑방이 있었다. 행랑방 뒤쪽에는 외양간과 광, 곳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었다. 사랑채 바깥쪽 대문 옆에는 뒷마루가 놓여 있었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공간은 안마당이었다. 곳간채의 바닥은 그냥 흙바닥이

고 외벽은 짚단이나 갈대, 수수깁을 진흙과 버무려 흙벽을 쌓았다.

안채의 중심인 안방 아랫목과 접해 있는 곳에는 부엌이 있었는데, 아궁이 높이 때문에 부엌 바닥은 봉당 보다 보통 한 자 이상 낮았다. 부엌에는 부뚜막이 있었고, 그 위에 밥을 짓는 중간 크기의 솥과 큰 가마솥 2, 3개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다. 가마솥은 물을 끓이거나 소에게 먹일 여물을 쪄고 엿을 고는 데도 사용되었다. 그 을음으로 시커멓게 변색된 부뚜막 상부에는 안방에서 연결되는 다락방이 있었다. 가내 일용품들을 보관하는 벽장으로 사용되었다. 안방과 건넌방 사이에는 대청마루가 있었다.

부엌문을 열고 뒷마당으로 나가면 뒤란이라고 불리는 넓은 공간이 나온다. 뒤란 주위로 바작을 치거나 참죽나무에 의지해 수수깁 울타리를 설치해 외부와의 경계로 삼았다. 부엌에서 가까운 곳에는 돼지우리도 있었다. 변소(뒷간)는 본채와 한참 떨어진 마당 가장자리에 있었으며 그 입구에 젓더미가 반드시 함께 있었다.

가을 추수를 끝낸 쇓골마을 초가집들은 햇 이영으로 지붕을 새로 하고 대청마루의 대들보에 ‘성주가리’를 정성스럽게 보살피느라 분주했다. 성주는 집안의 가장인 대주의 건강과 재수를 관장한다고 믿어 정성껏 위했다. 뒤란의 장독대 옆에는 반드시 터주의 신체(神體)를 만들어서 모셨다. 작은 항아리에 나락을 넣고 작은 ‘짚가리’를 만들어 덮어두었는데, ‘터주가리’라고 했다. 나락은 추수를 마치면 햇곡으로 갈아 넣었다.

그날 신랑인 내 조부 김종기는 장수이씨 집성촌인 그 마을에 사는 색시 이옥준에게 장가들러 왔다. 신랑이 타고 온 그 가마는 혼례식을 마치고 귀가할 때는 신부가 타고 신랑은 처가에서 준비한 말을 타고 귀가 길에 오르는 것이 관례였다. 일찌감치 기별을 받은 처가에서는 이미 잔치 준비를 끝내고 신랑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함진아비를 필두로 일행이 마당에 들어서자 동네 조무래기들이 신랑

에게 재를 던지기 시작했다. 나뭇잎이나 현 창호지에 재를 싸서 던졌다. 집안 어른들은 작은 모닥불 크기의 짚불을 피워놓고 신랑에게 세 번을 넘도록 했다. 이렇게 해야 액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다.

신랑은 처남의 안내로 사랑방으로 들어가 사모관대로 성장을 했다. 옥색 비단으로 된 조끼에 호박 같은 단추를 단 무늬 있는 수박색 마고자를 입고 흰색 옥양목 두루마기를 입었다. 남색 관복에 가죽 각띠를 두르고 머리에는 사포를 썼다. 발에는 버선을 신고 목화형 쇠자를 신었다. 안방에서는 색시가 연지곤지를 불에 찌고 원삼에 족두리를 쓰고 곱게 화장을 하고 있었다. 깃, 고름, 끝동에 붉은 색을 댄 노란 저고리를 입고 낭자를 드린 머리에는 은비녀를 꽂고 뒷당기와 앞당기를 늘어뜨렸다. 양손은 느림수건으로 가렸다.

대례 혹은 초례라고 하는 혼례식 초례청은 안마당에 마련되어 있었다. 차일을 치고 바닥에는 멍석을 깔고 초례상을 놓았다. 신랑과 신부 쪽에는 병풍도 쳐놓았다. 초례상에는 가래떡과 밤, 대추, 곶감 등이 놓였고 콩과 팥 그릇도 올려져 있었다. 양쪽에 놓아둔 호리병에는 부부의 백년해로를 기원하는 소나무와 사철나무를 꽂았다.

대례시간이 되자 신랑은 나무오리를 들고 초례청(醮禮廳)으로 들어와 상에 올려놓고 절을 했다. 그러자 장모가 오리를 치마폭에 싸서 안방으로 가지고 갔다. 이어서 신부가 초례청으로 나와 안채 방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신랑이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신부에게 그 잔을 건네는 교배를 마치자 신랑과 신부는 서로에게 절을 하는 합근례(合尊禮)가 진행되었다. 혼인 예식이 끝나자 초례상 양쪽에서 암탉과 수탉을 품에 안고 있던 이웃 아낙들이 하객들을 향해 던졌다. 닭이 높이 날아올라야 길조라고 여겼다.

대례를 마치자 신부는 신방으로 꾸민 안방으로 들어가고, 신랑은 사랑방으로 가서 처가 식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술과 음식을 먹었다. 신부는 원삼 족두리를 벗지 못하고 금침에 앉아서 신랑을 기다

렸다. 신랑이 들어오자 신혼부부는 마주 앉아 비로소 평생 배우자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 볼 수 있었다. 신랑은 어색한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는 듯, 헛기침을 한번 하고 나서 합환주를 들이켜고는 신부에게도 권했다. 신랑신부가 소곤소곤 몇 마디 대화를 나누며 떡국을 먹는데,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밖에서 구경꾼들이 신방을 엿보기 위해 손가락에 침을 발라 창호지 문에 구멍을 뚫는 소리였다. 숨을 죽이며 웃는 소리도 났다. 대부분 이웃 아낙들이었다. 그 옛날 첫날밤에 새색시를 벗기라는 얘기를 듣고 살가죽까지 벗겼다는 어떤 바보 신랑 때문에 이런 전통이 생겼다고 했다. 시간이 흐르자 구경꾼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신랑신부만 남았다.

신랑은 신부의 족두리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벗겨주었다. 원삼과 속적삼까지 차례로 벗기고 잠자리에 들었다. 촛불을 끌 때는 입으로 훅 불어서 끄면 복이 달아난다고 하여 손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껐다.

첫날밤을 치른 신랑색시는 이튿날 날이 밝자 조반을 먹고 시댁으로 출발했다. 이른바 신행길이었다. 후행으로 친정 오빠가 따라왔다. 신랑은 말을 타고 앞서 가고, 신부는 가마를 타고 그 뒤를 따랐다. 가마 안에는 친정 어머니가 넣어준 간단한 시댁 식구들 선물과 참빗, 요강이 있었다. 그런데 신랑은 말을 생전 처음 타 보는 터라 익숙하지 않았다. 그래도 한나절이나 억지로 타고 오느라 사타구니에 상처가 나고 혈어서 한참 고생했다. 그래서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애꿎은 새색시에게 화를 냈다고 했다.

3

흥노·훈족 동족설을 처음 제창한 사람은 프랑스인 ‘드 기뉴’라고 알려져 있다. 17·18세기 청나라에 와 있던 예수회 선교사들도 민족

이름이 유사한 것에 착안하여 흉노와 훈을 동족이라고 생각했다. 이후 독일의 중국 역사가 ‘히르트’ 등도 중국사에 등장하는 흉노와 유럽사의 훈을 5세기 중엽의 ‘아틸라’대왕이나 10세기 ‘아르파드’대공과 같은 인물들을 통하여 결부시켰다. 19세기 이전의 헝가리 학자들도 헝가리 민족과 훈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1867년 헝가리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일원이 되면서 이러한 견해들은 부정되었다. 헝가리 정부의 공식 입장은 현재 까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부분 게르만족인 오스트리아 파워엘리트들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헝가리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훈족’이라는 사실을 정부에서 인정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실제로 헝가리인들의 미토콘드리아 분석을 해 보면 훈족이 중부 유럽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현지인들과의 통혼을 지렛대로 부족간의 융합을 시도한지 1천년 이상 지난 오늘날에도 헝가리인들 핏속에 적어도 5퍼센트는 아시아계 혈통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 A 2007 study on the mtDNA, after precisizing that “Hungarians are unique among the other European populations because according to history the ancient Magyars had come from the eastern side of the Ural Mountains and settled down in Carpathian basin in the 9th century AD, shows that the haplogroup M,” characteristic mainly for Asian populations”, is “found in approximately 5% of the total”, which thus “suggest that an Asian matrilineal ancestry, even if in a small incidence, can be detected among modern Hungarians.”

According to a 2008 study, the mitochondrial lines of the modern Hungarians are indistinct from that of neighbouring West Slavs, but they are distinct from that of ancient Hungarians (Magyars). Four 10th century skeletons from well documented Magyar individuals were sampled. Two of the four males belonged to Y-DNA Haplogroup N confirming their Uralic origin. None of 100 sampled modern Hungarians carried the haplogroup, and just one of about 94 Szekelys carried it. The study also stated that it was possible that the more numerous pre-existing populations or substantial later migrations, mostly Avars and Slavs, accepted the Uralic language of the elite.

밝혀졌다.’ 유럽의 헝가리 인근 국가 국민들 핏속에는 아시아계 혈통이 0퍼센트로 전혀 없다는 사실과 대비된다.

동족설을 주창하고 있는 유럽이나 일본, 중국의 사학자들도 흥노어로 아빠를 뜻하는 ‘Aba’는 헝가리어로 ‘Apa’ 엄마는 ‘Anya’ 같은 어휘의 유사성에는 착안을 했지만, 정작 헝가리의 국명을 구성하는 ‘가리 Gary’라는 단어의 의미와 그 보편적 쓰임새에 대해서는 통찰하지 못했던 것 같다. 당연한 일이다. 물론, 헝가리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나라 이름 ‘헝가리 Hungary’가 ‘훈족의 땅’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2019년 5월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탑승한 유람선이 침몰하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나는 TV 방송과 각종 언론매체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고수습 과정을 찬찬히 지켜볼 수가 있었다. 헝가리 경찰국장, 총리 등이 직접 나서서 사고수습과정과 수사 개요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그런데 그들 모두 자기들의 국명을 헝가리라고 분명히 발음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주목했다. ‘가리Gary’가 지금도 헝가리인들 일상의 언어로 독자적,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영어권 국가들을 포함, 유럽인들은 그들의 이웃 나라 헝가리를 ‘헝그리, 항그리’와 같이 부르며 ‘가리’에 방점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게 사실이다.

재미있는 것은 ‘Hungary’를 우리말 표기법에 따라 읽으면 ‘훈가리’가 되어, ‘훈족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단순명쾌한 뜻이 된다는 것이다. ‘짚가리’나 ‘난가리’, ‘터주가리’처럼 말이다. 현대 한국어에서 ‘가리’는 사전적으로 ‘곡식, 땔나무 등을 쌓은 더미’라는 의미에 국한되지만, 과거 중국의 한자가 우리말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주기 전에는 사람이나 동물 등의 무리, 집단에도 통용되지 않았을까? 1967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제작되었던 영화「용가리」에서처럼 말이다.

‘가리’라는 말이 아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나라

라에서 지금도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을 알면 헝가리인들도 놀랄 것이다. 특히, 한강하류의 비옥한 지역으로 과거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전쟁전을 벌이던 인천의 서북부 검단과 서곶의 전통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였던 말 중에 가리가 들어가는 어휘는 지금도 적지 않게 남아있다.

논바닥에 알곡이 달린 벼단을 탈곡을 위해 임시 보관하는 ‘낱가리’, ‘벼가리’를 위시하여 타작을 끝내고 수확을 얻은 이후에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었던 벼단들을 한데 모아 마당 귀퉁이에 쌓아놓는 ‘짚가리’, 나무를 베어서 쌓아놓은 ‘나뭇가리’, 대들보에 모서두는 ‘성주가리’, 집을 신축하거나 이사를 하게 되면 뒤란의 장독대 옆에 터주의 신체를 만들어서 짚가리를 덮어두는 ‘터주가리’, 겨울철 땀감인 장작을 패서 한데 모아 수북하게 쌓아올린 ‘장작가리’ 등 많은 어휘들이 남아있다. 함경도 등 일부 지방에서는 대나무를 둥글게 엮어 만든 물고기 잡는 어구를 ‘가리’라고 하는데, 외형은 작은 짚가리처럼 생겼다.

그 옛날 로마제국의 사신으로 훈족 ‘아틸라’대왕의 본거지를 방문했던 ‘프리스쿠스’의 목격담에 따르면, ‘훈족의 일반 주택들은 벼짚과 흙으로 지어졌는데, 지붕은 이엉을 이어 엮었으며 벽체는 흙과 짚, 갈대를 버무려 세웠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 전통 초가집 모습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 유럽에서는 매우 드물게 헝가리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처럼 ‘성+이름’ 순으로 사용한다. 위키토피아는 헝가리인들의 문화를 아래와 같이 소개한다.

‘우랄어족에 속하는 헝가리 국민들은 활기차고 친화적이며, 무엇보다도 가족의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온 집안 식구들이 한 지붕 아래서 함께 거주하며, 조부모가 손자들 양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헝가리인들은 옛날 기마 유목민족의 후손답게 오늘날에도 손님이 찾아오면 이웃들과 어울려 함께

말을 타고 어울리는 행사에 초대한다. 극진한 손님 대접은 헝가리 문화의 중요한 특징이며,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우선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나이나 결혼여부 같은 개인적 질문도 가리낌 없이 하는데, 이것을 상대와 가까워지는 하나의 통과의례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 밖에 해와 달을 숭배하고 오른쪽 보다 왼쪽을 중시하며(子坐午向), 모자를 벗고 사과하는 습관 등도 독특한 헝가리 문화로 소개하고 있다.

4

존 파브르 감독의 영화 「라이온 킹」(2019)의 한 장면이다. 세렝게티 초원의 ‘프라이드랜드’를 조화롭고 평화롭게 다스리고 있는 사자 왕 ‘무파사’는 어린 아들 ‘심바’를 데리고 자신의 왕국을 여기저기 순찰하고 있다. 왕국의 백성인 온갖 동물들은 사자 왕 부자의 행차를 온몸으로 환영한다. 컴퓨터그래픽과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화려하고 아름다운 영상미가 돋보였다.

그때 아들 ‘심바’는 아버지에게 이 평화로운 왕국에서 육식동물들이 죄 없고 연약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을 한다. 아버지 ‘무파사’는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은 바로 조화로운 ‘생명의 순환 Circle of Life’ 과정 때문이라고 말한다.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그 육식동물들도 늙거나 병들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자연의 섭리다. 육식동물들의 몸인 유기물은 그 땅에서 자라는 풀과 나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영양분이 되고, 그 일부가 된다. 덕분에 풍성한 풀과 나뭇잎, 과일들을 다시 초식동물이 먹는다. 육식동물이 다시 초식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사슬인데, 그것이 바로 조화로운 생명의 순환”이라는 것이다.

생명의 순환은 궁극적으로 한자문화권의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 흥망성쇠는 사물이나 개인, 사회, 민족 국가의 흥함과 망함, 성하고 쇠함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생활영어 표현인 ‘라이즈 앤 폴 Rise and Fall’ 보다 다층적이고 포괄적이어서 더 많은 사색과 성찰이 들어가 있는 어휘다.

검단은 생명 순환의 본가(本家)다. 검단은 청동기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랜 역사의 고장이다.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패권을 겨루었던 땅이기도 하다. 검단의 산과 들, 시냇물은 그 땅에서 벌어졌던 온갖 흥망성쇠의 영욕을 수없이 목격하고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진실의 순간 Moment of Truth’에 서 있다. 수천 년에 걸쳐 조화롭게 형성되었던 자연부락들을 통째로 뒤엎는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도시화와 익명성은 동전의 양면이다.

그 옛날 아시아 북방 바이칼호 인근에서 우리 한민족의 이웃으로 함께 살던 흉노족 일부 파위엘리트들은 유럽으로 표표히 떠나갔다. 그리고 수천 년 세월이 흘렀다. 풍속이 달라지고 얼굴 모습까지도 달라졌다. 도시화의 광풍이 휩쓸고 지나가고 나면 수 천 년 온존되었던 검단의 고즈넉한 농경목축사회 풍속과 언어문화도 다만 지난 간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물보다 진한 핏줄처럼 한 세대에서 또 다음 세대로 끊임 없이 이어지는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내가 한 세기 전 조부모의 초례청 풍경과 신행길을 기억하듯이, 흉노족 후손들이 낯선 중부 유럽 땅에서 갓은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나라 이름만은 헝가리를 고집함으로써,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듯이, 검단의 ‘이영’과 ‘초례청’, ‘짚가리’, ‘난가리’ 그리고 ‘터주가리’들도 인천의 서구 사람들 기억의 심연에 잠겨 오랜 세월 잊히지 않고 남아있을 것이다.

김영덕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장·문학평론가

부록

인천 서구 도시마을誌 ③
검단

검단 연표

선사

구석기

원당동 유적(원당동 산120),
불로동 유적(불로동 77-43임)
구석기문화층 확인 및 짝개, 굽개 등
석기 출토

신석기

검단신도시 IV지점 유적
(원당동 산63-2)에서
신석기시대 주거지 확인

청동기

- 대곡동 고인돌(대곡동 산123-1)
가현산 북쪽 능선상에 군집을 이루며 100
여기 확인
- 불로동 유적(불로동 77-43임)
청동기시대 주거지 확인 및
이중구연토기편, 석촉, 석창 등 출토
- 원당동 유적(원당동 811-2공)
능선 따라 일렬로 조성된 석관묘 확인
- 원당동 유적(원당동 651-16)
청동기시대 세장방형 주거지 및 수혈 확인
- 검단동 유적(검단동 698-2) 청동기시대
주거지 확인, 이중구연토기편 및 마제석촉
출토
- 검단신도시 발굴조사 구역 내
각 유적에서 청동기시대 주거지, 수혈,
석관묘 등 다수의 유구 확인.
이중구연토기 및 돌도끼, 돌화살촉, 돌칼,
가락바퀴 등 다양한 석기류 출토

삼국

- 불로동 유적(불로동348-1)에서
주형(舟形)의 가마터(대형옹, 기와, 토기
생산 추정) 및 주거지(3~4C) 확인
- 오류동 유적(오류동 산48)에서
장타원형 수혈 확인. 수혈 내부에서
강경호편, 원형검토대도기편 출토
- 검단신도시 IV지점 유적(원당동 산56)
단면 플라스크형, 평면 원형의 수혈 확인
- 검단신도시 IV지점 유적(마전동 산79-1)
분구묘, 수혈 확인. 분구묘의 매장주체부
일부 확인되었으며 분구묘 내부에서
단경호, 직구호, 환두도자 등 출토
- 검단신도시 I-7지점 유적(불로동 산142)
분구묘, 목관묘 확인
- 검단신도시 II 지점 유적(불로동 290-5)
황화산 동쪽 사면부에서 분묘 확인

B.C. 18

졸본부여에서 비류, 온조 남하.
비류는 미추홀에 도읍을 정함

3C

백제 고대국가로의 성장

4C 중반

고구려 남하정책 실시

427

고구려 평양 천도(장수왕 15)

475

고구려 한강유역 장악(장수왕 63)
현재 서구지역에 김포현, 주부토군 설치
백제 웅진(공주) 천도(문주왕 1)

538

백제 사비(부여) 천도(성왕 16)

- **551**
백제 한강유역 일부 회복(성왕 29)
 - **553**
신라 한강유역 장악(진흥왕 14)
 - **648**
신라 김춘추 당 태종을 만나 나당동맹 체결
 - **660**
백제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
 - **668**
고구려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
 - **670~676**
나당전쟁, 676년 신라의 삼국 통일
- 통일신라**
- 감단신도시 IV지점 유적(원당동 산55)
토기가마, 주거지, 석곽묘 확인
 - 감단신도시 IV지점 유적(원당동 산13-2)
석실묘, 석곽묘 확인
 - 감단신도시 II 지점 유적(불로동 290-5, 산39-3)
석곽묘, 기와가마 및 주거지, 수혈 확인
 - **685**
9주 5소경으로 군현제 개편(신문왕 5)
인천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함
 - **698**
고왕 대조영 발해 건국
 - **751**
불국사와 석굴암 건립(경덕왕 10)

- **757**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재편(경덕왕 16)
경덕왕의 한화정책으로 검포현은
김포현으로 읍호를 변경하고 김포현
(검단지역 포함)은 강제군의 영현(領縣)이 됨
 - **898**
궁예가 왕건 세력의 중심지인
송악에 수도를 정하고, 공암(김포군
양천)·금포(김포군 검단면)·혈구(강화군)
등지의 성을 격파
 - **828**
장보고 창해진 설치
 - **844**
인천 연안의 대당항로 및 해상무역 보호를
위해 강화에 혈구진(穴口鎭) 설치(문성왕 6)
 - **9C말~10C초**
지방 호족세력의 성장. 인천지역에서는
인주이씨(仁州李氏), 부평이씨(富平李氏),
강화위씨(江華韋氏) 등 호족세력 대두
 - **892**
견훤 후백제 건국
 - **901**
궁예 후고구려 건국
- 고려**
- 경서동 녹청자요지(경서동 산146)
현재 인천 국제CC부지에서 확인.
3차례 개축되어 사용
 - 감단신도시 IV지점 유적(원당동 산13-2)
건물지, 석곽묘, 주거지 확인
 - 감단신도시 II 지점 유적(불로동 290-5, 산39-3)
석곽묘, 건물지 확인
 - 왕길동유적(왕길동 산133-1)
고려말~조선초 조성된 기와가마 확인

- **918**
궁에 축출 후고구려 멸망
태조 왕건 고려 건국
- **919**
고려의 궁궐 만월대(滿月臺) 창건(태조 2)
- **926**
발해 거란(遼)에 의해 멸망
- **935**
신라 경순왕 고려에 자진 항복함으로써
신라 멸망(경순왕 9)
- **936**
후백제 고려에 의해 멸망(신검 1)
고려의 후삼국 통일
- **940**
장계군을 수주(樹州)로 승격(태조 23)
- **956**
노비 안검법 실시(광종 7)
- **958**
과거제도 실시(광종 9)
- **993**
거란[遼] 1차 침입
서희의 담판으로 해결(성종 12)
- **995**
지방관제 신설로 수주를 포함한 주요
주·군에 단련사(團練使) 파견(성종 14)
- **1005**
단련사 혁파(목종 8)
- **1010**
거란 2차 침입(현종 1)

- **1018**
거란 3차 침입(현종 9)
지방관제 개편으로 전국
4도호부·8목·56지주군사·
28진장·20현령 설치(현종 9)
김포는 부평 수주의 속현이 됨
- **1019**
귀주대첩(龜州大捷), 고려에
침입한 거란족을 강감찬의 활약으로
구주(龜州)에서 크게 물리침(현종 10)
- **11C 후반~12C**
경서동 녹청자 가마 축조 및 녹청자 제작
- **12C**
검단신도시 마전동·불로동 부지에서
12세기 전반 강진·부안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 청자 다기가 석곡포
51기 중 한 곳에서 출토
- **1107**
윤관의 여진정벌, 9성 건설(예종 2년)
- **1145**
김부식 등이 고려 인종의
명을 받아 삼국시대의 정사인
『삼국사기(三國史記)』 편찬(인종 23)
- **1170**
무신 정변(의종 24)
이후 최씨무신정권의 집권으로 이어짐
- **1182**
수주의 속현이었던 김포현이 분리되어
감무(監務)를 둠(명종 2)
- **1196**
최충헌의 정권 장악
- **1198**
만적의 난

1231

몽골의 고려 침략(고종 18)
이후 1259년(고종 46)까지 약 30여 년간
총 6차례 걸쳐 여·몽전쟁이 계속됨

1232

개경에서 강화로 도읍을 옮김(고종 19)
이후 1270년(원종 11)까지 약 40여 년간
강도(江都)시대가 이어짐

1234

세계 최초 금속 활자로 상경고금예금 인쇄

1236

팔만대장경 새김(~1251)

1259

몽골(이후 원(元))과 강화(講和)를 맺음

1270

무신정권 붕괴 및 개경 환도(원종 11)
삼별초 항쟁이 시작됨

1273

삼별초 항쟁 제주도에서 진압됨
이후 1356년(공민왕 5) 반원정책이
성공하기까지 원의 간섭을 받음

1274

고려 태자 왕거(충렬왕) 원에서
제국대장공주와 혼인. 이후 귀국하여 즉위

1281

일연이 『삼국유사(三國遺事)』
편찬(충렬왕 7)
1285년 완성

1359~1361

홍건적의 고려 침입(공민왕 8)

1366

권세가들이 불법으로 점탈한
토지와 농민을 되찾기 위해
전민변경도감(田民辨整都監) 설치,
신민의 개혁 추진(공민왕 15)

1377

최영(崔瑩)이 강화·통진 등지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고 교동·강화의
사전(私田)을 혁파해 군자(軍資)를 충당케
함(우왕 3)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
직지심체요절(直指心體要節) 간행

14C후반~15C

최이(崔怡)가 세곡운송을 위한
김포굴포(운하)를 계획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지세를 살폈으나 불가하여 중지됨

1388

위화도 회군 명나라의 요동(遼東)을
공략하기 위해 출정했던 이성계 등이
위화도에서 회군해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우왕 14)

조선

- 원당동 유적(원당동 811-2공)
토광묘 확인. 토광묘 내부에서 청동수저
및 분청자대접 출토
- 원당동 유적(원당동 849공)
소성유구 및 분묘 다수 확인. 1호
소성유구 내부에서 '金浦○○' 명 암키와
출토. 분묘 내부에서 분청자대접 및
당나라 개원통보(開元通寶), 청나라
순치통보(順治通寶) 동전 출토.
- 오류동 유적(오류동 산48, 산148)
건물지, 주거지, 수혈 확인
- 왕길동 유적(왕길동 산133-1)
건물지, 주거지, 분묘, 숯가마 확인
- 검단신도시 II 유적(불로동 290-5, 산29-7)
분묘 다수 확인

- **1392**
고려 멸망
태조 이성계 조선 건국
- **1394**
한양 천도
경도전의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편찬
- **1395**
조선의 법궁(法宮) 경복궁 창건(태조 4)
- **1414**
8월에 양천현을 합병해 개정된 금양현에 속했다가 10월에 다시 분리하고 김포를 부평부에 편입함(태종 14)
- **1415**
관찰사 허지의 실능 보고로 경기·인천 등 9읍의 요역과 번상을 면제
『태종실록 30권, 태종 15년 8월 23일』
- **1416**
부평부에 편입돼 있다가 김포현으로 복귀(태종 16)
- **1426**
경기의 부평·양천·김포 등지에 지진이 일어났다.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2월 9일』
- **1446**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세종 28)
- **1454**
『세종실록』 지리지에 “백석산봉수는 경기 김포현에 있는 2개소의 봉수 중 하나로, 현의 서쪽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통진 약산, 남쪽으로 부평 축곶에 응한다”고 기록됨
- **1468**
부평·통진·김포·강화 등지의 수령에게 범을 잡을 때 물이끈을 가려 붙이게 했다
『세조실록 45권, 세조 14년 2월 16일』

- **1469**
『경국대전(經國大典)』 완성
- **1506~1545**
김안로(金安老)에 의해 김포굴포 작업이 착수되었으나 원통현에 이르러서는 중단되었다고 실록에 기록됨
- **1527**
경기 김포현에 지진이 있었음
『중종실록 58권, 중종 22년 2월 22일』
- **1530**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현편에 “토산·황옥이 현의 서쪽 검단리 애갈산에서 난다.”라고 기록됨
- **1592**
임진왜란(선조 25)
- **1597**
정유재란(선조 30)
- **1627**
정묘호란(인조 5) 여진족 후금(後金)의 조선 침략
- **1632**
북성산에 장릉을 모심
김포현이 김포군으로 승격됨(인조 10)
- **1636**
병자호란(인조 14) 청의 조선 침입, 전쟁으로 부평향교 소실
- **1697**
인천·김포·부평 등의 고을에서 지진이 있었음
『숙종실록 31권, 숙종 23년 3월 16일』

● 1760

『여지도서(輿地圖書)』에 김포는 총 8개면, 48리로 구성, 1,566호에 총 8,119명의 주민이 거주

전답은 총 1,565결, 토산에는 황옥, 청옥 등의 보석류와 숯, 민어, 굴, 게 등의 해산물에 주를 이룬다고 기록됨

● 1789

『호구총수(戶口總數)』에 현재 검단지역인 마산면, 검단면, 노장면이 기록됨

마산면은 서원리, 대곡리, 불로리, 목지리 등 4개 리를 관장

검단면은 마전리, 여래리, 신리, 금곡리, 좌동리, 고잔리, 왕길리, 속사곶리, 안동포리 등 9개 리를 관장

노장면은 마전리, 고산후리, 능동리, 원당리, 당하리의 5개 리를 관장

● 1790

7월 10일 김포 검단면의 논밭, 민가, 소금가마에 대한 해일 피해 보고가 있었음
『경조실록 30권, 정조 14년 7월 10일』

● 1801

신유박해(辛酉迫害)(순조 1)
조선 조정의 천주교인에 대한 대규모 박해

● 1861

김정호 『대동여지도』 간행(철종 12)
대동여지도에는 서구의 백석산, 축곡, 모월면 경명현, 원적산 등이 확인되며 백석산과 축곡 경상에는 봉수대가 표시됨.
장도, 호도, 울도 등 섬도 확인됨

● 1866~1871

병인박해(丙寅迫害)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천주교 박해

● 1866

병인양요(丙寅洋擾) 흥선대원군의 천주교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침입(고종 3)

● 1868

흥선대원군의 47개의 서원을 제외한 전국의 서원을 철폐(고종 5)

● 1871

(미국)이양선이 인천과 안산 사이의 해안의 수심을 측정함 『고종실록 8권, 고종 8년 4월 10일 기사 4번째 기사』.

신미양요(辛未洋擾) 미국이 무력으로 조선의 개항을 끌어내기 위해 미해군 함대를 보내 강화해협을 탐측하는 등 강화도를 침략.

● 1875

윤요호 사건(고종 12)

● 1876

강화도조약(조일수호조규) (고종 13)

● 1882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고종 19)
임오군란. 제물포 조약.

● 1883

제물포 개항.
일본, 청나라 등 각국 조계(租界) 설치

● 1884

갑신정변(甲申政變)

● 1894

동학농민운동(고종 31)
갑오개혁(甲午改革)

1894~1895

청일전쟁(淸日戰爭) 조선의 지배를 둘러싸고 중국(청)과 일본 간에 벌어진 전쟁

1895

통진부가 통진군으로 개편되면서 김포군과 양천군이 인천부에 소속(고종 32)

김포 검단면 안동포 포구민들의 세금감면 요청과 이에 대한 처분이 있었음
『공문편안』

을미사변(乙未事變) 10월 8일(양력) 새벽 일본공사 미우라를 비롯한 세력이 경복궁을 기습하여 명성황후를 시해 단발령 강제시행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 시행으로 격분한 유생들은 근왕창의(勤王倡義) 기치 아래 친일내각의 타도와 일본세력의 축출을 목표로 의병을 일으킴

1896

아관파천(俄館播遷) 을미사변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1896년(건양 1) 2월 11일부터 약 1년간 조선의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공사관)에 옮겨 거처한 사건

김포 일원의 군들이 경기도에 속하게 됨

1897

대한제국 선포

1898

탁지부에서 갑오경장 후 혁파한 소금세를 검단면의 소금가마에 재부과한다고 훈령을 내려 논란이 있었음
『제국신문』 1898년 9월 13일 기사

1899

국내 최초의 철도 ‘경인선’개통
(인천-노량진 구간)

1902

경기관찰사 관내 유랑자의 집을 조사해 내부에 보고했는데 김포군에 524호이고, 검단면에 사는 권치정은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일가족이 모두 굶어 죽었다고 함
『황성신문』 1902년 1월 29일 기사
서울 인천 간 전화 개통

1904

러일전쟁(露日戰爭) 만주와 한국의 지배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벌인 제국주의 전쟁.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체결

1905

을사조약(乙巳條約) 체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1906

최익현, 신돌석 의병 봉기

1907

여성 국채보상운동단체 설립에 김포군 검단면 국채보상사무소가 참여

국채보상운동(國債報償運動) 대한제국 정부와 민간의 경제적 독립을 막기위해 일본이 차관(借款)을 대량으로 들여오자, 이에 국민들의 모금으로 국채를 갚자는 운동이 전개됨

1907~1910

정미의병(丁未義兵) 고종의 강제 퇴위·정미칠조약 체결·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전개된 일련의 구국항일무력전. 남서곶을 비롯한 현재 인천 서구와 부평 지역에서 국권 회복을 위한 의병 봉기

1909

안중근 의사,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
농상공부에서 광업법에 의거해 김포군
검단면 소재 철광 42,936평을 일본인
마생음파에게 광업허가를 해준
『황성신문』 1910년 3월 18일 기사

일제강점기

1910

경술국치(庚戌國恥) 일본 제국주의
침략으로 한일합병조약 체결. 대한제국
주권 상실, 일제의 군사 강점 및
식민통치(대한제국 융희 4)

1913

검단면 반월촌 유생 이규원이
농업경영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하여 “경기도의 독행자(篤行者)”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림
『매일신보』 1913년 6월 15일 기사

1914

일제의 행정구역 개편.
부제(府制) 실시 및 군·면 통폐합
김포, 통진, 양천의 3개 군을 병합해
김포군으로 조정
검단면, 노장면, 마산면을 검단면 하나로
통합
독실한 농업가로 이름난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의 서상희가 퇴비제조법을 몰라
농업발전에 영향이 없는 조선농업자를
안타깝게 여겨 경기도청에 제조장을
설치하겠다고 신청해 보조금 5원을 받고,
모범 퇴비장으로 경영
『매일신보』 1914년 3월 31일 기사

1915

대한광복회 조직

1917

김포군 검단면 왕길리의 김연지가 동리에
사는 박봉래를 상대로 경성지방법원
민사부에 양자무효 및 가독(집안을
상속할 만아들의 신분) 상속권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매일신보』 1917년 7월 21일 기사

1919

1월 고종 승하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의열단 조직

1920

주비단 사건으로 검단 당하리
출신 심영택이 관계자로 연루되어
경성지방법원에 송치됨
『고등경찰요사』

1923~1924

암태도 농민항쟁 전남 신안군 암태도의
소작인들이 일제의 식민수탈정책에 편승해
성장한 대지주의 소작료 강제징수에
항거하며 소작쟁의 참여

1923

관동대학살(關東大虐殺) 일본 관동대지진
때 일본 관헌과 민간인들이 한국인과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학살함

1924

김포군 농사장려회에서 각종 권업장려
사항에 대해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를
우량농촌으로 표창
『매일신보』 1924년 4월 14일 기사
개벽에 실린 “신국면을 전개하는
김포군”이라는 기사에서 검단면 불로리의
부락민은 일 년 동안 제조한 것을 충분히
거름 주고도 남아서 익년까지 넘겨
사용하며, 이것의 품평회를 해마다 개최케
한다 함
『개벽』 제50호, 1924년 8월 1일 기사

김포군에서 각 리에다가 도작연부 탈곡 조합을 설립하기로 계획했는데 보조금 관계로 군내면, 고촌면, 검단면 3개 면에 우선적으로 시행

『매일신보』 1924년 10월 26일 기사

김포군에서 행정정리가 있었는데 12월 1일부터 김포-검단면 마전주재소, 양서면-송정주재소, 대곶면-울생주재소 3개소에 주재소를 폐지

『매일신보』 1924년 12월 11일 기사

김포군 내 유지들의 발기로 김포군 검단면장 김중혁의 10주년 근속 기념식이 준비됐는데 김면장은 한해와 수해로 연민들의 생활이 즐겁지 않은 때라 축하연은 온전치 못하다고 하고, 기념품까지 반환해 일반 서민들의 칭송이 있었음

『매일신보』 1924년 12월 15일 기사

1926

6·10 만세운동 순종의 인산일(因山日)인 6월 10일을 기해 만세시위로 일어난 학생중심의 민족독립운동

1927

신간회 결성

김포군 검단면 오류리 161번지에 사는 김담순이 아버지를 찾기 위해 같은 곳에 사는 김순여와 개성군 영북면 길상리 138번지에 사는 강석윤에 대한 호적 말소 청구, 서자 확인 소송을 경성지방법원에 제기
『매일신보』 1927년 6월 23일 기사

1928

원산총파업 일본인 경영진의 조선인에 대한 구타와 차별에 항거하여 원산노동연합회 산하 노동조합원 2,200여 명이 참여한 한국노동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파업.

1929

광주학생항일운동

1931

일제의 만주 침략

1932

이봉창, 윤봉길 의사 의거

검단공립보통학교 개교
(현 검단초등학교의 전신)

『속주증보강도지(續修增補江都誌)』 (1932)에 백석산 봉수에는 봉수군 96명, 별장(別將) 1인, 감관(監官)과 감고(監考) 몇 명으로 구성되었다고 기록됨

1934

김포군 검단면 검단공립보통학교가 학예회를 개최

『매일신보』 1934년 2월 27일 기사

김포군 검단면 검단공립보통학교에서 농사감습회를 개최

『매일신보』 1934년 2월 27일 기사

검단면 여래농촌진흥회에서 남녀 가마니 짜기 경기대회를 거행

『매일신보』 1934년 2월 27일 기사

부인조까지 출동한 김포군 가마니 짜기 경기에서 검단면 마전리 홍재선, 홍재철 조가 2등으로 입상

『매일신보』 1934년 3월 27일 기사

김포군에서 농촌부녀자에게 농촌진흥회 요지를 인식시키고자 검단면

검단공립보통학교에서 강연회를 개최

『매일신보』 1934년 4월 26일 기사

김포군 우량농촌진흥회 표창식에서 검단면 여래농촌진흥회를 2등 금 10원으로

표창하고, 도 농회 독농가 표창식에서

검단면 대국리의 이정하를 표창

『매일신보』 1934년 6월 2일 기사

김포연초소매인조합 제3회 정기총회에서 우량소매인으로 검단면 왕길리 경희순을 표창

『매일신보』 1934년 8월 19일 기사

1935

김포군 검단면 심세택, 김사적, 이견영, 김낙동, 문희순, 이광순, 김경흙, 박경래, 신기영, 권리옥 면협의회원 당선
『매일신보』 1935년 5월 25일 기사
김포 검단면 권학규가 각 군 학평에 당선
『매일신보』 1935년 7월 7일 기사

1936

김포군 검단면 불로리에 사는 윤이섭의 집에 있는 암소가 일시에 송아지 세 마리를 낳자 김포군에서 이를 관찰하기 위해 잘 보관하여 두기로 했다고 함
『매일신보』 1936년 6월 28일 기사

1937

항국신인의 서사 제정, 신사 참배 강요

1938

김원봉의 조선 의용대 조직
창신헌술강습소개강
(현 창신초등학교의 전신)

1939

국민징용령 강제 연행 시작되어
1945년까지 45만여 명이 끌려감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창씨 개명 실시

194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건국강령 발표 및 대일 선전포고
김포군 검단공립국민학교가 학급을 증설하는 데 경비문제를 겪자 동 회장 이견영과 불로리의 김병영이 금 1천 원씩을 자진 기부하여 주민들을 감격시켰다고 함
『매일신보』 1941년 10월 7일 기사

1942

독립 동맹 및 조선 의용군 결성

1943

징병제·학병제의 실시로 조선 청년들이 일본군으로 끌려감

1944

조선총독부의 여자 정신대 근무령 공포 및 시행

해방 이후

1945

8·15 광복.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미·소 군정 실시, 모스크바 3상 회의 개최.
일본식 지명인 정(町)으로 변경된 마을 이름을 복원시킴

1946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 소집.
38선 이북으로 통행금지

1947

제2차 미·소 공동위원회 개최.
여운형 피살

1948

김구·김규식 등 남북 협상 참가
제주 4·3 항쟁. 남한 단독 총선거 실시.
대한민국 정부수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1949

정부 농지개혁법 공포. 김구 순국
창신국민학교 6학급 개교

1950

한·미 상호방위원조협정 조인.
북한의 남침으로 6·25전쟁 발발

- **1951**
소련 유엔 대표, 38선 정전회담 제의
검단초등학교 오왕분교 인가
(현 단봉초등학교)
- **1952**
발체 개헌안 통과
- **1953**
포로교환 및 휴전 협정 조인
- **1954**
개헌안 사사오입 통과
- **1955**
오왕분교에서 단봉국민학교로 승격
- **1956**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실시
대통령에 자유당 이승만, 부통령에 민주당
장면 당선
- **1958**
진보당 사건 발생으로 위원장 조봉암 등
간부 7명 간첩 혐의로 구속
- **1960**
4·19 혁명 마산에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
서울 시내 대규모 학생 총궐기
이승만 하야
- **1961**
5·16 군사 쿠데타 발발
- **1962**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공용 연호 서기(西紀)로 변경
- **1963**
대통령 선거 실시, 박정희 당선

- **1964**
한·일 회담 반대 시위
월남 국군파견 협정 체결
- **1966**
한·일 협정 조인
- **1969**
3선 개헌 국민투표 법안 통과
- **1970**
새마을 운동 시작
서울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분신
- **1972**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유신헌법 확정
- **1975**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발표
- **1979**
부마항쟁
중앙정보부 부장 김재규가
대통령 박정희 피격 살해
유신헌제 몰락 신군부 쿠데타
- **1980**
5·18 광주민주화운동
- **1983**
KBS 이산가족 찾기 TV 생방송
- **1985**
당시 인천 북구 원창동-청라도-일도-
장도를 잇는 방조제 완공(7,400m)
간척 및 연륙 사업으로 1984년 기준
「도서 및 낙도 현황」 자료에서 최근 2년간
78개의 섬이 없어진 것으로 밝혀짐
『경향신문』 1985년 9월 28일

1986

향토사학자 이훈익 선생,
인천지방향토문화연구소 개설
제10회 아시안게임 서울 개최

1987

6월 민주항쟁

1988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최
인천직할시 서구 설치

1989

헝가리, 폴란드 등 동구권 국가와 수교

1990

소련과 국교 수립
황어강터 독립만세운동을 이끈 심혁성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1991

UN 총회에서 남북한 UN 가입안 만장일치
통과

1992

중국과 국교 수립

1993

수도권매립지 개장과 함께 개통한
쓰레기수송로의 도로이정표가 정확히
표기돼있지 않아 검단면 소재 기업체와
주민들이 김포군 당국에 이정표 수정을
요구
『김포신문』 1993년 3월 8일 기사
배달환경연구소 연구진이 수도권매립지
종합환경조사 결과 수도권쓰레기장이
입지, 시설, 환경오염 등 모든 면에서
기준치 이하라고 지적하고 대책 촉구
『김포신문』 1993년 4월 19일 기사
금융실명제 실시

1994

수도권매립지 검단천 오염에 양촌면
주민들이 대책을 촉구하자 환경처가
2001년까지 검단면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일원 29만 평에 모두 1천4백15억 원을
투자해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키로 함
『김포신문』 1994년 4월 18일 기사

김포군 농촌지도소에서 미꾸리 50만
마리를 검단면 대곡리에 거주하는
윤희준에게 분양하고 먹이 길들이기,
수질관리 방법 등을 기술지도
『김포신문』 1994년 5월 30일 기사

북한 김일성 주석 사망

김포군 검단면에 위치한 서해아파트,
승보빌라 등지에 물자를 동원해 급수하는
등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
『김포신문』 1994년 8월 1일 기사

김포 쓰레기매립지와 관련해 정부가
검단면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1백만 원을
지원한 데 이어 2차로 지원되는 90억 원의
보상금에 대한 부락별 배정이 잠정 결정
『김포신문』 1994년 10월 17일 기사

1995

인천직할시, 인천광역시로 승격
검단면이 인천광역시로 편입
지방 자치제 확대(자치단체장 선거 등)
옛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당하동 출신 독립운동가 심영택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다.

검단 대곡동 지석묘군,
인천시지경문화재 기념물 제33호 지정
심즙 신도비,
인천시지경문화재 유형문화재 제32호
지정

1996

인천시가 개발 논쟁이 일고 있는 4백
99만평 규모의 동아건설 매립지에 대한
본격적인 타당성 검토에 들어감
『매일경제』 1996년 5월 15일

1999

전 김포시 검단면 환원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강화군·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 추진위원회' 설치
조례안과 '도의회 강화군 및 검단면 환원
추진위원회'를 의결, 행정과 의회의
양대기구를 신설
『김포신문』 1999년 5월 3일 기사
인천 도시철도 1호선 개통

2000

인천시 서구 '검단지역 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 연합회' 소속 주민 500여 명이
서구청 제2청사부지에서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및 대중교통 확충 등을 요구하며
대규모 집회
『중부일보』 2000년 1월 10일 기사
'검단지역 선거구 획정 백지화 투쟁위원회'
소속 주민 400여 명이 검단동과
강화군과의 선거구 통합에 반발해
여의도와 인천시청 앞에서 대규모
항의집회
『중부일보』 2000년 2월 1일 기사
검단사회단체협의회가 검단동과
강화군과의 선거구 통합안이 확정될 경우
수도권지역 쓰레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집단실력 행사를 벌이기로 결의
『중부일보』 2000년 2월 3일 기사
검단동과 강화군을 통합하는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중부일보』 2000년 2월 10일 기사
인천시 서구 검단주민들이 주민총회를
갖고 선거구획정 헌법소원 및 단일후보
당선운동을 전개기로 함
『중부일보』 2000년 2월 18일 기사
강화·검단 환원 추진의 주민 투표 결과
강화군민 70.3%, 인천시 서구 검단동
주민 62.5%가 강화군 및 검단동의 경기도
환원에 찬성
『중부일보』 2000년 3월 18일 기사

검단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검단 사회단체 협의회'가 선거구 획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헌법소원을 제출
『한겨레』 2000년 4월 14일 기사

최기선 인천시장과 강부일 시의회 의장이
강화, 검단 환원운동의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서 발표
『김포신문』 2000년 6월 12일 기사

인천시 서구가 검단동 불로향장민원실에
무인 민원발급기를 설치해 시범 운영기로 함
『중부일보』 2000년 8월 1일 기사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추진위원회와
불로동 김포 환원추진위원회에서
김포시민과 검단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김포시 환원 서명운동 전개
『김포신문』 2000년 10월 30일 기사

인천시가 건설교통부에 검단지역 대중교통
불편 조정을 신청
『중부일보』 2000년 12월 11일 기사

2001

인천 시내버스가 검단에서 김포까지 연장
운영
『중부일보』 2001년 1월 3일 기사
인천국제공항 개항
김포시민연대가 검단지역 김포시 환원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부천지청에 강력 수사의뢰 촉구
『김포신문』 2001년 7월 2일 기사

2002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개원

200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의해 실시된
악취측정 결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악취는 새벽 시간대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악취 발생빈도와
평균악취가 사월마을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중부일보』 2003년 3월 5일 기사

경기도가 신임 손학규 지사를 맞아 검단과 강화의 환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이와 관련한 모든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
『김포신문』 2003년 12월 29일 기사

2004

한백륜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 지정

2005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부설
향토문화연구소 개소

2008

김안정 묘 출토 묘비,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7호 지정
검단선사박물관이 서구 원당동에 개관
『경인일보』 2008년 11월 29일 기사

2009

국가보훈처가 인천 출신 독립운동가
유완무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하고
건국훈장애족장을 추서
『인천신문』 2009년 4월 6일 기사

2010

반남박씨 대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9호 지정
의령남씨 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0호 지정
평산신씨 종중 묘역,
인천시지정문화재 기념물 제61호 지정

2011

정서진 표지석 제막식 및 해넘이 축제 개최

2012

2월 16일: 검단초등학교 77회 졸업식에
‘3대 동문가정’이 탄생해 충동문화가
8가정에 자랑스러운 동문상 전달
『경인일보』 2012년 2월 17일 기사

2014

제17회 아시안게임 인천 개최

2016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개통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주변에 금속폐기물
처리시설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인천
서구 왕길동 사월마을에 쇳가루가 날려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나
서구청은 안일하게 대처
『MBC』 2016년 8월 14일 기사
인천시와 서구청이 인근 공장에 대한 단순
조사로 뚜렷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자
사월마을 주민들이 마을과 공장 중 하나의
집단 이주를 요구하고 나섬
『경기일보』 2016년 9월 8일 기사
인천 서구가 지역 내 사월마을을 주요 오염원
확인을 위해 시·구 합동 특별조사 실시
『중부일보』 2016년 11월 9일 기사

2017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로 전환.
인천기점~서인천IC 10.45km 구간에 대한
관리권을 인천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수
사월마을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사월마을 환경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각종 환경피해에 집단행동
『경기일보』 2017년 1월 23일 기사
환경부가 환경오염이 심각한 전북 익산시
함라면 소재 강점마을과 인천시 서구
왕길동 소재 사월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에 착수
『YTN』 2017년 12월 28일 기사
인천 서구가 주민이 직접 동 이름을 정하는
‘검단지역 행동동 명칭 변경’ 추진
『경인일보』 2017년 7월 28일 기사

2018

행정안전부가 서구의 행정수요를 고려해 1개국(局) 증설 승인. 현재 4개국(총무, 복지문화, 경제환경, 도시관리)에서 5개국으로 1개국을 증설 예정

검단 주민들이 동별로 동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숫자나열식 행정동명 명칭 변경

『경인일보』 2018년 4월 27일 기사

검단고의 문종배 미술교사와 학생들이 전시한 '종이로 만드는 평화의 소녀상'이 판매금 전액을 '나눔의집'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교육 전문쇼핑몰에서 판매

『기호일보』 2018년 7월 9일 기사

서구 마전동과 불로동 일대에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아우르는 유구 발견

『기호일보』 2018년 7월 26일 기사

검단지역 발굴 문화재 이전 보관 결정

『기호일보』 2018년 7월 27일 기사

행정안전부의 승인으로 인천시 서구가 1개국을 증설해 6개국 체제로 확대

『기호일보』 2018년 8월 7일 기사

2019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카드와 모바일 기반의 지역화폐 플랫폼 '인천e음' 구축
『인천일보』 2019년 5월 16일 기사

인천 검단신도시가 2기 신도시 가운데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 이행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적 자연 사업으로 원당~태리 간 도로 신설이 지적됨

『인천일보』 2019년 10월 3일 기사

인천지역 동 가운데 인구 규모가 가장 컸던 서구 당하동이 마전동으로 분동

『경인일보』 2019년 11월 5일 기사

환경부 조사 결과 사월마을의 70% 가구가 주거지역으로 부적합 판정

『경인일보』 2019년 11월 20일 기사

인천시립 마전도서관 개관

※ 검단지역 고고유적 조사 사항은 박성우·이희인, 2018, 『토층에 담긴 인천의 시간』, 인천학연구총서 39를 참조함

인천 서구
도시마음誌 8

검 단

인천서구문화원향토지 18

- 발행일** | 2019년 12월
- 발행처** | 인천광역시 서구문화원
- 발행인** | 정군섭 인천서구문화원 원장
- 기 획** |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이윤희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서덕현 인천서구문화원 사무국장
- 집 필** | 강덕우 사)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
강옥엽 사)인천개항장연구소 연구위원
김병욱 인천대학교 명예교수
김슬기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구원
김영덕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소장
김윤식 전 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손민환 부평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송수연 어린이청소년책 작가연대
윤미란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이승희 인하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초빙교수
이원규 전 동국대학교 교수
정영진 인하대학교 프리언어학부 강사
이윤희 인천서구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원
- 편 집** | 이윤희 주영주

ISBN 979-11-952675-7-6

ISBN 979-11-952675-4-5(세트)

※ 본 책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